

ETHER LIBRARY 0009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Nietzsche · 1883–1885

철학 · 종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Ein Buch für Alle und Keinen

프리드리히 니체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Also sprach Zarathustra. Ein Buch für Alle und Keinen

부제 모두를 위한,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

지은이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883~1885년. 제1~3부는 켐니츠의 에른스트 슈마이츠너에서 나왔고,
제4부는 1885년 니체가 자비로 몇십 부만 찍었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1883~1885)를 독일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19세기의 원래 철자(Theil, gieng, Räthsel 같은)를 그대로 둔 퍼블릭도메인 독일어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영어 번역(토머스 커먼, 1909)은 뜻이 막히는 자리에서 대조하는 데만 썼습니다.

서설과 네 부 80편, 원문 3,471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고 옮겼습니다. 노래와 시는 행의 수까지 원문과 같습니다.

저본을 바로잡은 곳

저본 전자 텍스트에는 인쇄본을 기계로 읽어 들이면서 생긴 듯한 오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옛 철자 'gieng'(갔다)이 'gierig'(탐욕스럽게)로 찍힌 자리, 움라우트가 빠진 낱말, 같은 절 번호가 두 번 나오는 자리 같은 것들입니다. 모두 앞뒤 문맥에 따라 바로잡아 옮겼고, 본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이 책의 인물들은 차라투스트라부터 성자, 난쟁이, 왕들, 나귀까지 **모두 서로 해라체로 말합니다.** 독일어의 du와 ihr는 서사시와 성서에서 신과 인간, 왕과 거지가 똑같이 쓰는 너나들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댓말도, 말의 등급이 바뀌는 자리도 없습니다.

2인칭은 「그대」와 「그대들」로 옮겼습니다. 「너」는 서설에서 어릿광대가 줄타기 광대를 조롱하는 한 자리에만 씁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나는 가르치노라」, 「나는 사랑하노라」 처럼 1인칭으로 선포할 때만 「-노라」를 썼습니다. 가르침 전체를 예스러운 어미로 덮으면 선포가 선포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로만 옮긴 말

책 전체를 꿰는 말은 한 가지로만 옮겼습니다.

> Übermensch는 흔히 '초인'으로 옮겨 온 말이지만 **위버멘쉬**로 소리를 옮겼습니다. 인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 건너가는 자라는 뜻이 '초인'에서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 der letzte Mensch → 마지막 인간, Untergang → 몰락(해가 지다와 같은 말), Wille zur Macht → 힘에의 의지, ewige Wiederkunft → 영원회귀, Geist der Schwere → 중력의 영, der grosse Mittag → 위대한 정오.
>
> **Lust**는 「기쁨」으로, **Wollust**는 「쾌락」으로 갈랐습니다. 「모든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의 기쁨과 「세 가지 악」의 쾌락은 다른 말입니다.
>
> Mitleid는 「동정」, Erbarmen은 「연민」입니다.

되풀이되는 노래와 후렴은 흐름이 달라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맞췄습니다. 편마다 끝을 맺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3부와 제4부에 두 번 나오는 한밤의 노래, 「일곱 개의 봉인」의 후렴이 그렇습니다. 각 부 머리의 표어는 앞선 편의 구절이어서, 본문과 같은 글자로 옮겼습니다.

성경의 말

니체는 루터 성경의 말투를 비틀어 예언서처럼 썼습니다. 비튼 자리에는 한국어 성경(개역)의 낱말을 빌려, 원문의 독자가 느꼈을 비틀림이 우리말에서도 보이게 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뜻이 뒤집히는 몇 곳에만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 밖에

각주 34개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고유명사, 성경과 괴테를 비튼 자리, 처음 나오는 몇몇 개념어만 밝혔습니다. 철학적 해설이나 상징 풀이는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니체의 말놀이는 우리말 말놀이로 살리려 했고, 그럴 수 없는 자리에는 원문을 괄호 안에 함께 적었습니다.

니체가 즐겨 쓴 줄표는 뜻에 따라 쉼표나 말줄임표로 옮기거나 문장을 나누었습니다.

원문에서 글자 사이를 벌려 강조한 말은 굵게 적었습니다.

차례

제1부 11

차라투스트라의 서설 12

차라투스트라의 말 32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33

덕의 강좌에 대하여 36

배후 세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40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44

환희와 열정에 대하여 47

창백한 범죄자에 대하여 50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 54

산 위의 나무에 대하여 57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에 대하여 61

전쟁과 전사들에 대하여 64

새로운 우상에 대하여 67

시장의 파리들에 대하여 71

순결에 대하여 76

벗에 대하여 79

천 개의, 그리고 하나의 목표에 대하여 82

이웃 사랑에 대하여 86

창조하는 자의 길에 대하여 89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하여 93

독사에게 물린 일에 대하여 96
아이와 결혼에 대하여 99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102
베푸는 덕에 대하여 106

제2부 113

거울을 든 아이 114
행복한 섬에서 118
동정하는 자들에 대하여 122
성직자들에 대하여 126
덕 있는 자들에 대하여 130
잡배에 대하여 135
타란툴라에 대하여 139
이름난 현자들에 대하여 144
밤의 노래 148
춤의 노래 151
무덤의 노래 155
자기 극복에 대하여 160
숭고한 자들에 대하여 165
교양의 나라에 대하여 169
티 없는 인식에 대하여 173
학자들에 대하여 177
시인들에 대하여 180
큰 사건들에 대하여 185
예언자 190
구원에 대하여 195
처세의 지혜에 대하여 202
더없이 고요한 시간 206

제3부 211

방랑자 212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 216

뜻하지 않은 행복에 대하여 223

해 뜨기 전에 228

왜소하게 만드는 덕에 대하여 233

감람산에서 241

그냥 지나쳐 가기에 대하여 246

배신자들에 대하여 251

귀향 257

세 가지 악에 대하여 262

중력의 영에 대하여 268

낡은 서판과 새로운 서판에 대하여 274

건강을 되찾는 자 301

크나큰 동경에 대하여 310

또 다른 춤의 노래 314

일곱 개의 봉인 (또는 '그렇다와 아멘'의 노래) 320

제4부, 마지막 부 326

꿀 봉헌 327

절박한 외침 332

왕들과의 대화 337

거머리 343

마술사 348

퇴직 359

가장 추한 인간 365

스스로 거지가 된 자 372

그림자 378

정오에 383
환영 인사 387
만찬 395
더 높은 인간에 대하여 398
우울의 노래 413
학문에 대하여 420
사막의 딸들 틈에서 424
깨어남 434
나귀 축제 439
밤을 헤매는 자의 노래 445
징조 456

제1부

차라투스트라의 서설

1

차라투스트라는 서른 살이 되었을 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정신과 고독을 누리며 열 해 동안 싫증을 몰랐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마음이 변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침노을과 함께 일어나 해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비추어 줄 자들이 없다면 그대의 행복이 다 무엇이겠는가!"

"열 해 동안 그대는 이곳 내 동굴까지 올라왔으나, 내가 없었다면,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이 없었다면, 그대는 그대의 빛에도 이 길에도 진작 물렸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마다 그대를 기다렸다가 그대가 넘치도록 지닌 것을 받아 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대를 축복했다."

"보라! 나는 내 지혜에 물렸다. 꿀을 너무 많이 모은 벌처럼. 이제 내게는 받으려고 내미는 손들이 필요하다."

"인간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다시 한번 제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이 한번쯤은 제 풍요를 기뻐하게 될 때까지, 나는 베풀고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러려면 나도, 저녁마다 바다 너머로 넘어가 지하 세계에까지 빛을 가져다주는 그대처럼,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대 넘치도록

풍요로운 별이여!"

"내가 내려가려는 저 인간들의 말로 하자면, 나도 그대처럼 **몰락해야** 한다."[1]

"그러니 나를 축복하라, 너무나 큰 행복마저 시샘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대 고요한 눈이여!"

"넘쳐흐르려 하는 이 잔을 축복하라. 잔에서 금빛 물이 흘러나와, 그대 환희를 되비추는 빛을 온 누리로 실어 나르도록!"

"보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려 하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려 한다."

이렇게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2

차라투스트라는 홀로 산을 내려왔고, 도중에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숲에 들어서자, 숲에서 풀뿌리를 캐려고 자신의 거룩한 오두막을 나선 한 노인이 불쑥 그의 앞에 나타나더니 차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방랑자는 내게 낯설지 않다. 여러 해 전에 그는 이곳을 지나갔다. 그의 이름은 차라투스트라였다. 그러나 그는 변했다. 그때 그대는 그대의 재를 산으로 날랐다. 오늘은 그대의 불을 골짜기로 나르려는가? 불 지른 자가 받을 벌이 두렵지 않은가?

그래, 차라투스트라를 알아보겠다. 그의 눈은 맑고, 그의 입가에는 역겨움이 숨어 있지 않다. 그는 춤추는 자처럼 걸어오지 않는가?

변했구나, 차라투스트라는. 아이가 되었구나, 차라투스트라는. 깨어난 자로구나, 차라투스트라는. 그런데 이제 잠든 자들 곁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그대는 바닷속에서 살듯 고독 속에서 살았고, 바다가 그대를 떠받쳐 주었다. 슬프다, 그대는 뭍에 오르려 하는가? 슬프다, 그대는 다시 제 몸을 제 힘으로 끌고 다니려 하는가?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성자가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숲으로, 황야로 들어갔겠는가?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제 나는 신을 사랑한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은 내게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을 사랑하다가는 나는 죽고 말 것이다.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내가 사랑 이야기는 왜 꺼냈던가! 나는 인간들에게 선물을 가져가는 길이다."

성자가 말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차라리 그들의 짐을 조금 덜어 함께 져 주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이로울 것이다. 그것이 그대에게도 이롭기만 하다면!

그리고 굳이 주고 싶거든 적선 이상은 주지 마라. 그것도 그들이 구걸하게 한 다음에 주어라!

"아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나는 적선하지 않는다. 적선할 만큼 가난하지는 않다."

성자는 차라투스트라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대의 보물을 받아들이도록 애써 보아라! 그들은 은자들을 의심하며, 우리가 베풀려고 온다고는 믿지 않는다.

우리의 발소리는 그들에게 너무 외롭게 골목길을 울린다. 한밤중, 해 뜨기 한참 전에 잠자리에서 한 사내가 걸어가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그들은 아마 저 도둑이 어디로 가려는가 하고 속으로 물을 것이다.

인간들에게 가지 말고 숲에 머물러라! 차라리 짐승들에게 가거라! 어찌하여 그대는 나처럼, 곰들 가운데 한 마리 곰으로, 새들 가운데 한 마리 새로 살려 하지 않는가?

"그러면 성자는 숲에서 무엇을 하는가?" 차라투스트라가 물었다.

성자가 대답했다. 나는 노래를 지어 부른다. 노래를 지을 때면 웃고, 울고, 웅얼거린다. 그렇게 나는 신을 찬양한다.

노래하고, 울고, 웃고, 웅얼거리며, 나는 나의 신인 그 신을 찬양한다. 그런데 그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가져왔는가?

이 말을 듣자 차라투스트라는 성자에게 인사하고 말했다. "내가 그대들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보다 어서 떠나게 해 다오. 내가 그대들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도록!" 그렇게 노인과 사내는 두 소년이 웃듯이 웃으며 서로 헤어졌다.

그러나 홀로 남자 차라투스트라는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늙은 성자는 제 숲에 있느라 **신은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구나!"

3

차라투스트라가 숲에 잇닿은 가장 가까운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곳 시장에는 줄타기 광대의 재주를 보여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터라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그대들에게 위버멘쉬를 가르치노라.[2]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모든 존재는 자기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창조해 왔는데, 그대들은 이 거대한 밀물의 썰물이 되어 인간을 극복하느니 차라리 짐승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인간에게 원숭이란 무엇인가? 웃음거리이거나 쓰라린 부끄러움이다. 위버멘쉬에게 인간 또한 바로 그러해야 한다. 웃음거리이거나 쓰라린 부끄러움.

그대들은 벌레에서 인간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그대들 안의 많은 것이 아직 벌레다. 한때 그대들은 원숭이였고, 지금도 인간은 어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다.

그대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도 식물과 유령 사이의 불화요, 식물과 유령이 뒤섞인 잡종일 뿐이나, 그렇다고 내가 그대들에게 유령이나 식물이 되라고 하는가?

보라, 나 그대들에게 위버멘쉬를 가르치노라!

위버멘쉬는 대지의 뜻이다. 그대들의 의지가 이렇게 말하게 하라. 위버멘쉬가 대지의 뜻**이어라**!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간청하노라. **대지에 충실하라.** 그리고 대지 너머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알든 모르든 독을 타는 자들이다.

그들은 삶을 경멸하는 자들이요, 죽어 가는 자들, 스스로 독에 물든 자들이다. 대지도 이제 그들에게 지쳤다. 그러니 떠나가게 두라!

한때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 가장 큰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그와 함께 그 모독자들도 죽었으니, 이제는 대지를 모독하는 것,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의 내장을 대지의 뜻보다 더 높이 받드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다!

한때 영혼은 몸을 경멸하는 눈으로 내려다보았고, 그때는 그런 경멸이야말로 가장 높은 것이었으니, 영혼은 몸이 여위고 흉측하고 굶주려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하면 몸에서도 대지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여겼다.

오, 그 영혼이야말로 여전히 여위고 흉측하고 굶주려 있었다. 잔인함이 그 영혼의 쾌락이었다!

그러나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도 내게 말해 보라. 그대들의 몸은 그대들의 영혼에 대해 무엇을 일러 주는가? 그대들의 영혼이야말로

가난이요 더러움이요 비루한 안락이 아닌가?

진실로,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고도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바다는 되어야 한다.

보라, 나 그대들에게 위버멘쉬를 가르치노라. 그가 바로 그 바다다. 그 바다에서라면 그대들의 크나큰 경멸도 가라앉을(untergehen) 수 있다.

그대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나큰 경멸의 시간이다. 그대들의 행복마저 역겨워지고, 그대들의 이성과 덕도 똑같이 역겨워지는 시간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다. "내 행복이 다 무엇이냐! 그것은 가난이요 더러움이요 비루한 안락이다. 그러나 나의 행복이라면 존재 그 자체를 정당화해야 마땅하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다. "내 이성이 다 무엇이냐! 내 이성은 사자가 먹이를 탐하듯 앎을 탐하느냐? 그것은 가난이요 더러움이요 비루한 안락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다. "내 덕이 다 무엇이냐! 덕은 아직 한 번도 나를 미쳐 날뛰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나의 선과 나의 악에 얼마나 지쳤는가! 그 모든 것이 가난이요 더러움이요 비루한 안락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다. "내 정의가 다 무엇이냐! 내가 잉걸불이요 숯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잉걸불이요 숯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다. "내 동정이 다 무엇이냐! 동정이란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가 아니냐? 그러나 나의 동정은 십자가형이 아니다."

그대들은 벌써 그렇게 말해 보았는가? 벌써 그렇게 외쳐 보았는가? 아, 그대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내가 벌써 들었더라면!

그대들의 죄가 아니다. 그대들의 자족이 하늘에 사무친다. 죄를 지을 때조차 그대들이 부리는 인색함이 하늘에 사무친다!

그 혀로 그대들을 핥아 줄 번개는 대체 어디 있는가? 그대들에게 접종해야 할 광기는 어디 있는가?

보라, 나 그대들에게 위버멘쉬를 가르치노라. 그가 바로 그 번개요, 그가 바로 그 광기다!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하자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줄타기 광대 이야기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이제 그 광대를 직접 보게 해다오!" 그러자 군중이 모두 차라투스트라를 비웃었다. 줄타기 광대는 그 말이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4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을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짐승과 위버멘쉬 사이에 묶인 밧줄, 심연 위에 걸린 밧줄이다.

건너가기도 위험하고, 길 위에 있기도 위험하고, 뒤돌아보기도 위험하고, 몸서리치며 멈춰 서기도 위험하다.

인간에게서 위대한 것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다리라는 데 있고, 인간에게서 사랑할 만한 것은 그가 **건너가는 것**(Übergang)이며 **몰락하는 것**(Untergang)이라는 데 있다.

나는 사랑하노라, 몰락하는 자로서가 아니면 살 줄 모르는 자들을. 그들이야말로 건너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크게 경멸하는 자들을. 그들은 크게 우러르는 자들이요, 저편 기슭을 향한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몰락하고 제물이 될 까닭을 굳이 별들 너머에서 찾지 않고, 대지가 언젠가 위버멘쉬들의 것이 되도록 대지에 제 몸을

제물로 바치는 자들을.

나는 사랑하노라, 인식하기 위해 살고, 언젠가 위버멘쉬가 살게 하려고 인식하려는 자를.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몰락을 원한다.

나는 사랑하노라, 위버멘쉬에게 집을 지어 주고 그를 위해 대지와 짐승과 식물을 마련해 두려고 일하고 발명하는 자를.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몰락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자신의 덕을 사랑하는 자를. 덕이란 몰락에의 의지요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정신 한 방울조차 자신을 위해 남겨 두지 않고 온전히 제 덕의 정신이 되려는 자를. 그렇게 그는 정신으로서 다리를 건너간다.

나는 사랑하노라, 제 덕을 자신의 성향이자 숙명으로 삼는 자를. 그렇게 그는 제 덕을 위해 더 살려 하고, 또한 더는 살지 않으려 한다.

나는 사랑하노라, 덕을 너무 많이 지니려 하지 않는 자를. 덕 하나가 덕 둘보다 더 덕답다. 숙명이 매달리는 매듭으로서 더 매듭답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제 영혼을 아낌없이 탕진하고, 감사를 바라지도 되갚지도 않는 자를. 그는 언제나 베풀 뿐 자신을 아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주사위가 제게 유리하게 떨어지면 부끄러워하며, 내가 속임수 쓰는 노름꾼이란 말인가 하고 묻는 자를. 그는 파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행동에 앞서 황금의 말을 던지고, 언제나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지키는 자를. 그는 자신의 몰락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앞으로 올 자들을 정당화하고 지나간 자들을 구원하는 자를. 그는 지금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파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제 신을 사랑하기에 제 신을 징계하는 자를. 그는 제 신의 진노로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노라, 상처 입었을 때에도 영혼이 깊고, 작은 체험 하나로도 파멸할 수 있는 자를. 그렇게 그는 기꺼이 다리를 건너간다.

나는 사랑하노라, 영혼이 넘치도록 가득하여 자기 자신을 잊고, 모든 것을 제 안에 품은 자를. 그렇게 모든 것이 그의 몰락이 된다.

나는 사랑하노라, 정신이 자유롭고 마음이 자유로운 자를. 그렇게 그의 머리는 마음의 내장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를 몰락으로 몰아간다.

나는 사랑하노라, 인간 위에 드리운 먹구름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인 그 모든 자들을. 그들은 번개가 오리라 예고하며, 예고자로서 파멸한다.

보라, 나는 번개의 예고자요, 구름에서 떨어진 무거운 빗방울이다. 그 번개의 이름은 위버멘쉬다.

5

이 말을 마치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군중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저기 서 있구나." 그는 제 마음에 대고 말했다. "저기서 웃고 있구나. 저들은 나를 알아듣지 못한다. 나는 이 귀에 맞는 입이 아니다."

"눈으로 듣는 법을 배우게 하려면 먼저 저들의 귀를 부숴 버려야 하는가? 북처럼, 회개를 외치는 설교자처럼 요란하게 울려 대야 하는가? 아니면 저들은 말 더듬는 자만 믿는가?"

"저들에게도 긍지로 삼는 것이 있다. 저들을 우쭐하게 만드는 그것을 무어라 부르던가? 교양이라 부른다. 그것이 저들을 염소치기들보다

돋보이게 해 준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네를 두고 '경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렇다면 저들의 긍지에 대고 말하리라."

"그러니 저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자에 대해 말하리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인간**이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스스로 제 목표를 세울 때가 되었다. 인간이 제 가장 높은 희망의 씨앗을 심을 때가 되었다.

아직은 인간의 땅이 그러기에 넉넉히 기름지지만, 이 땅도 언젠가는 메마르고 길들여져서 더는 어떤 높은 나무 한 그루도 거기서 자라날 수 없으리라.

슬프다! 때가 이르리라. 인간이 더는 제 동경의 화살을 인간 너머로 쏘아 보내지 않고, 제 활시위가 윙윙 우는 법을 잊어버릴 때가!

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춤추는 별 하나를 낳으려면 아직 제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그대들은 아직 제 안에 혼돈을 품고 있다.

슬프다! 인간이 더는 별을 낳지 못할 때가 이르리라. 슬프다!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의 때가 이르리라. 더는 제 자신을 경멸할 줄도 모르는 인간의 때가.

보라! 나 그대들에게 **마지막 인간**을 보여 주노라.

"사랑이 뭐냐? 창조가 뭐냐? 동경이 뭐냐? 별이 뭐냐?" 마지막 인간은 그렇게 묻고 눈을 끔뻑인다.

그때 대지는 작아졌고, 그 위에서는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마지막 인간이 폴짝거린다. 그 족속은 땅벼룩처럼 박멸할 수 없다. 마지막 인간이 가장 오래 산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마지막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끔뻑인다.

그들은 살기 힘든 고장을 떠났다.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몸을 비빈다.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병드는 것과 의심을 품는 것을 그들은 죄로 여긴다. 다들 조심조심 걸어 다닌다. 아직도 돌부리에,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다!

이따금 독을 조금. 그러면 편안한 꿈을 꾼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을 듬뿍.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

아직 일은 한다. 일도 하나의 소일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일거리가 몸을 축내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제 아무도 가난해지지도 부유해지지도 않는다. 둘 다 너무 성가시다. 누가 아직 다스리려 하겠는가? 누가 아직 복종하려 하겠는가? 둘 다 너무 성가시다.

목자는 없고 무리는 하나![3]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하고, 모두가 똑같다. 다르게 느끼는 자는 제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간다.

"예전에는 온 세상이 미쳐 있었다." 가장 세련된 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끔뻑인다.

다들 영리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안다. 그러니 비웃을 거리가 끝이 없다. 아직 말다툼은 하지만 금세 화해한다. 그러지 않으면 속을 버리기 때문이다.

낮에는 낮대로 자잘한 쾌락이 있고 밤에는 밤대로 자잘한 쾌락이 있다. 그러나 건강만은 떠받든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마지막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끔뻑인다……

사람들이 '서설'이라고도 부르는 차라투스트라의 첫 번째 말은 여기서 끝났으니, 바로 이 대목에서 군중의 아우성과 들뜬 흥이 그의 말을 끊었기 때문이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우리에게 그 마지막 인간을 다오." 그들은 외쳤다. "우리를 그 마지막 인간들로 만들어 다오! 그러면 위버멘쉬는 그대에게 선물로 주마!" 군중은 모두 환호하며 입맛을 다셨으나, 차라투스트라는 슬퍼져서 제 마음에 대고 말했다.

저들은 나를 알아듣지 못한다. 나는 이 귀에 맞는 입이 아니다.

아마도 나는 너무 오래 산에서 살며 시냇물과 나무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였던가 보다, 이제 나는 염소치기들에게 이야기하듯 저들에게 말하고 있으니.

내 영혼은 흔들림이 없고, 오전의 산처럼 밝다. 그러나 저들은 내가 차갑고, 끔찍한 농담이나 일삼는 조롱꾼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나를 바라보며 웃는다. 웃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미워한다. 저들의 웃음 속에는 얼음이 있다.

6

그런데 그때,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눈을 얼어붙게 만든 일이 일어났다. 그사이 줄타기 광대는 이미 재주를 시작하여, 작은 문에서 걸어 나와 두 탑 사이에 팽팽히 걸린 밧줄, 시장과 군중 위에 드리운 그 밧줄을 건너가고 있었다. 그가 막 길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작은 문이 다시 열리더니, 어릿광대처럼 알록달록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뛰쳐나와 잰걸음으로 앞사람을 뒤쫓았다. "앞으로 가라, 절름발이야!"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외쳤다. "앞으로 가라, 굼벵이야, 밀수꾼아, 허연 낯짝아! 내 발뒤꿈치로 간질여 줄까 보다! 탑과 탑 사이에서 무슨 수작이냐? 네가 있을 곳은 탑 안의 감옥이다. 너 같은 놈은 가둬 버려야

한다. 너보다 나은 자의 앞길을 네가 막고 있지 않느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고, 마침내 앞사람과 겨우 한 걸음 거리가 되었을 때,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눈을 얼어붙게 만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악마처럼 괴성을 지르더니 제 앞길을 막고 있던 자를 훌쩍 뛰어넘었다. 앞사람은 맞수가 그렇게 이기는 것을 보자 넋도 놓고 밧줄도 놓쳤고, 장대를 내던지고는 장대보다 더 빨리, 팔다리가 어지럽게 휘도는 소용돌이가 되어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시장과 군중은 폭풍이 들이닥친 바다처럼 들끓어, 모두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서로 엉켜 넘어지며 달아났는데, 몸뚱이가 떨어져 내릴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심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고, 처참하게 망가지고 부서졌으나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몸뚱이가 바로 그의 곁에 털썩 떨어졌다. 얼마 뒤 산산이 부서진 사내는 정신이 돌아왔고, 차라투스트라가 곁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서 무얼 하는가?" 마침내 그가 말했다. "언젠가 악마가 내게 발을 걸 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제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대가 막아 주겠는가?"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벗이여, 내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그대가 말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대의 영혼은 그대의 몸보다도 먼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내는 미심쩍은 눈으로 올려다보더니 이윽고 말했다. "그대 말이 참이라면 목숨을 잃어도 나는 잃을 것이 없으니, 나란 매를 맞고 먹이 몇 조각을 얻어먹으며 춤추는 법을 익힌 짐승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몸이다."

"그렇지 않다."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그대는 위험을 천직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조금도 경멸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대는 그 천직으로

말미암아 파멸하니, 그 보답으로 내가 이 손으로 그대를 묻어 주마."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하자 죽어 가는 사내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손을 움직였고, 그 모습은 고맙다는 뜻으로 차라투스트라의 손을 더듬어 찾는 것 같았다.

7

그러는 사이 저녁이 왔고, 시장은 어둠에 묻혔다. 호기심도 공포도 결국은 지치기 마련이어서 군중은 흩어졌다. 차라투스트라는 죽은 자 곁 땅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렇게 시간 가는 것도 잊었다. 마침내 밤이 되었고, 홀로 남은 그의 위로 찬 바람이 불었다. 그제야 차라투스트라는 몸을 일으켜 제 마음에 대고 말했다.

진실로, 오늘 차라투스트라는 고기잡이를 멋지게도 했구나! 사람은 하나도 낚지 못하고 주검 하나를 건졌으니.

인간의 존재는 섬뜩하고, 여전히 아무 뜻이 없다. 어릿광대 하나가 인간의 숙명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인간들에게 그들 존재의 뜻을 가르치려 한다. 그 뜻은 위버멘쉬, 곧 인간이라는 먹구름에서 치는 번개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들에게서 멀리 있고, 나의 뜻은 그들의 감각에 말을 건네지 못한다. 인간들에게 나는 아직 바보와 주검의 중간쯤이다.

밤은 어둡고, 차라투스트라의 길도 어둡다. 가자, 차갑고 뻣뻣한 길동무여! 내 손으로 그대를 묻을 곳까지 그대를 메고 가마.

8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한 뒤 차라투스트라는 주검을 등에 들쳐 메고 길을 나섰는데, 채 백 걸음도 가지 않았을 때 누군가 살그머니 다가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런데 보라! 말을 건넨 자는 탑에서 나왔던 그 어릿광대였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이 도시를 떠나라." 그가 말했다. "여기에는 그대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 많다. 그대를 미워하는 자는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니 그들은 그대를 자기네의 적이요 경멸자라 부르고, 그대를 미워하는 자는 바른 믿음을 믿는 자들이니 그들은 그대를 군중의 위험이라 부른다. 사람들이 그대를 비웃은 것은 그대에게 행운이었으니, 진실로 그대는 어릿광대처럼 지껄였다. 그대가 죽은 개와 짝이 된 것도 그대에게 행운이었으니,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기에 그대는 오늘 하루 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이 도시를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내일은 산 자가 죽은 자를 뛰어넘듯 내가 그대를 뛰어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사라졌으나, 차라투스트라는 어두운 골목길을 계속 걸어갔다.

성문에서 그는 무덤 파는 자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은 횃불을 그의 얼굴에 들이대어 비추더니 차라투스트라를 알아보고는 한참 동안 그를 마구 조롱했다. "차라투스트라가 죽은 개를 메고 가는구나. 차라투스트라가 무덤 파는 자가 되었다니 장하기도 하다! 우리 손은 이런 고깃덩이를 만지기에는 너무 깨끗하다. 차라투스트라가 악마의 먹이를 가로채려는가? 좋다, 해 보아라! 부디 맛있게 먹어라! 악마가 차라투스트라보다 솜씨 좋은 도둑만 아니라면 좋으련만! 악마는 둘 다 훔쳐 가서 둘 다 먹어 치운다!" 그러고는 저희끼리 웃어 대며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차라투스트라는 이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제 길을 갔다. 숲과 늪을 지나 두 시간을 걷는 동안 굶주린 늑대들의 울부짖음을 너무 많이 들은 탓에 그 자신도 허기가 졌으므로, 그는 불빛이 새어 나오는 외딴집 앞에 멈춰 섰다.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허기가 강도처럼 나를 덮치는구나. 숲에서도, 늪에서도, 깊은 밤에도 내 허기는 나를 덮친다.

내 허기는 변덕이 별나다. 곧잘 밥을 먹고 난 뒤에야 찾아오더니, 오늘은 온종일 찾아오지 않았다. 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가?

그러고서 차라투스트라가 그 집 대문을 두드리자, 노인 하나가 등불을 들고 나타나 물었다. "나를, 내 뒤숭숭한 잠을 찾아온 자가 누구냐?"

"산 자 하나와 죽은 자 하나다."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달라. 낮에 먹는 것을 잊었다. 굶주린 자를 먹이는 자는 제 영혼을 소생시키느니라. 지혜는 그렇게 말한다."

노인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돌아와 차라투스트라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밀었다. "여기는 굶주린 자에게 모진 고장이다." 노인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산다. 짐승도 사람도 은자인 나를 찾아온다. 그런데 그대의 길동무에게도 먹고 마시라 하라. 그는 그대보다 더 지쳐 있다."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내 길동무는 죽었다. 그를 달래서 먹이기는 어렵겠다."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노인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집 문을 두드린 자는 내가 내주는 것을 받아야 한다. 먹어라, 그리고 잘들 가라!"

그 뒤로 차라투스트라는 길과 별빛에 몸을 맡기고 다시 두 시간을 걸었는데, 밤길에 이골이 난 그는 잠든 모든 것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이 틀 무렵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던 차라투스트라는 어디에도 더는 길이 보이지 않자, 늑대들에게서 지켜 주려고 죽은 자를 제 머리맡의 속 빈 나무 안에 뉘고 자신은 이끼 덮인

땅바닥에 몸을 뉘었다. 그리고 이내 잠이 들었다. 몸은 지쳤으나 영혼은 흔들림이 없었다.

9

차라투스트라는 오래 잤고, 아침노을뿐 아니라 오전 한나절도 그의 얼굴 위로 지나갔다. 마침내 눈을 뜬 차라투스트라는 놀란 눈으로 숲과 고요를 바라보았고 놀란 눈으로 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문득 뭍을 발견한 뱃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으니, 새로운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빛 하나가 내게 떠올랐다. 내게는 길동무가 필요하다. 살아 있는 길동무가. 내가 가려는 곳마다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죽은 길동무나 주검이 아니라.

아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살아 있는 길동무다. 자기 자신을 따르고자 하기에 나를 따르는, 그것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따라오는 길동무다.

빛 하나가 내게 떠올랐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말하지 말고 길동무들에게 말하라! 차라투스트라는 무리를 치는 목자도, 무리를 지키는 개도 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무리에게서 많은 자를 꾀어내려 함이다. 군중도 무리도 내게 노할 테면 노하라. 차라투스트라는 목자들에게 강도라 불리려 한다.

나는 목자라 부르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라 부른다. 나는 목자라 부르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바른 믿음을 믿는 자들이라 부른다.

보라,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가치를 새긴 그들의 서판을 깨뜨리는 자, 파괴자, 파계자다. 그러나 그가 바로 창조하는 자다.

보라, 온갖 믿음을 믿는 자들을!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가치를 새긴 그들의 서판을 깨뜨리는 자, 파괴자, 파계자다. 그러나 그가 바로 창조하는 자다.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를 찾는다. 주검을 찾지 않으며, 무리나 신자를 찾지도 않는다. 창조하는 자는 함께 창조할 자들을 찾는다. 새로운 서판에 새로운 가치를 새길 자들을.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를, 함께 추수할 자들을 찾는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추수할 만큼 무르익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백 자루의 낫이 없다. 그래서 맨손으로 이삭을 뜯으며 속을 끓인다.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를, 제 낫을 벼릴 줄 아는 자들을 찾는다. 사람들은 그들을 허무는 자요 선과 악을 경멸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러나 그들은 추수하는 자요 잔치하는 자들이다.

차라투스트라는 함께 창조할 자들을 찾는다. 함께 추수하고 함께 잔치할 자들을 찾는다. 무리와 목자와 주검을 데리고 그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리고 그대, 나의 첫 길동무여, 잘 있거라! 나는 그대를 속 빈 나무 안에 잘 묻었고, 늑대들에게서 잘 숨겨 두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대와 헤어진다. 때가 다 되었다. 아침노을과 아침노을 사이에 내게 새로운 진리가 찾아왔다.

나는 목자가 되어서도, 무덤 파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다시는 군중과 말조차 섞지 않으리라. 죽은 자에게 말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는 창조하는 자, 추수하는 자, 잔치하는 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무지개를, 위버멘쉬에 이르는 모든 계단을 보여 주리라.

은자들에게, 그리고 둘이서 은거하는 자들에게 나는 내 노래를 불러 주겠고, 아직 들어 보지 못한 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라면 그의 가슴을 나는 내 행복으로 무겁게 해 주리라.

나는 나의 목표로 가련다. 나는 나의 걸음을 걷는다. 머뭇거리는 자들과 꾸물대는 자들을 나는 뛰어넘어 가리라. 그러니 나의 걸음이 그들의 몰락이 되어라!

10

차라투스트라가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해가 정오에 이르러 있었는데, 그때 머리 위에서 날카롭게 우는 새소리가 들려와 그는 의아한 눈으로 높은 곳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보라!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고, 그 독수리에게 뱀 한 마리가 먹이로서가 아니라 벗으로서 매달려 있었으니, 뱀이 독수리의 목에 몸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짐승들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며 마음 깊이 기뻐했다.

"해 아래 가장 긍지 높은 짐승과 해 아래 가장 슬기로운 짐승이 정탐을 나섰구나."

"저들은 차라투스트라가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진실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가?"

"인간들 사이는 짐승들 사이보다 더 위험하더라. 차라투스트라는 더 위험한 길들을 간다. 나의 짐승들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차라투스트라는 숲에서 만난 성자의 말을 떠올리고는 한숨을 쉬며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좀 더 슬기로웠으면! 내 뱀처럼 속속들이 슬기로웠으면!

그러나 나는 지금 불가능한 것을 비는구나. 그러니 나는 내 긍지에게 빈다. 언제나 내 슬기와 함께 가 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내 슬기가, 아, 훌쩍 날아가 버리기를 좋아하는 그 슬기가 나를 떠난다면, 그때에는 내 긍지가 내 어리석음과 함께라도 날아가 주기를!

이렇게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

1. 원어 untergehen(명사 Untergang)은 '해가 지다, 저물다'라는 뜻과 '가라앉다, 몰락하다'라는 뜻을 함께 지닌다. 해가 바다 너머로 저물듯 차라투스트라가 인간들에게로 내려가는 일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는 '몰락'으로 옮긴다.

2. 원어 Übermensch는 über(넘어)와 Mensch(인간)를 합친 말로, 흔히 '초인(超人)'으로 옮겨 왔다. 인간을 넘어서 가는 인간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는 원어의 소리대로 '위버멘쉬'라 적는다.

3. 요한복음 10장 16절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개역한글)를 뒤집은 말이다.

차라투스트라의 말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나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일러 주노라,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어떻게 사자가 되며, 마침내 사자가 어떻게 아이가 되는지를.

정신에게는, 경외가 깃들어 있는 강하고 잘 견디는 정신에게는 무거운 것이 많으니, 그 강함은 무거운 것을, 가장 무거운 것을 갈망한다.

무엇이 무거운가? 잘 견디는 정신은 그렇게 묻고는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이 넉넉히 실리기를 바란다.

잘 견디는 정신은 이렇게 묻는다. 영웅들이여, 무엇이 가장 무거운가? 나는 그것을 짊어지고 내 강함을 기뻐하려 한다.

제 오만을 아프게 하려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것이 아닌가? 제 지혜를 비웃으려고 제 어리석음을 환히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의 대의가 승리를 자축할 때 그 대의와 작별하는 것, 그것인가? 시험하는 자를 시험하려고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인가?

아니면 인식의 도토리와 풀로 목숨을 이으며,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견디는 것, 그것인가?

아니면 병이 들었는데도 위로하러 찾아온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끝내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들과 벗을 맺는 것, 그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진리의 물이라면 더러운 물에라도 들어가고, 차가운 개구리와 뜨거운 두꺼비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유령이 우리를 겁주려 할 때 그 유령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인가?

잘 견디는 정신은 이 가장 무거운 것들을 모두 제 몸에 짊어지고서, 짐을 잔뜩 실은 채 사막으로 서둘러 가는 낙타처럼, 그렇게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간다.

그러나 가장 고독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니, 여기서 정신은 사자가 되어 자유를 사냥해 제 것으로 삼고 제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주인을 찾으니, 그 주인에게,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신에게 적이 되고자 하며, 승리를 걸고 거대한 용과 씨름하려 한다.

정신이 더는 주인이라고도 신이라고도 부르려 하지 않는 그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은 '그대는 해야 한다'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나는 원한다'고 말한다.

'그대는 해야 한다'는 금빛으로 번쩍이는 비늘짐승의 모습으로 그의 길목에 누워 있고, 그 비늘 하나하나마다 '그대는 해야 한다!'가 금빛으로 빛난다.

천 년 묵은 가치들이 이 비늘들에서 빛나니, 모든 용 가운데 가장 힘센 용은 이렇게 말한다. "사물의 모든 가치, 그것이 내 몸에서 빛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가치, 그것이 바로 나다. 진실로, '나는 원한다'는 이제 더는 없어야 한다!" 용은 이렇게 말한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 때문에 정신에게 사자가 필요한가? 체념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짐 싣는 짐승으로는 어찌하여 넉넉하지 않은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은 사자도 아직 해내지 못하지만, 새로운 창조를 위해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는 일, 그것만은 사자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고 의무 앞에서조차 거룩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 내 형제들이여, 그러기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세울 권리를 스스로 차지하는 것, 잘 견디고 경외하는 정신에게 이것은 더없이 무서운 탈취다. 진실로, 그에게 이것은 약탈이요, 약탈하는 짐승이나 할 짓이다.

한때 그는 '그대는 해야 한다'를 가장 거룩한 것으로 사랑했다. 이제 그는 그 가장 거룩한 것에서조차 망상과 변덕을 찾아내어 제 사랑에게서 자유를 약탈해야 하니, 이 약탈을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말해 보라, 내 형제들이여, 사자도 해내지 못한 무엇을 아이는 해낼 수 있는가? 약탈하는 사자가 어찌하여 이제 아이까지 되어야 하는가?

아이는 순진무구함이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요 놀이요,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요 최초의 움직임이요, 거룩하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 내 형제들이여, 창조라는 놀이를 하려면 거룩하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니,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잃었던 자는 **자신의** 세계를 얻는다.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일러 주었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었고, 낙타가 어떻게 사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사자가 어떻게 아이가 되었는지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무렵 그는 '얼룩소'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1]

---

1. 원어 die bunte Kuh. '얼룩덜룩한 암소'라는 뜻의 도시 이름이다.

덕의 강좌에 대하여

사람들이 차라투스트라에게 한 현자를 칭송하기를, 그는 잠과 덕에 대해 훌륭히 말할 줄 알아서 그 일로 크게 존경받고 보수도 두둑이 받으며, 젊은이란 젊은이는 모두 그의 강좌에 와 앉는다고 했다. 차라투스트라는 그를 찾아가 젊은이들 틈에 섞여 그의 강단 앞에 앉았다. 그러자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잠을 공경하고, 잠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라! 이것이 첫째다! 그리고 잠을 설치며 밤마다 깨어 있는 자들은 누구든 피해 다녀라!

도둑조차 잠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늘 발소리를 죽이고 밤을 몰래 빠져나간다. 그러나 밤의 파수꾼은 부끄러움을 모르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뿔나팔을 차고 다닌다.

잠드는 것은 결코 하찮은 기술이 아니어서, 잘 자려면 온종일 잠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하루에 열 번 그대는 그대 자신을 극복해야 하니, 그래야 기분 좋은 피로가 찾아오고, 그 피로가 곧 영혼의 양귀비가 된다.

열 번 그대는 다시 그대 자신과 화해해야 하니, 극복은 쓰라린 것이고 화해하지 못한 자는 잠을 설치기 때문이다.

하루에 열 가지 진리를 그대는 찾아내야 하니, 그러지 않으면 밤에도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되고 그대의 영혼은 굶주린 채 남으리라.

하루에 열 번 그대는 웃고 명랑해야 하니, 그러지 않으면 밤에 위장이, 이 근심의 아비가 그대를 들쑤시리라.

이것을 아는 자는 드물지만, 잘 자려면 모든 덕을 갖추어야 한다. 내가 거짓 증거를 하겠는가? 내가 간음을 하겠는가?

내가 내 이웃의 여종을 탐내겠는가? 그런 일은 모두 단잠과 잘 어울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모든 덕을 갖추었다 해도 한 가지는 더 알아야 하니, 그 덕들마저 제때에 잠자리로 보낼 줄 알아야 한다.

그 얌전한 여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그대를 두고서, 그대 불운한 자여!

신과도 이웃과도 화평하라. 단잠이 그것을 원한다. 그리고 이웃의 악마와도 화평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 악마가 밤마다 그대 집을 어슬렁거리리라.

위에 있는 권세를 공경하고 그에 순종하라, 굽은 권세에게도! 단잠이 그것을 원한다. 권력이 굽은 다리로 거닐기를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어찌하겠는가?

제 양을 가장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자를 나는 언제나 가장 좋은 목자라 부르리라. 그래야 단잠과 어울린다.

많은 명예도, 큰 재물도 나는 바라지 않으니, 그런 것은 비장을 달아오르게 한다. 그러나 좋은 평판과 작은 재물이 없으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나쁜 모임보다는 작은 모임이 반갑다. 다만 그 모임도 제때 떠나 주고 제때 와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단잠과 어울린다.

정신이 가난한 자들도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들은 잠을 북돋운다. 그들은 복이 있나니, 늘 그들 말이 옳다고 해 줄 때면 더욱 그러하다.

덕스러운 자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윽고 밤이 오면, 나는 잠을 부르지 않도록 몹시 조심한다! 잠은, 덕의 주인인 잠은 부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낮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곰곰이 떠올린다. 암소처럼 참을성 있게 되새김질하며 나 자신에게 묻는다. 그대의 열 번의 극복은 대체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 준 열 번의 화해와 열 가지 진리와 열 번의 웃음은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헤아리며 마흔 가지 생각에 요람처럼 흔들리다 보면, 부르지도 않은 잠, 덕의 주인인 잠이 느닷없이 나를 덮친다.

잠이 내 눈을 두드리면 눈이 무거워진다. 잠이 내 입을 건드리면 입이 벌어진 채로 있다.

진실로, 도둑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도둑인 잠은 부드러운 발바닥으로 살며시 내게 와서 내 생각을 훔쳐 가니, 나는 이 강단처럼 멍청하게 서 있다.

그러나 그렇게 서 있는 것도 잠시, 어느새 나는 누워 있다.

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차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웃었으니, 그러는 동안 빛 하나가 그에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마흔 가지 생각을 품은 저기 저 현자는 내게는 바보이지만, 잠자는 법만큼은 제대로 아는 것 같다.

이 현자 가까이 사는 자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런 잠은 옮는다. 두꺼운 벽을 뚫고서도 옮는다.

그의 강단에조차 마력이 깃들어 있다. 젊은이들이 덕의 설교자 앞에 앉아 있었던 것도 헛일이 아니었다.

그의 지혜는 이 한마디다. 잘 자기 위해 깨어 있으라. 진실로, 삶에 아무 뜻이 없어서 뜻 없는 짓을 골라야만 한다면, 내게도 이것이 가장 골라 볼 만한 뜻 없는 짓이리라.

예전에 사람들이 덕의 스승을 찾을 때 무엇보다 먼저 구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겠다. 사람들은 단잠을 구했고, 거기 곁들일 양귀비꽃 같은 덕을 구했다!

강좌를 맡은 이 칭송받는 현자들 모두에게 지혜란 꿈 없는 잠이었으니, 그들은 그보다 나은 삶의 뜻을 알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이 덕의 설교자 같은 자들이 아마 더러 있을 테고, 그들이 늘 이자만큼 솔직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들도 더는 오래 서 있지 못하리니, 어느새 누워 있으리라.

이 졸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곧 꾸벅 졸 것임이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배후 세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한때는 차라투스트라도 배후 세계를 믿는 모든 자들(Hinterweltler)처럼 제 망상을 인간 저편으로 던졌다.[1] 그때 내게는 세계가 괴로워하며 시달릴 대로 시달린 어느 신의 작품으로 보였다.

그때 내게 세계는 어느 신의 꿈이요 지어낸 이야기로 보였고, 신다운 불만에 찬 자의 눈앞에 피어오른 오색 연기로 보였다.

선과 악, 기쁨과 괴로움, 나와 그대, 이 모든 것이 창조하는 눈앞에 피어오른 오색 연기로 여겨졌다. 창조자는 스스로에게서 눈을 돌리고 싶었고, 그래서 세계를 창조했다.

괴로워하는 자에게는 제 괴로움에서 눈을 돌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도취의 기쁨이다. 한때 내게는 세계가 도취의 기쁨이요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일로 여겨졌다.

이 세계, 영원히 불완전한 이 세계, 영원한 모순을 본뜬 그림이자 그나마 불완전하게 본뜬 그림, 그 불완전한 창조자에게는 도취의 기쁨인 이 세계, 한때 내게는 세계가 그렇게 여겨졌다.

그렇게 한때는 나도 배후 세계를 믿는 모든 자들처럼 내 망상을 인간 저편으로 던졌다. 정말로 인간 저편으로?

아, 형제들이여, 내가 창조한 이 신은 다른 모든 신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작품이요 인간의 광기였다!

그 신은 인간이었다, 그것도 인간과 자아의 가련한 한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 유령은 나 자신의 재와 잉걸불에서 내게로 왔으니, 진실로!

저편에서 내게 온 것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내 형제들이여? 나는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극복했고, 내 재를 산으로 날랐으며, 더 밝은 불꽃을 나 스스로 발명해 냈다. 그러자 보라! 유령이 내게서 **물러갔다**!

건강을 되찾은 내가 이제 그런 유령을 믿는다면, 그것은 내게 괴로움이요 고역이리라. 이제 그것은 내게 괴로움이요 굴욕이리라. 배후 세계를 믿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모든 배후 세계를 창조한 것은 괴로움과 무능이었고, 가장 깊이 괴로워하는 자만이 겪는 저 짧은 행복의 광기였다.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목숨을 건 도약으로 궁극에 이르려는 피로, 더는 원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가련하고 무지한 피로, 바로 그것이 모든 신들과 배후 세계를 창조했다.

내 말을 믿어라, 내 형제들이여! 몸에 절망한 것은 몸이었다. 그 몸이 미혹된 정신의 손가락으로 마지막 벽들을 더듬었다.

내 말을 믿어라, 내 형제들이여! 대지에 절망한 것은 몸이었다. 그 몸이 존재의 배가 제게 말을 거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몸은 머리로 마지막 벽들을 뚫고, 머리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뚫고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려 했다.

그러나 '저 세상', 인간다움을 벗어 버린 저 비인간의 세계, 천상의 허무인 그 세계는 인간에게서 잘 숨겨져 있고, 존재의 배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면 인간에게 결코 말을 걸지 않는다.

진실로, 모든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고 입을 열게 하기도 어렵다. 형제들이여, 내게 말해 보라. 만물 가운데 가장 기이한 것이야말로 그래도 가장 잘 증명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다, 창조하고 의욕하고 가치를 매기는 이 자아, 사물의 척도요 가치인 이 자아, 그리고 이 자아의 모순과 혼란이야말로 그래도 제

존재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말한다.

그리고 이 가장 정직한 존재인 자아는 몸에 대해 말하며, 시를 짓고 몽상에 빠지고 부러진 날개로 퍼덕일 때조차 여전히 몸을 원한다.

자아는 갈수록 더 정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몸과 대지를 위한 말과 영예를 더 많이 찾아낸다.

나의 자아는 내게 새로운 긍지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치노라. 더는 천상의 것들이라는 모래에 머리를 처박지 말고, 대지의 뜻을 창조하는 대지의 머리를 자유롭게 들고 다니라!

나 인간들에게 새로운 의지를 가르치노라. 인간이 눈먼 채 걸어온 이 길을 원하고 좋다 일컬으며, 병든 자들과 죽어 가는 자들처럼 더는 그 길에서 슬그머니 옆으로 빠져나가지 말라!

몸과 대지를 경멸하고 천상의 것과 구원하는 핏방울을 발명한 자들은 병든 자들과 죽어 가는 자들이었으나, 그 달콤하고 음울한 독마저 그들은 몸과 대지에서 얻어 왔다!

그들은 제 비참에서 달아나고 싶었으나 별들은 그들에게 너무 멀었다. 그러자 그들은 한숨지었다. "아, 다른 존재와 다른 행복 속으로 슬며시 숨어들 천상의 길이 있기만 하다면!" 그러고는 슬며시 드나들 제 샛길과 피로 빚은 작은 물약을 발명해 냈다!

이 배은망덕한 자들은 이제 제 몸과 이 대지에서 벗어나 황홀경에 들었다고 망상했다. 그러나 그 황홀경의 경련과 희열은 누구 덕분이었던가? 제 몸과 이 대지 덕분이었다.

차라투스트라는 병든 자들에게 너그럽다. 진실로, 그는 그들 나름의 위안에도, 그들의 배은망덕에도 노여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건강을 되찾는 자가 되고 극복하는 자가 되어, 더 높은 몸을 스스로 창조하기를!

건강을 되찾아 가는 자가 제 망상을 애틋하게 돌아보고 한밤중에 제 신의 무덤 주위를 살금살금 맴돌아도, 차라투스트라는 그에게

노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게는 그의 눈물조차 여전히 병이요 병든 몸이다.

시를 짓고 신을 탐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늘 병적인 자가 많았다. 그들은 인식하는 자를, 그리고 덕 가운데 가장 어린 덕, 이름하여 정직을 미친 듯이 미워한다.

그들은 늘 어두운 시대를 뒤돌아본다. 물론 그때는 망상과 믿음이 지금과는 다른 것이었으니, 이성의 광란은 신을 닮는 것이었고 의심은 죄였다.

신을 닮았다는 이자들을 나는 너무나 잘 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네를 믿어 주기를, 그리고 의심이 죄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 자신이 무엇을 가장 굳게 믿는지도 나는 너무나 잘 안다.

진실로, 배후 세계나 구원하는 핏방울이 아니다. 그들 역시 몸을 가장 굳게 믿으며, 그들에게는 제 몸이 곧 그들의 물자체(Ding an sich)다.

그러나 그들에게 몸은 병든 물건이어서, 그들은 제 살가죽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안달한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도 배후 세계를 설교한다.

내 형제들이여, 차라리 건강한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더 정직하고 더 순수한 목소리다.

건강한 몸, 온전하고 반듯한 몸은 더 정직하고 더 순수하게 말하며, 대지의 뜻을 말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Hinterweltler는 두메산골에 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뜻하는 Hinterwäldler(숲 뒤에 사는 자)를 비틀어 니체가 지은 말이다. 이 세계 뒤에 또 다른 세계(Hinterwelt)가 있다고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나는 내 말을 해 두려 한다.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고쳐 배우고 고쳐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제 몸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리하여 입을 다무는 일이다.

"나는 몸이요 영혼이다." 아이는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이들처럼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그러나 깨어난 자, 아는 자는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몸이요, 그 밖의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이란 몸에 딸린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다.

몸은 하나의 큰 이성이요, 하나의 뜻을 지닌 여럿이요, 전쟁이자 평화요, 무리이자 목자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정신'이라 부르는 그대의 작은 이성도 그대 몸의 도구이니, 그대의 큰 이성이 쓰는 작은 도구이자 장난감이다.

그대는 '나'라고 말하며 이 말을 자랑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대가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곧 그대의 몸과 그 몸의 큰 이성이니, 몸의 큰 이성은 '나'라고 말하지 않으나 '나'를 행한다.

감각이 느끼는 것, 정신이 인식하는 것은 결코 제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과 정신은 저희가 만물의 끝이라고 그대를 설득하려 드니, 그만큼 허영에 차 있다.

감각과 정신은 도구요 장난감이다. 그것들 뒤에는 아직 자기(das Selbst)가 있다. 자기는 감각의 눈으로도 찾고, 정신의 귀로도 귀를 세운다.

자기는 늘 귀를 세우고 찾는다. 견주고,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파괴한다. 자기는 다스리며, 자아(das Ich)를 다스리는 자이기도 하다.

내 형제여, 그대의 생각과 느낌 뒤에는 힘센 명령자, 미지의 현자가 서 있으니, 그 이름은 자기다. 그는 그대의 몸 안에 살며, 그대의 몸이 곧 그다.

그대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그대의 몸 안에 더 많은 이성이 있다. 그러니 그대의 몸이 무엇 때문에 하필 그대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필요로 하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대의 자기는 그대의 자아와 그 자아의 의기양양한 도약을 비웃는다. "생각의 이런 도약과 비상이 내게 다 무엇이냐?" 자기는 혼잣말을 한다. "내 목적에 이르는 우회로일 뿐이다. 나는 자아를 이끄는 걸음마 줄이요, 자아에게 개념을 불어넣어 주는 자다."

자기가 자아에게 말한다. "여기서 아픔을 느껴라!" 그러면 자아는 괴로워하며 어떻게 하면 더는 괴롭지 않을지 궁리한다. 그리고 바로 그러려고 자아는 생각**해야** 한다.

자기가 자아에게 말한다. "여기서 기쁨을 느껴라!" 그러면 자아는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더 자주 기뻐할지 궁리한다. 그리고 바로 그러려고 자아는 생각**해야** 한다.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려 한다. 그들이 경멸하는 것은 그들의 존중이 빚어낸 일이다. 존중과 경멸을, 가치와 의지를 창조한 것은 무엇인가?

창조하는 자기가 스스로 존중과 경멸을 창조했고, 기쁨과 고통을 창조했다. 창조하는 몸이 제 의지의 손으로 삼으려고 정신을 창조했다.

몸을 경멸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그 어리석음과 경멸 속에서도 그대들의 자기를 섬긴다. 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그대들의 자기가 몸소 죽기를 원하며 삶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대들의 자기는 가장 원하는 일, 곧 자신을 넘어서 창조하는 일을 더는 해내지 못한다.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가장 원하는 일이며, 그것이 자기의 온 열망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늦어 버렸으니, 몸을 경멸하는 자들이여, 그래서 그대들의 자기는 몰락하려 한다.

그대들의 자기가 몰락하려 하기에 그대들은 몸을 경멸하는 자가 되었다! 그대들은 더는 그대들 자신을 넘어서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들은 이제 삶과 대지에 노여워한다. 그대들이 경멸하며 흘겨보는 눈길에는 그대들도 모르는 시기가 서려 있다.

몸을 경멸하는 자들이여, 나는 그대들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대들은 내게 위버멘쉬에 이르는 다리가 아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환희와 열정에 대하여

내 형제여, 그대가 덕 하나를 지녔고 그것이 그대의 덕이라면, 그대는 그 덕을 누구와도 나누어 갖지 않는다.

물론 그대는 그 덕을 이름으로 부르며 어루만지고 싶어 하고, 그 덕의 귓불을 잡아당기며 함께 노닥거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보라! 이제 그대는 그 덕의 이름을 군중과 나누어 갖게 되었고, 그대의 덕과 더불어 군중이 되고 무리가 되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나으리라. "말할 수 없고 이름도 없다, 내 영혼을 괴롭게도 하고 달콤하게도 하며 내 창자의 굶주림이기도 한 그것은."

그대의 덕은 이름으로 허물없이 불리기에는 너무 높은 것이어야 하니, 그 덕에 대해 말해야만 한다면 더듬거리며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더듬거려라. "이것이 **나의** 선이다. 나는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이 온전히 내 마음에 들며, 오직 이렇게만 나는 선을 원한다."

"나는 그것을 어느 신의 율법으로 원하지 않으며 인간이 정한 규례나 인간의 필요로 원하지도 않으니, 그것은 내게 대지 너머의 세계나 낙원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아니어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대지의 덕이다. 거기에는 슬기가 별로 없고, 만인의 이성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이 새는 내 곁에 둥지를 틀었다. 그래서 나는 이 새를 사랑하고 끌어안으니, 이제 이 새가 내 곁에서 제 황금 알을 품고 앉아 있기를!"

그대는 이렇게 더듬거리며 그대의 덕을 기려야 한다.

한때 그대에게는 열정들이 있었고, 그대는 그 열정들을 악하다고 불렀다. 그러나 이제 그대에게는 그대의 덕들만 남아 있으니, 그 덕들은 그대의 열정에서 자라났다.

그대가 가장 높은 목표를 이 열정들의 가슴에 품게 하자, 열정은 그대의 덕이 되고 환희(Freudenschaften)가 되었다.[1]

그대가 성마른 족속에서 났든, 쾌락을 탐하는 족속이나 믿음에 미쳐 날뛰는 족속이나 복수심에 불타는 족속에서 났든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그대의 모든 열정은 덕이 되었고, 그대의 모든 악마는 천사가 되었다.

한때 그대의 지하실에는 사나운 개들이 있었으나, 마침내 그 개들은 새로, 사랑스럽게 노래하는 가수로 변했다.

그대는 그대의 독으로 그대의 향유를 빚었고, 근심이라는 그대의 암소에게서 젖을 짰으니, 이제 그대는 그 젖통에서 나온 달콤한 젖을 마신다.

이제부터 그대에게서는 어떤 악도 더는 자라나지 않으리니, 그대의 덕들이 서로 싸우는 데서 자라나는 악만은 예외다.

내 형제여, 그대가 운이 좋다면 그대에게는 덕이 단 하나뿐이고 그 이상은 없으니, 그러면 그대는 한결 가볍게 다리를 건너간다.

덕을 많이 지니는 것은 남다른 영예이지만 무거운 운명이기도 해서, 적지 않은 자가 덕들의 전투이자 전쟁터가 되는 데 지쳐 사막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 형제여, 전쟁과 전투는 악한가? 그러나 이 악은 필요하며, 그대의 덕들 사이에 도는 시기와 불신과 비방도 필요하다.

보라, 그대의 덕은 저마다 얼마나 가장 높은 것을 탐하는지, 그대의 온 정신을 원하여 그 정신이 **저만의** 전령이 되기를 바라고, 분노와 증오와 사랑 속에 깃든 그대의 온 힘을 원한다!

덕은 저마다 다른 덕을 질투하는데, 질투란 무시무시한 것이다. 덕들도 질투 때문에 파멸할 수 있다.

질투의 불길에 에워싸인 자는 마침내 전갈처럼 독 묻은 침을 제 몸에 겨눈다.

아, 내 형제여, 그대는 덕 하나가 스스로를 비방하고 찔러 죽이는 것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는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덕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대는 그 덕들로 말미암아 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원어 Leidenschaft(열정)에는 Leiden(괴로움)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니체는 그 자리에 Freude(기쁨)를 넣어 Freudenschaft라는 말을 지어냈다. 이 편의 원제 Von den Freuden- und Leidenschaften도 이 말놀이에서 나왔다.

창백한 범죄자에 대하여

재판관들이여,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짐승이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는 죽이려 하지 않는가? 보라, 창백한 범죄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서는 크나큰 경멸이 말하고 있다.

"내 자아는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내 자아는 내게 인간의 크나큰 경멸이다." 이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스스로를 심판한 것, 그것이 그의 가장 높은 순간이었으니, 이 숭고한 자를 다시 그의 비천함 속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이토록 스스로에게 시달리는 자에게는 빠른 죽음 말고는 구원이 없다.

재판관들이여, 그대들이 죽이는 일은 동정이어야 하며 복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이면서 그대들 스스로 삶을 정당화하도록 마음을 쓰라!

그대들이 죽이는 자와 화해하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그대들의 슬픔은 위버멘쉬를 향한 사랑이어야 하니, 그래야 그대들은 아직 살아 있음을 정당화하리라!

'적'이라고 말해야지 '악당'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병자'라고 말해야지 '파렴치한'이라고 해서는 안 되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야지 '죄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대, 붉은 재판관이여, 그대가 이미 생각 속에서 저지른 온갖 일을 소리 내어 말하려 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외치리라. "이 오물, 이 독벌레를 없애 버려라!"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고, 행위의 그림이 또 다르다. 까닭의 바퀴는 그것들 사이를 굴러다니지 않는다.

그림 하나가 이 창백한 인간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 행위를 저지를 때 그는 제 행위만큼 자라 있었으나, 행위를 저지르고 나자 그 행위의 그림을 견디지 못했다.

이제 그는 늘 자신을 단 하나의 행위를 저지른 자로만 보았다. 나는 이것을 광기라 부르니, 그에게는 예외가 본질로 뒤바뀌었다.

금 한 줄은 암탉을 꼼짝 못 하게 붙들어 두고, 그가 그은 칼금 한 줄은 그의 가련한 이성을 꼼짝 못 하게 붙들어 두었으니, 나는 이것을 행위**뒤의** 광기라 부른다.

들어라, 재판관들이여! 또 다른 광기가 있으니, 그것은 행위 앞에 있다. 아, 그대들은 이 영혼 속으로 충분히 깊이 기어 들어가 보지 않았다!

붉은 재판관은 이렇게 말한다. "이 범죄자는 대체 무엇 때문에 살인을 했는가? 그는 강도질을 하려 했다." 그러나 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그의 영혼이 원한 것은 강도질이 아니라 피였다. 그는 칼의 행복에 목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련한 이성은 이 광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설득했다. "피가 다 무엇이냐!" 이성이 말했다. "적어도 그 김에 강도질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복수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는 제 가련한 이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말이 납처럼 그를 짓눌렀고, 그래서 그는 살인하면서 강도질도 했다. 그는 제 광기를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 죄책이라는 납이 그를 짓누르고, 그의 가련한 이성은 다시 그토록 뻣뻣하고, 그토록 마비되고, 그토록 무겁다.

그가 머리를 흔들 수만 있다면 그 짐이 굴러떨어지련만, 누가 이 머리를 흔들겠는가?

이 인간은 무엇인가? 정신을 타고 세상으로 손을 뻗치는 질병들의 무더기다. 질병들은 거기서 먹잇감을 낚아채려 한다.

이 인간은 무엇인가? 서로 엉켜서는 좀처럼 쉬지 못하는 사나운 뱀들의 뭉치다. 그래서 뱀들은 저마다 떨어져 나가 세상에서 먹잇감을 찾는다.

이 가련한 몸을 보라! 몸이 괴로워하고 갈망한 것을 이 가련한 영혼은 제 나름대로 풀이했으니, 살인의 욕망이요 칼의 행복을 향한 탐욕이라고 풀이했다.

지금 병드는 자에게는 지금 악으로 여겨지는 악이 덮쳐 오니, 그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것으로 남을 아프게 하려 한다. 그러나 다른 시대들이 있었고, 다른 악과 다른 선이 있었다.

한때는 의심이 악이었고, 자기에의 의지가 악이었다. 그 시절에 병자는 이단자가 되고 마녀가 되었으니, 이단자로서 마녀로서 그는 괴로워했고 남도 괴롭게 하려 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대들 귀에 들어가려 하지 않으니, 그런 말은 그대들의 선한 자들에게 해롭다고 그대들은 내게 말한다. 그러나 그대들의 선한 자들이 내게 다 무엇이냐!

그대들의 선한 자들에게는 내게 역겨움을 주는 것이 많으나, 진실로 그들의 악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이 창백한 범죄자처럼 파멸에 이를 만한 광기가 있다면 좋으련만!

진실로, 나는 그들의 광기가 진리나 신의나 정의라 불리기를 바랐으나, 그들이 덕을 지니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요, 그것도 비루한 안락 속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다.

나는 강가의 난간이다.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자는 붙잡을지어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의 목발은 아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

쓰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누군가 제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하노라. 피로 써라. 그러면 그대는 피가 곧 정신임을 알게 되리라.

남의 피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 나는 책장이나 넘기는 한량들을 미워한다.

독자를 아는 자는 더는 독자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한 세기만 더 독자들의 시대가 이어진다면, 정신 그 자체가 악취를 풍기리라.

누구나 읽기를 배워도 된다는 것, 이것이 길게 보면 쓰기뿐 아니라 생각하기까지 망쳐 놓는다.

한때 정신은 신이었고, 그다음에는 인간이 되었으며, 이제는 급기야 천민이 되어 간다.

피와 잠언으로 쓰는 자는 읽히기를 원하지 않고 외워지기를 원한다.

산에서는 가장 가까운 길이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건너가는 길이지만, 그러려면 그대의 다리가 길어야 한다. 잠언은 봉우리여야 하고, 잠언을 듣는 자들은 크고 훤칠하게 자란 자들이어야 한다.

공기는 희박하고 맑으며 위험은 가까이 있고 정신은 즐거운 악의로 가득하니, 이것들은 서로 잘 어울린다.

나는 내 곁에 도깨비들을 두고 싶으니, 내게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유령들을 쫓아 버리는 용기는 제 손으로 도깨비들을 지어낸다. 용기는 웃고 싶어 한다.

나는 더는 그대들과 같은 것을 느끼지 않으니, 내가 발아래로 내려다보는 이 구름, 내가 비웃는 이 시커멓고 무거운 것, 바로 그것이 그대들의 천둥 구름이다.

그대들은 높아지기를 갈망할 때 위를 올려다본다. 나는 높아져 있기에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대들 가운데 누가 웃으면서 동시에 높아져 있을 수 있는가?

가장 높은 산들에 오르는 자는 모든 비극과 비장함을 비웃는다.

용감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조롱할 줄 알고, 사나운 자, 지혜는 우리가 그런 자이기를 원하니, 지혜는 여인이어서 언제나 오직 전사만을 사랑한다.

그대들은 내게 말한다. "삶은 짊어지기 힘겹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대들은 무엇 하러 오전에는 긍지를, 저녁에는 체념을 지니겠는가?

삶은 짊어지기 힘겹다. 그러나 내 앞에서 그렇게 엄살 부리지 마라! 우리는 모두 짐을 잘 지는 어엿한 수나귀요 암나귀다.

이슬 한 방울이 몸에 얹혔다고 떨고 있는 장미 꽃봉오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참으로 그렇다.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것은 삶에 길들어서가 아니라 사랑에 길들어서다.

사랑에는 언제나 얼마간의 광기가 있다. 그러나 광기에도 언제나 얼마간의 이성이 있다.

그리고 삶에 정든 나에게도, 나비와 비눗방울,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 그것들과 같은 부류에 드는 자들이야말로 행복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가볍고 어리석고 앙증맞고 재빠른 작은 영혼들이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일, 바로 그것이 차라투스트라를 꾀어 눈물짓게

하고 노래하게 한다.

나는 춤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

그리고 나의 악마를 보았을 때 나는 그가 진지하고 철저하고 깊고 엄숙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은 중력의 영이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떨어진다.

사람은 분노가 아니라 웃음으로 죽인다. 자, 우리 중력의 영을 죽이자!

나는 걷기를 배웠다. 그 뒤로 나는 나 자신을 마음껏 달리게 둔다. 나는 날기를 배웠다. 그 뒤로 나는 자리를 뜨려고 누가 먼저 떠밀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제 나는 가볍다, 이제 나는 난다, 이제 나는 내 아래에 있는 나를 본다, 이제 한 신이 나를 통해 춤춘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산 위의 나무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의 눈은 한 젊은이가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것을 보아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얼룩소'라 불리는 도시를 에워싼 산들을 홀로 거닐고 있을 때, 보라, 걷던 그는 그 젊은이가 나무에 기대앉아 지친 눈길로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젊은이가 기대앉은 나무를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기 이 나무를 두 손으로 흔들려 한다 해도 나는 흔들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이 나무를 괴롭히며 임의로 휘어 놓듯, 우리를 가장 지독하게 휘어 놓고 괴롭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손들이다.

그러자 젊은이가 깜짝 놀라 일어나며 말했다. "차라투스트라의 말소리가 들린다. 방금 그를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차라투스트라가 대꾸했다.

"그 때문에 무얼 그리 놀라는가? 그러나 인간의 처지도 이 나무와 같다."

"인간은 높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오르려 하면 할수록 그 뿌리가 더욱 힘차게 땅으로, 아래로, 어둡고 깊은 곳으로…… 악 속으로 뻗어 간다."

"그렇다, 악 속으로!" 젊은이가 외쳤다. "어떻게 그대가 내 영혼을 찾아낼 수 있었는가?"

차라투스트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먼저 지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찾아낼 수 없는 영혼도 많다." "그렇다, 악 속으로!" 젊은이가 다시 외쳤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진실을 말했다.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한 뒤로 나는 나 자신을 더는 믿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더는 믿지 않는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나는 너무 빨리 변한다. 나의 오늘이 나의 어제를 반박한다. 나는 오를 때 곧잘 계단을 건너뛰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는 계단은 하나도 없다."

"위에 올라가 보면 나는 언제나 혼자다. 아무도 나와 말을 나누지 않고, 고독의 서리가 나를 떨게 한다. 나는 대체 높은 곳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나의 경멸과 나의 동경은 함께 자란다. 높이 오를수록 나는 오르는 자를 더 경멸한다. 그는 대체 높은 곳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오르다가 비틀거리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씩씩거리는 내 거친 숨을 나는 얼마나 비웃는가! 날아오르는 자를 나는 얼마나 미워하는가! 높은 곳에서 나는 얼마나 지쳐 있는가!"

여기서 젊은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차라투스트라는 두 사람이 곁에 선 나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는 여기 산에 외로이 서 있으니, 인간과 짐승을 훌쩍 넘어 높이 자랐다.

그리고 말을 하려 해도 이 나무에게는 알아들어 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만큼 높이 자랐다.

이제 나무는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가? 구름이 머무는 자리에 너무 가까이 살고 있으니, 첫 번개를 기다리는 것일까?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하자 젊은이가 격한 몸짓으로 외쳤다. "그렇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진실을 말한다. 높은 곳으로 오르려 했을 때 나는 나의 몰락을 갈망했고, 그대는 내가 기다리던 번개다! 보라, 그대가 우리에게 나타난 뒤로 내가 아직 무엇이란 말인가? 나를 망가뜨린 것은 그대를 향한 **시기**다!"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그를 팔로 감싸 안고 함께 데리고 갔다.

그렇게 둘이 한동안 함께 걸었을 때,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을 꺼냈다.

내 가슴이 찢어진다.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눈이 그대의 모든 위험을 더 잘 말해 준다.

그대는 아직 자유롭지 않고 아직 자유를 **찾고** 있으니, 그렇게 찾아 헤매느라 그대는 밤을 새워 초췌해졌고 잠들지 못할 만큼 지나치게 깨어 있다.

그대는 탁 트인 높은 곳으로 가려 하고, 그대의 영혼은 별들에 목말라한다. 그러나 그대의 못된 충동들도 자유에 목말라한다.

그대의 사나운 개들은 자유로 나가고 싶어 하니, 그대의 정신이 모든 감옥의 빗장을 풀어 버리려 애쓸 때면 그 개들은 제 지하실에서 기뻐 짖어 댄다.

내게 그대는 아직 자유를 궁리해 내는 갇힌 자다. 아, 그렇게 갇힌 자들의 영혼은 슬기로워지지만, 간교하고 비열해지기도 한다.

정신이 자유로워진 자도 아직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의 안에는 아직 감옥과 곰팡내가 많이 남아 있으니, 그의 눈도 아직 깨끗해져야 한다.

그렇다, 나는 그대의 위험을 안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희망을 걸고 그대에게 간청하노라. 그대의 사랑과 희망을 내던지지 마라!

그대는 아직 스스로를 고귀하다고 느끼고, 그대를 못마땅해하며 험한 눈길을 보내는 다른 자들도 아직 그대를 고귀하다고 느낀다. 알아 두라, 고귀한 자는 모든 자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다.

선한 자들에게도 고귀한 자는 길을 가로막고 선 걸림돌이니, 그들이 그를 선한 자라고 부를 때조차 그렇게 불러 줌으로써 그를 한옆으로 치워 두려 한다.

고귀한 자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덕을 창조하려 한다. 선한 자는 낡은 것을 원하며, 낡은 것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고귀한 자의 위험은 그가 선한 자가 되는 데 있지 않고, 뻔뻔한 자, 조롱하는 자, 허무는 자가 되는 데 있다.

아, 나는 제 가장 높은 희망을 잃어버린 고귀한 자들을 알았다. 그 뒤로 그들은 모든 높은 희망을 헐뜯었다.

이제 그들은 짧은 향락에 빠져 뻔뻔하게 살았고, 하루 너머로는 거의 아무 목표도 던지지 않았다.

"정신도 쾌락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 정신의 날개가 부러졌으니, 이제 그 정신은 여기저기 기어 다니며 갉아 먹는 것마다 더럽힌다.

한때 그들은 영웅이 되리라 생각했으나, 이제 그들은 난봉꾼이다. 그들에게 영웅은 시름이요 소름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희망을 걸고 그대에게 간청하노라. 그대 영혼 속의 영웅을 내던지지 마라! 그대의 가장 높은 희망을 거룩히 지키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에 대하여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대지는 삶에서 등을 돌리라는 설교를 들어야 마땅한 자들로 가득하다.

대지는 남아도는 자들로 가득하고 삶은 너무 많은 자들 때문에 썩어 버렸으니, 누군가 '영원한 삶'을 미끼로 그들을 꾀어 이 삶에서 데려가 주었으면!

사람들은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을 '누런 자들'이라 부르거나 '검은 자들'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그들을 또 다른 빛깔로도 보여 주련다.

무시무시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제 안에 맹수를 품고 다니며 욕정 아니면 제 살을 물어뜯는 일밖에는 달리 고를 길이 없는데, 그들의 욕정마저 제 살을 물어뜯는 일이다.

이 무시무시한 자들은 아직 인간조차 되지 못했다. 그들이 삶을 등지라고 설교하고 스스로 떠나가 버리기를!

영혼이 폐병에 걸린 자들이 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벌써 죽어 가기 시작하고, 피로와 단념의 가르침을 동경한다.

그들은 기꺼이 죽고 싶어 하니, 우리는 그들의 의지를 옳다고 해 주어야 하리라! 이 죽은 자들을 깨우거나 이 살아 있는 관들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병든 자나 늙은이나 주검과 마주치기만 하면, 그들은 곧바로 말한다. "삶은 반박되었다!"

그러나 반박된 것은 그들 자신일 뿐이요, 존재에서 단 하나의 얼굴만 보는 그들의 눈일 뿐이다.

짙은 우울에 휩싸여 죽음을 몰고 올 자잘한 우연들을 탐내며, 그들은 그렇게 이를 악물고 기다린다.

아니면 또 그들은 달콤한 과자에 손을 뻗으면서 제 어린애 짓을 비웃고, 삶이라는 제 지푸라기에 매달린 채 아직도 지푸라기 하나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비웃는다.

그들의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삶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삶은 괴로움일 뿐이다." 다른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그치도록 하라! 괴로움일 뿐인 삶이 그치도록 하라!

그러니 그대들의 덕이 내리는 가르침은 이렇게 울려야 하리라. "그대는 그대 자신을 죽일지니라! 그대는 그대 자신을 훔쳐 달아날지니라!"[1]

"쾌락은 죄다."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한옆으로 비켜서서 아이를 낳지 말자!"

"해산은 수고롭다." 다른 자들은 말한다. "무엇 하러 또 낳는가? 불행한 자들을 낳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 또한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다.

"동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받으라, 내가 가진 것을! 받으라, 나 자신을! 그럴수록 삶이 나를 덜 묶는다!"

그들이 속속들이 동정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이웃들이 삶에 정나미가 떨어지게 만들 것이니, 악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올바른 선함이리라.

그러나 그들은 삶에서 풀려나고 싶을 뿐이니, 제 사슬과 제 선물로 남들을 한층 더 단단히 묶어 놓는다 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리고 삶이 거친 노동이요 불안인 그대들이여, 그대들도 삶에 몹시 지치지 않았는가? 죽음의 설교를 들을 만큼 무르익지 않았는가?

거친 노동을, 빠른 것과 새로운 것과 낯선 것을 좋아하는 그대들 모두여,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을 견디지 못하니, 그대들의 부지런함은 도피요 자기 자신을 잊으려는 의지다.

그대들이 삶을 더 믿는다면 순간에 몸을 덜 내던지리라. 그러나 그대들 안에는 기다릴 만한 알맹이가 넉넉하지 않다. 게으름을 피울 만한 알맹이조차!

어디서나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대지는 죽음의 설교를 들어야 마땅한 자들로 가득하다.

아니면 '영원한 삶'이라도 좋다. 내게는 다 매한가지다. 그들이 서둘러 떠나가기만 한다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지니라'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장 13절·15절, 개역한글)를 뒤집은 말이다. 원어 sich davonstehlen(몰래 빠져나가다)에는 stehlen(훔치다)이 들어 있다.

전쟁과 전사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적들이 우리를 봐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우리가 속속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봐주기를 바라지도 않으니, 이제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게 해 다오!

전쟁터의 내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속속들이 사랑하노라. 나는 지금도 그대들과 같은 자이고, 예전에도 그러했다. 그리고 나는 그대들의 가장 좋은 적이기도 하니, 이제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게 해 다오!

나는 그대들 마음속의 증오와 시기를 안다. 그대들은 증오와 시기를 모를 만큼 위대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은 위대해져라!

그리고 그대들이 인식의 성자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인식의 전사는 되어 다오. 전사들은 그런 거룩함의 길동무요 선구자다.

병사는 많이 보인다. 전사가 많이 보였으면! 사람들은 그들이 입은 옷을 제복(Ein-form)이라 부른다. 그 옷으로 감춘 속까지 판박이(Ein-form)가 아니기를!

그대들은 눈으로 늘 적을 찾는 자들, **그대들의** 적을 찾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대들 가운데 몇몇에게는 첫눈에 반하는 증오가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적을 찾아야 하고, 그대들의 전쟁을, 그대들의 생각을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대들의 생각이 지더라도, 그대들의 정직은 그 패배를 두고 오히려 승리를 외쳐야 한다!

그대들은 새로운 전쟁의 수단으로서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긴 평화보다 짧은 평화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대들에게 나는 일이 아니라 싸움을 권한다. 그대들에게 나는 평화가 아니라 승리를 권한다. 그대들의 일은 싸움이어라, 그대들의 평화는 승리이어라!

활과 화살을 지니고 있어야만 사람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수다를 떨고 말다툼을 벌인다. 그대들의 평화는 승리이어라!

전쟁마저 거룩하게 하는 것은 좋은 대의라고 그대들은 말하는가? 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모든 대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좋은 전쟁이다.

전쟁과 용기는 이웃 사랑보다 더 많은 큰일을 해냈으니, 지금까지 재난을 당한 자들을 구해 낸 것은 그대들의 동정이 아니라 그대들의 용감함이었다.

무엇이 좋은가? 그대들은 묻는다. 용감한 것이 좋다. 어린 소녀들은 이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라. "좋은 것은 예쁘면서도 가슴 뭉클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대들을 무정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대들의 마음은 참되니, 나는 그대들이 제 다정함을 부끄러워하는 그 수줍음을 사랑하노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밀물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자들은 제 썰물을 부끄러워한다.

그대들이 추하다고? 좋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다면 숭고함을, 추한 자의 망토를 몸에 둘러라!

그리고 그대들의 영혼이 커지면 영혼은 방자해지니, 그대들의 숭고함 속에는 악의가 있다. 나는 그대들을 안다.

악의 속에서 방자한 자와 나약한 자가 만난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오해한다. 나는 그대들을 안다.

그대들은 미워할 만한 적만 두어야 하고 경멸할 만한 적은 두어서는 안 되며, 그대들의 적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니, 그러면 그대들 적의 성공이 곧 그대들의 성공이기도 하다.

반항, 그것이 노예에게 있는 고귀함이다. 그대들의 고귀함은 복종이어라! 그대들의 명령마저 하나의 복종이어라!

좋은 전사에게는 '그대는 해야 한다'가 '나는 원한다'보다 더 듣기 좋게 울리니, 그대들이 아끼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들은 먼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

삶을 향한 그대들의 사랑은 그대들의 가장 높은 희망을 향한 사랑이어라. 그리고 그대들의 가장 높은 희망은 삶의 가장 높은 생각이어라!

그러나 그대들의 가장 높은 생각은 내게서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 그 생각은 이렇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그러니 복종과 전쟁의 삶을 살아라! 오래 사는 것이 다 무엇이냐! 어느 전사가 봐주기를 바라겠는가!

나는 그대들을 봐주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을 속속들이 사랑하노라, 전쟁터의 내 형제들이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우상에 대하여

어딘가에는 아직 민족과 무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다, 내 형제들이여. 우리에게는 국가들이 있다.

국가? 그것이 무엇인가? 좋다! 이제 내게 귀를 열어라. 이제 나 그대들에게 민족들의 죽음에 관한 나의 말을 들려주노라.

모든 차가운 괴물 가운데 가장 차가운 괴물, 그것을 일러 국가라 한다. 그 괴물은 차갑게 거짓말도 한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이런 거짓말이 기어 나온다. "나, 국가가 곧 민족이다."

거짓말이다! 민족들을 창조한 것은 창조하는 자들이었으니, 그들은 민족들 위에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사랑을 걸어 두었고, 그렇게 삶을 섬겼다.

많은 자들을 노려 덫을 놓고 그 덫을 국가라 부르는 것은 허무는 자들이니, 그들은 그 많은 자들 위에 칼 한 자루와 백 가지 욕망을 걸어 둔다.

아직 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민족이 국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를 사악한 눈길이요 관습과 법을 거스르는 죄로 여겨 미워한다.

나 그대들에게 이 표적을 주노라. 민족마다 선과 악에 관해 저만의 방언을 말하며, 이웃 민족은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다. 민족은 관습과 법 속에서 제 언어를 스스로 발명했다.

그러나 국가는 선과 악의 온갖 방언으로 거짓말을 하니, 무슨 말을 하든 거짓말을 하고, 무엇을 가졌든 훔친 것이다.

국가에게 있는 것은 모두 가짜다. 잘 무는 이 괴물은 훔친 이빨로 문다. 그 내장까지도 가짜다.

선과 악의 언어 혼잡, 나 이것을 국가의 표적으로 그대들에게 주노라. 진실로, 이 표적은 죽음에의 의지를 가리킨다! 진실로, 이 표적은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에게 손짓한다!

너무 많은 자들이 태어난다. 남아도는 자들을 위해 국가가 발명되었다!

보라, 국가가 너무 많은 자들을 어떻게 제게로 꾀어 들이는지! 그들을 어떻게 삼키고 씹고 되새김질하는지!

"대지 위에 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나는 질서를 세우는 신의 손가락이다." 그 괴물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그리고 당나귀 귀를 단 자들과 근시안들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다!

아, 그대들 위대한 영혼들이여, 국가는 그대들 안에도 제 음울한 거짓말을 속삭인다! 아, 국가는 기꺼이 자신을 탕진하는 풍요로운 마음들을 알아챈다!

그렇다, 옛 신을 이긴 그대들이여, 국가는 그대들도 알아챈다! 그대들은 싸우다 지쳤고, 이제 그대들의 피로마저 새로운 우상을 섬긴다!

새로운 우상은 영웅들과 명예로운 자들을 제 둘레에 세워 두고 싶어 한다! 그 차가운 괴물은 깨끗한 양심들이 비추는 햇볕을 즐겨 쬔다!

그대들이 경배하기만 하면 새로운 우상은 모든 것을 **그대들에게** 주려 하니, 그렇게 그 우상은 그대들의 덕이 내는 광채와 그대들의 긍지 높은 눈빛을 사들인다.

새로운 우상은 그대들을 미끼 삼아 너무 많은 자들을 낚으려 한다! 그렇다, 거기서 지옥의 요술 하나가 발명되었으니, 신에게나 어울릴 영예로 치장하고 절그럭거리는 죽음의 말이다!

그렇다, 거기서 스스로를 삶이라 찬양하는 죽음,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 발명되었으니, 진실로 죽음을 설교하는 모든 자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예배로다!

나는 선한 자든 못된 자든 모두가 독을 마시는 곳을 국가라 부르니, 선한 자든 못된 자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잃는 곳이 국가요, 모두가 천천히 저지르는 자살이 '삶'이라 불리는 곳이 국가다.

보라, 이 남아도는 자들을! 그들은 발명한 자들의 작품과 현자들의 보물을 훔쳐 제 것으로 삼고는 그 도둑질을 교양이라 부르니,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병이 되고 탈이 되고 만다!

보라, 이 남아도는 자들을! 그들은 늘 병들어 있으니, 제 쓸개즙을 토해 내고는 그것을 신문이라 부른다. 그들은 서로를 집어삼키지만 서로를 소화하지도 못한다.

보라, 이 남아도는 자들을! 그들은 재물을 모으지만 그럴수록 더 가난해진다. 그들은 힘을 원하고, 무엇보다 먼저 힘의 쇠지레인 많은 돈을 원한다. 이 힘없는 자들이!

보라, 이 날랜 원숭이들이 기어오르는 꼴을! 그들은 서로의 몸을 밟고 넘어 기어오르다가, 그렇게 서로를 진창과 밑바닥으로 끌어내린다.

그들은 모두 왕좌로 가려 하니, 그것이 그들의 광기다. 마치 행복이 왕좌에 앉아 있다는 듯이! 왕좌에는 곧잘 진창이 앉아 있고, 왕좌 또한 곧잘 진창 위에 앉아 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미친 자들이요, 기어오르는 원숭이들이요, 너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의 우상, 그 차가운 괴물은 내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이 우상 숭배자들도 모두 한데 어울려 내게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정녕 그들의 주둥이와 탐욕이 내뿜는 김에 숨이 막혀 죽으려는가! 차라리 창문을 부수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라!

고약한 냄새를 비켜 가라! 남아도는 자들의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고약한 냄새를 비켜 가라! 이 인신 공양이 피워 올리는 연기에서 떠나라!

위대한 영혼들에게는 지금도 대지가 열려 있으니, 고독한 자들과 둘이서 고독한 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직 많이 비어 있고, 그 둘레에는 고요한 바다의 내음이 감돈다.

위대한 영혼들에게는 아직 자유로운 삶이 열려 있다. 진실로, 적게 소유하는 자는 그만큼 덜 소유당한다. 작은 가난은 찬양받을지어다!

국가가 끝나는 곳, 거기서 비로소 남아돌지 않는 인간이 시작되고, 꼭 있어야 할 자의 노래가, 단 한 번뿐이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락이 시작된다.

국가가 **끝나는** 곳, 내 형제들이여, 그곳을 보라! 그대들에게는 저 무지개와 위버멘쉬에 이르는 다리들이 보이지 않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시장의 파리들에 대하여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피하라! 내 눈에 비친 그대는 위인들의 소란에 귀가 멍멍하고, 소인배들의 침에 온통 쏘여 있다.

숲과 바위는 그대와 함께 의젓하게 침묵할 줄 안다. 그대가 사랑하는 나무, 가지를 넓게 펼친 그 나무를 다시 닮아라. 그 나무는 고요히 귀를 기울이며 바다 위로 드리워져 있다.

고독이 끝나는 곳에서 시장이 시작되고, 시장이 시작되는 곳에서 위대한 배우들의 소란과 독 파리들의 윙윙거림도 시작된다.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것들도 누군가 먼저 무대에 올려 주지 않으면 아직 아무 쓸모가 없으니, 군중은 이렇게 무대에 올리는 자들을 위인이라 부른다.

군중은 위대한 것, 곧 창조하는 것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지만, 큰일을 무대에 올리는 자와 큰일을 연기하는 배우라면 누구에게든 감각이 열려 있다.

새로운 가치를 발명하는 자들을 축으로 세계는 돈다. 보이지 않게 돈다. 그러나 배우들을 축으로는 군중과 명성이 도니,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다.

배우에게는 정신이 있으나 정신의 양심은 별로 없으니, 그는 언제나 자신이 남들을 가장 강하게 믿게 만드는 것, **자신을** 믿게 만드는 것을 믿는다!

내일이면 그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있고, 모레면 더 새로운 믿음이 있다. 그는 군중처럼 감각이 재빠르고, 냄새를 맡는 코가 날씨처럼 변덕스럽다.

쓰러뜨리는 것, 그에게는 그것이 곧 증명이다. 미쳐 날뛰게 하는 것, 그에게는 그것이 곧 설득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피가 모든 근거 가운데 가장 좋은 근거로 통한다.

섬세한 귀에만 살며시 스며드는 진리를 그는 거짓이요 헛것이라 부른다. 진실로, 그는 세상에 큰 소란을 일으키는 신들만 믿는다!

시장은 엄숙한 어릿광대들로 가득하고, 군중은 제 위인들을 자랑한다! 군중에게는 그들이 이 시간의 주인들이다.

그러나 시간이 그들을 다그치니, 그들은 그대를 다그친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에게서도 '그렇다'나 '아니다'를 받아 내려 한다. 슬프다, 그대는 찬성과 반대 사이에 그대의 의자를 놓으려 하는가?

진리의 연인이여, 이 무조건적인 자들, 다그치는 자들 때문에 질투하지 마라! 진리는 아직 한 번도 무조건적인 자의 팔에 매달린 적이 없다.

이 느닷없는 자들 때문이라면 그대의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라. 오직 시장에서만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물음이 사람을 덮친다.

깊은 우물은 모두 더디게 겪는다. 제 깊은 곳에 **무엇이** 떨어졌는지 알기까지 우물들은 오래 기다려야 한다.

위대한 것은 모두 시장과 명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니, 새로운 가치를 발명하는 자들은 예로부터 시장과 명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다.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피하라. 내 눈에 비친 그대는 독파리들에게 온통 쏘여 있다. 거칠고 힘찬 바람이 부는 곳으로 피하라!

그대의 고독 속으로 피하라! 그대는 소인배들과 비루한 자들에게 너무 가까이 살았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복수를 피하라! 그대에게 그들은 복수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는 그들에게 팔을 쳐들지 마라! 그들은 셀 수 없이 많고, 파리채가 되는 것은 그대의 운명이 아니다.

이 소인배들과 비루한 자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빗방울과 잡초 때문에 몰락한 당당한 건물도 이미 적지 않다.

그대는 돌이 아니건만 벌써 수많은 방울에 속이 패었다. 이러다가는 수많은 방울에 그대가 깨지고 산산이 터지고 말리라.

독 파리들에 시달려 지친 그대가 보이고, 백 군데나 긁혀 피 흘리는 그대가 보인다. 그런데도 그대의 긍지는 노여워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아주 순진무구하게 그대의 피를 원한다. 피 없는 그들의 영혼이 피를 탐하니, 그래서 그들은 아주 순진무구하게 찌른다.

그러나 깊은 자여, 그대는 작은 상처에도 너무 깊이 괴로워하니, 그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똑같은 독벌레가 벌써 그대의 손 위로 기어올랐다.

내가 보기에 그대는 이 군것질쟁이들을 죽이기에는 너무 긍지가 높으나, 그들의 독 묻은 불의를 모조리 짊어지는 것이 그대의 숙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은 칭찬을 늘어놓으며 그대 둘레를 윙윙거리기도 하니 그들의 칭찬은 치근거림이요, 그들은 그대의 살갗과 그대의 피 가까이 붙어 있고 싶어 한다.

그들은 신이나 악마에게 하듯 그대에게 아첨하고, 신이나 악마 앞에서 하듯 그대 앞에서 낑낑거린다. 그게 무슨 대수냐! 그들은 아첨꾼이요 낑낑대는 자들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그들은 곧잘 그대 앞에서 상냥한 자로 행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비겁한 자들의 슬기였다. 그렇다, 비겁한 자들은 슬기롭다!

그들은 그 비좁은 영혼으로 그대를 두고 생각이 많으니, 그대는 늘 그들의 마음에 걸린다! 자꾸 마음에 두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에 걸리게 된다.

그들은 그대의 모든 덕을 두고 그대를 벌한다.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오직…… 그대의 헛손질뿐이다.

그대는 온화하고 마음이 의로워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제 작은 존재에 대해 죄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비좁은 영혼은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큰 존재는 죄다."

그대가 그들에게 온화하게 대해 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대에게 경멸받는다고 느끼니, 그들은 그대가 베푼 선행을 숨겨 둔 악행으로 되갚아 준다.

말 없는 그대의 긍지는 늘 그들의 입맛에 거슬리니, 그대가 어쩌다 한 번 허영을 부릴 만큼 겸손해지면 그들은 쾌재를 부른다.

우리가 한 인간에게서 알아보는 것, 우리는 바로 그것에 불을 붙이기도 한다. 그러니 소인배들을 조심하라!

그대 앞에서 그들은 자신이 작다고 느끼고, 그들의 비천함은 보이지 않는 복수가 되어 그대를 향해 은근히 타오르며 이글거린다.

그대가 다가가면 그들이 얼마나 자주 입을 다물었는지, 꺼져 가는 불에서 연기가 빠져나가듯 그들에게서 힘이 어떻게 나가 버렸는지 그대는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그렇다, 벗이여, 그들은 그대에게 합당치 않으니 그대는 그대 이웃들에게 양심의 가책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를 미워하고 그대의 피를 빨고 싶어 한다.

그대의 이웃들은 언제나 독 파리로 남을 것이니, 그대에게서 위대한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욱 독하게, 갈수록 더 파리답게 만들 수밖에 없다.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거칠고 힘찬 바람이 부는 곳으로 피하라. 파리채가 되는 것은 그대의 운명이 아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순결에 대하여

나는 숲을 사랑한다. 도시는 살기에 좋지 않으니, 그곳에는 욕정에 달아오른 자들이 너무 많다.

살인자의 손에 걸려드는 편이 욕정에 달아오른 여자의 꿈에 걸려드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그리고 저 사내들을 좀 보라. 그들의 눈이 말해 주듯,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여자와 동침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영혼 밑바닥에는 진창이 있다. 슬프다, 그 진창에 정신까지 깃들어 있다면!

그대들이 적어도 짐승으로서는 완전하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짐승에게는 순진무구함이 따르는 법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감각을 죽이라고 권하는가? 나는 그대들에게 감각의 순진무구함을 권하노라.

내가 그대들에게 순결을 권하는가? 순결은 몇몇에게는 덕이지만, 많은 자들에게는 거의 악덕이다.

이들은 물론 몸을 삼가지만,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관능이라는 암캐가 시샘하는 눈으로 내다본다.

이들이 제 덕의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도, 차디찬 정신 속에까지 깊숙이 들어가도, 이 짐승은 제가 일으키는 불화를 거느리고 이들을 뒤따라간다.

그리고 관능이라는 암캐는 고기 한 조각을 얻지 못하면 그 대신 정신 한 조각이라도 얻으려고 얼마나 얌전하게 구걸할 줄 아는가!

그대들은 비극을, 그리고 가슴을 찢어 놓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가? 그러나 나는 그대들의 암캐가 미덥지 않다.

내가 보기에 그대들의 눈은 너무 잔인하고, 그대들은 괴로워하는 자들을 음탕하게 바라본다. 그대들의 쾌락이 변장을 하고서 제 이름을 동정이라 부르는 것뿐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비유도 그대들에게 들려주노라. 제 악마를 쫓아내려던 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그러다가 저희 자신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 버렸다.[1]

순결이 힘겨운 자에게는 순결을 말려야 한다. 순결이 그에게 지옥으로 가는 길, 곧 영혼의 진창과 욕정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내가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내게는 그것이 가장 나쁜 일이 아니다.

진리가 더러울 때가 아니라 얕을 때, 인식하는 자는 진리의 물에 들어가기를 꺼린다.

진실로, 밑바닥까지 순결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그대들보다 마음이 온화하고, 그대들보다 더 즐겨, 더 넉넉히 웃는다.

그들은 순결을 두고도 웃으며 이렇게 묻는다. "순결이 다 무엇이냐!"

"순결은 어리석음이 아닌가?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찾아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손님에게 잠자리와 마음을 내주었다. 이제 그는 우리 곁에 산다.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라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 마가복음 5장 1~13절에서 예수가 쫓아낸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는 이야기를 비튼 말이다.

벗에 대하여

"내 곁에는 언제나 하나가 너무 많다." 은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늘 하나 곱하기 하나, 그것이 오래가면 둘이 된다!"

'내가'와 '나를'은 언제나 너무 열을 올려 이야기를 나누니, 벗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은자에게 벗은 언제나 셋째 사람이니, 이 셋째 사람이야말로 둘이 나누는 대화가 깊은 곳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막아 주는 코르크다.

아, 모든 은자에게는 깊은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벗을, 그리고 그 벗의 높이를 동경한다.

남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우리 자신을 믿고 싶어 하는지를 밀고한다. 벗을 향한 우리의 동경이야말로 우리를 밀고하는 자다.

그리고 사람은 흔히 사랑으로 시기를 뛰어넘으려 할 뿐이다. 또 흔히 제게 공격받을 빈틈이 있다는 것을 감추려고 공격하여 적을 만든다.

"적어도 내 적이 되어 다오!" 감히 우정을 청하지 못하는 참된 경외는 그렇게 말한다.

벗을 두려는 자는 벗을 위해 전쟁도 치르려 해야 하고, 전쟁을 치르려면 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벗 안에 있는 적까지도 존중해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벗에게 바싹 다가서면서도 그에게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벗 안에 자신의 가장 좋은 적을 두어야 한다. 그대가 그에게 맞설 때, 그대의 마음은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벗 앞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려는가? 그대가 있는 그대로 그에게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이 곧 그대 벗을 높이는 일이라는 말인가?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그는 그대더러 귀신이나 물어 가라고 한다!

자기를 조금도 숨기지 않는 자는 남을 분개하게 하니, 그대들이 벌거벗음을 두려워하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그렇다, 그대들이 신들이라면, 그때는 그대들의 옷을 부끄러워해도 좋으리라!

그대가 그대의 벗을 위해 아무리 곱게 단장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그대는 그에게 위버멘쉬를 향한 하나의 화살이요 하나의 동경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벗이 참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그가 잠든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평소 그대 벗의 얼굴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거칠고 불완전한 거울에 비친 그대 자신의 얼굴이다.

그대는 그대의 벗이 잠든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대의 벗이 그렇게 생겼다는 데 소스라치지 않았는가? 오, 내 벗이여,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벗은 알아채는 일과 입을 다무는 일에 대가여야 하니, 모든 것을 보려 들지 마라. 그대의 벗이 깨어서 하는 일은 그대의 꿈이 그대에게 일러 주어야 한다.

그대의 동정은 알아채는 일이 되어라, 그대의 벗이 동정을 원하기는 하는지 그대가 먼저 알 수 있도록. 어쩌면 그는 그대에게서 흐려지지 않은 눈과 영원의 눈길을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벗에게 품는 동정은 단단한 껍데기 속에 숨어 있어야 하니, 그대는 그 껍데기를 깨물다가 이 하나쯤은 부러뜨려야 한다. 그래야 그 동정은 제

섬세함과 달콤함을 지니게 되리라.

그대는 그대의 벗에게 맑은 공기요 고독이요 빵이요 약인가? 제 사슬은 풀지 못하면서도 벗에게는 사슬을 풀어 주는 구원자가 되는 자가 적지 않다.

그대는 노예인가? 그렇다면 그대는 벗이 될 수 없다. 그대는 폭군인가? 그렇다면 그대는 벗을 둘 수 없다.

너무나 오랫동안 여자 안에는 노예와 폭군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여자는 아직 우정을 나눌 줄 모르고, 오직 사랑만을 안다.

여자의 사랑에는 제가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불의와 맹목이 있다. 그리고 앎이 깃든 여자의 사랑에도 빛 곁에는 여전히 기습과 번개와 밤이 있다.

여자는 아직 우정을 나눌 줄 모르니, 여자들은 여전히 고양이요 새다. 아니면 기껏해야 암소다.

여자는 아직 우정을 나눌 줄 모른다. 그러나 말해 보라, 사내들이여, 그대들 가운데 대체 누가 우정을 나눌 줄 아는가?

오, 사내들이여, 그대들의 가난이여, 그대들 영혼의 인색함이여! 그대들이 벗에게 주는 만큼이라면 나는 내 적에게라도 주겠고, 그러고도 조금도 더 가난해지지 않으리라.

동지애는 있다. 부디 우정도 있기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천 개의, 그리고 하나의 목표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는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을 보았고, 그렇게 많은 민족의 선과 악을 발견했다. 차라투스트라는 대지 위에서 선과 악보다 더 큰 힘을 찾지 못했다.

먼저 가치를 매기지 않고서는 어떤 민족도 살아갈 수 없겠지만,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민족이라면 이웃 민족이 매기는 대로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된다.

이 민족에게 선이라 불리던 많은 것이 다른 민족에게는 조롱과 치욕이라 불렸으니, 내가 본 바가 그러했다. 여기서는 악하다 불리던 많은 것이 저기서는 자줏빛 영예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웃이 이웃을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한쪽의 영혼은 언제나 이웃의 망상과 악의에 놀라워했다.

모든 민족 위에는 선한 것들을 새긴 서판이 걸려 있다. 보라, 그것은 그 민족이 이룬 극복들을 새긴 서판이요, 보라, 그것은 그 민족의 힘에의 의지가 내는 목소리다.

그 민족이 무겁게 여기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없어서는 안 되면서도 무거운 것은 선이라 불리며, 가장 큰 곤경에서마저 벗어나게 해 주는 것, 드물고 가장 무거운 것, 그것을 그 민족은 거룩하다 기린다.

그 민족을 다스리게 하고 이기게 하고 빛나게 하여 이웃에게 공포와 시기를 안기는 것, 그것이 그 민족에게는 높은 것, 첫째가는 것, 척도가 되는 것, 만물의 뜻으로 여겨진다.

진실로, 내 형제여, 그대가 먼저 한 민족의 곤궁과 땅과 하늘과 이웃을 알아보았다면, 그 민족이 이룬 극복들의 법칙도, 그 민족이 무엇 때문에 이 사다리를 타고 제 희망으로 올라가는지도 능히 알아맞히리라.

"그대는 언제나 첫째가 되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며, 그대의 질투하는 영혼은 벗 말고는 아무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한 그리스인의 영혼을 떨리게 했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제 위대함의 오솔길을 걸어갔다.

"진실을 말하고, 활과 화살을 잘 다룰 것." 내 이름이 비롯된 저 민족에게는 이것이 소중하면서도 무거운 일로 여겨졌다. 그 이름은 내게도 소중하면서도 무거운 이름이다.[1]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영혼의 뿌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뜻을 따를 것." 또 다른 한 민족은 이 극복의 서판을 제 머리 위에 내걸었고, 그로써 강대해지고 영원해졌다.

"신의를 지키고, 신의를 위해서라면 악하고 위태로운 일에도 명예와 피를 걸 것." 또 다른 한 민족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 자신을 굴복시켰고, 이렇게 제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크나큰 희망들을 잉태하여 몸이 무거워졌다.

진실로, 인간들은 자신의 모든 선과 악을 스스로에게 주었다. 진실로, 그들은 그것을 어디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찾아낸 것도 아니었으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가 되어 그들에게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자신을 보존하려고 사물들 속에 비로소 가치를 집어넣은 것은 인간이었으니, 인간이 비로소 사물들에게 뜻을, 인간의 뜻을 창조해 주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인간', 곧 가치를 매기는 자라 부른다.

가치를 매기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이다. 들어라, 창조하는 자들이여! 가치를 매기는 일 그 자체가 가치 매겨진 모든 것의 보물이요 보석이다.

가치를 매기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으니, 가치를 매기는 일이 없다면 존재라는 호두는 속이 텅 비어 있으리라. 들어라, 창조하는 자들이여!

가치의 변화, 그것은 창조하는 자들의 변화다.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 자는 언제나 허문다.

창조하는 자는 처음에는 민족들이었고 한참 뒤에야 개개인이었으니, 진실로, 개인이란 아직 가장 어린 창조물이다.

민족들은 한때 선을 새긴 서판을 제 머리 위에 내걸었다. 다스리려는 사랑과 복종하려는 사랑이 함께 그런 서판들을 창조해 냈다.

무리에서 얻는 기쁨이 자아에서 얻는 기쁨보다 오래되었으니, 좋은 양심이 곧 무리를 뜻하는 동안에는 나쁜 양심만이 '나'라고 말한다.

진실로, 교활한 자아, 사랑 없는 자아, 많은 자들이 누리는 이익 속에서 제 이익을 원하는 자아, 그런 자아는 무리의 기원이 아니라 무리의 몰락이다.

선과 악을 창조한 것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창조하는 자들이었다. 모든 덕의 이름 속에는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분노의 불이 타오른다.

차라투스트라는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을 보았고, 차라투스트라는 대지 위에서 사랑하는 자들의 작품보다 더 큰 힘을 찾지 못했으니, 그 작품들의 이름은 '선'과 '악'이다.

진실로, 이 칭찬하고 비난하는 힘은 괴물이다. 말하라, 형제들이여, 누가 나를 위해 이 괴물을 굴복시키겠는가? 말하라, 누가 이 짐승의 천 개의 목에 굴레를 씌우겠는가?

지금까지 천 개의 목표가 있었다. 천 개의 민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천 개의 목에 씌울 굴레만이 아직 없으니, 그 하나의 목표가 없다. 인류에게는 아직 목표가 없다.

그러나 내 형제들이여, 내게 말해 보라. 인류에게 아직 목표가 없다면, 인류 그 자체도…… 아직 없는 것이 아닌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페르시아인을 가리킨다. 차라투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 종교를 세운 예언자로, 그리스어식 이름인 조로아스터로도 알려져 있다.

이웃 사랑에 대하여

그대들은 이웃 곁으로 몰려들고, 그 일을 두고 아름다운 말들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그대들의 이웃 사랑은 그대들 자신에 대한 그대들의 나쁜 사랑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을 피해 이웃에게로 달아나면서 그 도피에서 덕을 하나 만들어 내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대들의 '사심 없음'을 꿰뚫어 본다.

'그대'는 '나'보다 오래되었고, '그대'는 거룩하다 선포되었으나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웃에게로 몰려간다.

내가 그대들에게 이웃 사랑을 권하는가? 차라리 나는 그대들에게 이웃에게서 달아나기를, 그리고 가장 먼 자에 대한 사랑을 권하노라![1]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은 것은 가장 먼 자, 앞으로 올 자에 대한 사랑이며,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 더욱 높은 것은 사물과 유령에 대한 사랑이다.

내 형제여, 그대 앞에서 달려가는 이 유령은 그대보다 아름다운데, 어찌하여 그대는 그에게 그대의 살과 뼈를 내주지 않는가? 그러나 그대는 두려워하며 그대의 이웃에게로 달려간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들 자신을 넉넉히 사랑하지도 않으니, 이제 이웃을 꾀어 그대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의 착각으로 그대들 자신에게 금칠을 하려 한다.

차라리 그대들이 온갖 이웃과 그 이웃의 이웃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좋으련만, 그러면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에게서 그대들의 벗을, 그리고 넘쳐흐르는 벗의 마음을 창조해 낼 수밖에 없으리라.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고 싶을 때면 증인 하나를 불러들이고, 그를 꾀어 그대들을 좋게 생각하게 만들고 나면 그대들 스스로도 그대들 자신을 좋게 생각한다.

제 앎을 거슬러 말하는 자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모름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대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렇게 그대들 자신에 대해 말하고, 그대들 자신을 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한다.

바보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인격을 버린다. 인격이 없는 자라면 더욱 그렇다."

어떤 자는 자신을 찾으려고 이웃에게 가고, 어떤 자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이웃에게 간다. 그대들 자신에 대한 그대들의 나쁜 사랑이 그대들의 고독을 감옥으로 만든다.

그대들의 이웃 사랑에 값을 치르는 것은 더 먼 자들이니, 그대들이 다섯이서 함께 어울리기만 해도 언제나 여섯째 사람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그대들의 잔치도 사랑하지 않으니, 거기서 나는 배우를 너무 많이 보았고, 구경꾼들마저 곧잘 배우처럼 굴었다.

나 그대들에게 이웃이 아니라 벗을 가르치노라. 벗은 그대들에게 대지의 잔치가 되고 위버멘쉬의 예감이 되어라.

나 그대들에게 벗을, 그리고 넘치도록 가득한 벗의 마음을 가르치노라. 그러나 넘치도록 가득한 마음이 주는 사랑을 받으려면 해면이 될 줄 알아야 한다.

나 그대들에게 벗을 가르치노라, 그 안에 세계가 완성되어 서 있는 벗, 선을 담은 그릇인 벗, 언제나 선사할 완성된 세계를 지닌 창조하는 벗을.

그리고 세계가 그의 앞에서 굴러 펼쳐졌듯이, 세계는 악을 거쳐 선이 생성되는 것으로서, 우연에서 목적이 생성되는 것으로서 다시 고리를 그리며 그에게로 말려 든다.

미래와 가장 먼 것이 그대의 오늘을 있게 하는 원인이 되어라. 그대의 벗 안에서 그대는 위버멘쉬를 그대의 원인으로서 사랑해야 한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웃 사랑을 권하지 않는다. 나 그대들에게 가장 먼 자에 대한 사랑을 권하노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이웃'으로 옮긴 der Nächste는 본디 '가장 가까운 자'라는 뜻으로, 루터 성경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장 18절, 마태복음 22장 39절)의 '이웃'을 옮긴 말이다. 니체는 여기에 맞세워 '가장 먼 자'(der Fernste)에 대한 사랑, 곧 Fernsten-Liebe라는 말을 지었다.

창조하는 자의 길에 대하여

내 형제여, 그대는 고독 속으로 들어가려는가? 그대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으려는가? 조금만 더 머뭇거리며 내 말을 들어라.

"찾는 이는 자칫 제 자신을 잃어버린다. 모든 고독은 죄이다." 무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대는 오랫동안 무리에 속해 있었다.

무리의 목소리는 그대 안에서도 여전히 울리리라. 그리고 언젠가 그대가 "나는 더는 그대들과 하나의 양심을 나누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될 때, 그 말은 하나의 탄식이요 하나의 아픔이 되리라.

보라, 이 아픔마저도 여전히 그 하나의 양심이 낳은 것이니, 그 양심이 남긴 마지막 희미한 빛이 아직도 그대의 비애 위에서 불그스름하게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그대는 그대 비애의 길, 곧 그대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가려는가? 그렇다면 그럴 권리와 힘이 그대에게 있음을 내게 보여라!

그대는 새로운 힘이요 새로운 권리인가? 최초의 움직임인가?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인가? 그대는 별들까지도 억지로 그대 주위를 돌게 할 수 있는가?

아, 높은 곳을 탐하는 음욕이 얼마나 많은가! 야심가들의 경련이 얼마나 많은가! 그대가 음욕에 찬 자도 야심가도 아님을 내게 보여라!

아, 풀무 노릇밖에 하지 못하는 크나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들은 부풀려 놓고는 속을 더 텅 비게 만든다.

그대는 스스로를 자유롭다 일컫는가? 나는 그대를 다스리는 생각을 듣고 싶지, 그대가 멍에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다.

그대는 멍에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었던** 자인가? 제 종살이를 내던지면서 제 마지막 가치까지 내던져 버린 자가 적지 않다.

무엇에서 벗어난 자유인가? 그것이 차라투스트라에게 다 무엇이냐! 그대의 눈은 내게 환히 알려 주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그대의 악과 그대의 선을 줄 수 있는가? 그대의 의지를 율법처럼 그대 머리 위에 내걸 수 있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재판관이 되고 그대 율법의 복수자가 될 수 있는가?

제 율법의 재판관이자 복수자와 단둘이 있는 것은 무섭다. 그렇게 별 하나가 황량한 허공 속으로, 홀로 있음의 얼음 같은 숨결 속으로 내던져진다.

하나인 자여, 오늘은 아직 그대가 많은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오늘은 아직 그대의 용기도 온전하며 그대의 희망들도 온전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고독이 그대를 지치게 하고, 언젠가는 그대의 긍지가 구부러지고 그대의 용기가 삐걱거리리라. 언젠가 그대는 "나는 혼자다!" 하고 외치리라.

언젠가 그대는 그대의 높은 것을 더는 보지 못하고 그대의 낮은 것을 너무나 가까이 보게 되며, 그대의 숭고한 것마저 유령처럼 그대를 두렵게 하리라. 언젠가 그대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하고 외치리라.

고독한 자를 죽이려 드는 감정들이 있으니, 그 감정들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좋다, 그렇다면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대는 그럴 수 있는가, 살인자가 될 수 있는가?

내 형제여, 그대는 '경멸'이라는 말을 벌써 아는가? 그리고 그대를 경멸하는 자들에게조차 공정해야 하는 그대 정의의 고역을 아는가?

그대는 많은 자들에게 그대에 대한 생각을 고쳐 배우도록 강요하니, 그들은 그것을 두고두고 모질게 탓한다. 그대는 그들 가까이 다가갔으나 끝내 지나쳐 갔으니, 그들은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들을 넘어서 가지만, 그대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시기의 눈에는 그대가 더욱 작게 보인다. 그러나 누구보다 미움받는 자는 날아가는 자다.

그대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들이 어찌 나를 공정하게 대할 수 있으랴! 나는 그대들의 불의를 내게 재어 준 몫으로 택하노라."

그들은 고독한 자에게 불의와 오물을 던지지만, 내 형제여, 그대가 별이 되고자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덜 비추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제 덕을 스스로 발명하는 자들을 즐겨 십자가에 못 박으며, 고독한 자를 미워한다.

거룩한 단순함도 삼가라! 거룩한 단순함에게는 단순하지 않은 것이 모두 불경하며, 그것은 불장난도 즐겨 하니, 화형대의 불장난이다.

그리고 그대 사랑의 발작도 삼가라! 고독한 자는 자기와 마주치는 자에게 너무 서둘러 손을 내민다.

어떤 인간에게는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고 앞발만 내밀어야 하며, 나는 그대의 앞발에 발톱도 달려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대가 마주칠 수 있는 가장 나쁜 적은 언제나 그대 자신이리니, 그대 자신이 동굴과 숲에 숨어 그대를 노리고 기다린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간다! 그리고 그대의 길은 그대 자신의 곁을 지나고, 그대의 일곱 악마 곁을 지난다!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이단자요 마녀요 예언자요 바보요 의심하는 자요 불경한 자요 악당이 되리라.

그대는 그대 자신의 불꽃 속에서 스스로를 불사르려 해야 하니, 먼저 재가 되지 않고서야 그대가 어찌 새로워지려 하는가!

고독한 자여, 그대는 창조하는 자의 길을 가니, 그대의 일곱 악마로 그대는 하나의 신을 창조하려 한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사랑하는 자의 길을 가니, 그대는 그대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기에 오직 사랑하는 자들만이 경멸하듯이 그대 자신을 경멸한다.

사랑하는 자는 경멸하기에 창조하려 한다! 자기가 사랑한 바로 그것을 경멸해야만 했던 적이 없는 자가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내 형제여, 그대의 사랑을 안고, 그대의 창조를 안고 그대의 고독 속으로 가라. 정의는 한참 뒤에야 절뚝거리며 그대를 뒤따르리라.

내 형제여, 나의 눈물을 안고 그대의 고독 속으로 가라. 나는 사랑하노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 창조하려 하고 그리하여 파멸하는 자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어찌하여 이 어스름 속을 그리도 남의 눈을 꺼리며 살금살금 걸어가고, 외투 밑에는 무엇을 그리 조심조심 감추고 있는가?"

"그대가 선물로 받은 보물인가? 아니면 그대에게 난 아이인가? 아니면 이제는 그대 자신이 도둑들의 길을 걷는가, 그대 악한 자들의 벗이여?"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진실로, 내 형제여! 그것은 내가 선물로 받은 보물이니, 내가 품고 가는 것은 작은 진리 하나다.

그러나 이 진리는 어린아이처럼 막무가내여서, 내가 입을 막아 두지 않으면 너무 큰 소리로 울어 댄다.

오늘 해가 기울 무렵 내가 홀로 내 길을 가고 있을 때, 늙은 여자 하나가 나와 마주치더니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우리 여자들에게도 많은 것을 말했으나, 여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늙은 여자에게 대꾸했다. "여자에 대해서는 사내들에게만 말해야 한다."

"내게도 여자에 대해 말해 다오." 늙은 여자가 말했다. "나는 들은 것을 곧바로 잊어버릴 만큼 늙었다."

나는 늙은 여자의 청을 들어주어 이렇게 말했다.

여자에게 있는 모든 것은 수수께끼요, 여자에게 있는 모든 것에는 단 하나의 풀이가 있다. 그 풀이의 이름은 임신이다.

여자에게 사내는 수단이다. 목적은 언제나 아이다. 그렇다면 사내에게 여자는 무엇인가?

참된 사내는 두 가지를 원한다. 위험과 놀이다. 그래서 그는 가장 위험한 장난감으로서 여자를 원한다.

사내는 전쟁을 위해 길러져야 하고, 여자는 전사의 휴식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어리석음이다.

너무 단 열매, 전사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여자를 좋아한다. 가장 달콤한 여자도 여전히 쓰다.

여자는 사내보다 아이들을 더 잘 알지만, 사내는 여자보다 더 아이 같다.

참된 사내 안에는 아이가 숨어 있고, 그 아이는 놀고 싶어 한다. 자, 여자들이여, 사내 안에 숨은 그 아이를 찾아내어라!

여자는 장난감이어라, 보석처럼 맑고 고운 장난감, 아직 오지 않은 세계의 덕들이 비추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장난감이어라.

그대들의 사랑 속에서 별빛 한 줄기가 반짝이기를! 그대들의 희망은 이렇게 불리기를. "내가 위버멘쉬를 낳을 수 있기를!"

그대들의 사랑 속에 용감함이 있기를! 그대들은 그대들의 사랑을 앞세워, 그대들에게 두려움을 불어넣는 자에게 달려들어야 한다!

그대들의 사랑 속에 그대들의 명예가 있기를! 그 밖의 일에서는 여자가 명예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받는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고 결코 두 번째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대들의 명예이기를.

여자가 사랑할 때, 사내는 여자를 두려워하라. 그때 여자는 어떤 희생이든 치르고, 다른 모든 것은 여자에게 아무 가치도 없다.

여자가 미워할 때, 사내는 여자를 두려워하라. 사내는 영혼 밑바닥에서 그저 악할 뿐이지만, 여자는 거기서 나쁘기 때문이다.

여자는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 쇠가 자석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가 가장 밉다. 그대는 끌어당기기는 하나, 나를 그대에게까지 끌어갈 만큼 힘이 세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내의 행복은 '나는 원한다'이다. 여자의 행복은 '그가 원한다'이다.

"보라, 방금 세상이 완전해졌다!" 온 사랑을 다해 복종할 때 여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여자는 복종해야 하며, 제 겉면에 걸맞은 깊이를 찾아야 한다. 여자의 마음은 겉면이니, 얕은 물 위에 덮여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사납게 일렁이는 얇은 막이다.

그러나 사내의 마음은 깊고 그 물줄기는 땅속 동굴들을 울리며 흐르니, 여자는 그 힘을 어렴풋이 느낄 뿐 헤아리지는 못한다.

그러자 늙은 여자가 내게 대꾸했다. "차라투스트라는 고운 말을 많이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젊은 여자들에게는 더더욱 고운 말을."

"이상도 하지. 차라투스트라는 여자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도 여자들에 대해서는 옳은 말을 한다! 여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이제 그 답례로 작은 진리 하나를 받아라! 나로 말하면 그런 진리를 말해도 될 만큼 늙었으니!"

"그 진리를 잘 싸서 입을 막아 두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무 큰 소리로 울어 댈 테니, 이 작은 진리는."

"여자여, 그대의 작은 진리를 내게 다오!" 내가 말했다. 그러자 늙은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에게 가는가? 채찍을 잊지 마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독사에게 물린 일에 대하여

어느 날 차라투스트라는 날이 더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두 팔로 얼굴을 덮은 채 잠이 들었는데, 그때 독사 한 마리가 다가와 그의 목을 물었고 차라투스트라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그가 얼굴에서 팔을 거두고 뱀을 바라보자, 뱀은 차라투스트라의 눈을 알아보고는 어설프게 몸을 비틀며 달아나려 했다. "그러지 마라."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그대는 아직 내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대는 때맞춰 나를 깨워 주었다. 내 갈 길은 아직 길다." "그대 갈 길은 이제 짧다." 독사가 슬프게 말했다. "내 독은 목숨을 앗는다." 차라투스트라는 미소 지었다. "용이 뱀의 독에 죽은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대의 독은 도로 가져가라! 그대는 그것을 내게 선물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 그러자 독사는 다시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상처를 핥았다.

언젠가 차라투스트라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이 물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러면 그대 이야기의 교훈(Moral)은 무엇인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하고 의로운 자들은 나를 도덕을 허무는 자라 부른다. 내 이야기는 부도덕하다.

그러나 그대들에게 원수가 있거든 그에게 악을 선으로 갚지 마라, 그것은 그를 부끄럽게 만들 테니. 오히려 그가 그대들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 주었음을 증명해 보여라.

부끄럽게 만드느니 차라리 분을 내라! 그리고 누가 그대들을 저주할 때 그대들이 축복하려 드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차라리 조금 함께 저주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큰 불의를 당했거든, 얼른 거기에 작은 불의 다섯을 보태라! 불의에 혼자 짓눌린 자는 보기에 끔찍하다.

그대들은 이것을 벌써 알았는가? 나누어 짊어진 불의는 절반의 정의다. 그리고 불의를 짊어질 수 있는 자가 그 불의를 제 몸에 져야 한다!

작은 복수가 아무 복수도 없는 것보다 더 인간답다. 그리고 벌이 죄를 범한 자에게도 권리가 되고 명예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대들의 벌주기도 좋아하지 않는다.

옳다고 끝까지 버티느니 스스로 그르다고 인정하는 편이 더 고귀하며, 자기가 옳을 때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만 그러려면 넉넉히 부유해야 한다.

나는 그대들의 차가운 정의가 싫고, 그대들 재판관들의 눈에서는 언제나 망나니와 그의 차가운 칼날이 나를 내다본다.

말해 보라, 눈을 뜨고 보는 사랑인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벌뿐 아니라 모든 죄까지 짊어지는 사랑을 내게 발명해 다오!

그렇다면 재판하는 자만 빼고 모든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정의를 내게 발명해 다오!

이것까지 마저 듣고 싶은가? 뿌리부터 의롭고자 하는 자에게서는 거짓말마저 인간에 대한 친절이 된다.

그러나 내가 어찌 뿌리부터 의로우려 하겠는가! 내가 어찌 각자에게 그의 것을 줄 수 있겠는가! 나로서는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각자에게 나의 것을 준다.

끝으로, 내 형제들이여, 은자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일을 삼가라! 은자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은자가 어찌 되갚을 수 있겠는가!

은자는 깊은 우물과 같다. 거기에 돌을 던져 넣기는 쉬우나, 돌이 바닥까지 가라앉았다면, 말해 보라, 누가 그것을 다시 꺼내 오겠는가?

은자를 모욕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나 이미 모욕했다면, 좋다, 그렇다면 그를 죽이기까지 하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와 결혼에 대하여

내 형제여, 오직 그대에게만 던지는 물음이 있으니, 그대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자 나는 물 깊이를 재는 추를 내리듯 이 물음을 그대의 영혼 속으로 던진다.

그대는 젊고, 아이와 결혼을 바란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아이를 바라도 **되는** 인간인가?

그대는 승리한 자, 자기 자신을 이겨 낸 자, 감각을 다스리는 자, 그대 덕의 주인인가?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묻는다.

아니면 그대의 바람에서 짐승과 궁핍이 말하는가? 아니면 고독이? 아니면 그대 자신과의 불화가?

나는 그대의 승리와 그대의 자유가 아이를 동경하기를 원하노라. 그대는 그대의 승리와 그대의 해방을 기려 살아 있는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넘어서 지어 올려야 한다. 그러나 먼저 그대 자신부터 몸과 영혼이 반듯한 직각으로 지어져 있어야 한다.

그대는 앞으로만 번식할 것이 아니라 위로 번식해야 한다! 결혼이라는 정원이 그 일을 도와주기를!

그대는 더 높은 몸을, 최초의 움직임을,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를 창조해야 한다. 그대는 창조하는 자를 창조해야 한다.

결혼, 나는 둘이서 하나를, 그것을 창조한 둘보다 더 큰 하나를 창조하려는 의지를 그렇게 부르노라. 그런 의지를 의욕하는 자로서

서로를 우러르는 것, 나는 그것을 결혼이라 부른다.

이것이 그대 결혼의 뜻이요 진리이기를. 그러나 너무 많은 자들이, 저 남아도는 자들이 결혼이라 부르는 것, 아, 나는 그것을 무어라 불러야 하나?

아, 둘이서 나누는 이 영혼의 가난이여! 아, 둘이서 나누는 이 영혼의 더러움이여! 아, 둘이서 나누는 이 비루한 안락이여!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결혼이라 부르고, 자기네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졌다고 말한다.

글쎄, 나는 싫다, 남아도는 자들의 그 하늘이! 아니, 나는 싫다, 하늘의 그물에 뒤엉킨 그 짐승들이!

제가 짝지어 주지도 않은 것을 축복하겠다고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신도 내게서 멀리 있으라!

그런 결혼을 두고 웃지 마라! 제 부모를 두고 울 까닭이 없는 아이가 어디 있겠는가?

이 사내는 존경할 만하고 대지의 뜻을 감당할 만큼 무르익은 듯 보였으나, 그의 아내를 보았을 때 내게는 대지가 뜻 없는 자들을 가두어 두는 정신병원으로 보였다.

그렇다, 성자와 거위가 서로 짝을 지을 때면, 나는 대지가 경련을 일으키며 떨었으면 한다.

이 사내는 영웅처럼 진리들을 찾아 나섰다가 마침내 곱게 치장한 작은 거짓말 하나를 전리품으로 얻었다. 그는 그것을 제 결혼이라 부른다.

저 사내는 사람을 사귀는 데 까다로워 고르고 또 골랐다. 그러나 단 한 번에 제 어울림을 영영 망쳐 버렸다. 그는 그것을 제 결혼이라 부른다.

또 저 사내는 천사의 덕을 갖춘 하녀를 찾았다. 그러나 단번에 그 자신이 한 여자의 하녀가 되고 말았으니, 이제는 그 일로 그가 천사까지 되어야 할 판이다.

요즘 내가 보니 사는 자들은 모두 꼼꼼하고, 모두 약삭빠른 눈을 지녔다. 그러나 가장 약삭빠른 자도 제 아내만은 자루째로, 속도 보지 않고 산다.

숱한 짧은 어리석음, 그것을 그대들은 사랑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대들의 결혼은 기나긴 멍청함 하나로 숱한 짧은 어리석음에 끝을 낸다.

여자를 향한 그대들의 사랑과 사내를 향한 여자의 사랑, 아, 그 사랑이 괴로워하는 신들, 모습을 감춘 신들을 향한 동정이라면 좋으련만! 그러나 대개는 두 짐승이 서로를 알아챌 뿐이다.

그러나 그대들의 가장 좋은 사랑조차 황홀에 빠진 비유요 아픈 불길일 뿐이니, 그 사랑은 그대들에게 더 높은 길을 비추어 주어야 할 하나의 횃불이다.

언젠가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을 넘어서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먼저 사랑하기를 **배워라**! 그러기에 그대들은 그대들 사랑의 쓴 잔을 마셔야 했다.

가장 좋은 사랑의 잔에도 쓴맛이 들어 있으니, 그렇게 사랑은 위버멘쉬를 향한 동경을 일으키고, 그렇게 사랑은 그대, 창조하는 자에게 목마름을 일으킨다!

창조하는 자에게는 목마름을, 위버멘쉬를 향해서는 화살과 동경을. 말하라, 내 형제여, 이것이 결혼을 향한 그대의 의지인가?

나는 그런 의지와 그런 결혼을 거룩하다 부르노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많은 자가 너무 늦게 죽고, 몇몇은 너무 일찍 죽는다. "알맞은 때에 죽어라!" 하는 가르침은 아직 낯설게 들린다.

알맞은 때에 죽어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가르친다.

물론, 한 번도 알맞은 때에 살지 못하는 자가 어찌 알맞은 때에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런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는 남아도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하노라.

그러나 남아도는 자들도 제 죽음을 두고는 거드름을 피우고, 속이 가장 텅 빈 호두도 누가 깨뜨려 주기를 바란다.

모두가 죽는 일을 대단하게 여긴다. 그러나 죽음은 아직 축제가 아니니, 인간들은 가장 아름다운 축제를 어떻게 거룩하게 치르는지 아직 배우지 못했다.

나 그대들에게 완성하는 죽음을 보여 주노라. 산 자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산 자들의 서약이 되는 죽음을.

완성하는 자는 희망하는 자들과 서약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승리를 거두며 제 죽음을 죽는다.

사람은 이렇게 죽는 법을 배워야 하리니, 그렇게 죽어 가는 자가 산 자들의 맹세를 거룩하게 해 주지 않는 축제란 하나도 없어야 하리라!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좋고, 그다음은 싸우다 죽는 것, 그리고 위대한 영혼 하나를 탕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싸우는 자에게나 승리한 자에게나 똑같이 미운 것은 그대들의 히죽거리는 죽음이니, 그 죽음은 도적같이 슬그머니 기어들면서도 주인으로 온다.

나 그대들에게 나의 죽음을 찬미하노라. 자유로운 죽음, **내가** 원하기에 내게 오는 죽음을.

그러면 나는 언제 원하게 될까? 목표가 있고 상속자가 있는 자는 목표와 상속자를 위해 알맞은 때의 죽음을 원한다.

그리고 목표와 상속자를 우러르기에, 그는 삶의 성소에 더는 시든 화환을 걸지 않으리라.

진실로, 나는 밧줄 꼬는 자들을 닮고 싶지 않으니, 그들은 제 실을 길게 늘여 가면서 자신은 줄곧 뒷걸음질 친다.

어떤 자는 제 진리와 승리를 감당하기에도 너무 늙어 버리니, 이 빠진 입에는 모든 진리를 말할 권리가 더는 없다.

그리고 명성을 얻으려는 자는 누구나 일찌감치 명예와 작별하고, 알맞은 때에…… 떠나는 어려운 기술을 익혀야 한다.

가장 맛이 좋을 때 먹히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오래 사랑받고 싶은 자들은 그것을 안다.

물론 가을의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신 사과들도 있으니, 그런 사과들은 무르익는 것과 동시에 누레지고 쭈글쭈글해진다.

어떤 자는 마음이 먼저 늙고, 어떤 자는 정신이 먼저 늙는다. 그리고 몇몇은 젊어서 벌써 늙은이다. 그러나 늦게 젊으면 오래 젊다.

어떤 자에게는 삶이 잘못 풀린다. 독충 한 마리가 그의 심장을 파먹어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는 죽는 일만큼은 더욱 잘 풀리도록 애써야 하리라.

어떤 자는 끝내 달게 익지 못하고 여름에 벌써 썩는다. 그를 제 가지에 붙들어 매어 두는 것은 비겁함이다.

너무 많은 자들이 살고, 너무 오래 그들은 제 가지에 매달려 있다. 이 썩고 벌레 먹은 것들을 모조리 나무에서 흔들어 떨어뜨릴 폭풍이 불어오기를!

빠른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와 주기를! 그들이야말로 내게는 생명나무들을 뒤흔드는 제대로 된 폭풍이요 흔들어 대는 자들이리라! 그러나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느린 죽음을 설교하는 소리, 그리고 모든 '지상의 것'을 참고 견디라는 설교뿐이다.

아, 그대들은 지상의 것을 참고 견디라고 설교하는가? 그대들을 너무 오래 참아 주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것이다, 그대 험담꾼들이여!

진실로, 느린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떠받드는 저 히브리 사람은 너무 일찍 죽었다.[1] 그리고 그가 너무 일찍 죽은 일은 그 뒤로 많은 자에게 숙명이 되었다.

그는 아직 눈물밖에, 히브리 사람의 우울밖에,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의 미움밖에 알지 못했으니, 그때 죽음을 향한 동경이 그 히브리 사람 예수를 덮쳤다.

차라리 그가 광야에 머물러 선하고 의로운 자들에게서 멀리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는 사는 법을 배우고 대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리라. 웃음까지도!

내 형제들이여, 내 말을 믿어라! 그는 너무 일찍 죽었으니, 그가 내 나이까지 살았더라면 그 자신이 제 가르침을 철회했으리라! 그는 철회할 줄 알 만큼 고귀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젊은이는 설익은 채로 사랑하고, 설익은 채로 인간과 대지를 미워하기도 한다. 그의 마음과 정신의 날개는 아직 묶여 있고 무겁다.

그러나 장년의 사내 안에는 젊은이 안에서보다 아이가 더 많고 우울은 더 적으니, 그는 죽음과 삶에 더 밝다.

죽음을 향해 자유롭고 죽음 속에서 자유로우며, '그렇다'고 말할 때가 더는 아닐 때 거룩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 그렇게 그는 죽음과 삶에 밝다.

벗들이여, 그대들의 죽음이 인간과 대지를 모독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나는 이것을 그대들 영혼의 꿀에게 청하노라.

그대들이 죽어 갈 때에도 그대들의 정신과 그대들의 덕은 여전히 대지를 두른 저녁노을처럼 타올라야 하니,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의 죽음은 잘못 풀렸다.

벗들이여, 그대들이 나를 봐서라도 대지를 더 사랑하도록 나 자신도 그렇게 죽고자 하며, 나를 낳은 대지 안에서 안식하도록 나는 다시 대지가 되기를 원하노라.

진실로, 차라투스트라에게는 목표가 있었고 그는 제 공을 던졌다. 이제 벗들이여, 그대들이 내 목표의 상속자이니, 그대들에게 나는 황금 공을 던져 준다.

벗들이여, 나는 무엇보다도 그대들이 황금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대지에 조금 더 머문다. 미적거리는 나를 용서하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예수를 가리킨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서른 살쯤 되어 가르치기 시작했고(누가복음 3장 23절) 몇 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죽었다.

베푸는 덕에 대하여

1

차라투스트라가 마음을 붙이고 지냈던 도시, 이름을 '얼룩소'라 하는 도시와 작별하자, 스스로 그의 제자라 일컫는 많은 자가 그를 따라나서 길을 배웅했다. 그렇게 그들은 어느 갈림길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차라투스트라는 이제부터는 홀로 가겠다고 그들에게 말했으니, 그는 홀로 가기를 벗 삼는 자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작별의 선물로 지팡이 하나를 그에게 건넸는데, 그 금빛 손잡이에는 뱀 한 마리가 해를 휘감고 있었다. 차라투스트라는 그 지팡이를 반기며 거기에 몸을 기댔고,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게 말해 보라. 금은 어떻게 가장 높은 가치에 이르렀는가? 흔치 않고 쓸모없으며 빛나고 그 광채가 은은하기 때문이니, 금은 언제나 자신을 베푼다.

금은 오직 가장 높은 덕의 형상이기에 가장 높은 가치에 이르렀다. 베푸는 자의 눈빛은 금같이 빛난다. 금의 광채는 달과 해 사이에 평화를 맺어 준다.

가장 높은 덕은 흔치 않고 쓸모없으며, 빛나고 그 광채가 은은하다. 베푸는 덕이 가장 높은 덕이다.

진실로, 나의 제자들이여, 나는 그대들의 속을 잘 알아맞힌다. 그대들은 나처럼 베푸는 덕을 구한다. 그대들이 고양이나 늑대와 무슨

공통점이 있겠는가?

그대들 자신이 제물이 되고 선물이 되려는 것, 그것이 그대들의 목마름이니, 그래서 그대들은 모든 부를 그대들의 영혼 속에 쌓아 두려고 목말라한다.

그대들의 영혼은 물릴 줄 모르고 보물과 보석을 구하니, 그대들의 덕이 아낌없이 내주려는 마음에서 물릴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모든 사물이 그대들 사랑의 선물이 되어 그대들의 샘에서 도로 흘러나오게 하려고, 그것들을 억지로 그대들에게로, 그대들 안으로 끌어들인다.

진실로, 이렇게 베푸는 사랑은 모든 가치를 약탈하는 강도가 될 수밖에 없으나, 나는 이 이기심을 온전하고 거룩하다 부르노라.

또 다른 이기심이 있으니, 너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기심, 언제나 훔치려 드는 이기심, 곧 병자들의 이기심, 병든 이기심이다.

그 이기심은 도둑의 눈으로 반짝이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굶주린 자의 탐욕으로 먹을 것이 넉넉한 자를 재어 보며, 언제나 베푸는 자들의 식탁 둘레를 살금살금 맴돈다.

그런 욕심에서는 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퇴화가 말하고, 이 이기심의 도둑 같은 탐욕은 병들어 시드는 몸을 말해 준다.

내 형제들이여, 내게 말해 보라. 우리에게 나쁜 것, 가장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퇴화**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베푸는 영혼이 없는 곳이면 어디서나 퇴화를 짐작한다.

우리의 길은 위로 오르니, 종에서 건너가 종을 넘어선 종(Über-Art)으로 간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나를 위해"라고 말하는 퇴화한 마음은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다.

우리의 마음은 위로 날아오르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의 비유, 높아짐의 비유다. 그런 높아짐의 비유들이 덕의 이름들이다.

그렇게 몸은 생성하는 자로서, 싸우는 자로서 역사를 뚫고 나아간다. 그렇다면 정신은 몸에게 무엇인가? 몸이 치른 싸움과 거둔 승리를 알리는 전령이요, 몸의 동무요, 메아리다.

선과 악의 이름은 모두 비유이니, 그 이름들은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눈짓만 할 뿐이다. 그 이름들에게서 앎을 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정신이 비유로 말하려 하는 시간마다 주의를 기울여라. 거기에 그대들 덕의 근원이 있다.

그때 그대들의 몸은 높아지고 부활하여, 제 희열로 정신을 황홀하게 하니, 정신은 창조자가 되고 가치를 매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만물에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다.

그대들의 마음이 강물처럼 넓고 가득하게 넘실거려, 기슭에 사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고 위험이 될 때, 거기에 그대들 덕의 근원이 있다.

그대들이 칭찬과 비난 위로 드높이 솟아 있고, 그대들의 의지가 사랑하는 자의 의지로서 만물에 명령하려 할 때, 거기에 그대들 덕의 근원이 있다.

그대들이 안락한 것과 푹신한 잠자리를 경멸하고, 나약한 자들에게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잠자리를 펴도 성에 차지 않을 때, 거기에 그대들 덕의 근원이 있다.

그대들이 단 하나의 의지를 의욕하는 자들이고, 모든 곤궁의 이 전환을 그대들이 필연(Not-wendigkeit)이라 부를 때, 거기에 그대들 덕의 근원이 있다.

진실로, 그 덕은 새로운 선이요 새로운 악이다! 진실로, 새로운 깊은 물소리요, 새로운 샘의 목소리다!

이 새로운 덕은 힘이다. 그것은 다스리는 생각 하나와 그 둘레를 감싼 슬기로운 영혼이며, 황금빛 해 하나와 그 둘레를 휘감은 인식의 뱀이다.

2

여기서 차라투스트라는 잠시 입을 다물고 사랑이 담긴 눈길로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어 갔다. 그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 덕의 힘으로 대지에 충실하라! 그대들의 베푸는 사랑과 그대들의 인식이 대지의 뜻에 이바지하게 하라!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빌며 간청하노라.

그것들이 지상의 것을 떠나 날아가 버려 영원한 벽에 날개를 부딪치게 하지 마라! 아, 날아가 길을 잃은 덕이 언제나 그토록 많았다!

나처럼, 날아가 길을 잃은 덕을 대지로, 그렇다, 몸과 삶으로 도로 이끌어 오라, 그 덕이 대지에 대지의 뜻을, 인간의 뜻을 주도록!

지금까지 정신도 덕도 백 갈래로 날아가 길을 잃고 백 갈래로 헛손질을 했다. 아, 이 모든 망상과 헛손질이 아직도 우리 몸속에 살고 있으니, 거기서 그것들은 몸이 되고 의지가 되었다.

지금까지 정신도 덕도 백 갈래로 실험하고 백 갈래로 헤매었다. 그렇다, 인간은 하나의 실험이었다. 아, 숱한 무지와 오류가 우리에게서 몸이 되었다!

수천 년의 이성만이 아니라 그 광기도 우리에게서 터져 나온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아직도 우연이라는 거인과 한 걸음 한 걸음 싸우고 있으며, 지금까지 온 인류 위에는 여전히 무의미가, 뜻 없음이 군림해 왔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정신과 그대들의 덕이 대지의 뜻에 이바지하게 하고, 모든 사물의 가치를 그대들이 새로이 세워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몸은 알면서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앎으로 실험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며, 인식하는 자에게는 모든 충동이 거룩해지고, 높아진 자에게는 영혼이 즐거워진다.

의원이여, 그대 자신을 고치라. 그러면 그대의 병자도 고치게 되리라. 스스로를 낫게 하는 자를 제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병자에게 가장 좋은 도움이 되기를.

아직 아무도 걸어 보지 않은 오솔길이 천 개나 있고, 천 가지 건강과 삶의 숨은 섬들이 있다. 인간과 인간의 대지는 아직도 고갈되지 않았고, 아직도 다 발견되지 않았다.

깨어 귀를 기울이라, 고독한 자들이여! 미래 쪽에서 바람이 은밀하게 날개를 치며 불어오고, 밝은 귀에는 좋은 소식이 임한다.

오늘의 고독한 자들이여,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언젠가 한 민족이 되어야 하니, 스스로를 택한 그대들에게서 택함받은 민족이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서 위버멘쉬가.

진실로, 대지는 앞으로 건강을 되찾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벌써 대지 둘레에는 새로운 향기가, 구원을 가져오는 향기가 감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3

이 말을 마친 차라투스트라는 아직 제 마지막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고서, 오랫동안 미심쩍은 듯 제 손에 든 지팡이의 무게를 가늠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다.

나의 제자들이여, 이제 나는 홀로 간다! 그대들도 이제 떠나가라, 홀로! 나는 그렇게 원하노라.

진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권하노라. 내게서 떠나가, 차라투스트라에게 맞서 그대들 자신을 지켜라! 더 나아가 차라투스트라를 부끄러워하라! 어쩌면 그가 그대들을 속였을지도 모른다.

인식의 인간은 제 원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제 벗을 미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제자로만 남는 자는 스승에게 박하게 갚는다.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내 화관을 쥐어뜯으려 하지 않는가?

그대들은 나를 우러르지만, 그대들의 우러름이 어느 날 쓰러진다면 어찌하겠는가? 석상에 깔려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대들은 차라투스트라를 믿는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차라투스트라가 다 무엇이냐! 그대들은 나의 신자들이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무엇이냐!

그대들은 아직 그대들 자신을 찾지 않았는데, 그때 나를 찾아냈다. 신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니, 그래서 모든 믿음이 그토록 보잘것없다.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명하노라. 나를 잃고 그대들 자신을 찾으라. 그리고 그대들이 모두 나를 부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진실로, 내 형제들이여, 그때 나는 다른 눈으로 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리라. 그때 나는 다른 사랑으로 그대들을 사랑하리라.

그리고 언젠가 그대들은 나의 벗이 되고 단 하나의 희망의 아이들이 되어 있어야 하니, 그때 나는 세 번째로 그대들 곁에 있으리라, 그대들과 함께 위대한 정오를 기리려고.

그리고 위대한 정오란, 인간이 짐승과 위버멘쉬 사이에서 제 궤도의 한가운데에 서서, 저녁으로 가는 제 길을 자신의 가장 높은 희망으로서 기리는 때다. 그것은 새로운 아침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때 몰락하는 자는 자신이 건너가는 자임을 스스로 축복하리니, 그의 인식의 해는 정오에 머물러 있으리라.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원하노라, 위버멘쉬가 살기를." 언젠가 위대한 정오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의지이어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2부

"……그리고 그대들이 모두 나를 부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진실로, 내 형제들이여, 그때 나는 다른 **눈**으로 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리라. 그때 나는 다른 사랑으로 그대들을 사랑하리라."

차라투스트라, '베푸는 덕에 대하여'에서

거울을 든 아이

그 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산으로, 제 동굴의 고독 속으로 돌아가 인간들에게서 몸을 숨기고는, 제 씨를 다 뿌려 놓은 씨 뿌리는 자처럼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조바심과 갈망으로 가득 찼으니, 그들에게 아직 주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기에 펼친 손을 거두어들이고 베푸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고독한 자에게 여러 달, 여러 해가 흘러갔으나, 그의 지혜는 자라나 그 넘치는 충만함으로 그를 아프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아침노을이 비치기도 전에 눈을 떠 잠자리에 누운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꿈속에서 무엇에 그토록 놀라 잠이 깼던가? 거울을 든 아이 하나가 내게 다가오지 않았던가?

"오, 차라투스트라여." 아이가 내게 말했다. "거울 속의 그대를 보라!"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비명을 질렀고 내 마음은 뒤흔들렸으니, 거기서 내가 본 것은 내가 아니라 악마의 일그러진 낯짝과 비웃음이었기 때문이다.

진실로, 나는 이 꿈이 보여 준 징조와 경고를 너무나 잘 알아듣는다. 나의 **가르침**이 위태롭다. 가라지가 알곡이라 불리려 한다!

내 적들이 강성해져서 내 가르침의 얼굴을 일그러뜨려 놓았고, 그리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준 선물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내 벗들을 나는 잃어버렸다. 이제 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설 때가 이르렀다!

이 말과 함께 차라투스트라는 벌떡 일어났는데, 그 모습은 숨이 막혀 허덕이는 겁먹은 자 같지 않고 오히려 영이 임한 선견자나 노래하는 자 같았다. 그의 독수리와 뱀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니, 다가오는 행복이 아침노을처럼 그의 얼굴 위에 번져 있었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나의 짐승들이여, 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변하지 않았느냐! 지복이 광풍처럼 내게 몰아쳐 오지 않았느냐?

내 행복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말을 하리라. 아직 너무 어리다. 그러니 이 행복을 너그러이 참아 다오!

나는 내 행복에 상처 입었다. 고통받는 자는 모두 나의 의사가 될지어다!

나는 다시 내 벗들에게로, 그리고 내 적들에게로도 내려가도 된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말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일을 해 주어도 된다!

참을성 없는 나의 사랑은 강물이 되어 넘쳐흐른다. 아래로, 해 뜨는 곳으로, 해 지는 곳으로. 말없는 산맥과 고통의 뇌우를 빠져나와 내 영혼은 골짜기로 요란하게 쏟아져 내린다.

너무 오래 나는 그리워하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너무 오래 나는 고독의 것이었고, 그러다 침묵하는 법을 잊고 말았다.

나는 송두리째 입이 되었고, 높은 바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시냇물의 굉음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내 말을 저 아래 골짜기로 곤두박질치게

하려 한다.

내 사랑의 강물이 길 없는 곳으로 곤두박질친들 어떠랴! 강물이 어찌 끝내 바다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겠는가!

물론 내 안에는 은자처럼 홀로 지내며 제 자신으로 족한 호수가 하나 있지만, 내 사랑의 강물은 그 호수마저 휩쓸어 함께 끌고 내려간다, 바다로!

나는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말이 내게 찾아오니, 모든 창조하는 자들처럼 나도 낡은 혀들에 지쳤다. 내 정신은 더는 다 닳은 신발 밑창으로 걸으려 하지 않는다.

말이란 말은 모두 내게는 너무 느리게 달린다. 폭풍이여, 나는 그대의 수레에 뛰어오른다! 그리고 그대마저도 나는 내 악의로 채찍질하리라!

외침처럼, 환호처럼 나는 드넓은 바다를 건너가리라. 내 벗들이 머무는 행복한 섬을 찾아낼 때까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적들까지! 말을 건넬 수만 있다면 누구든, 이제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적들도 나의 지복에 속한다.

그리고 가장 사나운 내 말의 등에 올라타려 할 때면 언제나 내 창이 나를 가장 잘 올려 주니, 창은 언제라도 채비가 되어 있는 내 발의 종이다.

내가 적들에게 내던지는 그 창! 마침내 그 창을 내던질 수 있게 되었으니, 내 적들에게 나는 얼마나 고마운가!

내 구름에 쌓인 긴장이 너무 컸으니, 번개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나는 우박을 깊은 곳으로 퍼부으리라.

그때 내 가슴은 힘차게 부풀어 오르고 힘차게 제 폭풍을 산 너머로 불어 보내리니, 그래야 가슴이 후련해진다.

진실로, 나의 행복과 나의 자유는 폭풍처럼 온다! 그러나 내 적들은 **악한 자**가 제 머리 위에서 미쳐 날뛴다고 믿으리라.

그렇다, 벗들이여, 그대들도 내 거친 지혜에 소스라칠 것이고, 어쩌면 내 적들과 함께 달아나 버리리라.

아, 목자의 피리로 그대들을 다시 꾀어 불러들일 줄 안다면! 아, 암사자인 내 지혜가 다정하게 포효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함께 배우지 않았던가!

나의 거친 지혜는 외로운 산에서 새끼를 배었고, 험한 돌 위에서 제 새끼를, 막내를 낳았다.

이제 지혜는 딱딱한 사막을 바보처럼 내달리며 부드러운 풀밭을 찾고 또 찾는다. 나의 늙은, 거친 지혜가!

벗들이여, 그대들 마음의 부드러운 풀밭 위에! 그대들의 사랑 위에 내 지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누이고 싶어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섬에서

무화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무화과는 맛이 좋고 달며, 떨어지면서 붉은 껍질이 터진다. 나는 잘 익은 무화과에 불어닥치는 북풍이다.

벗들이여, 이 가르침들도 그렇게 무화과처럼 그대들에게 떨어지니, 이제 그 즙과 달콤한 속살을 들이켜라! 주위는 가을이요, 맑은 하늘이요, 오후다.

보라, 우리 주위가 얼마나 충만한가! 이렇게 넘쳐 나는 풍요 속에서 먼 바다를 내다보는 것은 아름답다.

예전에 사람들은 먼 바다를 바라볼 때면 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위버멘쉬라고 말하도록 가르쳤다.

신은 하나의 추측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의 추측이 그대들의 창조하는 의지보다 더 멀리 나아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대들은 신 하나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못한다면 신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라! 그러나 위버멘쉬라면 그대들도 창조할 수 있으리라.

내 형제들이여, 어쩌면 그대들 자신이 그것을 해내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그대들은 자신을 고쳐 창조하여 위버멘쉬의 아버지와 조상이 될 수는 있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그대들의 가장 훌륭한 창조가 되기를!

신은 하나의 추측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의 추측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의 테두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노라.

그대들은 신 하나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대들에게 진리에의 의지란, 모든 것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인간이 볼 수 있는 것,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어야 한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감각을 끝까지 생각해 내야 한다!

그리고 그대들이 세계라고 불러 온 것, 그것은 이제 비로소 그대들이 창조해야 하니, 그대들의 이성, 그대들의 형상, 그대들의 의지, 그대들의 사랑이 바로 그 세계가 되어야 한다! 진실로, 인식하는 자들이여, 그것은 그대들의 지복을 위해서다!

인식하는 자들이여, 이런 희망 없이 그대들이 어찌 삶을 견디려 하는가? 그대들은 파악할 수 없는 것 속에 태어나서도, 이성 없는 것 속에 태어나서도 안 되리라.

그러나 벗들이여, 그대들에게 내 마음을 남김없이 털어놓자면, **만약** 신들이 있다면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견디겠는가! **그러므로** 신들은 없다.

나는 결론을 끌어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결론이 나를 끌고 간다.

신은 하나의 추측이다. 그러나 누가 이 추측의 온갖 고통을 다 마시고도 죽지 않겠는가? 창조하는 자에게서 그의 믿음을 빼앗고, 독수리에게서 독수리만이 닿는 아득한 하늘을 떠도는 비상을 빼앗아야 하는가?

신은 곧은 것을 모두 굽게 하고, 서 있는 것을 모두 빙빙 돌게 하는 생각이다. 뭐라고? 시간은 사라져 버리고, 덧없는 것은 모두 거짓일 뿐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의 뼈에는 소용돌이요 어지럼증이며 위장에는 구역질이니, 진실로, 그런 것을 추측하는 것을 나는 빙빙 도는 병이라 부른다.

하나인 것과 가득 찬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과 배부른 것과 덧없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모든 가르침을, 나는 악하다고, 인간에게 적대적이라고 부르노라!

덧없지 않은 모든 것, 그것은 한낱 비유일 뿐이다![1] 그리고 시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비유들은 시간과 생성에 대해 말해야 하니, 그 비유들은 덧없는 모든 것에 바치는 찬미가 되고 덧없는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창조,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크나큰 구원이요, 삶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창조하는 자가 있으려면 그 자신에게도 괴로움과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 창조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삶에는 쓰디쓴 죽음이 여러 번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모든 덧없음을 대변하고 정당화하는 자들이다.

창조하는 자 자신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되려면, 그는 또한 아이를 낳는 여인이 되기를 원해야 하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되기를 원해야 한다.

진실로, 나는 백 개의 영혼을 거쳐, 백 개의 요람과 해산의 진통을 거쳐 내 길을 걸어왔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작별을 했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지막 시간들을 안다.

그러나 내 창조하는 의지가, 내 운명이 그렇게 원한다. 아니, 그대들에게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바로 그런 운명을 내 의지는…… 원한다.

내 안에서 느끼는 것은 모두 괴로워하며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나의 의욕은 언제나 나의 해방자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자로 내게 온다.

의욕은 해방한다. 이것이 의지와 자유에 대한 참된 가르침이니, 차라투스트라는 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더는 의욕하지 않음, 더는 가치를 매기지 않음, 더는 창조하지 않음! 아, 이 크나큰 피로가 언제까지나 내게서 멀리 있기를!

인식할 때에도 나는 오직 내 의지가 낳고 생성하려는 기쁨만을 느끼니, 내 인식에 순진무구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낳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지가 나를 꾀어 신과 신들에게서 멀어지게 했으니, 신들이…… 있다면 대체 창조할 것이 무엇이 남겠는가!

그러나 불타는 나의 창조 의지는 언제나 새로이 나를 인간에게로 몰아가니, 그렇게 망치도 돌을 향해 내몰린다.

아, 인간들이여, 돌 속에 하나의 형상이 잠들어 있다. 내 형상들의 형상이! 아, 그것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추한 돌 속에서 잠들어 있어야 하다니!

이제 내 망치는 그 감옥을 향해 잔인하게 날뛴다. 돌에서 파편이 먼지처럼 흩날린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랴?

나는 그것을 완성하려 한다. 그림자 하나가 내게 왔기 때문이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고요하고 가장 가벼운 것이 언젠가 내게 왔다!

위버멘쉬의 아름다움이 그림자가 되어 내게 왔다. 아, 내 형제들이여! 이제 와서 신들이…… 내게 무슨 상관이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괴테 『파우스트』 제2부를 맺는 '신비의 합창' 첫 구절 '덧없는 모든 것은 한낱 비유일 뿐'을 뒤집은 말이다.

동정하는 자들에 대하여

벗들이여, 그대들의 벗에게 이런 조롱이 들려왔다. "차라투스트라를 좀 보라! 그는 우리 사이를 짐승들 사이인 양 거닐지 않는가?"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낫다. "인식하는 자는 인간들 사이를 짐승들 사이**임을 알고** 거닌다."

인식하는 자는 인간 자체를 이렇게 부른다. 뺨이 붉은 짐승.

어쩌다 인간은 그렇게 되었는가? 너무나 자주 부끄러워해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오, 벗들이여! 인식하는 자는 이렇게 말한다. 부끄러움, 부끄러움, 부끄러움, 그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래서 고귀한 자는 남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명하고, 고통받는 모든 것 앞에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라고 명한다.

진실로, 나는 그들이 싫다. 저 긍휼히 여기는 자들, 제 동정 속에서 복이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너무나 모자란다.

내가 동정해야 한다면, 그래도 동정하는 자라고 불리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내가 동정하는 자라면, 되도록 멀리서 그러련다.

나는 또한 누가 나를 알아보기도 전에 기꺼이 머리를 가리고 달아난다. 벗들이여, 그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르노라!

내 운명이 언제나 그대들처럼 고통 없는 자들을, 그리고 희망과 식탁과 꿀을 나와 함께 나누어도 **좋을** 자들을 내가 가는 길 위로 데려와 주기를!

진실로, 나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해 주기도 했으나, 내가 더 잘 기뻐하는 법을 배울 때면 언제나 그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인간이 생겨난 이래로 인간은 너무 적게 기뻐했다. 내 형제들이여,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원죄다!

우리가 더 잘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면, 남을 아프게 하는 일과 아픈 일을 궁리하는 버릇을 가장 잘 떨쳐 버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고통받는 자를 도운 손을 씻고, 그래서 영혼까지도 닦아 낸다.

고통받는 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것, 그것을 나는 그의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워했고, 그를 도왔을 때는 그의 긍지에 모질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큰 신세는 사람을 고마워하게 만들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게 만든다. 작은 선행이라도 잊히지 않으면 끝내 갉아먹는 벌레가 된다.

"받는 일에는 까다롭게 굴어라! 받아 줌으로써 상대를 높여 주어라!"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권한다.

그러나 나는 베푸는 자다. 나는 벗으로서 벗들에게 기꺼이 베푼다. 낯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라면 내 나무에서 열매를 제 손으로 따 가게 하라. 그러는 편이 덜 부끄럽다.

그러나 거지는 아예 없애 버려야 한다! 진실로, 그들에게는 주어도 화가 나고 주지 않아도 화가 난다.

죄인들과 떳떳하지 못한 양심들도 마찬가지다! 벗들이여, 내 말을 믿어라. 양심의 찔림은 찌르기를 가르친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좀스러운 생각이다. 진실로, 좀스럽게 생각하느니 차라리 악하게 행하는 편이 낫다!

물론 그대들은 말한다. "자잘한 악의를 즐기는 기쁨 덕분에 우리는 큰 악행을 여럿 아낀다." 그러나 이런 데서는 아끼려 해서는 안 된다.

악행은 종기와 같다. 가렵고 따끔거리다가 터져 나오니, 악행은 정직하게 말한다.

"보라, 나는 병이다." 악행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악행의 정직함이다.

그러나 좀스러운 생각은 곰팡이와 같아서 기어 다니고 몸을 움츠리며 어디에도 있지 않으려 하다가, 마침내 온몸이 자잘한 곰팡이에 뒤덮여 삭고 시들게 만든다.

그러나 악마 들린 자에게는 이 말을 귀에 대고 일러 주노라. "차라리 그대의 악마를 크게 길러라! 그대에게도 아직 위대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

아, 내 형제들이여!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든 무언가를 너무 많이 안다! 어떤 자는 우리에게 훤히 꿰뚫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를 꿰뚫고 지나갈 수 있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인간들과 함께 살기란 어렵다. 침묵하기가 그토록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부당하게 구는 상대는 우리에게 거슬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자다.

그러나 그대에게 고통받는 벗이 있거든 그의 고통이 쉴 자리가 되어 주되 이를테면 딱딱한 침상, 야전 침대가 되어 주라, 그래야 그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벗이 그대에게 해를 끼치거든 이렇게 말하라. "그대가 내게 한 일은 용서한다. 그러나 그대가 그 일을 **그대 자신에게** 했다는 것, 그것을 내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모든 크나큰 사랑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사랑은 용서와 동정마저 극복한다.

마음은 단단히 붙들어 두어야 한다. 마음을 놓아 보내면 머리마저 얼마나 금세 고삐 풀린 말처럼 달아나 버리는가!

아, 세상 어디에서 동정하는 자들에게서보다 더 큰 어리석은 짓들이 벌어졌던가?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이 동정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짓보다 더 많은 괴로움을 빚어냈던가?

슬프다, 제 동정 위에 또 하나의 높은 곳을 두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여!

악마는 언젠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신에게도 그의 지옥이 있다.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것이다."

그리고 요전에 나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신은 죽었다. 인간을 향한 동정 때문에 신은 죽었다."

그러니 동정을 경계하라. **바로 거기서** 인간들에게 무거운 먹구름이 몰려오리라! 진실로, 나는 날씨의 징조를 읽을 줄 안다!

그러나 이 말도 새겨 두라. 모든 크나큰 사랑은 제 모든 동정보다도 더 높이 있으니, 크나큰 사랑은 사랑하는 것을 한술 더 떠…… 창조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내 사랑에 바친다.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모든 창조하는 자들의 말은 이러하다.

그러나 창조하는 자들은 모두 단단하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성직자들에 대하여

한번은 차라투스트라가 제자들에게 눈짓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성직자들이 있다. 그들이 비록 나의 적이라 해도, 그들 곁을 조용히 지나가라. 칼은 잠재워 둔 채로!"

"그들 가운데에도 영웅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자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이제는 남들을 고통받게 하려 한다."

"그들은 고약한 적이다. 그들의 겸손보다 더 복수심이 강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자는 쉽사리 제 몸을 더럽힌다."

"그러나 내 피는 그들의 피와 한 핏줄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의 피 속에서도 내 피가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지나가고 나자 고통이 차라투스트라를 덮쳤는데, 제 고통과 씨름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그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나는 이 성직자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은 내 취향에도 거슬린다. 그러나 인간들 사이에 있게 된 뒤로, 그런 것은 내게 가장 사소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으니, 내게 그들은 갇힌 자들이요 낙인찍힌 자들이다. 그들이 구원자라 부르는 자가 그들을 사슬로 묶어 버렸다.

거짓 가치와 망상의 말이라는 사슬로! 아, 누군가 그들을 그들의 구원자에게서 구원해 주었으면!

언젠가 바다가 그들을 휩쓸어 이리저리 떠돌게 했을 때 그들은 어느 섬에 닿았다고 믿었으나, 보라, 그것은 잠든 괴물이었다!

거짓 가치와 망상의 말, 이것이야말로 죽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자들에게는 가장 흉악한 괴물이니, 그것들 안에서 숙명이 오래도록 잠든 채 기다린다.

그러나 마침내 숙명은 찾아와 깨어나서, 제 등 위에 초막을 지은 것들을 먹어 치우고 삼켜 버린다.

오, 이 성직자들이 지은 저 초막들을 좀 보라! 그들은 달콤한 향내 풍기는 제 동굴을 교회라 부른다.

오, 이 위조된 빛이여, 이 늪처럼 썩은 공기여! 영혼이 제 높이까지 날아오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이곳이여!

그 대신 그들의 믿음은 이렇게 명한다.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올라라, 죄인들이여!"

진실로, 부끄러움과 경건에 겨워 뒤집힌 그들의 눈을 보느니, 나는 차라리 부끄러움 없는 자를 보겠다!

누가 이런 동굴과 회개의 계단을 지었는가? 숨고 싶어 하고, 맑은 하늘 앞에서 부끄러워하던 자들이 아니었던가?

맑은 하늘이 부서진 천장 사이로 다시 들여다보고, 무너진 담벼락의 풀과 붉은 양귀비를 내려다볼 때에야 비로소, 나는 이 신의 처소에 다시 내 마음을 돌리리라.

그들은 자신들을 거스르고 아프게 하는 것을 신이라 불렀다. 진실로, 그들의 경배에는 영웅다운 데가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말고는 제 신을 사랑할 줄 몰랐다!

그들은 주검으로 살고자 했고 제 주검에 검은 휘장을 둘렀으니, 그들의 말에서도 나는 시신을 안치해 둔 방에 밴 역겨운 향료 냄새를

아직 맡는다.

그리고 그들 가까이 사는 자는 검은 연못 가까이 사는 셈이니, 그 연못 속에서는 무당개구리가 달콤하고도 깊은 시름에 잠겨 제 노래를 불러댄다.

내가 그들의 구원자를 믿게 되려면 그들은 더 나은 노래를 불러야 하리라. 그의 제자들은 좀 더 구원받은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하리라!

나는 그들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고 싶다. 오직 아름다움만이 회개를 외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두건을 뒤집어쓴 음울함이 대체 누구를 설득하겠는가!

진실로, 그들의 구원자들 자신도 자유에서, 자유의 일곱째 하늘에서 온 자들이 아니었다! 진실로, 그들 자신도 인식의 양탄자 위를 한 번도 거닐어 본 적이 없었다!

이 구원자들의 정신은 빈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빈틈마다 제 망상을 세워 놓았으니, 그것이 그들이 신이라 부른 땜질감이었다.

그들의 정신은 제 동정 속에 빠져 죽었고, 그들이 동정으로 부풀어 오르고 넘쳐흐를 때면 언제나 커다란 어리석음 하나가 맨 위에 둥둥 떠 있었다.

그들은 열을 올리며 고함을 질러 제 무리를 제 외나무다리 위로 몰아갔다. 마치 미래로 가는 외나무다리가 오직 하나뿐이라는 듯이! 진실로, 이 목자들도 아직 양 떼에 속해 있었다!

이 목자들은 정신은 작고 영혼은 품이 넓었다. 그러나 내 형제들이여, 지금까지는 가장 품이 넓은 영혼조차 얼마나 작은 땅이었던가!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간 길 위에 피로 표적을 써 놓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진리를 피로써 증명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피는 진리의 가장 나쁜 증인이다. 피는 가장 순수한 가르침에마저 독을 타서 망상과 마음의 증오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누군가 제 가르침을 위해 불 속을 걸어간다 한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진실로,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에서 제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이다!

후텁지근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 이 둘이 만나는 곳에서 돌풍이, 곧 '구원자'가 생겨난다.

진실로, 군중이 구원자라 부르는 자들, 사람을 휩쓸어 가는 이 돌풍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이 태어난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이여, 자유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거든 그대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구원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에게 구원받아야 한다!

위버멘쉬는 아직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 나는 가장 위대한 인간과 가장 작은 인간, 그 둘을 모두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았다.

그 둘은 아직도 서로 너무나 닮았다. 진실로, 가장 위대한 자조차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덕 있는 자들에 대하여

늘어지고 잠든 감각에 대고 말하려면 천둥과 하늘의 불꽃놀이를 써야 한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목소리는 나직이 말한다. 그 목소리는 가장 깨어 있는 영혼 속으로만 살며시 스며든다.

오늘 내 방패가 나직이 떨며 웃었다. 그것이 아름다움의 거룩한 웃음이요 떨림이다.

덕 있는 자들이여, 오늘 내 아름다움이 그대들을 두고 웃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내게 이렇게 들려왔다. "저들은 아직도…… 값을 받으려 한다!"

덕 있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아직도 값을 받으려 한다! 덕의 대가로 보상을, 땅의 대가로 하늘을, 그대들의 오늘의 대가로 영원한 것을 받고 싶은가?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보상을 내주고 값을 치러 주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내가 가르친다 해서 내게 성내는가? 진실로, 나는 덕이 그 자체로 제 보상이라는 것조차 가르치지 않노라.

아, 이것이 나의 슬픔이니, 사람들은 사물의 밑바닥에 보상과 벌을 거짓말로 심어 넣었고, 이제는 그대들 영혼의 밑바닥에까지 심어 넣었다, 덕 있는 자들이여!

그러나 내 말은 멧돼지의 주둥이처럼 그대들 영혼의 밑바닥을 파헤치리라. 나는 그대들에게 보습이라 불리리라.

그대들 밑바닥에 숨은 것들은 모두 빛 속으로 드러나야 하니, 그대들이 파헤쳐지고 부서진 채 햇볕 아래 누워 있을 때면 그대들의 거짓도 그대들의 진리에서 가려져 있으리라.

그대들의 진리는 이렇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복수, 벌, 보상, 응보라는 말들의 더러움에 손대기에는 **너무 깔끔하다**.

그대들은 어머니가 제 아이를 사랑하듯 그대들의 덕을 사랑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제 사랑의 값을 받으려 했다는 말을 언제 들어 보았는가?

그대들의 덕, 그것은 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다. 그대들 안에는 고리의 목마름이 있으니, 다시 제 자신에게 이르기 위해 모든 고리는 몸부림치며 돌고 돈다.

그리고 그대들의 덕이 이룬 일은 모두 꺼져 버린 별과 같아서 그 빛은 언제나 아직 길 위에서 떠돌고 있으니, 그 빛이 더는 길 위에 있지 않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

그렇게 그대들의 덕의 빛은 일이 이루어진 뒤에도 아직 길 위에 있다. 이제 그 일이 잊히고 죽었다 한들, 그 한 줄기 빛은 아직 살아서 떠돈다.

그대들의 덕이 낯선 것이나 살가죽이나 덮어 가리는 외투가 아니라 그대들의 자기일 것, 덕 있는 자들이여, 이것이 그대들 영혼의 밑바닥에서 나온 진리다!

그러나 채찍 아래에서 일으키는 경련을 덕이라 부르는 자들도 분명 있다. 그리고 그대들은 그런 자들의 비명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였다!

또 제 악덕이 삭아 가는 것을 덕이라 부르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증오와 질투가 한번 팔다리를 쭉 뻗고 드러누우면 그들의 '정의'가 기운을 차리고 잠이 덜 깬 눈을 비빈다.

또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악마가 그들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그들의 눈은, 그리고 제

신을 향한 갈망은 더욱 이글거리며 빛난다.

아, 덕 있는 자들이여, 그런 자들의 외침도 그대들의 귀에 닿았다. 내가 **아닌** 것, 바로 그것이 내게는 신이요 덕이다!

또 돌을 싣고 비탈을 내려가는 수레처럼 무겁게 삐걱거리며 오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위엄과 덕을 입에 달고 살며 제 바퀴의 굄목을 덕이라 부른다!

또 태엽을 감아 놓은 흔한 시계 같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사람들이 그 째깍째깍을…… 덕이라 불러 주기를 바란다.

진실로, 이런 자들은 내 기쁨이다. 그런 시계를 찾아내면 나는 내 조롱으로 그 태엽을 감아 주리라. 그러면 그것들은 감기는 동안에도 내게 가르랑거려야 하리라!

또 한 줌의 정의를 뽐내며 그 정의를 위해 모든 것에 불경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으니, 그리하여 세상은 그들의 불의 속에 잠겨 익사하고 만다.

아, 그들의 입에서 '덕'이라는 말이 얼마나 고약하게 흘러나오는가! 그리고 그들이 "나는 바르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언제나 똑같이 "나는 벼른다!"로 들린다.

그들은 제 덕으로 적들의 눈을 후벼 파내려 한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오직 남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제 늪 속에 앉아 갈대숲 사이로 이렇게 지껄이는 자들이 있다. "덕, 그것은 늪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물지 않으며, 물려고 하는 자는 비켜 간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우리는 남이 우리에게 쥐여 주는 의견을 따른다."

또 몸짓을 사랑하여, 덕이란 일종의 몸짓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무릎은 언제나 경배하고, 그들의 손은 덕을 기리는 찬송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또 "덕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속으로 그들이 믿는 것은 경찰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또 인간에게서 높은 것을 보지 못하는 어떤 자는 인간의 낮은 것을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을 덕이라 부르니, 그렇게 그는 제 사악한 눈길을 덕이라 부른다.

또 어떤 자들은 누가 자기를 북돋워 일으켜 세워 주기를 바라며 그것을 덕이라 부르고, 또 어떤 자들은 누가 자기를 때려눕혀 주기를 바라며…… 그것 역시 덕이라 부른다.

이렇게 거의 모두가 자기도 덕에 한몫 끼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적어도 누구나 '선'과 '악'에 관해서만큼은 감식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가 온 것은 이 모든 거짓말쟁이와 바보들에게 "**그대들이** 덕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그대들이 덕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려 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벗들이여, 그대들이 바보들과 거짓말쟁이들에게서 배운 낡은 말들에 지치게 하려 함이었다.

'보상', '응보', '벌', '정의 속의 복수' 같은 말들에 지치게 하려 함이었다.

"어떤 행위가 선한 것은 그 행위가 자기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데 지치게 하려 함이었다.

아, 벗들이여! 어머니가 아이 안에 있듯 **그대들의** 자기가 행위 안에 있기를. 이것이 덕에 대한 **그대들의** 말이 되기를!

진실로, 나는 그대들에게서 백 가지쯤 되는 말과 그대들의 덕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들을 빼앗았고, 그래서 이제 그대들은 아이들이 성내듯 내게 성낸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파도가 밀려와 그들의 장난감을 깊은 곳으로 휩쓸어 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운다.

그러나 바로 그 파도가 그들에게 새 장난감을 가져다주고, 알록달록한 새 조개껍데기를 그들 앞에 쏟아 놓으리라!

그렇게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라. 그리고 벗들이여, 그대들도 그들처럼 그대들 몫의 위로를 받으리라. 알록달록한 새 조개껍데기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잡배에 대하여

삶은 기쁨의 샘이다. 그러나 잡배가 함께 마시는 곳에서는 모든 샘이 독에 물들어 있다.

나는 깨끗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하지만, 히죽거리는 주둥이들과 불결한 자들의 목마름만은 보고 싶지 않다.

그들이 샘 속으로 눈길을 내리던지자, 이제 그 샘에서 그들의 징그러운 웃음이 번들거리며 나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제 음탕함으로 거룩한 물에 독을 탔고, 제 더러운 꿈을 기쁨이라 불렀을 때는 말에까지 독을 탔다.

그들이 축축한 마음을 불가에 들이밀면 불꽃은 언짢아하고, 잡배가 불가로 다가서는 곳에서는 정신 자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연기를 피워 올린다.

그들 손에 들면 열매는 들척지근하게 물러 버리고, 그들의 눈길은 과일나무를 바람만 불어도 열매가 떨어지고 우듬지가 말라붙은 나무로 만들어 버린다.

삶에 등을 돌린 어떤 자는 실은 잡배에게 등을 돌렸을 뿐이니, 그는 샘과 불꽃과 열매를 잡배와 나누고 싶지 않았다.

사막으로 들어가 맹수들과 함께 목마름을 견딘 어떤 자는 그저 더러운 낙타몰이꾼들과 우물가에 둘러앉기가 싫었을 뿐이다.

허무는 자처럼, 모든 곡식밭에 쏟아지는 우박처럼 들이닥친 어떤 자는 그저 잡배의 아가리에 제 발을 들이밀어 그 목구멍을 틀어막아 버리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가장 목이 막혀 캑캑거린 한 입은, 삶 자체에 적대와 죽음과 십자가 형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는 이렇게 묻다가 그 물음에 하마터면 질식할 뻔했다. 뭐라고? 삶에는 잡배도 **필요한가**?

독에 물든 샘과 악취 나는 불과 더럽혀진 꿈과 삶의 빵 속 구더기가 필요하단 말인가?

내 삶을 허기진 듯 갉아먹은 것은 내 증오가 아니라 내 역겨움이었다! 아, 잡배에게도 번뜩이는 정신이 있음을 보았을 때, 나는 곧잘 정신에 지쳤다!

다스리는 자들이 요즘 다스림이라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들에게도 등을 돌렸으니, 그것은 권력을 두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짓, 그것도 잡배를 상대로 하는 짓이었다!

나는 귀를 닫은 채 낯선 말을 쓰는 민족들 틈에서 살았으니, 그들이 흥정하는 말도, 권력을 두고 벌이는 그들의 거래도 내게 끝내 낯설게 남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코를 틀어쥔 채 나는 언짢은 마음으로 모든 어제와 오늘을 지나왔으니, 진실로, 모든 어제와 오늘에서는 글 쓰는 잡배의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귀먹고 눈멀고 말 못 하게 된 불구자처럼 나는 오래도록 그렇게 살았으니, 권력을 탐하는 잡배와도, 글 쓰는 잡배와도, 기쁨을 탐하는 잡배와도 함께 살지 않기 위해서였다.

내 정신은 힘겹게, 그리고 조심조심 계단을 올랐고, 기쁨의 적선이 정신의 목을 겨우 축여 주었으며, 눈먼 자의 삶은 지팡이를 짚고 살금살금 기어갔다.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나는 어떻게 역겨움에서 나 자신을 구원했던가? 누가 내 눈을 다시 젊게 해 주었던가? 나는 어떻게 날아올라, 더는 어떤 잡배도 샘가에 앉아 있지 않은 이 높은 곳에 이르렀던가?

내 역겨움 자체가 내게 날개를 만들어 주고, 샘을 미리 알아채는 힘을 만들어 주었던가? 진실로, 기쁨의 샘을 되찾으려면 나는 가장 높은 곳까지 날아올라야 했다!

오, 내 형제들이여, 나는 그 샘을 찾았다! 여기 가장 높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내게 솟아오른다! 잡배가 함께 마시지 않는 삶이 있다!

기쁨의 샘이여, 그대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세차게 내게 흘러든다! 그대는 잔을 채우려다 도리어 잔을 다시 비워 버리곤 한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대에게 더 겸손하게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하니, 내 마음이 아직도 너무나 세차게 그대를 향해 마주 흘러가기 때문이다.

내 마음, 그 위에서 내 여름이, 짧고 뜨겁고 우울하고 넘치도록 복된 내 여름이 불타고 있는 내 마음이여, 이 여름의 마음은 그대의 서늘함을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머뭇거리던 내 봄의 시름은 지나갔다! 유월에 흩날리던 내 눈송이들의 심술도 사라졌다! 나는 온통 여름이 되었고, 여름의 정오가 되었다!

차가운 샘들과 복된 고요가 있는 가장 높은 곳의 여름. 오, 벗들이여, 오라, 이 고요가 더욱 복되도록!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높은 곳이요 우리의 고향이니, 우리가 머물러 사는 이곳은 모든 불결한 자들과 그들의 목마름이 닿기에는 너무나 높고 가파르다. 벗들이여, 그대들의 깨끗한 눈길을 내 기쁨의 샘에 던져 넣기만 하라! 그런다고 어찌 샘이 흐려지겠는가! 샘은 **제** 깨끗함으로 그대들을 마주 보며 웃으리라.

미래라는 나무 위에 우리는 둥지를 틀고, 독수리들은 고독한 우리에게 부리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리라!

진실로, 이것은 지저분한 자들이 함께 먹어도 좋을 먹이가 아니다! 그들은 불을 삼키는 줄 알고 제 주둥이를 데리라!

진실로, 우리는 여기에 지저분한 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 두지 않는다! 그들의 몸도, 그들의 정신도 우리의 행복을 얼음 동굴이라 부르리라!

우리는 거센 바람처럼 그들 위에서 살려 한다. 독수리의 이웃으로, 눈의 이웃으로, 해의 이웃으로. 거센 바람은 그렇게 산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바람처럼 그들 사이로 불어닥쳐 내 정신으로 그들 정신의 숨을 앗아 가려 하니, 내 미래가 그렇게 원한다.

진실로, 차라투스트라는 모든 낮은 땅에 몰아치는 거센 바람이니, 그는 제 적들에게, 그리고 침 뱉고 게워 내는 모든 것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바람을 **거슬러** 침을 뱉지 않도록 조심하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타란툴라에 대하여

보라, 이것이 타란툴라의 굴이다! 그대는 타란툴라를 직접 보고 싶은가? 여기 거미줄이 걸려 있으니, 떨리도록 건드려 보라.

저기 순순히 나오는구나. 어서 오라, 타란툴라여! 그대 등에는 그대의 삼각형이, 그대의 표지가 검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대 영혼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안다.

그대 영혼 속에는 복수가 자리 잡고 있으니, 그대가 무는 곳마다 검은 딱지가 돋아나고, 그대의 독은 복수로 영혼을 빙빙 돌게 만든다![1]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비유(Gleichniss)로 말한다, 영혼을 빙빙 돌게 만드는 그대들, **평등**(Gleichheit)의 설교자들이여! 내게 그대들은 타란툴라요, 숨어서 복수를 벼르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이 숨은 곳을 기어이 빛 속으로 끌어내고 말리니, 그러기에 나는 그대들의 얼굴에 대고 높은 곳에서 터뜨리는 내 웃음을 웃어 준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의 분노가 그대들을 거짓의 굴에서 꾀어내도록, 그대들의 복수가 그대들이 내세우는 '정의'라는 말 뒤에서 튀어나오도록, 그대들의 거미줄을 잡아 뜯는다.

인간이 복수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높은 희망으로 건너가는 다리요 기나긴 폭풍우 끝에 뜨는 무지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란툴라들은 물론 달리 원한다. "세상이 우리 복수의 폭풍우로 가득 차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 부르련다." 그들은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우리와 같지 않은 모든 자에게 우리는 복수하고 욕을 퍼부으련다." 타란툴라의 심장들은 서로 이렇게 맹세한다.

"그리고 '평등에의 의지', 앞으로는 바로 이것이 덕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 힘 있는 모든 것에 맞서 우리는 아우성을 치리라!"

평등의 설교자들이여, 이렇게 그대들 안에서 무력한 자의 폭군 같은 광기가 '평등'을 외치니, 폭군이 되고 싶은 그대들의 가장 은밀한 욕망이 이렇게 덕의 말로 복면을 쓴다!

한이 맺힌 자만, 억눌린 시샘, 어쩌면 그대들 아버지들의 자만과 시샘까지, 그 모든 것이 그대들에게서 불꽃이 되어, 복수의 광기가 되어 터져 나온다.

아버지가 입 다문 것이 아들에게서 말이 되어 나온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 아버지의 드러난 비밀임을 자주 보았다.

그들은 열광하는 자들과 닮았으나, 그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복수다. 그리고 그들이 섬세하고 차가워질 때, 그들을 섬세하고 차갑게 만드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시샘이다.

그들의 질투는 그들을 사상가들의 오솔길로도 이끄는데, 그들의 질투에는 늘 너무 멀리 간다는 표시가 있어서, 그들의 피로는 끝내 눈 위에라도 드러누워 잠들 수밖에 없다.

그들의 하소연마다 복수가 울리고, 그들의 찬사마다 남을 아프게 하려는 마음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 지복으로 보인다.

그러나 벗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벌하려는 충동이 강한 모든 자를 믿지 마라!

그들은 종자도 혈통도 나쁜 족속이니, 그들의 얼굴에서는 망나니와 사냥개가 내다본다.

제 정의를 많이 떠벌리는 모든 자를 믿지 마라! 진실로, 그들의 영혼에 모자란 것은 꿀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라 부르거든, 그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데 모자란 것은 오직…… 권력뿐임을 잊지 마라!

벗들이여, 나는 뒤섞이고 싶지도, 혼동되고 싶지도 않다.

삶에 대한 나의 가르침을 설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평등의 설교자요 타란툴라다.

이 독거미들이 삶에 등을 돌린 채 제 굴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삶의 편을 드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남을 아프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프게 하려는 자들은 지금 권력을 쥔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는 아직 죽음의 설교가 가장 제집처럼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달랐다면 타란툴라들도 달리 가르쳤으리라. 그리고 바로 그들이야말로 예전에는 세상을 가장 잘 헐뜯는 자요 이단자를 가장 잘 불태우는 자였다.

이런 평등의 설교자들과 나는 뒤섞이고 싶지도, 혼동되고 싶지도 않다. **내게는** 정의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평등해져서도 안 된다! 내가 달리 말한다면 위버멘쉬를 향한 내 사랑이 다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천 개의 다리와 외나무다리를 건너 미래로 밀려가야 하고 그들 사이에는 더욱더 많은 전쟁과 불평등이 놓여야 하니, 나의 크나큰 사랑이 내게 이렇게 말하게 한다!

그들은 서로 적대하는 가운데 형상과 유령을 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지어낸 형상과 유령을 들고 서로 맞서서 가장 높은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선과 악, 부와 가난, 높음과 낮음, 그리고 가치의 모든 이름, 이것들은 무기가 되어야 하고, 삶이 거듭거듭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쩔렁거리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삶은 몸소 기둥과 계단으로 제 몸을 높이 쌓아 올리려 하고, 아득히 먼 곳을, 저 너머 복된 아름다움들을 내다보려 하니, **그래서** 삶에는 높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높이가 필요하기에 삶에는 계단이 필요하고, 계단과 오르는 자들 사이의 모순이 필요하다! 삶은 오르려 하며, 오르면서 스스로를 극복하려 한다.

벗들이여, 자, 보라! 타란툴라의 굴이 있는 이곳에 옛 신전의 잔해가 위로 솟아 있으니, 밝아진 눈으로 저것을 보라!

진실로, 언젠가 여기서 제 생각을 돌로 빚어 하늘 높이 쌓아 올린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와 다름없이 모든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아름다움 속에도 싸움과 같지 않은 것이 있고, 힘과 더 큰 힘을 다투는 전쟁이 있다는 것, 그는 여기서 그것을 더없이 뚜렷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여기서 둥근 천장과 아치가 씨름하듯 맞붙어 얼마나 신성하게 서로 부딪쳐 꺾이는지, 신성하게 버티어 선 그것들이 빛과 그림자로 얼마나 서로 맞버티는지……

벗들이여, 우리도 이처럼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적이 되자! 신성하게 우리는 서로 **맞서** 버티자!

슬프다! 그때 타란툴라가, 나의 오랜 적수가 바로 나를 물었다! 신성하리만치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타란툴라는 내 손가락을 물었다!

"벌이 있어야 하고 정의가 있어야 한다." 타란툴라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자가 여기서 적대를 기리는 노래를 불렀으니 그냥 넘어가게 둘 수는 없다!"

그렇다, 타란툴라는 벼르던 복수를 했다! 그리고 슬프다! 이제 타란툴라는 복수로 내 영혼마저 빙빙 돌게 만들리라!

그러나 벗들이여, 내가 빙빙 돌지 **않도록** 나를 여기 이 기둥에 단단히 묶어 다오! 복수심의 소용돌이가 되느니 차라리 기둥 위의 성자가 되겠다!

진실로, 차라투스트라는 빙빙 도는 회오리바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춤추는 자라 해도, 결코 타란툴라의 춤꾼은 아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남이탈리아에는 타란툴라에게 물린 사람이 미친 듯이 빙빙 돌며 춤을 춘다는 옛 속설이 있었다. 빠른 춤곡 타란텔라의 이름도 이 속설과 얽혀 있다. 이 편 끝의 '타란툴라의 춤꾼'도 여기서 나온 말이다.

이름난 현자들에 대하여

이름난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군중을, 군중의 미신을 섬겼다! 진리는 섬기지 **않았다**!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대들에게 경외를 바쳤다.

사람들이 그대들의 불신앙을 참아 준 것도, 그것이 군중에게 이르는 재치요 에움길이었기 때문이다. 주인도 그렇게 제 노예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들의 방자함을 즐긴다.

그러나 개들이 늑대를 미워하듯 군중이 미워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자유로운 정신이요, 족쇄의 적이요, 경배하지 않는 자요, 숲속에 깃들여 사는 자다.

그를 은신처에서 몰아내는 것, 군중은 언제나 그것을 '올바름을 아는 감각'이라 불렀고, 지금도 이빨이 가장 날카로운 제 개들을 풀어 그에게 덤벼들게 한다.

"진리는 여기 있다. 군중이 여기 있지 않으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찾는 자들이여!" 예부터 그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군중이 무엇을 떠받들든 그 떠받듦이 옳다고 인정해 주려 했으니, 이름난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그것을 '진리에의 의지'라 불렀다!

그리고 그대들의 마음은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군중에게서 왔다. 신의 목소리도 거기서 내게 왔다."

군중의 대변자로서 그대들은 언제나 나귀처럼 목이 곧고 슬기로웠다.

그리고 군중과 더불어 순탄하게 수레를 몰고자 한 적지 않은 권력자들이 제 말들 앞에 또 하나를 매었다……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이름난 현자 하나를.

그리고 이름난 현자들이여, 이제 나는 그대들이 마침내 사자 가죽을 온전히 벗어 던졌으면 좋겠다!

맹수의 가죽을, 알록달록 얼룩진 그 가죽을, 그리고 탐구하는 자, 찾는 자, 정복하는 자의 텁수룩한 갈기를!

아, 내가 그대들의 '진실함'을 믿게 되려면, 그대들은 먼저 우러러 받드는 그대들의 의지를 부숴 버려야 하리라.

진실하다고, 나는 이런 자를 부른다. 신들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 우러러 받드는 제 마음을 부숴 버린 자를.

누런 모래밭에서 햇볕에 그을린 그는 목이 말라, 살아 있는 것들이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샘 많은 섬들 쪽을 곁눈질하기도 하리라.

그러나 그의 목마름도 그를 꾀어 저 안락한 자들처럼 되게 하지는 못하니,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우상도 있기 때문이다.

굶주리고, 사납고, 고독하고, 신이 없는 것, 사자의 의지는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종들의 행복에서 자유롭고, 신들과 경배에서 구원받았으며, 두려움을 모르면서 두려움을 자아내고, 위대하고 고독한 것, 진실한 자의 의지는 그러하다.

진실한 자들, 자유로운 정신들은 예로부터 사막의 주인으로서 사막에 살았으나, 도시에는 잘 먹여 기른 이름난 현자들이, 저 짐 끄는 짐승들이 산다.

그들은 언제나 나귀가 되어 끌고 다니기 때문이다…… **군중의** 수레를!

그렇다고 내가 그들에게 노여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황금 마구로 번쩍번쩍 빛난다 해도 내게 그들은 여전히 섬기는 자요 마구에 매인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잘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종이었다. 덕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종이 되어야 한다면, 그대의 섬김이 가장 쓸모 있을 자를 찾아라!

"그대가 주인의 종이 됨으로써 주인의 정신과 덕이 자라나야 한다. 그러면 그대 자신도 그의 정신과 덕과 함께 자라나리라!"

그리고 진실로, 이름난 현자들이여, 군중의 종들이여! 그대들 자신이 군중의 정신과 덕과 함께 자라났고, 군중은 그대들 덕분에 자라났다! 그대들의 명예를 위해 나는 이 말을 하노라!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의 덕 속에서도 내게는 여전히 군중이니, 흐리멍덩한 눈을 한 군중,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군중이다!

정신이란 스스로 삶에 칼을 대는 삶이다. 정신은 제 고역을 치르며 제 앎을 늘린다. 그대들은 이것을 이미 알았는가?

정신의 행복은 이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눈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그대들은 이것을 이미 알았는가?

눈먼 자의 눈멂과, 찾아 헤매며 더듬는 그의 몸짓은 그가 들여다본 태양의 힘을 증언해야 한다. 그대들은 이것을 이미 알았는가?

그리고 인식하는 자는 산들을 쌓아 **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신이 산을 옮기는 것쯤은 하찮은 일이다. 그대들은 이것을 이미 알았는가?

그대들은 정신의 불티만 알 뿐, 정신이 곧 모루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 망치의 잔혹함도 보지 못한다!

진실로, 그대들은 정신의 긍지를 모른다! 그러나 정신의 겸손이 언젠가 입을 열려 한다면, 그대들은 그것을 더더욱 견디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대들은 아직 한 번도 그대들의 정신을 눈구덩이에 내던져도 좋았던 적이 없으니, 그러기에는 그대들이 충분히 뜨겁지 않다! 그러니 그대들은 정신의 차가움이 주는 황홀도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은 무슨 일에서든 정신을 너무 허물없이 대하고, 지혜를 곧잘 변변찮은 시인들을 위한 구빈원이자 병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대들은 독수리가 아니다. 그러니 정신의 전율 속에 깃든 행복도 겪어 보지 못했다. 그리고 새가 아닌 자는 심연 위에 자리를 펴서는 안 된다.

내게 그대들은 미지근한 자들이다. 그러나 모든 깊은 인식은 차갑게 흐른다. 정신의 가장 깊은 샘들은 얼음처럼 차가워서, 뜨거운 손들에게, 그리고 뜨겁게 손쓰는 자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이름난 현자들이여, 그대들은 점잖게, 뻣뻣하게, 등을 꼿꼿이 편 채 거기 서 있다! 그대들을 몰아가는 거센 바람도, 거센 의지도 없다.

그대들은 돛 하나가 둥글게 부풀어 팽팽해진 채 바람의 사나움 앞에 떨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가?

그 돛처럼, 정신의 사나움 앞에 떨면서 내 지혜는 바다를 건너간다. 나의 거친 지혜는!

그러나 군중의 종들이여, 이름난 현자들이여, 그대들이 어찌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밤의 노래

밤이다. 이제 솟구치는 샘들은 모두 더 소리 높여 말한다. 내 영혼 또한 솟구치는 샘이다.

밤이다. 이제야 비로소 사랑하는 자들의 노래가 모두 깨어난다. 내 영혼 또한 사랑하는 자의 노래다.

내 안에는 달래지지 않은 것, 달랠 길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이 소리가 되려 한다. 내 안에는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어, 그 갈망이 스스로 사랑의 말을 한다.

나는 빛이다. 아, 내가 밤이라면! 그러나 내가 빛으로 띠를 두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고독이다.

아, 내가 어둡다면, 밤 같다면! 빛의 젖가슴에 매달려 나는 얼마나 젖을 빨겠는가!

그리고 저 위에서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여, 반딧불이들이여, 나는 그대들마저 축복하련만! 그대들이 베푸는 빛의 선물에 나는 복되련만.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빛 속에 살며, 내게서 터져 나오는 불꽃을 도로 내 안으로 들이마신다.

나는 받는 자의 행복을 모른다. 그리고 훔치는 것이 받는 것보다 틀림없이 더 복이 있으리라는 꿈을 자주 꾸었다.[1]

내 손이 베풀기를 멈추고 쉬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 이것이 나의 가난이요, 기다리는 눈들을, 동경이 환히 밝힌 밤들을 본다는 것, 이것이 나의 시샘이다.

오, 베푸는 모든 자의 불행이여! 오, 내 태양의 일식이여! 오, 갈망을 갈망함이여! 오, 배부름 속의 허기여!

그들은 내게서 받아 간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들의 영혼에 닿기라도 하는가?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는 틈이 있고, 가장 좁은 틈일수록 가장 늦게야 다리가 놓인다.

내 아름다움에서 허기가 자라나니, 내가 비추어 주는 자들을 아프게 하고 싶고 내가 선물을 안긴 자들에게서 빼앗고 싶어, 그렇게 나는 악의에 굶주린다.

벌써 손 하나가 내 손을 향해 뻗어 오면 손을 거두어들이고,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아직 머뭇거리는 폭포처럼 머뭇거리며, 그렇게 나는 악의에 굶주린다.

내 충만함은 이런 복수를 꾀하고, 내 고독에서는 이런 간계가 샘솟는다.

베풂에서 얻던 내 행복은 베풂 속에서 죽어 버렸고, 내 덕은 제 넘침에 겨워 제 자신에게 지쳐 버렸다!

늘 베푸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잃을 위험이 있고, 늘 나누어 주는 자는 오로지 나누어 주느라 손에도 마음에도 굳은살이 박인다.

내 눈은 청하는 자들의 부끄러움 앞에서 더는 넘쳐흐르지 않고, 내 손은 채워진 손들이 떠는 것을 느끼기에는 너무 단단해졌다.

내 눈의 눈물은, 내 마음의 솜털은 어디로 갔는가? 오, 베푸는 모든 자의 고독이여! 오, 빛나는 모든 자의 침묵이여!

숱한 태양이 황량한 허공을 돈다. 어두운 모든 것에게 태양들은 제 빛으로 말하지만, 내게는 입을 다문다.

오, 이것이 빛나는 것을 향한 빛의 적의다. 빛은 연민도 없이 제 궤도를 걷는다.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는 빛나는 것에 부당하고, 태양들에게는 차갑게, 모든 태양은 그렇게 제 길을 걷는다.

태양들은 폭풍처럼 제 궤도를 날아간다. 그것이 태양들의 걸음이다. 태양들은 가차 없는 제 의지를 따른다. 그것이 태양들의 차가움이다.

오, 빛나는 것에서 온기를 빚어내는 것은 오직 그대들, 어두운 자들이여, 밤 같은 자들이여, 그대들뿐이다! 오, 오직 그대들만이 빛의 젖통에서 젖과 생기를 빨아 마신다!

아, 내 둘레에는 얼음뿐이라 내 손이 얼음장 같은 것에 데고 만다! 아, 내 안에는 목마름이 있어, 그대들의 목마름을 애타게 그리워한다!

밤이다. 아, 나는 빛이어야 하다니! 그리고 밤 같은 것을 향한 목마름이여! 그리고 고독이여!

밤이다. 이제 내게서 샘처럼 갈망이 터져 나온다. 나는 말하기를 갈망한다.

밤이다. 이제 솟구치는 샘들은 모두 더 소리 높여 말한다. 내 영혼 또한 솟구치는 샘이다.

밤이다. 이제야 비로소 사랑하는 자들의 노래가 모두 깨어난다. 내 영혼 또한 사랑하는 자의 노래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노래했다.

---

1.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개역한글)를 비튼 말이다.

춤의 노래

어느 날 저녁 차라투스트라는 제자들과 함께 숲을 지나고 있었는데, 샘을 찾다가, 보라, 나무와 덤불에 고요히 둘러싸인 푸른 풀밭에 이르렀고, 그 풀밭에서는 소녀들이 어울려 춤추고 있었다. 소녀들은 차라투스트라를 알아보자마자 춤을 멈추었으나, 차라투스트라는 다정한 몸짓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춤을 멈추지 마라, 사랑스러운 소녀들이여! 사악한 눈빛을 한 훼방꾼이 그대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소녀들의 적이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악마 앞에서 신을 변호하는 자다. 그런데 그 악마는 중력의 영이다. 가벼운 이들이여, 내가 어찌 신성한 춤을 미워하겠는가? 발목이 예쁜 소녀들의 발을 미워하겠는가?"

"나는 분명 숲이요 어두운 나무들이 드리운 밤이지만, 내 어둠을 꺼리지 않는 자라면 내 사이프러스 아래에서 장미가 흐드러진 비탈도 찾아내리라."

"그리고 그런 자는 소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은 신도 아마 찾아내리라. 그는 샘 곁에 누워 있다, 고요히, 눈을 감은 채."

"진실로, 이 날건달이 글쎄 대낮에 잠들어 버렸구나! 나비를 너무 쫓아다녔던가?"

"아름답게 춤추는 이들이여, 내가 이 작은 신을 조금 징계하더라도 노여워하지 마라! 그는 아마 소리 지르며 울겠지만, 울면서도 사람을 웃기리라!"

"그리고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대들에게 춤을 청하리라. 그러면 나 자신이 그의 춤에 맞추어 노래 하나를 부르리라."

"그것은 중력의 영을,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라 일컫는 지극히 높고 지극히 힘센 나의 악마를 두고 부르는 춤의 노래이자 조롱의 노래다."

그리고 이것은 큐피드와 소녀들이 함께 춤출 때 차라투스트라가 부른 노래다.

요전에 나는 그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오, 삶이여! 그리고 나는 바닥 모를 깊이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대는 황금 낚싯바늘로 나를 끌어올렸고, 내가 그대를 두고 바닥을 알 수 없다고 하자 놀리듯 웃었다.

"물고기란 물고기는 다 그렇게 말한다." 그대는 말했다. "**저희가** 바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그저 변덕스럽고 거칠 뿐이요, 모든 점에서 여자다. 그것도 덕 있는 여자는 아니다."

"그대들 사내들이 나를 '깊은 여인'이니 '한결같은 여인'이니 '영원한 여인'이니 '신비로운 여인'이니 하고 부르기는 해도 말이다."

"그러나 그대들 사내들은 언제나 제 덕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긴다. 아, 덕 있는 자들이여!"

그 믿을 수 없는 여인은 그렇게 웃었으나, 삶이 제 입으로 저를 나쁘게 말할 때면 나는 삶도 삶의 웃음도 결코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나의 거친 지혜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지혜는 성이 나서 내게 말했다. "그대는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한다. 오직 그래서 그대는 삶을 **찬미한다**!"

나는 하마터면 고약하게 대꾸하여 성난 지혜에게 바른말을 할 뻔했으니, 제 지혜에게 '바른말을 하는' 것보다 더 고약한 대꾸는 없다.

우리 셋 사이는 이러하다. 나는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오직 삶만을 사랑한다. 그리고 진실로, 삶을 미워할 때 가장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지혜를 좋아하고, 자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은, 지혜가 삶을 몹시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지혜에게는 삶의 눈이, 삶의 웃음이, 게다가 삶의 작은 황금 낚싯대까지 있으니, 둘이 이토록 닮은 것을 낸들 어쩌겠는가?

그리고 언젠가 삶이 내게 지혜란 대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열을 올리며 말했다. "아, 그래! 지혜!"

"사람들은 지혜에 목말라하나 흡족해지는 법이 없고, 너울 너머로 엿보고, 그물 사이로 움켜쥐려 한다."

"지혜가 아름다우냐고? 낸들 어찌 알겠느냐! 그러나 가장 늙은 잉어들도 아직 지혜라는 미끼에 걸려든다."

"지혜는 변덕스럽고 고집이 세다. 나는 지혜가 입술을 깨물고 머릿결을 거슬러 빗질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어쩌면 지혜는 심술궂고 거짓되며 모든 점에서 영락없는 여자일지도 모르지만, 지혜가 제 입으로 저를 나쁘게 말할 때야말로 가장 사람을 홀린다."

내가 삶에게 이렇게 말하자, 삶은 짓궂게 웃으며 눈을 감았다. "대체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냐?" 삶이 말했다. "혹시 내 이야기냐?"

"설령 그대 말이 옳다 해도, **그런** 말을 어찌 그렇게 대놓고 내 얼굴에 하느냐! 자, 이제 그대의 지혜 이야기도 좀 해 보아라!"

아, 그리고 이제 그대는 다시 눈을 떴다, 오, 사랑하는 삶이여! 그리고 나는 다시 바닥 모를 깊이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노래했다. 그러나 춤이 끝나고 소녀들이 떠나가자 그는 슬퍼졌다.

"해가 진 지 벌써 오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풀밭은 축축하고, 숲에서 서늘한 기운이 밀려온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내 둘레에서 생각에 잠겨 바라본다. 뭐라고! 차라투스트라여, 그대가 아직 살아 있느냐?"

"왜?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어디에? 어떻게?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닌가?"

"아, 벗들이여, 내 안에서 이렇게 묻는 것은 저녁이다. 내 슬픔을 용서하라!"

"저녁이 되었다. 저녁이 되었음을 용서하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무덤의 노래

"저기 무덤의 섬이 있다, 말없는 섬이. 저기에는 내 젊은 날의 무덤들도 있다. 저리로 나는 삶의 늘 푸른 화환을 가져가련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나는 바다를 건너갔다.

오, 그대들, 내 젊은 날의 환상들이여, 환영들이여! 오, 그대들 모든 사랑의 눈길이여, 그대들 신성한 순간들이여! 그대들은 어찌 그리도 빨리 내게서 죽어 갔는가! 오늘 나는 나의 죽은 이들을 기리듯 그대들을 기린다.

가장 사랑하는 나의 죽은 이들이여, 그대들에게서 달콤한 향기가 내게로 풍겨 온다. 가슴을 녹이고 눈물을 자아내는 향기가. 진실로, 그 향기는 홀로 배를 저어 가는 자의 마음을 뒤흔들고 녹여 놓는다.

나는 여전히 가장 부유한 자요 누구보다 부러움을 살 만한 자다, 가장 외로운 자인 내가! 나는 분명 그대들을 **품었었고** 그대들은 아직 나를 품고 있으니, 말해 보라, 나 말고 누구의 품에 이런 장밋빛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던가?

나는 여전히 그대들 사랑을 물려받은 자요 그 사랑이 뿌리내린 흙이니, 그대들을 기리며 들에서 절로 자란 알록달록한 덕들로 꽃피어 있다, 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여!

아, 우리는 서로 가까이 머물도록 지어졌으니, 그대들 사랑스럽고 낯선 기적들이여, 그대들은 수줍은 새들처럼 나와 내 욕망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 아니다, 믿는 자들로서 믿는 자에게로 왔다!

그렇다, 나처럼 그대들도 한결같도록, 다정한 영원을 누리도록 지어졌는데, 이제 나는 그대들을 변심한 자들이라 불러야 하는가, 그대들 신성한 눈길들이여, 순간들이여? 다른 이름은 아직 배우지 못했으니.

진실로, 그대들은 너무 빨리 내게서 죽어 갔다, 그대 달아난 자들이여. 그러나 그대들이 나를 피해 달아난 것도, 내가 그대들을 피해 달아난 것도 아니니, 변심했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죄가 없다.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은 그대들의 목을 졸랐다, 그대들 내 희망의 노래하는 새들이여! 그렇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여, 악의는 언제나 그대들을 겨냥해 화살을 쏘았다……내 심장을 맞히려고!

그리고 악의는 과녁을 맞혔다! 그대들은 언제나 내게 가장 애틋한 것이요, 내가 사로잡은 것이자 나를 사로잡은 것이었으니, **그래서** 그대들은 젊어서, 너무도 일찍 죽어야 했다!

내가 지닌 것 가운데 가장 상처 입기 쉬운 것을 겨냥해 사람들은 화살을 쏘았으니, 그것은 바로 그대들, 살결이 솜털 같고 그보다도 눈길 한 번에 스러지는 미소와 같은 그대들이었다!

그러나 나의 적들에게는 이 말을 하련다. 그대들이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온갖 살인이 다 무엇이냐!

그대들은 내게 어떤 살인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다. 되찾을 수 없는 것을 내게서 빼앗았다. 나의 적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그대들은 내 젊은 날의 환상들을, 가장 사랑하는 기적들을 죽였다! 내 놀이 동무들을, 그 복된 영들을 내게서 빼앗았다! 그들을 기리며 나는 이 화환과 이 저주를 내려놓는다.

나의 적들이여, 그대들에게 이 저주를! 그대들은 나의 영원한 것을, 차가운 밤에 소리 한 가락이 부서지듯 짧게 끊어 버렸다! 그것은 신성한

눈이 한 번 반짝이듯, 겨우 그렇게 내게 왔을 뿐이다……눈 깜짝할 사이로!

나의 순수는 언젠가 좋은 때에 이렇게 말했다. "모든 존재가 내게는 신성하리라."

그러자 그대들이 더러운 유령들을 몰고 와 나를 덮쳤다. 아, 그 좋은 때는 이제 어디로 달아났는가!

"모든 날이 내게는 거룩하리라." 내 젊은 날의 지혜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즐거운 지혜의 말이로다!

그러나 그때 적들이여, 그대들은 내게서 나의 밤들을 훔쳐 잠 못 드는 고통에 팔아넘겼다. 아, 그 즐거운 지혜는 이제 어디로 달아났는가?

언젠가 나는 상서로운 새의 징조를 바랐다. 그러자 그대들은 올빼미 괴물 하나를, 그 흉측한 것을 내 앞길로 끌어다 놓았다. 아, 그때 나의 다정한 욕망은 어디로 달아났는가?

언젠가 나는 온갖 역겨움을 끊겠다고 서원했다. 그러자 그대들은 내 가까운 이들과 이웃들을 곪은 종기로 바꾸어 놓았다. 아, 그때 나의 가장 고귀한 서원은 어디로 달아났는가?

언젠가 나는 눈먼 자가 되어 복된 길을 걸었다. 그러자 그대들은 눈먼 자의 길에 오물을 던졌고, 이제 그는 눈먼 자가 다니던 옛 오솔길에 넌더리가 났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겨운 일을 해내고 나의 극복들이 거둔 승리를 기릴 때, 그대들은 나를 사랑하던 이들이 내가 그들을 누구보다 아프게 한다고 울부짖게 만들었다.

진실로, 그것이 늘 그대들이 하는 짓이었다. 그대들은 내 가장 좋은 꿀을, 내 가장 좋은 벌들의 부지런함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그대들은 나의 자선에 언제나 가장 뻔뻔한 거지들을 보냈고, 나의 동정 둘레에 언제나 고칠 길 없는 파렴치한들을 몰려들게 했으니,

그렇게 그대들은 나의 덕이 품은 믿음에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내가 나의 가장 거룩한 것을 제물로 바치기라도 하면, 그대들의 '경건'이 냉큼 더 기름진 제 예물을 그 곁에 차려 놓았으니, 그대들이 사른 기름 연기 속에서 나의 가장 거룩한 것마저 숨이 막혀 버렸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한 번도 춘 적 없는 춤을 추려 했다. 온 하늘 너머로 춤추어 가려 했다. 그때 그대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꾼을 구슬렸다.

그러자 그는 소름 끼치게 음울한 가락을 뽑기 시작했다. 아, 그는 음산한 뿔나팔처럼 내 귀에 대고 뿌우뿌우 불어 댔다!

살인하는 노래꾼이여, 악의의 도구여, 가장 죄 없는 자여! 나는 이미 가장 멋진 춤을 추려고 채비를 마치고 서 있었는데, 그대는 그대의 가락으로 나의 황홀을 죽여 버렸다!

오직 춤으로만 나는 가장 높은 것들의 비유를 말할 줄 아는데, 이제 나의 가장 높은 비유는 말이 되지 못한 채 내 팔다리 속에 남고 말았다!

말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나의 가장 높은 희망은 남고 말았다! 그리고 내 젊은 날의 모든 환상과 위로가 내게서 죽어 갔다!

대체 나는 그것을 어떻게 견뎌 냈던가?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아물리고 극복했던가? 나의 영혼은 어떻게 이 무덤들에서 다시 살아났던가?

그렇다, 내게는 상처 입지 않는 것, 묻어 버릴 수 없는 것, 바위를 깨뜨리는 것이 있다. 그것의 이름은 **나의 의지**다. 그것은 말없이, 변함없이 세월을 헤치며 걸어간다.

나의 오랜 의지는 내 발로 제 길을 걸으려 한다. 그 마음은 모질고, 상처 입을 줄 모른다.

나는 오직 발뒤꿈치에서만 상처 입지 않는다. 그대는 여전히 거기 살아 있고 한결같구나, 가장 참을성 많은 자여! 그대는 여전히 모든 무덤을 뚫고 나왔구나!

그대 안에는 내 젊은 날의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직 살아 있으니, 삶으로서, 젊음으로서 그대는 여기 누렇게 바랜 무덤 잔해 위에 희망을 품고 앉아 있다.

그렇다, 그대는 여전히 내게 모든 무덤을 부수는 자다. 나의 의지여, 그대에게 복이 있으라! 그리고 무덤이 있는 곳에만 부활이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노래했다.

자기 극복에 대하여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여, 그대들을 몰아대고 달아오르게 하는 것을 그대들은 '진리에의 의지'라 부르는가?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려는 의지. **나는** 그대들의 의지를 그렇게 부르노라!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마땅한 불신을 품고 의심하기에, 그대들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 한다.

그러나 있는 모든 것은 그대들에게 순순히 굽히고 휘어져야 한다! 그대들의 의지가 그렇게 원한다. 그것은 매끄러워져서 정신의 거울이요 되비친 모습으로서 정신에게 굴복해야 한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여, 그것이 그대들 의지의 전부이며 그 의지는 곧 힘에의 의지이니, 그대들이 선과 악을 말하고 가치 평가를 말할 때에도 다르지 않다. 그대들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세계를 아직도 창조하려 하니, 그것이 그대들의 마지막 희망이요 도취다.

물론 지혜롭지 못한 자들, 곧 군중은 조각배 하나를 싣고 흘러가는 강물과 같으니, 그 조각배 안에는 가치 평가들이 엄숙하게,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와 가치를 생성의 강물 위에 띄웠다. 군중이 선이라고, 악이라고 믿는 것이 내게 오래된 힘에의 의지를 드러내 보인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여, 그런 손님들을 이 조각배에 태우고 그들에게 화려한 치장과 자랑스러운 이름을 준 것은 그대들이었다, 그대들과 그대들의 지배하는 의지였다!

이제 강물은 그대들의 조각배를 싣고 흘러간다. 강물은 그것을 싣고 **가야만** 한다. 부서진 물결이 거품을 일으키며 성난 듯 용골에 대든다 한들 대수롭지 않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여, 그대들의 위험은, 그대들의 선과 악의 종말은 강물이 아니라 바로 저 의지 자체, 힘에의 의지, 곧 다함없이 낳는 삶의 의지다.

그러나 그대들이 선과 악에 대한 내 말을 알아듣도록, 나는 삶에 대한 내 말을, 살아 있는 모든 것의 본성에 대한 내 말을 그대들에게 더 들려주련다.

나는 살아 있는 것의 뒤를 밟았다. 그 본성을 알아내려고 가장 큰 길도 가장 작은 길도 걸었다.

살아 있는 것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도 나는 백 겹으로 비추는 거울로 그 눈길을 붙잡았다. 그 눈이 내게 말하도록. 그리고 그 눈은 내게 말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것을 찾아낸 곳이면 어디서든 나는 복종에 대한 말도 들었다. 살아 있는 것은 모두 복종한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다. 자기 자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자는 명령을 받는다. 살아 있는 것의 본성이 그렇다.

그리고 내가 들은 세 번째는 이것이다. 명령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 명령하는 자가 복종하는 모든 자의 짐을 지고 그 짐에 쉽사리 짓눌린다는 것만이 아니다……

모든 명령 속에서 나는 시도와 모험을 보았다. 살아 있는 것은 명령할 때마다 언제나 제 자신을 건다.

그렇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때조차, 그때조차 살아 있는 것은 제 명령의 값을 치러야 하니, 제 법의 재판관이자 복수자이자 제물이 되어야 한다.

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이 살아 있는 것을 설득하기에 그것은 복종하고 명령하며, 명령하면서도 복종을 행하는가?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여,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삶 자체의 심장 속으로, 그 심장의 뿌리에까지 기어들어 갔는지 진지하게 따져 보라!

살아 있는 것을 찾아낸 곳에서 나는 힘에의 의지를 찾아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의 의지 속에서조차 주인이 되려는 의지를 찾아냈다.

약한 것을 설득하여 더 강한 것을 섬기게 하는 것은 저보다 더 약한 것의 주인이 되려는 약한 것 자신의 의지이니, 이 기쁨 하나만은 약한 것도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작은 것이 가장 작은 것에게서 기쁨과 힘을 누리려고 더 큰 것에게 몸을 바치듯, 가장 큰 것 또한 몸을 바치며 힘을 위해서라면……삶을 건다.

가장 큰 것이 몸을 바친다는 것은 곧 모험이요 위험이며, 죽음을 걸고 벌이는 주사위 놀이다.

그리고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눈길이 있는 곳, 거기에도 주인이 되려는 의지가 있으니, 거기서 더 약한 자는 샛길로 몰래 성 안으로, 더 힘센 자의 심장에까지 숨어들어……힘을 훔친다.

그리고 삶이 몸소 내게 이 비밀을 일러 주었다. 삶이 말했다. 보라, 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만 하는 그것이다.

"물론 그대들은 그것을 낳으려는 의지라 부르거나, 목적을 향한 충동, 더 높은 것, 더 먼 것, 더 다양한 것을 향한 충동이라 부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요, 하나의 비밀이다."

"이 하나를 저버리느니 차라리 나는 몰락하겠다. 그리고 진실로, 몰락이 있고 잎이 지는 곳, 보라, 거기서 삶은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다……힘을 위해!"

"내가 싸움이어야 하고 생성이어야 하고 목적이어야 하며 목적들의 모순이어야 한다는 것, 아, 내 의지를 알아맞히는 자라면 그 의지가 어떤 **굽은** 길을 걸어야 하는지도 알아맞히리라!"

"내가 무엇을 창조하든,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든, 나는 곧 그것의 적이, 내 사랑의 적이 되어야 한다. 내 의지가 그렇게 원한다."

"그리고 인식하는 자여, 그대 또한 내 의지의 오솔길이요 발자국일 뿐이니, 진실로, 나의 힘에의 의지는 그대의 진리에의 의지의 발로도 걸어 다닌다!"

"'존재에의 의지'라는 말을 진리를 겨냥해 쏜 자는 물론 진리를 맞히지 못했다. 그런 의지는……없다!"

"까닭은 이렇다. 있지 않은 것은 의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존재 속에 있는 것이 어찌 또다시 존재를 의욕할 수 있겠는가!"

"삶이 있는 곳에만 의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삶에의 의지가 아니라, 나 그대에게 이렇게 가르치노라, 힘에의 의지다!"

"살아 있는 자에게는 삶 자체보다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가치를 매기는 일 자체에서 말하는 것은……힘에의 의지다!"

삶은 언젠가 내게 이렇게 가르쳤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여, 그것으로 나는 그대들 마음의 수수께끼마저 풀어 주마.

진실로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스러지지 않을 선과 악, 그런 것은 없다! 선과 악은 제 안에서부터 거듭거듭 자기를 극복해야 한다.

가치를 매기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선과 악에 대한 그대들의 가치와 말로 위력을 휘두르니, 이것이 그대들의 숨은 사랑이요, 그대들 영혼의 반짝임과 떨림과 넘쳐흐름이다.

그러나 그대들의 가치에서 더 강한 위력이, 새로운 극복이 자라난다. 그것에 부딪혀 알도 알껍데기도 깨어진다.

그리고 선과 악에서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 자는, 진실로, 먼저 허무는 자가 되어 가치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악은 가장 높은 선함에 속한다. 그리고 그 선함은 창조하는 선함이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여, 그것이 고약한 일이라 해도 우리 그것을 이야기하자. 침묵은 더 고약하다. 입 밖에 내지 않은 진리는 모두 독이 된다.

> 그러니 무엇이든 부서질 테면 부서져라, 우리의 진리에 부딪쳐 부서질……수 있는 것이라면! 아직 지어야 할 집이 많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숭고한 자들에 대하여

내 바다의 밑바닥은 고요하다. 그 밑바닥이 장난스러운 괴물들을 숨기고 있으리라고 누가 알아맞히랴!

내 깊은 곳은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그곳은 헤엄치는 수수께끼들과 웃음들로 반짝인다.

오늘 나는 숭고한 자 하나를, 엄숙한 자 하나를, 정신의 참회자 하나를 보았다. 오, 그의 추함을 보고 내 영혼은 얼마나 웃었던가!

가슴을 치켜들고, 숨을 들이켜 참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 숭고한 자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제 사냥감인 추한 진리들을 주렁주렁 걸쳤고 찢어진 옷가지만은 넉넉했으며, 그에게는 가시도 많이 매달려 있었으나 장미는 아직 한 송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직 웃음도 아름다움도 배우지 못했다. 이 사냥꾼은 어두운 얼굴로 인식의 숲에서 돌아왔다.

그는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진지함 속에서도 아직 사나운 짐승 한 마리가 내다본다, 극복되지 않은 짐승이!

그는 여전히 덮치려는 범처럼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팽팽히 당겨진 영혼들이 싫고, 내 취향은 이 모든 움츠린 자들에게 곱지 않다.

그런데 벗들이여, 그대들은 취향과 맛보기를 두고는 다툴 일이 아니라고 내게 말하는가? 그러나 모든 삶은 취향과 맛보기를 둘러싼 다툼이다!

취향, 그것은 저울추이자 동시에 저울판이요 저울질하는 자이니, 슬프다, 저울추와 저울판과 저울질하는 자를 두고 다투지 않고 살려는 모든 살아 있는 것은!

이 숭고한 자가 제 숭고함에 지친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의 아름다움이 시작되고,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그를 맛보고 맛깔스럽다 여기리라.

그리고 그가 저 자신에게서 돌아설 때에야 비로소 그는 제 그림자를 뛰어넘으리라. 그리고, 진실로! **제** 해 속으로 뛰어들리라.

너무 오래 그는 그늘에 앉아 있었고, 이 정신의 참회자는 두 뺨이 창백해졌다. 그는 제 기대에 굶주려 죽을 뻔했다.

그의 눈에는 아직 경멸이 서려 있고, 그의 입가에는 역겨움이 숨어 있다. 그가 지금 쉬고는 있으나, 그의 쉼은 아직 햇볕 아래 몸을 눕히지 않았다.

그는 황소처럼 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행복에서는 대지를 경멸하는 냄새가 아니라 대지의 냄새가 나야 한다.

나는 그가 흰 황소가 되어 콧김을 내뿜고 울부짖으며 보습을 이끌고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거니와, 그 울부짖음은 지상의 모든 것을 찬미해야 한다!

그의 얼굴은 아직 어둡다. 손의 그림자가 그 얼굴 위에서 어른거린다. 그의 눈에 담긴 뜻도 아직 그늘져 있다.

그가 한 일 자체가 아직 그에게 드리운 그림자다. 손이 손쓰는 자를 어둡게 가린다. 그는 아직 제가 한 일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황소의 목덜미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제는 천사의 눈도 보고 싶다.

그는 제 영웅의 의지마저 잊어버려야 하고, 내게 숭고한 자일 뿐 아니라 높이 들린 자여야 하니, 창공이 몸소 그를, 의지를 내려놓은 그를

들어 올려야 한다!

그는 괴물들을 굴복시켰고 수수께끼들을 풀었으나, 이제는 제 괴물들과 수수께끼들을 풀어 주기까지 해야 하고, 그것들을 하늘의 아이들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그의 인식은 아직 미소 짓는 법도, 시샘 없이 있는 법도 배우지 못했고, 세차게 흐르는 그의 열정은 아직 아름다움 속에서 잠잠해지지 않았다.

진실로, 그의 갈망은 배부름 속에서가 아니라 아름다움 속에서 입을 다물고 잠겨 들어야 한다! 우아함은 도량 큰 자의 아량에 속한다.

팔을 머리 위에 얹고, 영웅은 그렇게 쉬어야 한다. 그렇게 제 쉼마저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영웅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어렵다. 어떤 격렬한 의지로도 아름다운 것은 쟁취할 수 없다.

조금 더, 조금 덜. 바로 그것이 여기서는 많은 것이요, 여기서는 가장 많은 것이다.

근육을 느슨히 풀고, 마구를 벗긴 의지로 서 있는 것. 숭고한 자들이여, 그대들 모두에게는 그것이 가장 어렵다!

힘이 은혜로워져 눈에 보이는 것 속으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나는 아름다움이라 부르노라.

그리고 그대 힘센 자여, 나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아닌 바로 그대에게서 아름다움을 바란다. 그대의 선함이 그대의 마지막 자기 제압이 되어라.

나는 그대가 온갖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그대에게서 선을 바란다.

진실로, 나는 앞발이 성치 않다고 해서 스스로를 선하다고 믿는 약골들을 자주 비웃었다!

그대는 기둥의 덕을 본받으려 애써야 한다. 기둥은 높이 솟을수록 더 아름답고 더 가녀려지지만, 속은 더 단단해지고 더 잘 떠받친다.

그렇다, 그대 숭고한 자여, 그대는 언젠가 아름다워져야 하고, 그대 자신의 아름다움 앞에 거울을 들어 보여야 한다.

그때 그대의 영혼은 신성한 욕망 앞에서 몸서리치리라. 그리고 그대의 허영 속에도 경배가 깃들리라!

이것이 곧 영혼의 비밀이다. 영웅이 영혼을 버리고 떠난 뒤에야, 꿈속에서, 영혼에게 다가온다……영웅을 넘어선 영웅(Über-Held)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교양의 나라에 대하여

나는 너무 멀리 미래 속으로 날아 들어갔고, 공포가 나를 덮쳤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보라! 거기서는 시간만이 나의 유일한 동시대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뒤로, 고향 쪽으로, 점점 더 걸음을 재촉하며 달아났고, 그렇게 그대들에게로, 오늘의 인간들이여, 교양의 나라로 왔다.

처음으로 나는 그대들을 볼 눈과 선한 욕망을 품고 왔다. 진실로, 나는 가슴에 동경을 안고 왔다.

그런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토록 불안했는데도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눈은 이토록 알록달록 얼룩진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발이 아직 떨리고 심장마저 떨리는데 나는 웃고 또 웃었다. "여기가 바로 온갖 물감 단지의 고향이로구나!" 나는 말했다.

얼굴과 팔다리에 물감 얼룩을 쉰 개나 덕지덕지 칠하고서, 그렇게 그대들은 거기 앉아 나를 놀라게 했다, 오늘의 인간들이여!

그리고 그대들 둘레에는 쉰 개의 거울이 있어, 그대들의 색채 놀음에 아첨하며 그것을 흉내 내어 되풀이했다!

진실로, 오늘의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얼굴보다 더 나은 가면은 쓸 수 없으리라! 누가 그대들을……**알아볼** 수 있겠는가!

지난날의 기호들로 빼곡히 뒤덮이고, 그 기호들마저 새 기호들로 덧칠되어 있으니, 그렇게 그대들은 기호를 풀이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잘도 숨었구나!

그리고 설령 사람의 폐부를 감찰하는 자라 한들, 그대들에게 폐부가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 그대들은 물감과, 풀로 이어 붙인 종잇조각으로 구워 낸 것만 같다.

모든 시대와 민족이 그대들의 너울 사이로 알록달록 내다보고, 모든 풍습과 믿음이 그대들의 몸짓에서 알록달록 지껄인다.

그대들에게서 너울과 겉옷과 물감과 몸짓을 벗겨 낸다면, 새들을 쫓기에 딱 알맞을 만큼만 남으리라.

진실로, 언젠가 벌거벗고 물감도 칠하지 않은 그대들을 보았다가 그 해골이 내게 사랑의 손짓을 보내오자 날아 달아난 그 놀란 새가 바로 나다.

차라리 나는 저승에서, 지나간 날의 혼령들 곁에서 품팔이꾼이 되련다! 저승에 사는 자들조차 그대들보다는 더 살지고 더 옹골차다!

이것이, 그렇다 이것이 내 창자를 쓰리게 하니, 오늘의 인간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벗고 있어도 입고 있어도 견딜 수가 없다!

미래의 온갖 낯설고 으스스한 것, 길 잃은 새들을 몸서리치게 했던 모든 것이, 진실로 그대들의 '현실'보다는 더 낯익고 더 정겹다.

그대들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온전히 현실적인 자들이다, 믿음도 미신도 없이." 그렇게 그대들은 가슴을 내밀고 뽐낸다. 아, 내밀 가슴도 없으면서!

그렇다, 그대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알록달록 얼룩진 자들이여! 일찍이 믿어졌던 모든 것을 그려 놓은 그림인 그대들이!

그대들은 믿음 그 자체를 반박하는 걸어 다니는 반증이요, 모든 생각의 뼈마디를 어긋나게 하는 탈골이다. **믿지 못할 자들**, 그대 현실적인 자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그렇게 부르노라!

모든 시대가 그대들의 정신 속에서 서로 엇갈려 지껄인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꿈과 잡담조차 그대들이 깨어 있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이었다!

그대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대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러나 창조해야 했던 자는 언제나 저만의 참된 꿈과 별의 징조를 지녔고, 믿음을 믿었다!

그대들은 반쯤 열린 문이며, 그 곁에서 무덤 파는 자들이 기다린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들의** 현실이다. "모든 것은 파멸해 마땅하다."

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내 앞에 서 있는 꼴이라니, 갈빗대는 또 얼마나 앙상한가! 그리고 그대들 가운데 더러는 스스로도 그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가 잠든 사이에 어떤 신이 내게서 몰래 무언가를 훔쳐 간 것일까? 진실로, 그것으로 조그만 여자 하나쯤은 빚어내고도 남겠다!"

"내 갈빗대가 이리도 가난하다니 참으로 기이하구나!" 오늘의 인간들 가운데 더러는 벌써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오늘의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내게 웃음거리다! 특히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을 기이하게 여길 때면 더더욱!

그리고 슬프다, 내가 그대들의 기이해함을 웃어넘기지 못하고 그대들 그릇에 담긴 역겨운 것을 모조리 들이켜야 한다면!

그러나 나는 **무거운 것**을 져야 하니, 그대들쯤은 가볍게 여기련다, 딱정벌레와 날벌레가 내 짐 보따리에 내려앉는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대수겠는가!

진실로, 그 때문에 내 짐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으리라! 오늘의 인간들이여, 크나큰 피로는 그대들에게서 내게 오지 않으리라. 아, 이제 나는 내 동경을 안고 어디로 더 올라가야 하는가! 나는 모든 산 위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를 찾아 멀리 바라본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서도 고향을 찾지 못했다. 모든 도시에서 나는 떠돌이요, 모든 성문 앞에서 나는 길 떠나는 자다.

얼마 전 내 마음이 나를 그리로 몰아갔던 오늘의 인간들은 내게 낯설고 한낱 웃음거리일 뿐이요, 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에서 내몰렸다.

그러니 이제 나는 오직 내 **아이들의 나라**만을 사랑하노라. 가장 먼 바다에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나라를. 나는 내 돛들에게 그 나라를 찾고 또 찾으라고 이른다.

내가 내 아버지들의 자식이라는 것을 나는 내 아이들에게 보상하련다. 그리고 온 미래에게……**이** 오늘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티 없는 인식에 대하여

어제 달이 떠올랐을 때, 나는 달이 해를 하나 낳으려는 줄로 알았다. 그토록 펑퍼짐하게, 배가 불러 달은 지평선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달은 제 임신으로 나를 속인 거짓말쟁이였다. 달 속에 여자가 있다고 믿느니 차라리 나는 달 속에 사내가 있다고 믿으련다.

하기야 사내답지도 못하다, 이 수줍은 밤 나들이꾼은. 진실로, 그는 양심의 가책을 안고 지붕 위를 거닌다.

달 속의 이 수도사는 음탕하고 시샘이 많아, 대지를 음탕하게 넘보고 사랑하는 자들의 온갖 기쁨을 넘보기 때문이다.

아니다, 나는 그가 싫다, 지붕 위의 이 수고양이가! 반쯤 닫힌 창문 둘레를 살금살금 맴도는 자들은 모두 역겹다!

그는 경건하게, 말없이 별들의 양탄자 위를 거닌다. 그러나 나는 박차 하나 쩔렁이지 않는, 발소리를 죽여 걷는 사내들의 발은 모두 싫다.

정직한 자의 걸음은 저마다 말을 한다. 그러나 고양이는 바닥 위를 훔치듯 몰래 지나간다. 보라, 달이 고양이처럼, 정직하지 못하게 다가온다.

이 비유를 나는 그대들 감상적인 위선자들에게, 그대들 '순수하게 인식하는 자들'에게 준다! **나는** 그대들을……음탕한 자들이라 부르노라!

그대들도 대지와 지상의 것을 사랑한다. 나는 그대들을 제대로 알아맞혔다! 그러나 그대들의 사랑 속에는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 그대들은 달을 닮았다!

사람들은 그대들의 정신을 설득하여 지상의 것을 경멸하게 했으나, 그대들의 내장은 설득하지 못했으니, **그것이야말로** 그대들에게서 가장 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대들의 정신은 제가 그대들의 내장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제 부끄러움을 피해 샛길과 거짓 길로 다닌다.

"내게 가장 높은 일은," 그대들의 거짓된 정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욕망 없이 삶을 바라보는 것이리라, 혀를 늘어뜨린 개처럼 바라보지 않는 것이리라."

"바라봄 속에서 행복한 것, 의지는 죽고, 이기심이 움켜쥐고 탐내는 일도 없이, 온몸은 차갑고 잿빛이되 달처럼 취한 눈을 하고서!"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유혹당한 자는 스스로를 이렇게 유혹한다. "달이 대지를 사랑하듯 대지를 사랑하고, 오직 눈만으로 대지의 아름다움을 더듬는 것이리라."

"그리고 내가 사물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다만 눈이 백 개 달린 거울처럼 그 앞에 누워 있어도 좋은 것, 그것을 나는 모든 사물에 대한 **티 없는** 인식이라 부르리라."[1]

오, 그대들 감상적인 위선자들이여, 음탕한 자들이여! 그대들의 욕망에는 순진무구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대들은 욕망하는 일 자체를 헐뜯는다!

진실로, 그대들은 창조하는 자로서, 낳는 자로서, 생성을 기뻐하는 자로서 대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순진무구함은 어디에 있는가? 낳으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 그리고 자기를 넘어서 창조하려는 자, 내게는 그가 가장 순수한 의지를 지녔다.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온 의지를 다해 **원해야만 하는** 곳에. 하나의 형상이 한낱 형상으로 머물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고 몰락하려는 곳에.

사랑하는 것과 몰락하는 것, 이 둘은 영원 전부터 운이 맞았다. 사랑에의 의지, 그것은 죽음마저 기꺼이 맞아들이려는 마음이다. 나는 그대들 비겁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그런데 이제 그대들의 거세된 곁눈질이 '관조'라 불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겁한 눈으로 더듬을 수 있는 것에는 '아름답다'는 세례명을 붙이겠단다! 오, 고귀한 이름들을 더럽히는 자들이여!

그러나 그대 티 없는 자들이여, 순수하게 인식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결코 낳지 못하리라는 것, 그것이 그대들이 받을 저주가 되리라, 그대들이 펑퍼짐하게, 배가 불러 지평선에 누워 있다 해도!

진실로, 그대들은 입에 고귀한 말을 가득 담는다. 그러니 우리더러 그대들의 마음이 넘쳐흐른다고 믿으라는 말이냐, 거짓말쟁이들이여?

그러나 **나의** 말은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굽은 말이다. 그대들이 먹을 때 상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나는 기꺼이 주워 든다.

나는 여전히 그 말들로……위선자들에게 진실을 말해 줄 수 있으니, 그렇다, 내 생선 가시와 조개껍데기와 가시 돋친 잎사귀들이……위선자들의 코를 간질이리라!

그대들과 그대들의 식탁 둘레에는 늘 탁한 공기가 떠돈다. 그대들의 음탕한 생각, 그대들의 거짓과 은밀한 짓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는가!

먼저 그대들 자신을 믿어 보는 모험부터 하라,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의 내장을!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

그대 '순수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 앞에 신의 탈을 둘러썼다. 신의 탈 속으로 그대들의 끔찍한 고리 벌레가 기어들어 숨었다.

진실로, 그대 '관조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속인다! 차라투스트라도 한때는 그대들의 신 같은 거죽에 넘어간 바보였다. 그 거죽 속에 뱀

똬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줄은 알아채지 못했다.

순수하게 인식하는 자들이여, 나는 한때 그대들의 놀이 속에서 신의 영혼이 노니는 것을 본다고 여겼다! 그대들의 기예보다 나은 예술은 없다고 한때 여겼다!

거리가 내게 뱀의 오물과 고약한 냄새를 감추어 주었고, 도마뱀의 간계가 음탕하게 이곳을 기어 다닌다는 것도 감추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가까이** 갔다. 그러자 내게 낮이 왔고, 이제 그대들에게도 낮이 온다. 달의 밀애는 끝났다!

저기를 보라! 들켜서 창백해진 채 달이 서 있다, 아침노을 앞에!

벌써 그 이글거리는 해가 오고 있으니, 대지를 향한 **해의** 사랑이 오고 있다! 해의 사랑은 모두 순진무구함이요 창조자의 욕망이다!

저기를 보라, 해가 얼마나 조바심치며 바다를 건너오는지! 그대들은 해가 품은 사랑의 목마름과 뜨거운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가?

해는 바다를 빨아들여 그 깊이를 제게로, 높은 곳으로 들이켜려 한다. 그러자 바다의 욕망이 천 개의 젖가슴으로 부풀어 오른다.

바다는 해의 목마름에 입맞춤받고 빨리기를 **원하고**, 공기가 되기를, 높이가 되기를, 빛의 오솔길이 되기를, 스스로 빛이 되기를 **원한다**!

진실로, 나는 해처럼 삶을 사랑하고 모든 깊은 바다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내게는** 이것이 인식이다. 깊은 것은 모두 올라와야 한다…… 나의 높이에까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원어 unbefleckte Erkenntnis(티 없는 인식)는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이르는 가톨릭 교리 용어 unbefleckte Empfängnis를 비튼 말이다.

학자들에 대하여

내가 잠들어 누워 있을 때, 양 한 마리가 내 머리에 얹힌 담쟁이 화관을 뜯어 먹었는데,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차라투스트라는 더는 학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뻣뻣하게, 뻐기며 가 버렸다. 한 아이가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아이들이 노는 이곳, 무너진 담장 곁 엉겅퀴와 붉은 양귀비꽃 아래 누워 있기를 좋아한다.

아이들에게 나는 아직 학자요, 엉겅퀴와 붉은 양귀비꽃에게도 그렇다. 그들은 심술을 부릴 때조차 순진무구하다.

그러나 양들에게 나는 더는 학자가 아니다. 나의 운명이 그렇게 원하니, 그 운명에 복이 있으라!

진실을 말하자면 이렇다. 나는 학자들의 집을 나왔고, 나오면서 등 뒤로 문까지 쾅 닫아 버렸다.

너무 오래 내 영혼은 굶주린 채 그들의 식탁에 앉아 있었으나, 나는 그들과 달리 호두 까는 재주를 조련받듯 인식하는 재주를 조련받지는 않았다.

나는 자유를 사랑하고 갓 갈아엎은 흙 위의 공기를 사랑하니, 그들의 위엄과 체통을 깔고 자느니 차라리 쇠가죽을 깔고 자겠다.

나는 너무 뜨겁고, 내 생각들에 데어 그을려 있어서 자주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럴 때면 나는 탁 트인 바깥으로 나가 먼지 앉은 방이란

방에서 모조리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서늘한 그늘에 서늘하게 앉아 있으니, 무슨 일에서나 구경꾼이기만 하려 하고, 해가 섬돌 위로 뜨겁게 내리쬐는 곳에는 앉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입을 헤 벌리고 구경하는 자들처럼, 그들도 그렇게 기다리며 남들이 생각해 놓은 생각들을 입을 헤 벌리고 구경한다.

손으로 그들을 움켜쥐면 그들은 밀가루 포대처럼, 그것도 저도 모르게, 사방으로 먼지를 풀풀 날리지만, 그 먼지가 곡식에서, 여름 들판의 누런 환희에서 왔다는 것을 대체 누가 알아맞히랴?

그들이 지혜로운 체하면 그 자잘한 잠언과 진리들에 나는 오싹 한기가 드니, 그들의 지혜에서는 흔히 늪에서 나온 듯한 냄새가 나고, 진실로, 나는 그 지혜 속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소리마저 들었다!

그들은 솜씨가 좋고 손가락이 영리하다. **나의** 단순함이 그들의 다채로움 곁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실을 꿰는 일이며 매듭짓는 일이며 베 짜는 일이며 그들의 손가락은 모르는 것이 없으니, 그렇게 그들은 정신의 양말을 짠다!

그들은 좋은 시계태엽 장치다. 다만 태엽을 제대로 감아 주도록 마음 쓸 일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짓 없이 시각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얌전하게 째깍거린다.

그들은 맷돌처럼, 방아처럼 일한다. 그저 제 낟알을 그들에게 던져 주기만 하라! 그들은 곡식을 잘게 빻아 하얀 먼지로 만들 줄 안다.

그들은 서로의 손가락을 눈여겨 감시하고, 서로를 썩 믿지 않는다. 자잘한 잔꾀를 짜내는 데 재간이 있는 그들은 앎이 절름거리는 발로 걷는 자들을 기다린다. 거미처럼 기다린다.

나는 그들이 언제나 조심조심 독을 조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럴 때면 그들은 언제나 손가락에 유리 장갑을 끼었다.

그들은 속임수 주사위로 노름할 줄도 안다. 나는 그들이 땀까지 흘려 가며 열심히 노름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 낯설다. 그리고 그들의 덕은 그들의 속임수와 속임수 주사위보다도 더 내 취향에 거슬린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 때 나는 그들 위에 살았다. 그 일로 그들은 내게 앙심을 품었다.

그들은 누군가 제 머리 위를 거닌다는 것은 듣기조차 싫어하여, 나와 저희 머리 사이에 나무와 흙과 오물을 깔아 놓았다.

그렇게 그들은 내 발소리를 죽였다. 그리하여 이제껏 내 소리를 가장 못 들은 자들은 가장 학식 높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의 허물과 나약함을 저희와 나 사이에 깔아 놓고서, 제 집에서는 그것을 '허물막이'라 부른다.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을 품고 그들의 머리 **위를** 거니니, 설령 내가 내 자신의 허물을 밟고 거닐려 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그들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인간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는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해서는 안 되리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시인들에 대하여

"몸을 더 잘 알게 된 뒤로," 차라투스트라가 제자 가운데 하나에게 말했다. "내게 정신은 이제 정신 비슷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덧없지 않은 모든 것', 그것은 한낱 비유일 뿐이다."

"그대가 전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제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 그대는 '그러나 시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시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했는가?"

"어째서냐고?"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그대는 어째서냐고 묻는가? 나는 남이 '어째서'를 캐물어도 되는 자들 축에 들지 않는다."

"내가 겪은 일이 어제 일이란 말인가? 내가 내 생각들의 까닭을 몸소 겪은 것은 오래전 일이다."

"내 까닭들까지 늘 지니고 다니려 한다면, 나는 기억을 가득 담아 두는 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만도 이미 내게는 벅차다. 그리고 적잖은 새가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가끔은 내 비둘기장에서 어디선가 날아든 짐승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내게 낯설고, 내가 그 위에 손을 얹으면 부들부들 떨곤 한다."

"그런데 차라투스트라가 언젠가 그대에게 무어라 말했던가? 시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도 시인이다."

"그런데 이제 그대는 그가 여기서 진리를 말했다고 믿는가? 어째서 그렇게 믿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나는 차라투스트라를 믿는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그가 말했다. 믿음은 나를 복되게 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믿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누군가 아주 진지하게, 시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의 말이 옳다.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우리는 아는 것도 너무 적고 배우는 데도 서투르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시인들 가운데 제 포도주에 불순물을 타지 않은 자가 누구랴? 우리네 지하 창고에서는 독이 든 잡탕이 숱하게 빚어졌고, 형언할 수 없는 일이 거기서 숱하게 이루어졌다.[1]

그리고 아는 것이 적기에 우리는 정신이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니, 그들이 젊은 여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늙은 여자들이 저녁마다 서로 들려주는 이야기에까지 군침을 흘린다. 우리는 우리 안의 그것을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라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무언가를 배우는 자들에게는 **막혀** 버리는 앎의 비밀 통로가 따로 있다는 듯이, 군중을, 그리고 군중의 '지혜'를 믿는다.

그런데 모든 시인은, 풀밭에 또는 외딴 비탈에 누워 귀를 쫑긋 세우는 자라면 누구나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들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일기라도 하면, 시인들은 언제나 자연이 몸소 자기들에게 반했다고 여긴다.

그리고 자연이 시인들의 귀에 살금살금 다가와 은밀한 이야기와 사랑에 빠진 달콤한 말을 속삭여 준다고 여기니, 그것을 두고 그들은 모든 필멸의 인간들 앞에서 가슴을 내밀고 잔뜩 부풀어 오른다!

아, 하늘과 땅 사이에는 오직 시인들만이 꿈꾸어 본 것들이 참으로 많구나!

그리고 하늘 **위에는** 더더욱 많다! 모든 신은 시인의 비유요, 시인의 사기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언제나 무언가가 우리를 위로, 다름 아닌 구름의 나라로 이끌어 올리니, 우리는 그 구름 위에 속 빈 알록달록한 가죽 인형들을 앉혀 놓고서 신들이니 위버멘쉬들이니 부른다.

그것들이야말로 이 의자에 앉기에 딱 알맞을 만큼 가볍지 않은가! 이 모든 신들과 위버멘쉬들 말이다.

아, 기어이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저 모든 모자란 것들에 나는 얼마나 지쳤는가! 아, 시인들에게 나는 얼마나 지쳤는가!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하자 제자는 그에게 화가 났으나 입을 다물었다. 차라투스트라도 입을 다물었는데, 그의 눈은 안쪽을 향해 있어서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고 숨을 돌렸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나는 오늘과 지난날에 속한다. 그러나 내 안에는 내일과 모레와 먼 훗날에 속하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시인들에게 지쳤다, 옛 시인들에게도 새 시인들에게도. 내게 그들은 모두 겉만 핥는 자들이요 얕은 바다다.

그들은 깊은 곳까지 충분히 생각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느낌은 밑바닥까지 가라앉지 못했다.

약간의 쾌락과 약간의 무료함, 그것이 이제껏 그들이 한 가장 훌륭한 사색이었다.

그들이 하프를 뚱땅거리는 소리는 모두 내게는 유령이 훅 내쉬는 입김이요 휙 스쳐 가는 기척일 뿐이니, 이제껏 그들이 소리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 무엇을 알았던가!

또한 그들은 내게 충분히 깨끗하지도 않다. 그들은 모두 제 물을 흐려 놓는다, 깊어 보이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 놓고서 그들은 곧잘 화목하게 하는 자로 자처하지만, 내게 그들은 여전히 거간꾼이요 잡탕꾼이요, 이도 저도 아닌 반쪽들이요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다!

아, 나는 그들의 바다에 그물을 던져 좋은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끌어올린 것은 언제나 어느 옛 신의 머리였다.

그렇게 바다는 굶주린 자에게 돌을 주었다. 그리고 시인들 자신도 아마 바다에서 났으리라.

물론 그들에게서 진주를 찾을 수는 있으나, 그럴수록 그들 자신은 딱딱한 조개를 더욱 닮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서 영혼 대신 소금기 밴 점액을 자주 보았다.

그들은 바다에게서 그 허영까지 배웠다. 바다야말로 공작 중의 공작이 아닌가?

바다는 모든 들소 가운데 가장 추한 들소 앞에서도 꼬리 깃을 활짝 펼쳐 보이고, 은과 비단으로 된 제 레이스 부채에는 결코 싫증을 내는 법이 없다.

들소는 그 꼴을 퉁명스레 노려보는데, 그 영혼은 모래에 가깝고, 덤불에는 더 가깝고, 늪에는 가장 가깝다.

그에게 아름다움이며 바다며 공작의 치장이 다 무엇이냐! 이 비유를 나는 시인들에게 들려준다.

진실로, 그들의 정신이야말로 공작 중의 공작이요 허영의 바다다!

시인의 정신은 구경꾼을 원한다. 그것이 들소들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 정신에 지쳤으며, 이 정신이 제 자신에게 지칠 날이 오는 것이 보인다.

나는 이미 시인들이 변하여 제 자신에게로 눈길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정신의 참회자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시인들에게서 자라났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이 구절과 뒤이은 '영원히 여성적인 것', '이끌어 올리니', '모자란 것'이 '사건'이 된다는 구절은 괴테 『파우스트』 제2부를 맺는 '신비의 합창'의 나머지 구절들을 잇달아 비튼 것이다. 합창의 첫 구절은 '행복한 섬에서'의 주에서 다루었다.

큰 사건들에 대하여

바다에 섬 하나가 있으니, 차라투스트라의 행복한 섬들에서 멀지 않은 그 섬에서는 불의 산 하나가 쉼 없이 연기를 뿜는다. 군중은, 특히 군중 가운데 늙은 여자들은 그 섬을 두고 저승의 문 앞에 바윗덩이처럼 놓인 섬이라고 말하며, 불의 산 한복판을 뚫고 이 저승의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아래로 나 있다고 한다.

차라투스트라가 행복한 섬들에 머물던 바로 그 무렵, 배 한 척이 연기 뿜는 산이 서 있는 그 섬에 닻을 내리는 일이 있었고, 선원들은 토끼를 사냥하러 뭍에 올랐다. 그런데 정오 무렵, 선장과 선원들이 다시 한데 모였을 때, 그들은 갑자기 한 사내가 허공을 가르며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한 목소리가 똑똑히 말했다. "때가 되었다! 때가 다 찼다!" 그 형상은 그림자처럼 재빨리 불의 산이 있는 쪽으로 날아 스쳐 갔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이 차라투스트라임을 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선장 말고는 모두 전에 그를 본 적이 있었고, 그들은 군중이 사랑하듯, 곧 사랑과 외경이 꼭 반반씩 함께 깃든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저것 좀 보아라!" 늙은 키잡이가 말했다. "저기 차라투스트라가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 뱃사람들이 불의 섬에 배를 댄 바로 그 무렵, 차라투스트라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사람들이 그의 벗들에게 묻자 그들은

차라투스트라가 어디로 떠나려는지 말도 없이 밤에 배를 탔다고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술렁임이 일었는데, 사흘이 지나자 이 술렁임에 뱃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보태졌고, 이제 온 군중이 악마가 차라투스트라를 잡아갔다고 말했다. 제자들은 이런 뒷말을 웃어넘기기는 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차라리 차라투스트라가 악마를 잡아갔다는 편이 더 믿기겠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모두 걱정과 동경으로 가득했으니, 닷새째 되는 날 차라투스트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자 그들의 기쁨은 그만큼 컸다.

그리고 이것이 차라투스트라가 불개와 나눈 대화의 이야기다.

그가 말했다. 대지에는 살갗이 있다. 그리고 이 살갗에는 병들이 있다. 이를테면 그 병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라 불린다.

그리고 그 병 가운데 또 하나는 '불개'라 불린다. **그것을** 두고 인간들은 서로 숱한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또 숱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이 비밀을 캐내려고 나는 바다를 건너갔다. 그리고 나는 벌거벗은 진리를 보았다, 진실로! 목까지 맨발인 진리를.

불개가 어떤 것인지 이제 나는 알며, 늙은 여자들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저 모든 토해 내는 악마들과 뒤엎는 악마들이 어떤 것인지도 안다.

나는 외쳤다. 불개여, 그대의 깊은 곳에서 나오너라! 그리고 그 깊은 곳이 얼마나 깊은지 고백하라! 그대가 거기서 씩씩대며 뿜어 올리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대는 바닷물을 넉넉히 들이켜는구나. 그대의 짜디짠 말솜씨가 그것을 드러낸다! 참으로, 깊은 곳의 개치고 그대는 너무 겉에서 먹이를 얻는다!

기껏해야 나는 그대를 대지의 복화술사쯤으로 여기니, 뒤엎는 악마들과 토해 내는 악마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들이

그대처럼 짜고, 거짓되고, 얕다는 것을 알았다.

그대들은 으르렁거리고 재를 뿌려 사방을 어둡게 할 줄 안다! 그대들은 둘도 없는 허풍선이들이요, 진흙을 펄펄 끓이는 재주를 넌더리 나도록 익혔다.

그대들이 있는 곳에는 늘 가까이에 진흙이 있어야 하고, 구멍이 숭숭한 것, 속이 텅 빈 것, 꽉 끼여 짓눌린 것이 많이 있어야 하니, 그런 것이 자유 속으로 나가려 한다.

그대들은 모두 '자유'를 외쳐 대기를 가장 좋아하지만, 나는 '큰 사건들' 둘레에 고함과 연기가 자욱하기만 하면 곧바로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다.

내 말을 믿어라, 지옥의 소란꾼 벗이여! 가장 큰 사건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요란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더없이 고요한 시간이다.

새로운 소음을 발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발명하는 자들을 축으로 세계는 돈다. 세계는 **소리 없이** 돈다.

자, 털어놓아라! 그대의 소음과 연기가 걷히고 나면 일어난 일은 언제나 보잘것없었다. 도시 하나가 미라가 되고 석상 하나가 진흙 속에 누워 있다 한들, 그것이 다 무엇이냐!

그리고 나는 석상을 뒤엎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노라. 바다에 소금을 던지고 진흙에 석상을 던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이리라.

그대들의 경멸이라는 진흙 속에 석상이 누워 있었으나, 경멸 속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 있는 아름다움이 자라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석상의 법칙이다!

이제 석상은 더 신성한 얼굴로, 괴로움에 젖어 더욱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진실로! 석상은 자기를 뒤엎어 준 그대들에게 도리어 고마워하리라, 그대 뒤엎는 자들이여!

그러나 왕들과 교회들과, 늙어 쇠하고 덕이 쇠한 모든 것에게 나는 이렇게 권하노라. 그저 뒤엎어지도록 몸을 맡겨라! 그대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리고 그대들에게 덕이……돌아오도록!

나는 불개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불개가 뚱하게 내 말을 끊고 물었다. "교회? 그게 대체 뭐냐?"

나는 대답했다. 교회? 그것은 국가의 일종이다, 그것도 가장 거짓된 종류다. 그러나 입 다물어라, 그대 위선의 개여! 그대 족속은 그대가 누구보다 잘 알 테지!

그대 자신과 똑같이 국가도 위선의 개이니, 그대처럼 연기와 고함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대처럼 사물의 뱃속에서 말하는 줄로 믿게 하려는 속셈이다.

국가는 기어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짐승이 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듣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불개는 시샘에 겨워 미친 듯이 날뛰었다. "뭐라고?" 불개가 외쳤다.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짐승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듣는다고?" 그리고 그의 목구멍에서 김과 소름 끼치는 소리가 어찌나 많이 쏟아져 나오던지, 나는 그가 분통과 시샘에 숨이 막혀 죽겠구나 싶었다.

마침내 그는 잠잠해졌고 헐떡임도 가라앉았는데, 그가 조용해지자마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화를 내는구나, 불개여. 그러니 그대를 두고 한 내 말이 옳다!"

"그리고 내 말이 끝까지 옳도록, 또 다른 불개 이야기를 들어 보라. 그 불개는 참으로 대지의 심장에서 말한다."

"그의 숨결은 황금을, 황금빛 비를 내뿜는다. 그의 심장이 그렇게 원한다. 재와 연기와 뜨거운 점액이 이제 그에게 다 무엇이냐!"

"웃음이 알록달록한 구름 떼처럼 그에게서 펄럭이며 나온다. 그는 그대의 꾸르륵거림과 토악질과 배앓이를 달갑잖게 여긴다!"

"그러나 황금과 웃음, 그것을 그는 대지의 심장에서 길어 온다. 그대도 알아 두어라. 대지의 심장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불개는 이 말을 듣자 더는 내 말을 들어 줄 수가 없었다. 부끄러워 꼬리를 말아 넣고는 풀 죽은 소리로 멍! 멍! 하더니 제 동굴 속으로 기어 내려갔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의 말을 거의 듣지 않았으니, 뱃사람들과 토끼와 날아다니는 사내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고 싶어 그토록 안달이 나 있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내가 유령이란 말인가?"

"아마 내 그림자였으리라. 그대들도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이야기는 이미 조금 들었겠지?"[1]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의 목줄을 좀 더 짧게 잡아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내 평판까지 망쳐 놓겠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의아해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그런데 그 유령은 왜 '때가 되었다! 때가 다 찼다!' 하고 외쳤을까?"

"대체 **무엇을 할** 때가……다 찼다는 말인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니체가 1880년에 펴낸 책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를 가리킨다. 이 책은 1886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제2권에 합쳐졌다.

예언자

"……그리고 내가 보니, 크나큰 슬픔이 인간들 위에 임했다. 가장 뛰어난 자들이 제 일에 지쳤다."

"가르침 하나가 두루 퍼졌고, 믿음 하나가 그 곁을 나란히 달렸다. '모든 것은 공허하다, 모든 것은 매한가지다, 모든 것은 지나갔다!'"

"그러자 모든 언덕에서 메아리가 되울려 왔다. '모든 것은 공허하다, 모든 것은 매한가지다, 모든 것은 지나갔다!'"

"우리는 추수를 하기는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열매는 모두 썩어 거무죽죽해졌는가? 지난밤 사악한 달에서 무엇이 떨어져 내렸던가?"

"모든 수고가 헛되었고, 우리의 포도주는 독이 되었으며, 사악한 눈길이 우리의 밭과 마음을 누렇게 그슬렸다."

"우리는 모두 메말라 버려서 불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재처럼 흩날리니, 그렇다, 우리는 불마저 지치게 만들었다."

"우리의 샘은 모두 말라 버렸고, 바다마저 물러났다. 땅은 온통 갈라지려 하건만, 깊은 곳은 우리를 삼키려 하지 않는다!"

"'아, 빠져 죽을 만한 바다가 어디 아직 남아 있는가.' 우리의 탄식은 그렇게 울린다, 얕은 늪들 위로 멀리멀리."

"진실로, 우리는 죽기에도 이미 너무 지쳤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고 계속 살아간다……무덤 속 방에서!"

차라투스트라는 한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예언은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 그를 바꾸어 놓았다. 그는 슬프고 지친 몸으로 돌아다녔고, 예언자가 말한 그 자들과 같아졌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진실로, 조금 있으면 이 긴 어스름이 오리라. 아, 나는 내 빛을 어떻게 저 너머까지 지켜 낼 것인가!

이 슬픔 속에서 내 빛이 숨이 막혀 꺼지지 않기를! 내 빛은 더 먼 세계들에게, 가장 먼 밤들에게까지 빛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에 시름을 안고 차라투스트라는 돌아다녔으니, 사흘 동안 그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고, 쉬지도 못했으며, 말을 잃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제자들은 그의 곁에 둘러앉아 기나긴 밤을 지키며, 그가 깨어나 다시 말을 하고 시름에서 나을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다.

그런데 차라투스트라가 깨어나서 한 말은 이러했으니, 그의 목소리는 아득히 먼 곳에서 오는 듯 제자들에게 들려왔다.

벗들이여, 내가 꾼 꿈을 들어 보라. 그리고 그 뜻을 풀도록 나를 도와다오!

이 꿈은 내게 아직 수수께끼이니, 그 뜻은 꿈속에 숨은 채 갇혀 있어서 아직 자유로운 날개를 펴고 꿈 위로 날아오르지 못한다.

나는 모든 삶과 인연을 끊었다, 꿈에서 그랬다. 나는 저기 죽음의 외딴 산성에서 밤지기이자 무덤지기가 되어 있었다.

저 위에서 나는 죽음의 관들을 지켰으니, 퀴퀴한 둥근 천장 아래 방들마다 그런 승리의 전리품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유리 관 속에서 정복된 삶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먼지 앉은 영원들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내 영혼은 후텁지근하게, 먼지를 뒤집어쓴 채 누워 있었다. 하기야 거기서 누가 제 영혼에 바람을 쐬어 줄 수 있었으랴!

한밤의 밝음이 늘 내 곁에 있었고, 고독이 그 곁에 웅크리고 있었으며, 셋째로는 숨넘어가는 소리를 내는 죽음의 고요가 있었으니, 내 벗들 가운데 가장 고약한 벗이었다.

나는 열쇠를, 모든 열쇠 가운데 가장 녹슨 열쇠를 지니고 다녔으며, 그 열쇠로 모든 문 가운데 가장 삐걱거리는 문을 열 줄 알았다.

문의 두 날개가 들어 올려질 때면 몹시 사나운 까마귀 울음 같은 소리가 긴 복도를 따라 퍼져 나갔으니, 이 새는 잠에서 깨기 싫다고 흉하게 울어 댔다.

그러나 그 소리가 다시 잠잠해지고 사방이 고요해져서 내가 이 음흉한 침묵 속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그것은 한층 더 끔찍했고 가슴을 더 옥죄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기어갔다, 아직 시간이란 것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마침내 나를 깨운 그 일이 일어났다.

우레처럼 세 번, 문을 치는 소리가 났고 둥근 천장들이 세 번 쩌렁쩌렁 울부짖으며 되울렸으니, 그제야 나는 문으로 갔다.

나는 외쳤다. 알파! 누가 제 재를 산으로 나르는가? 알파! 알파! 누가 제 재를 산으로 나르는가?

그리고 나는 열쇠를 눌러 돌리고 문을 들어 올리며 애를 썼다. 그러나 문은 아직 손가락 한 마디만큼도 열리지 않았다.

그때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이 문의 두 날개를 양쪽으로 찢어 젖히더니, 휘파람을 불고 날카롭게 울부짖고 살을 에며 내게 검은 관 하나를 던졌다.

그리고 몰아치고 휘파람 불고 울부짖는 소리 속에서 관이 산산이 터지더니 천 겹의 웃음을 토해 냈다.

그리고 아이들과 천사들과 올빼미들과 바보들과 아이만 한 나비들의 천 개나 되는 일그러진 얼굴에서, 나를 향해 웃어 대고 비웃어 대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몰아쳤다.

그 때문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이 나를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나는 공포에 질려, 이제껏 한 번도 질러 본 적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내가 지른 비명이 나를 깨웠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제 꿈 이야기를 하고는 입을 다물었으니, 아직 그 꿈의 풀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재빨리 일어나 차라투스트라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이 꿈을 풀어 준다!"

"그대 자신이 바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내며 죽음의 성들의 문을 찢어 여는 바람이 아닌가?"

"그대 자신이 바로 삶의 알록달록한 짓궂음과 천사의 일그러진 얼굴로 가득 찬 관이 아닌가?"

"진실로, 차라투스트라는 천 겹의 아이 웃음처럼 모든 죽은 자의 방으로 들어가, 이 밤지기와 무덤지기들을, 그리고 그 밖에 음울한 열쇠를 절그럭거리는 자라면 누구든 비웃는다."

"그대는 그대의 웃음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고 쓰러뜨리리라. 그들이 힘을 잃고 까무러쳤다가 깨어나는 것이 그들 위에 선 그대의 힘을 증명하리라."

"그리고 긴 어스름과 죽음의 피로가 찾아올 때에도, 그대는 우리 하늘에서 저물지(untergehen) 않으리라, 그대 삶의 대언자여!"

"그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별들과 새로운 밤의 영광을 보게 해 주었다. 진실로, 그대는 웃음 자체를 알록달록한 장막처럼 우리 위에 쳐 주었다."

"이제 관에서는 언제나 아이의 웃음이 솟아 나오고, 이제 언제나 거센 바람이 모든 죽음의 피로를 이기며 불어오리니, 그대 자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하는 자요 예언자다!"

"진실로, 그대가 꿈꾼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대의 적들이었다. 그것이 그대의 가장 무거운 꿈이었다!"

"그러나 그대가 그들에게서 깨어나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왔듯, 그들도 저희 자신에게서 깨어나……그대에게로 와야 한다!"

제자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차라투스트라 둘레로 몰려들어 그의 두 손을 붙잡고는, 잠자리와 슬픔을 떨치고 자기들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를 달래려 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잠자리에 꼿꼿이 일어나 앉아 낯선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다. 오랜 타향살이 끝에 고향에 돌아온 자처럼 그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으나, 아직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일으켜 두 발로 세우자, 보라, 단번에 그의 눈빛이 달라졌으니, 그는 일어난 일을 모두 깨닫고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이것에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내 제자들이여, 우리가 푸짐하게 먹도록, 그것도 어서 먹도록 챙겨 다오! 그렇게 해서 나는 나쁜 꿈을 참회하려 한다!"

"그리고 예언자는 내 곁에서 먹고 마시게 하라. 진실로, 나는 그에게 빠져 죽을 만한 바다를 하나 보여 주리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해몽가 노릇을 한 제자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구원에 대하여

어느 날 차라투스트라가 큰 다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 불구자들과 거지들이 그를 에워쌌고 곱사등이 하나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라, 차라투스트라여! 군중도 그대에게서 배우고 그대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으나, 군중이 그대를 온전히 믿으려면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하니, 그대는 먼저 우리 불구자들부터 설득해야 한다! 자, 여기 골라잡을 거리가 이렇게 푸짐하니, 진실로 움켜잡을 앞머리가 하나만이 아닌 기회다! 그대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으며, 등 뒤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진 자에게서는 그 짐을 조금 덜어 줄 수도 있으리라. 내 생각에는 그것이야말로 불구자들이 차라투스트라를 믿게 만드는 올바른 길이리라!"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말을 건넨 그 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곱사등이의 혹을 떼어 내면 그의 정신까지 떼어 내는 셈이다. 군중은 그렇게 가르친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면 그는 대지 위의 궂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 자기를 고쳐 준 자를 저주한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 주는 자는 그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니, 걷게 되기가 무섭게 그의 악덕들이 그를 싣고 내달리기 때문이다. 군중은 불구자들을 두고 그렇게 가르친다. 군중이 차라투스트라에게서 배우는데, 차라투스트라라고 군중에게서 배우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그러나 인간들 사이에 온 뒤로 내가 보는 것 가운데 이런 것은 가장 하찮다. '이 자는 눈 한쪽이 없고, 저 자는 귀 한쪽이 없고, 또 다른 자는

다리가 없다. 혀나 코나 머리를 잃어버린 자들도 있다.'"

"나는 이보다 더 나쁜 것을 보고 또 보아 왔으며, 갖가지로 너무도 흉측한 것들을 보았으니, 그 하나하나를 다 말하고 싶지도 않거니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기조차 싫다. 곧 단 한 가지를 너무 많이 가졌을 뿐 모든 것이 모자란 인간들, 커다란 눈 하나, 커다란 주둥이 하나, 커다란 배 하나, 또는 무언가 커다란 것 하나일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다. 그런 자들을 나는 거꾸로 된 불구자라 부른다."

"내가 고독에서 나와 처음으로 이 다리를 건넜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어서 보고 또 보다가 마침내 말했다. '이것은 귀다! 인간만큼이나 큰 귀다!' 나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정말로 그 귀 밑에서 무언가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가엾을 만큼 작고 초라하고 여윈 것이었다. 참으로, 그 어마어마한 귀는 작고 가느다란 줄기 위에 얹혀 있었고, 그 줄기가 바로 인간이었다! 돋보기를 눈에 대고 보면 시샘 어린 조그만 얼굴까지 알아볼 수 있었으며, 퉁퉁 부은 조그만 영혼 하나가 줄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도 보였다. 그런데 군중은 내게 말하기를, 그 큰 귀는 인간일 뿐 아니라 큰 인물, 곧 천재라고 했다. 그러나 군중이 큰 인물들을 두고 말할 때 나는 한 번도 군중을 믿은 적이 없었으니, 그것은 모든 것이 너무 적고 한 가지만 너무 많은, 거꾸로 된 불구자라고 나는 끝내 믿었다."

차라투스트라는 곱사등이에게, 그리고 곱사등이가 입이 되고 대언자가 되어 주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몹시 언짢은 얼굴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진실로, 벗들이여, 나는 인간들 사이를 거닐지만 인간의 조각과 팔다리 사이를 거니는 것만 같다!"

"싸움터이자 도살터 위에 흩뿌려진 듯 인간이 산산조각 나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내 눈에는 이것이 끔찍하다."

"그리고 내 눈이 지금에서 옛적으로 달아나 보아도 눈에 띄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것이다. 조각과 팔다리와 끔찍한 우연들, 그러나 인간은 없다!"

"대지 위의 지금과 옛적, 아, 벗들이여, 이것이 **내게는** 무엇보다 견딜 수 없으니, 내가 반드시 와야 할 것을 내다보는 선견자가 아니라면 나는 살아갈 줄을 모르리라."

"선견자, 의욕하는 자, 창조하는 자, 미래 그 자체이자 미래로 가는 다리, 그리고 아, 말하자면 이 다리 위의 불구자이기도 한 자, 이 모든 것이 차라투스트라다."

"그대들도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차라투스트라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를 무어라 불러야 하는가?' 그리고 나 자신이 그랬듯 그대들도 물음으로 스스로에게 답했다."

"그는 약속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루는 자인가? 정복하는 자인가? 아니면 물려받는 자인가? 가을인가? 아니면 보습인가? 의사인가? 아니면 건강을 되찾은 자인가?"

"그는 시인인가? 아니면 진실한 자인가? 해방자인가? 아니면 길들이는 자인가? 선한 자인가? 아니면 악한 자인가?"

"나는 미래의 조각들인 인간들 사이를 거닌다. 내가 바라보는 저 미래의 조각들 사이를."

"그리고 조각이며 수수께끼며 끔찍한 우연인 것을 하나로 지어 내고 한데 그러모으는 것, 이것이 나의 모든 시 짓기와 궁리다."

"인간이 시인이요 수수께끼를 푸는 자요 우연의 구원자이기도 하지 않다면, 내가 어찌 인간으로 사는 것을 견디겠는가!"

"지나간 자들을 구원하고 모든 '그랬었다'를 '나는 그렇게 원했다!'로 다시 창조하는 것, 그것을 비로소 나는 구원이라 부르리라!"

"의지, 이것이 해방자요 기쁨을 가져다주는 자의 이름이다. 벗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덧붙여 배우라. 의지 자신도 아직은 갇힌 자다."

"의욕은 해방한다. 그러나 해방자마저 사슬로 묶어 두는 것, 그것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랬었다', 이것이 의지가 이를 가는 소리요 의지의 가장 고독한 비애다. 이미 행해진 것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니, 의지는 지나간 모든 것을 악의에 차서 바라보는 구경꾼이다."

"의지는 시간을 거슬러 원할 수 없으니, 시간을, 그리고 시간의 탐욕을 꺾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의지의 가장 고독한 비애다."

"의욕은 해방한다. 그렇다면 의욕 자신은 제 비애에서 풀려나고 제 감옥을 비웃으려고 무엇을 궁리해 내는가?"

"아, 갇힌 자는 누구나 바보가 된다! 갇힌 의지 또한 바보스럽게 스스로를 구원한다."

"시간이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의지의 울분이다. '있었던 것', 이것이 의지가 굴리지 못하는 돌의 이름이다."

"그래서 의지는 울분과 언짢음에 겨워 돌들을 굴리며, 자기처럼 울분과 언짢음을 느끼지 않는 것에게 복수한다."

"그리하여 의지는, 이 해방자는, 고통을 가하는 자가 되었으니, 자기가 거슬러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앙심을 품고, 괴로워할 수 있는 모든 것에게 복수한다."

"이것, 그렇다, 오직 이것만이 **복수** 그 자체다. 시간을, 그리고 시간의 '그랬었다'를 향한 의지의 원한."

"진실로, 우리의 의지 안에는 크나큰 바보짓이 깃들어 사는데, 이 바보짓이 정신을 배웠다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모든 것에게 저주가 되고 말았다!"

"복수의 영, 벗들이여, 그것이 지금까지 인간들이 짜낸 가장 뛰어난 생각이었으니, 괴로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벌이 있어야 했다."

"곧 '벌', 복수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다. 거짓말 하나로 복수는 제게 선한 양심이 있는 척 꾸민다."

"그리고 의욕하는 자 자신 안에 거슬러 원할 수 없다는 괴로움이 있기에, 의욕 자체와 모든 삶이…… 벌이어야 했다!"

"그러자 이제 구름 위로 구름이 굴러와 정신을 뒤덮었고, 마침내 광기가 이렇게 설교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사라져 마땅하다!'"

"'그리고 시간이 제 자식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저 시간의 법칙, 이것이야말로 정의 그 자체다.' 광기는 이렇게 설교했다."

"'만물은 법과 벌에 따라 도덕적으로 질서 잡혀 있다. 오, 만물의 흐름에서, 그리고 존재라는 벌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은 어디 있는가?' 광기는 이렇게 설교했다."

"'영원한 법이 있다면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아, '그랬었다'라는 돌은 굴릴 수 없으니, 모든 벌 또한 영원해야 한다!' 광기는 이렇게 설교했다."

"'어떤 행위도 허물어 없앨 수 없다. 그러니 벌을 받는다고 어찌 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겠는가! 이것, 이것이야말로 '존재'라는 벌이 지닌 영원함이니, 존재 또한 영원히 거듭 행위요 죄여야 한다!'"

"'의지가 마침내 스스로를 구원하여 의욕이 의욕하지 않음이 되지 않는 한……' 그러나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광기의 이 우화 노래를 알고 있다!"

"그대들에게 '의지는 창조하는 자다'라고 가르쳤을 때, 나는 그대들을 이런 우화 노래들에서 멀리 이끌어 냈다."

"모든 '그랬었다'는 조각이요, 수수께끼요, 끔찍한 우연이다. 창조하는 의지가 그것을 두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원했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창조하는 의지가 그것을 두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원한다!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원하리라!'라고 말할 때까지는."

"그러나 의지는 벌써 그렇게 말했는가? 그리고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의지는 제 어리석음의 멍에를 이미 벗었는가?"

"의지는 벌써 스스로에게 구원자요 기쁨을 가져다주는 자가 되었는가? 의지는 복수의 영과 이를 가는 모든 짓을 잊었는가?"

"그리고 누가 의지에게 시간과 화해하기를, 그리고 모든 화해보다 더 높은 것을 가르쳤는가?"

"힘에의 의지인 의지는 모든 화해보다 더 높은 것을 원해야 하나, 어떻게 의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의지에게 거슬러 원하는 것까지 가르쳤는가?"

그런데 그의 말이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차라투스트라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고, 그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소스라치게 놀란 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소스라친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화살처럼 그들의 생각과 속생각을 꿰뚫었다. 그러나 잠시 뒤 그는 벌써 다시 웃으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들과 함께 살기는 어렵다. 침묵하기가 그토록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다쟁이에게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곱사등이는 그동안 얼굴을 가린 채 이 대화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차라투스트라가 웃는 소리를 듣자 궁금한 듯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우리에게 말할 때와 제자들에게 말할 때가 다른가?"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그게 무슨 놀랄 일이냐! 곱사등이한테는 굽은 말을 해도 되는 법이다!"

"좋다." 곱사등이가 말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학당 안 이야기를 흘려도 되는 법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제자들에게 말할 때와…… 자기 자신에게 말할 때가 다른가?"

처세의 지혜에 대하여

무서운 것은 높이가 아니라 비탈이다!

눈길은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손은 **위로** 뻗는 비탈, 거기서 마음은 제 두 갈래 의지 앞에서 아찔해진다.

아, 벗들이여, 그대들은 내 마음의 두 갈래 의지도 알아맞히겠는가?

이것, 이것이 **나의** 비탈이요 나의 위험이니, 내 눈길은 높은 곳으로 곤두박질치는데 내 손은 붙잡고 기댈 데를 찾으려 한다…… 깊은 곳에서!

내 의지는 인간에게 매달리고 나는 사슬로 나 자신을 인간에게 묶는데, 무언가가 나를 위버멘쉬에게로 잡아채 끌어올리기 때문이니, 나의 또 다른 의지는 그리로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려고** 나는 인간들 사이에서 그들을 모르는 것처럼 눈먼 채로 사니, 내 손이 굳건한 것에 대한 믿음을 아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

나는 그대들 인간을 알지 못하노라. 이 어둠이자 위로가 자주 내 둘레에 드리워 있다.

나는 건달이면 누구든 맞으려고 성문 곁에 앉아서 묻는다. 누가 나를 속이려는가?

이것이 나의 첫째 처세의 지혜다. 사기꾼들을 경계하지 않으려고 나는 속아 준다.

아, 내가 인간을 경계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내 열기구의 닻이 되어 줄 수 있겠는가! 무언가가 너무도 쉽게 나를 위로, 저 멀리 잡아채 가리라!

내 운명을 굽어살피는 섭리는 이러하니, 나는 앞뒤를 살피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인간들 사이에서 목말라 쓰러지지 않으려는 자는 어떤 잔으로든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깨끗하게 남으려는 자는 더러운 물로도 몸을 씻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자주 이렇게 말했다. "좋다! 자, 일어나라! 늙은 마음이여! 불행 하나가 그대에게서 빗나갔다. 이것을 그대의…… 행복으로 누려라!"

그러나 이것이 나의 둘째 처세의 지혜다. 나는 긍지 높은 자들보다 **허영심 많은 자들**을 더 너그럽게 대한다.

상처 입은 허영심이야말로 모든 비극의 어머니가 아닌가? 그러나 긍지가 상처 입는 곳에서는 긍지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자라나리라.

삶이 보기 좋은 것이 되려면 삶이라는 연극이 잘 연기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좋은 배우들이 있어야 한다.

허영심 많은 자들은 모두 좋은 배우임을 나는 알았으니, 그들은 연기하며 사람들이 즐겨 자기를 구경해 주기를 원하고, 그들의 온 정신이 이 의지에 쏠려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대에 올리고 스스로를 지어낸다. 그들 곁에서 나는 삶을 구경하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우울을 낫게 해 준다.

그래서 나는 허영심 많은 자들을 너그럽게 대하니, 그들은 내 우울을 고쳐 주는 의사들이요, 연극에 붙들어 매듯 나를 인간에게 단단히 붙들어 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허영심 많은 자가 얼마나 깊이 겸손한지 누가 다 헤아리랴! 그의 겸손 때문에 나는 그에게 호의를 품고 그를 동정한다.

그는 그대들에게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배우려 하니, 그대들의 눈길을 먹고 살며 그대들의 손바닥에서 칭찬을 받아먹는다.

그대들이 그를 두고 좋게 거짓말을 하면 그는 그대들의 거짓말조차 믿는다. 그의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한숨짓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제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덕이 참된 덕이라면, 자, 허영심 많은 자는 제 겸손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셋째 처세의 지혜다. 나는 그대들이 겁을 낸다고 해서 악한 자들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망치게 두지 않는다.

뜨거운 해가 품어 깨운 경이로운 것들, 호랑이와 야자나무와 방울뱀을 보는 것이 나는 복되다.

인간들 가운데에도 뜨거운 해가 까 놓은 아름다운 새끼들이 있고, 악한 자들에게도 경탄할 만한 것이 많다.

하기야 그대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내게는 그리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듯, 인간들의 사악함도 소문만 못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나는 자주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방울뱀들이여, 무엇하러 아직도 방울을 울려 대느냐?

진실로, 악에게도 아직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뜨거운 남쪽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고작 너비가 열두 자에 길이가 석 달밖에 안 되는 것을 벌써부터 가장 지독한 사악함이라 부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언젠가 더 큰 용들이 세상에 나오리라.

위버멘쉬에게 그에게 걸맞은 용, 곧 위버-용(Über-Drache)이 없어서는 안 되니, 그러려면 뜨거운 햇볕이 아직도 오래도록 축축한 원시림 위에서 이글거려야 한다!

먼저 그대들의 들고양이들에게서 호랑이가 나오고 그대들의 독두꺼비들에게서 악어가 나와야 하니, 훌륭한 사냥꾼은 훌륭한 사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여! 그대들에게는 웃을 거리가 많으니,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악마'라 불려 온 것을 그대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렇다!

그대들의 영혼은 위대한 것에 너무도 낯설어서, 위버멘쉬는 그 선함으로도 그대들에게 **무시무시하리라**!

그리고 그대 현자들과 아는 자들이여, 위버멘쉬가 기쁨에 겨워 알몸을 적시는 지혜의 불볕을 피해 그대들은 달아나리라!

내 눈이 마주친 가장 높은 인간들이여! 이것이 그대들에 대한 나의 의심이요 나의 남모르는 웃음이니, 짐작건대 그대들은 나의 위버멘쉬를…… 악마라 부르리라!

아, 나는 이 가장 높은 자들, 가장 뛰어난 자들에게 지쳤으니, 그들의 '높이'에서 나는 위로, 밖으로, 저 멀리 위버멘쉬에게로 가기를 갈망했다!

이 가장 뛰어난 자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소름이 끼쳤고, 그때 먼 미래들로 날아가도록 내게 날개가 돋았다.

어떤 조각가가 꿈꾼 것보다 더 먼 미래들로, 더 남쪽의 남쪽들로, 신들이 온갖 옷을 부끄러워하는 그곳으로!

그러나 이웃들이여, 동료 인간들이여, **그대들만은** 변장한 모습으로, 잘 차려입고 허영에 들뜨고 점잔 빼는 '선하고 의로운 자들'로 보고 싶다.

그리고 나 자신도 변장한 채 그대들 사이에 앉아 있으련다. 그대들도 나도 **몰라보도록**. 이것이 바로 나의 마지막 처세의 지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더없이 고요한 시간

"벗들이여,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대들이 보다시피 나는 넋이 나가고, 내몰리고, 마지못해 순종하며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아, **그대들에게서** 떠나갈 채비를!"

"그렇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한번 제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 이번에는 곰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제 동굴로 돌아간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누가 이것을 명하는가? 아, 성난 나의 여주인이 그렇게 원하며 내게 말했다. 내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을 일러준 적이 있던가?"

"어제 저녁 무렵 **나의 더없이 고요한 시간**이 내게 말했으니, 이것이 나의 무서운 여주인의 이름이다."

"일은 이렇게 일어났다. 모든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해야 하니, 갑자기 떠나는 자를 두고 그대들의 마음이 강퍅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대들은 잠드는 자의 소스라침을 아는가?"

"그는 발가락 끝까지 소스라친다. 발밑의 땅이 꺼지고 꿈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라. 어제, 더없이 고요한 시간에 내 발밑의 땅이 꺼졌다. 꿈이 시작되었다."

"시곗바늘이 움직였고 내 삶의 시계가 숨을 들이쉬었는데, 그런 고요를 나는 내 둘레에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기에 내 마음이

소스라쳤다."

"그러자 그것이 소리 없이 내게 말했다. '그대는 그것을 알지 않는가, 차라투스트라여?'"

"이 속삭임에 나는 소스라쳐 비명을 질렀고, 내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다."

"그러자 그것이 다시 소리 없이 내게 말했다. '그대는 그것을 안다, 차라투스트라여.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고집 부리는 자처럼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자 그것이 다시 소리 없이 내게 말했다. '그대가 **원치** 않는다고, 차라투스트라여? 그것이 참말이냐? 그대의 고집 속으로 숨어들지 마라!'"

"그리고 나는 아이처럼 울며 떨면서 말했다. '아, 나도 원하기야 한다. 그러나 내가 어찌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만은 제발 면하게 해다오! 내 힘에 부치는 일이다!'"

"그러자 그것이 다시 소리 없이 내게 말했다. '그대가 다 무엇이냐, 차라투스트라여! 그대의 말을 하고 부서져라!'"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아, 그것이 **나의** 말인가? 내가 누구란 말인가? 나는 나보다 더 합당한 이를 기다린다. 나는 그 말에 부딪혀 부서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자 그것이 다시 소리 없이 내게 말했다. '그대가 다 무엇이냐?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직 넉넉히 겸손하지 않다. 겸손은 가장 단단한 가죽을 지녔다.'"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내 겸손의 가죽이 무엇인들 짊어지지 않았던가! 나는 내 높이의 발치에 산다. 내 봉우리들이 얼마나 높으냐고? 아직 아무도 내게 말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 골짜기들은 내가 잘 안다.'"

"그러자 그것이 다시 소리 없이 내게 말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산을 옮겨야 하는 자는 골짜기와 낮은 땅도 옮긴다.'"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내 말은 아직 산 하나 옮기지 못했고 내가 한 말은 인간들에게 가닿지 못했으니, 나는 인간들에게 가기는 갔으나 아직 그들에게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자 그것이 다시 소리 없이 내게 말했다. '그대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 이슬은 밤이 가장 깊이 입을 다물었을 때 풀 위에 내린다.'"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 자신의 길을 찾아 걸어갔을 때 그들은 나를 비웃었는데, 사실 그때 내 발은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길을 잊더니, 이제는 걷는 법마저 잊는구나!'"

"그러자 그것이 다시 소리 없이 내게 말했다. '그들의 비웃음이 다 무엇이냐! 그대는 복종하는 법을 잊은 자다. 이제 그대는 명령해야 한다!'"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그대는 모르는가? 위대한 일을 명령하는 자다.'"

"'위대한 일을 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명령하기는 더 어렵다.'"

"'그대가 저지른 가장 용서받지 못할 일은 이것이다. 그대에게는 힘이 있는데도 그대는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내게는 명령하는 데 필요한 사자의 목소리가 없다.'"

"그러자 그것이 다시 속삭이듯 내게 말했다. '폭풍을 몰고 오는 것은 더없이 고요한 말들이다. 비둘기 걸음으로 오는 생각들이 세계를 이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반드시 와야 할 것의 그림자로서 가야 하니, 그렇게 그대는 명령하고 명령하면서 앞서 가리라.'"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부끄럽다.'"

"그러자 그것이 다시 소리 없이 내게 말했다. '그대는 아직 아이가 되어야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이가.'"

"'젊음의 긍지가 아직 그대에게 얹혀 있고 그대는 늦게야 젊어졌으나, 아이가 되려는 자는 제 젊음마저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오래 생각에 잠긴 채 떨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처음에 했던 말을 했다.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자 내 둘레에서 웃음이 일었다. 슬프다, 그 웃음이 어떻게 내 창자를 찢고 내 심장을 갈라 놓았던가!"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의 열매는 익었으나, 그대는 그대의 열매만큼 익지 않았다!'"

"'그러니 그대는 다시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대는 아직 더 물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웃고는 달아났다. 그러자 내 둘레가 고요해졌으니, 고요가 두 겹으로 내려앉은 듯했다. 그러나 나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고, 팔다리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대들은 모든 것을 들었고, 왜 내가 내 고독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들었다. 벗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여전히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입이 무거운 자인지,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는지도 그대들은 내게서 들었다!"

"아, 벗들이여! 그대들에게 아직 해 줄 말이 있건만, 그대들에게 아직 줄 것이 있건만! 어찌하여 나는 그것을 주지 않는가? 내가 인색하기라도 하단 말인가?"

이 말을 마치자 차라투스트라는 거센 아픔에 사로잡혔고, 벗들과 헤어질 때가 바로 눈앞이었으니, 그는 소리 내어 울었다. 아무도 그를 달랠 길을 몰랐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는 홀로 길을 나서 벗들을 떠났다.

제3부

"그대들은 높아지기를 갈망할 때 위를 올려다본다. 나는 높아져 있기에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대들 가운데 누가 웃으면서 동시에 높아져 있을 수 있는가? 가장 높은 산들에 오르는 자는 모든 비극과 비장함을 비웃는다."

차라투스트라,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에서

방랑자

한밤중이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른 아침까지 건너편 바닷가에 닿으려고 섬의 등성이를 넘는 길을 잡았으니, 그곳에서 배에 오를 생각이었다. 거기에는 배를 대기 좋은 정박지가 있어서 낯선 배들도 즐겨 닻을 내렸는데, 그 배들은 행복한 섬을 떠나 바다를 건너려는 이들을 곧잘 태워 갔다. 그렇게 산을 오르는 동안 차라투스트라는 젊은 시절부터 홀로 떠돌았던 숱한 방랑을 떠올렸고,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산과 등성이와 봉우리를 올랐던가를 되새겼다.

그는 제 마음에 대고 말했다. 나는 방랑자요 산을 오르는 자다. 나는 평지를 사랑하지 않으며, 아무래도 오래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모양이다.

이제 운명으로든 체험으로든 내게 무엇이 닥쳐오든, 그 안에는 방랑이 있고 산 오르기가 있으리니, 결국 사람이 체험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우연이 아직 내게 찾아와도 되던 시절은 흘러가 버렸으니, 이미 내 것이 아닌 무엇이 이제 와서 내게 떨어질 **수 있으랴**!

오직 되돌아올 뿐이다. 마침내 내게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나의 자기, 그리고 그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 오랫동안 타향에 머물며 온갖 사물과 우연 사이에 흩어져 있던 것들뿐이다.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나의 마지막 봉우리 앞에, 그리고 내 몫으로 가장 오래 남겨져 있던 것 앞에 서 있다. 아, 나는 가장

험한 길을 올라가야 한다! 아, 나는 가장 고독한 방랑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와 같은 부류는 이런 시간을 피해 가지 못한다.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시간을. "이제야 비로소 그대는 위대함의 길을 간다! 봉우리와 심연, 그것이 이제 하나로 묶였다!"

"그대는 위대함의 길을 간다. 지금껏 그대의 마지막 위험이라 불리던 것이 이제 그대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다!"

"그대는 위대함의 길을 간다. 그대 뒤에 더는 길이 없다는 것, 이제는 그것이 그대의 가장 큰 용기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위대함의 길을 간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대 뒤를 몰래 밟아 와서는 안 된다! 그대의 발이 몸소 그대 뒤의 길을 지워 버렸고, 그 길 위에는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이제 그대에게 사다리가 하나도 없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머리 위로라도 올라설 줄 알아야 하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위로 올라가겠는가?"

"그대 자신의 머리 위로, 그대 자신의 마음을 딛고 넘어서! 이제 그대 안의 가장 부드러운 것마저 가장 단단한 것이 되어야 한다."

"늘 제 몸을 지나치게 아껴 온 자는 끝내 그 지나친 아낌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다. 찬송하리로다,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여! 나는 버터와 꿀이…… 흐르는 땅을 찬송하지 않는다!"

"**많이** 보려면 제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하니, 산을 오르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단단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식하는 자랍시고 눈을 들이대며 치근덕거리는 자가 어찌 만물의 앞면 말고 더 많은 것을 보겠는가!"

"그러나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만물의 바닥과 뒷면을 보려 했으니, 그대 자신마저 넘어 올라가야 한다. 위로, 더 위로, 그대의 별들마저 그대 **아래** 둘 때까지!"

"그렇다!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별들마저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라야 비로소 나의 **봉우리**라 부르리니, 그것이 나의 **마지막** 봉우리로 아직 내게 남아 있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산을 오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고, 단단한 잠언 몇 마디로 제 마음을 달랬으니, 그의 마음이 일찍이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산등성이 마루에 올라서자, 보라, 저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는 가만히 선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 높은 곳의 밤은 차고 맑았으며, 별들이 환히 빛났다.

마침내 그가 슬픔에 잠겨 말했다. 나는 내 운명을 알아보겠다. 좋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방금 나의 마지막 고독이 시작되었다.

아, 내 발아래 이 검고 슬픈 바다여! 아, 무언가를 잉태한 이 밤의 울적함이여! 아, 운명이여, 바다여!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로 **내려가야** 한다!

나는 나의 가장 높은 산 앞에, 나의 가장 긴 방랑 앞에 서 있으니, 먼저 일찍이 내려가 본 적 없을 만큼 깊이 내려가야 한다.

일찍이 내려가 본 적 없을 만큼 깊이 고통 속으로, 고통의 가장 검은 물결 속까지! 나의 운명이 그렇게 원한다. 좋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가장 높은 산들은 어디서 오는가? 언젠가 나는 그렇게 물었다. 그때 나는 산들이 바다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다.

그 증거가 산들의 바위에, 봉우리의 암벽에 새겨져 있다. 가장 높은 것은 가장 깊은 것에서 올라와 제 높이에 이르러야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추운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말했으나, 바다 가까이 이르러 마침내 벼랑 아래 홀로 섰을 때는 오는 길에 지쳐 있었고 어느 때보다 동경에 사무쳐 있었다.

그가 말했다. 지금은 아직 모든 것이 잠들어 있다. 바다도 잠들어 있다. 잠에 취한 낯선 눈으로 바다가 나를 바라본다.

그러나 바다의 숨결은 따뜻하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바다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도 느낀다. 바다는 꿈을 꾸며 딱딱한 베개 위에서 몸을 뒤척인다.

들어라! 들어라! 나쁜 기억에 겨워 바다가 얼마나 신음하는가! 아니면 나쁜 예감에 겨워서인가?

아, 그대 어두운 괴물이여, 나는 그대와 함께 슬프고, 그대 때문에 나 자신에게까지 속이 상한다.

아, 내 손에 힘이 넉넉지 못하구나! 진실로, 나는 기꺼이 그대를 나쁜 꿈에서 구원해 주고 싶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울하고 씁쓸하게 제 자신을 비웃었다. "뭐라고! 차라투스트라여!" 그가 말했다. "그대는 바다에게까지 위로의 노래를 불러 주려는가?"

"아, 사랑이 넘치는 바보 차라투스트라여, 믿음이 지나쳐 복에 겨운 자여! 그러나 그대는 늘 그랬으니, 무시무시한 것이라면 무엇에게든 늘 스스럼없이 다가갔다."

"그대는 어떤 괴물이든 쓰다듬어 주려 했다. 따뜻한 숨결 한 줄기, 앞발에 난 보드라운 털 몇 가닥이면, 그대는 당장 그것을 사랑하고 꾀어 들일 채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은 가장 고독한 자의 위험이다. 살아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할 때의 나의 바보짓과 나의 겸손은 진실로 웃음거리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 번 웃었으나, 그때 두고 온 벗들이 떠올랐고, 마치 생각으로 그들에게 죄를 짓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제 생각을 두고 스스로에게 노여워했다. 그러자 곧 웃던 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노여움과 동경에 겨워 차라투스트라는 심히 통곡했다.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

1

행복한 섬에서 온 사내 하나가 차라투스트라와 함께 배에 오른 터라, 차라투스트라가 이 배에 타고 있다는 소문이 뱃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그러자 큰 호기심과 기대가 일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이틀 동안 입을 다물었고, 슬픔에 겨워 차갑게 굳은 채 귀마저 먹은 듯하여 누가 쳐다보아도 누가 물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그는 여전히 말은 없었으나 다시 귀를 열었으니, 먼 데서 와서 더 먼 데로 가려는 이 배에는 귀담아들을 만한 기이하고 위험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먼 길을 떠나며 위험 없이는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벗이었다. 그런데 보라! 귀를 기울이는 사이 마침내 그의 혀가 풀리고 마음의 얼음이 깨지자,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대들에게, 대담하게 찾는 자들이요 시험하는 자들인 그대들에게, 그리고 교활한 돛을 달고 무시무시한 바다로 배를 띄워 본 적이 있는 모든 이에게,

수수께끼에 취한 자들, 어스름을 반기는 자들, 피리 소리에 영혼이 홀려 온갖 미혹의 구렁으로 끌려가는 그대들에게,

그대들은 비겁한 손으로 실 한 가닥을 더듬어 따라가려 하지 않으며, **알아맞힐** 수 있는 곳에서는 **추론하기**를 싫어하니,

오직 그대들에게만 나는 내가 **본** 수수께끼를 들려주노라. 가장 고독한 자의 환영을.

얼마 전 나는 주검 빛깔의 어스름 속을 음울하게 걸어갔다. 음울하고 굳은 얼굴로, 입술을 꽉 다문 채. 내게 저문 해는 하나만이 아니었다.

돌 부스러기 사이로 고집스럽게 오르는 오솔길, 풀 한 포기 덤불 하나 더는 말을 걸어 주지 않는 심술궂고 외로운 오솔길, 그런 산길 하나가 내 발의 고집 아래서 버석거렸다.

조롱하듯 달그락거리는 자갈 위를 말없이 성큼성큼 밟고, 발을 미끄러지게 하는 돌은 짓밟아 부수며, 그렇게 내 발은 억지로 위를 향해 올라갔다.

위를 향하여! 내 발을 아래로, 심연 쪽으로 끌어내리는 영, 중력의 영, 나의 악마요 숙적인 그 영에 고집스레 맞서며.

위를 향하여! 반은 난쟁이요 반은 두더지인 그 영이 내 위에 올라타 제 다리를 절면서 내 다리마저 저리게 하고, 내 귀로 납을, 내 뇌수로 납 방울 같은 생각을 똑똑 떨어뜨리고 있었는데도.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가 한 음절 한 음절 끊어 가며 비웃듯 속삭였다. "그대 지혜의 돌이여! 그대는 그대 자신을 높이 던졌다. 그러나 던져진 돌은 모두…… 떨어지게 마련이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 지혜의 돌이여, 그대 물맷돌이여, 그대 별을 부수는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을 그토록 높이 던졌다. 그러나 던져진 돌은 모두……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대 자신이라는 형벌을, 제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선고받은 자여!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참으로 멀리 돌을 던졌으나, 그 돌은 **그대** 위로 도로 떨어지리라!"

그러고는 난쟁이가 입을 다물었는데, 그 침묵은 오래 이어졌다. 그의 침묵이 나를 짓눌렀으니, 진실로, 이렇게 둘이 있으면 혼자일 때보다 더

고독하다!

나는 오르고 또 올랐다. 꿈꾸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지독한 괴로움에 지쳐 겨우 잠들려 하면 더 지독한 꿈이 다시 깨우는 병자와 같았다.

그러나 내 안에는 내가 용기라 부르는 무엇이 있어, 그것이 지금껏 나의 낙담을 하나도 남김없이 때려죽였다. 마침내 이 용기가 나더러 멈춰 서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했다. "난쟁이여! 그대냐! 아니면 나냐!"

때려죽이는 데는 용기가 으뜸이다. **공격하는** 용기가 그렇다. 모든 공격에는 군악이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가장 용기 있는 짐승이다. 그 용기로 인간은 모든 짐승을 극복했다. 군악을 울리며 인간은 모든 고통마저 극복했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이야말로 가장 깊은 고통이다.

용기는 심연 앞에서 이는 현기증도 때려죽인다. 인간이 심연 앞에 서 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랴! 본다는 것 자체가 곧…… 심연을 보는 일이 아닌가?

때려죽이는 데는 용기가 으뜸이다. 용기는 동정도 때려죽인다. 그런데 동정이야말로 가장 깊은 심연이니, 인간은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만큼 괴로움도 깊이 들여다본다.

그러나 때려죽이는 데는 용기가 으뜸이다. 공격하는 용기가 그렇다. 그런 용기는 죽음마저 때려죽인다. 용기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다시 한번!"

이런 말 속에는 군악이 우렁차게 울린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1]

2

"멈춰라! 난쟁이여!" 내가 말했다. "나냐! 아니면 그대냐! 그러나 우리 둘 가운데 더 강한 자는 나다. 그대는 나의 심연 같은 생각을 모른다! **그것만은**…… 그대가 짊어지지 못하리라!"

그러자 나를 가볍게 해 주는 일이 일어났으니, 난쟁이가, 그 호기심 많은 자가 내 어깨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내 앞에 있는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멈춰 선 그곳에 성문 하나가 서 있었다.

"이 성문을 보라! 난쟁이여!" 나는 말을 이었다. "이 성문에는 두 얼굴이 있다. 두 길이 여기서 만난다. 아직 누구도 이 길들을 끝까지 가 보지 못했다."

"뒤로 뻗은 이 긴 길, 그것은 하나의 영원에 걸쳐 이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뻗은 저 긴 길, 그것은 또 하나의 영원이다."

"이 두 길은 서로 어긋나고 서로 정면으로 머리를 들이받는데, 바로 여기, 이 성문에서 두 길이 만난다. 성문의 이름은 그 위에 적혀 있다. '순간(Augenblick)'."

"그러나 누군가 그중 한 길을 따라 계속 간다면, 자꾸만 더 멀리, 자꾸만 더 아득히 간다면, 난쟁이여, 그대는 이 길들이 영원히 서로 어긋나리라고 믿는가?"

"곧은 것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난쟁이가 깔보듯 중얼거렸다. "모든 진리는 굽어 있다. 시간 자체가 하나의 원이다."

"그대 중력의 영이여!" 나는 노하여 말했다.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쪼그려 앉은 그 자리에 그대를 그대로 두고 가겠다, 절름발이여. 그대를 이만큼 **높이** 업어 온 것은 나였다!"

"이 순간을 보라!" 나는 말을 이었다. "순간이라는 이 성문에서 길고 영원한 길 하나가 **뒤로** 뻗어 있으니, 우리 뒤에는 하나의 영원이 놓여

있다."

"만물 가운데 달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한 번은 이 길을 달려갔어야 하지 않는가? 만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한 번은 일어났고, 행해졌고, 곁을 스쳐 지나갔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이미 있었던 것이라면, 난쟁이여, 그대는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성문 또한 이미…… 있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만물은 이처럼 단단히 매듭지어져 있어서, 이 순간이 앞으로 올 **모든** 것을 제 뒤로 끌어당기지 않는가? **그러니**…… 제 자신까지도?"

"만물 가운데 달릴 **수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뻗은 이 긴 길로도 언젠가 한 번 더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빛 속을 기어가는 이 느린 거미도, 이 달빛 자체도, 성문 아래서 함께 속삭이는, 영원한 것들을 속삭이는 나와 그대도, 우리는 모두 이미 있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저 다른 길을,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이 길고 섬뜩한 길을 달려가며, 우리는 영원히 되돌아와야 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말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으니, 나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 뒤에 숨은 생각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가까이에서 개 한 마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개가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나는 언젠가 들은 적이 있던가? 내 생각은 뒤로 달려갔다. 그렇다! 내가 아이였을 때, 아득히 먼 어린 시절에.

그때 나는 개가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개를 보기도 했다. 털을 곤두세우고 머리를 치켜든 채 떨고 있었다. 개들조차 유령을 믿는, 더없이 고요한 한밤중이었다.

그래서 나는 개가 불쌍했다. 마침 보름달이 죽은 듯 말없이 집 위를 지나다가 막 멈춰 선 참이었으니, 둥근 불덩이 하나가 평평한 지붕 위에

가만히 멈춰 있었다. 마치 남의 재산 위에 올라선 것처럼.

바로 그 때문에 그때 개가 질겁했다. 개들은 도둑과 유령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자, 나는 또다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이제 난쟁이는 어디로 갔는가? 성문은? 거미는? 그 모든 속삭임은? 나는 꿈을 꾸었던가? 깨어났던가? 문득 나는 거친 벼랑들 사이에 서 있었다. 홀로, 황량하게, 더없이 황량한 달빛 속에.

그런데 저기 한 인간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저기! 개가 펄쩍펄쩍 뛰며, 털을 곤두세우고, 낑낑거리며…… 이제 내가 오는 것을 보자 개는 다시 울부짖었고, **비명을 질렀다**. 개가 이렇게 살려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나는 언젠가 들은 적이 있던가?

진실로, 그때 내가 본 것 같은 것을 나는 도무지 본 적이 없다. 나는 몸을 비틀고, 숨이 막혀 캑캑거리고, 경련하며, 얼굴이 일그러진 젊은 목자 하나를 보았는데, 그의 입 밖으로 검고 무거운 뱀 한 마리가 늘어져 있었다.

한 얼굴에 그토록 많은 역겨움과 핏기 없는 공포가 서린 것을 나는 언젠가 본 적이 있던가? 그는 잠들어 있었던가? 그때 뱀이 그의 목구멍으로 기어들었고, 거기서 꽉 물고 늘어졌다.

내 손은 뱀을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다. 헛일이었다! 내 손은 목구멍에서 뱀을 뽑아내지 못했다. 그때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외쳤다. "깨물어라! 깨물어라!"

"대가리를 물어 끊어라! 깨물어라!" 그렇게 내 안에서 외쳤으니, 나의 공포가, 나의 증오가, 나의 역겨움이, 나의 연민이, 내 안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모두 한 소리로 내 안에서 외쳤다.

내 주위의 대담한 자들이여! 찾는 자들이여, 시험하는 자들이여, 그리고 그대들 가운데 교활한 돛을 달고 아무도 가 보지 않은 바다로

배를 띄운 자들이여! 수수께끼를 반기는 자들이여!

그러니 내가 그때 본 수수께끼를 내게 알아맞혀 보라. 가장 고독한 자의 환영을 내게 풀이해 보라!

그것은 환영이자 예견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비유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오고야 말 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목구멍으로 뱀이 기어든 그 목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가장 무겁고 가장 검은 모든 것이 목구멍으로 기어들 그 인간은 **누구**인가?

그런데 목자는 내 외침이 일러 준 대로 깨물었다. 야무지게 깨물었다! 그는 뱀 대가리를 멀리 뱉어 버리고는 벌떡 일어섰다.

더는 목자가 아니었고, 더는 인간이 아니었다. 변화한 자, 온몸이 빛에 휩싸인 자가 **웃고** 있었다! 대지 위에서 일찍이 어떤 인간도 **그**처럼 웃은 적이 없었다!

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어떤 인간의 웃음도 아닌 웃음을 들었고, 이제 하나의 갈증이, 결코 잦아들지 않을 동경이 나를 갉아먹는다.

이 웃음을 향한 나의 동경이 나를 갉아먹으니, 오, 내가 어떻게 아직도 살아가는 것을 견디는가! 그리고 지금 죽는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견디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예수가 비유를 마치며 덧붙이던 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태복음 13장 9절 등, 개역한글)를 그대로 빌렸다.

뜻하지 않은 행복에 대하여

이런 수수께끼와 쓰라림을 가슴에 품고 차라투스트라는 바다를 건너갔다. 그러나 행복한 섬과 벗들에게서 나흘 길만큼 멀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고통을 모두 극복했고, 승리를 거두어 굳센 발로 다시 제 운명 위에 섰다. 그때 차라투스트라는 기뻐 날뛰는 제 양심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시 홀로이고, 홀로이기를 원한다. 맑은 하늘과 탁 트인 바다만을 벗 삼아 홀로. 그리고 다시 내 둘레는 오후다."

"언젠가 내가 처음으로 벗들을 찾아낸 것도 오후였고, 두 번째로 찾아낸 것도 오후였으니, 모든 빛이 더 고요해지는 시간이었다."

"하늘과 대지 사이를 아직 떠도는 행복은 이제 묵을 곳으로 삼을 밝은 영혼 하나를 찾기 때문이다. **행복에 겨워** 이제 모든 빛이 더 고요해졌다."

"오, 내 삶의 오후여! 언젠가 **나의** 행복도 묵을 곳을 찾으려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활짝 열린, 손님을 반기는 이 영혼들을 찾아냈다."

"오, 내 삶의 오후여! 단 하나를 얻으려고 내가 무엇인들 내놓지 않았던가. 내 생각들을 심어 가꾼 이 살아 있는 밭과, 내 가장 높은 희망의 이 아침 햇살을!"

"언젠가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를, **자신의** 희망의 아이들을 찾아 나섰으나, 보라, 먼저 스스로 그들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찾을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나는 내 아이들에게로 가고 또 그들에게서 돌아오며 지금 내 일의 한가운데 있으니, 제 아이들을 위해 차라투스트라는 자기 자신을 완성해야 한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오직 제 아이와 제 일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큰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그 사랑은 잉태의 징표다. 나는 그렇게 알게 되었다."

"내 아이들은 아직 첫봄을 맞아 푸르다. 서로 가까이 붙어 서서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그들은 내 정원의 나무들, 내 가장 좋은 흙의 나무들이다."

"진실로! 이런 나무들이 한데 모여 서 있는 곳, 거기가 바로 행복한 섬**이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그 나무들을 파내어 하나하나 따로 세우리라. 저마다 고독과 반항과 조심성을 배우도록."

"그때 그 나무는 옹이지고 굽은 몸으로, 휘어질 줄 아는 단단함을 품고, 꺾이지 않는 삶의 살아 있는 등대가 되어 바닷가에 서 있어야 한다."

"폭풍이 바다로 곤두박질치고 산줄기가 코를 바다에 박고 물을 마시는 그곳에서, 저마다 한 번은 **그 자신**의 시험과 인식을 위하여 밤낮으로 파수를 서야 한다."

"그가 나와 같은 부류요 같은 혈통인지, 긴 의지의 주인인지, 말할 때조차 과묵한지, 그리고 내주면서 오히려 **얻을** 만큼 너그럽게 물러설 줄 아는지, 그는 인식되고 시험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그가 나의 길동무가 되고, 차라투스트라와 함께 창조하고 함께 잔치하는 자가 되도록, 나의 서판에 나의 의지를 써 넣어 만물을 더 충만하게 완성할 그런 자가 되도록."

"그리고 그를 위해,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완성해야 하기에, 지금 내 행복을 피하고 모든 불행에 나를 내맡긴다. **나 자신**의 마지막 시험과 인식을 위하여."

"진실로, 내가 떠날 때가 되었으니, 방랑자의 그림자도, 가장 긴 무료함도, 더없이 고요한 시간도, 모두 내게 '때가 다 찼다!' 하고 타일렀다."

"바람이 열쇠 구멍으로 불어 들어와 내게 '오라!' 하고 말했다. 문이 교활하게 벌컥 열리며 내게 '가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 아이들을 향한 사랑에 사슬로 묶여 누워 있었으니, 갈망이, 사랑을 바라는 갈망이 내가 내 아이들의 먹이가 되어 그들에게 빠져 나를 잃어버리도록 이 올가미를 씌웠다."

"갈망한다는 것, 그것은 내게 이미 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대들은 이미 내 것이다, 내 아이들이여! 이렇게 그대들을 지닌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든든함이어야 하고, 어떤 것도 갈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 사랑의 태양이 알을 품듯 내 위에 무겁게 내리쬐었고, 차라투스트라는 제 즙에 잠겨 푹푹 끓었는데, 그때 그림자와 의심이 내 위를 스치며 날아갔다."

"나는 벌써 서리와 겨울을 탐하여 '오, 서리와 겨울이 다시 나를 우두둑 뿌드득 소리 나게 해 준다면!' 하고 한숨지었고, 그러자 내게서 얼음 같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나의 과거가 제 무덤을 부수고 나왔고, 산 채로 묻혔던 숱한 고통이 깨어났으니, 그 고통들은 수의 속에 숨어 한잠 푹 자고 났을 뿐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징조로 내게 외쳤다. '때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다. 마침내 나의 심연이 꿈틀거리고 나의 생각이 나를 물 때까지."

"아, 심연 같은 생각이여, **나의** 생각인 그대여! 그대가 땅을 파는 소리를 듣고도 더는 떨지 않을 힘을 나는 언제 찾겠는가?"

"그대가 땅을 파는 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은 목까지 치밀어 올라 방망이질한다! 그대의 침묵마저 내 목을 조르려 한다, 그대 심연처럼 침묵하는 자여!"

"나는 아직 한 번도 그대를 **불러올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대를 짊어지고…… 다닌 것만으로도 벅찼다! 나는 아직 사자의 마지막 기고만장함과 짓궂음에 이를 만큼 강하지 못했다."

"그대의 무게만으로도 내게는 언제나 충분히 무시무시했으나, 언젠가 나는 그대를 불러올릴 힘과 사자의 목소리를 찾아내리라!"

"먼저 이 일에서 나 자신을 극복하고 나면, 나는 더 큰 일에서도 나 자신을 극복하리니, 하나의 **승리**(Sieg)가 나의 완성을 봉인하는 인장(Siegel)이 되리라!"

"그사이 나는 아직 불확실한 바다를 떠돌고, 우연이, 그 혀 매끄러운 자가 내게 아첨한다. 나는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만, 아직 끝은 보이지 않는다."

"나의 마지막 싸움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면 바로 지금 오고 있는가? 진실로, 바다와 삶이 간교한 아름다움으로 사방에서 나를 바라본다!"

"오, 내 삶의 오후여! 오, 저녁이 오기 전의 행복이여! 오, 먼바다 한가운데의 항구여! 오, 불확실함 속의 평화여! 나는 그대들 모두를 얼마나 불신하는가!"

"진실로, 나는 그대들의 간교한 아름다움을 믿지 않는다! 나는 너무나 보드라운 미소를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와 같다."

"질투하는 자가 모질게 굴면서도 여전히 다정하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제 앞에서 밀쳐 내듯, 나도 이 복된 시간을 내 앞에서 밀쳐 낸다."

"물러가라, 그대 복된 시간이여! 그대와 함께 뜻하지 않은 행복이 내게 왔다! 나는 나의 가장 깊은 고통을 맞을 뜻으로 기꺼이 여기 서 있는데, 그대는 때 아니게 왔다!"

"물러가라, 그대 복된 시간이여! 차라리 저기 가서 묵어라, 내 아이들 곁에서! 서둘러라! 그리고 저녁이 오기 전에 **나의** 행복으로 그들을 축복하라!"

"벌써 저녁이 다가온다. 해가 기운다. 가 버렸다…… 나의 행복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제 불행을 기다렸으나, 헛되이 기다렸다. 밤은 내내 밝고 고요했으며, 행복 자신이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아침 무렵 차라투스트라는 제 마음에 대고 웃으며 비꼬듯 말했다. "행복이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내가 여자들 뒤를 쫓아다니지 않으니 그렇다. 그런데 행복은 여자다."

해 뜨기 전에

오, 내 위의 하늘이여, 그대 맑은 자여! 깊은 자여! 그대 빛의 심연이여! 그대를 우러르며 나는 신성한 욕망에 몸서리친다.

그대의 높이로 나를 내던지는 것, 그것이 **나의** 깊이다! 그대의 맑음 속에 나를 감추는 것, 그것이 **나의** 순진무구함이다!

신을 가리는 것은 그의 아름다움이니, 그처럼 그대는 그대의 별들을 숨긴다. 그대는 말하지 않으니, **그렇게** 그대는 내게 그대의 지혜를 알린다.

들끓는 바다 위로 오늘 그대는 말없이 내게 밝아 왔고, 그대의 사랑과 그대의 부끄러움은 들끓는 내 영혼에게 계시의 말을 건넨다.

그대는 그대의 아름다움에 싸여 아름답게 내게 왔고, 그대의 지혜 속에 훤히 드러난 채 말없이 내게 말한다.

오, 그러니 내 어찌 그대 영혼의 부끄러워하는 모든 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랴! 해가 뜨기 **전에** 그대는 내게, 가장 고독한 자에게 왔다.

우리는 태초부터 벗이니, 근심도 공포도 근원도 우리가 함께 지닌 것이요, 해마저 우리가 함께 지닌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기에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 않으니, 마주한 채 침묵하며 우리가 아는 것을 서로에게 미소로 건넨다.

그대는 내 불의 빛이 아닌가? 그대에게는 내 통찰의 누이 영혼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배웠으니,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 자신에게로 올라가는 법도, 구름 한 점 없이 미소 짓는 법도 함께 배웠다.

우리 아래에서 강제와 목적과 죄가 비처럼 자욱이 김을 피워 올릴 때, 밝은 눈으로, 아득히 먼 곳에서 구름 한 점 없이 아래로 미소를 내려보내는 법을.

그리고 홀로 떠돌 때, 밤마다, 길 잃은 오솔길마다 내 영혼은 **무엇에** 굶주렸던가? 그리고 산을 오를 때, 산 위에서 내가 그대가 아니면 **누구를** 찾았던가?

나의 모든 방랑과 산 오르기는 곤궁일 뿐이었고 궁한 자의 궁여지책일 뿐이었으니, 내 온 의지는 오직 **날기**만을, **그대** 속으로 날아들기만을 원한다!

그리고 떠도는 구름보다, 그대를 더럽히는 모든 것보다 내가 더 미워한 것이 무엇이던가? 나는 내 미움마저 미워했으니, 그 미움이 그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나는 떠도는 구름들이, 살금살금 기어드는 이 도둑고양이들이 못마땅하니, 그것들은 그대와 나에게서 우리가 함께 지닌 것을, 저 엄청나고 끝없는 '그렇다와 아멘'이라고 말하기를 앗아 간다.

우리가 못마땅해하는 것은 이 거간꾼들과 버무림꾼들, 떠도는 구름들, 축복하는 법도 뿌리부터 저주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이도 저도 아닌 이 반반짜리들이다.

차라리 닫힌 하늘 아래 통 속에 앉아 있겠다, 차라리 하늘도 없이 심연 속에 앉아 있겠다, 빛의 하늘인 그대가 떠돌이 구름에 더럽혀지는 꼴을 보느니!

그리고 나는 곧잘 들쭉날쭉한 번개의 금실로 그것들을 단단히 붙들어 매 놓고서, 천둥처럼 그 가마솥 같은 배를 큰북 삼아 둥둥 두드리고 싶었다.

성난 북잡이가 되어서. 그것들이 내게서 그대의 '그렇다!'와 '아멘!'을 훔쳐 가기 때문이다, 내 위의 하늘이여, 그대 맑은 자여! 밝은 자여! 그대 빛의 심연이여! 그것들이 그대에게서 **나의** '그렇다!'와 '아멘!'을 훔쳐 가기 때문이다.

나는 이 조심스럽게 의심하는 고양이의 고요보다는 차라리 소음과 천둥과 폭풍우 같은 저주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니는 자들, 이도 저도 아닌 반반짜리들, 의심하고 머뭇거리는 떠돌이 구름들이다.

그리고 '축복할 수 없는 자는 저주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밝은 가르침이 밝은 하늘에서 내게 떨어졌으니, 이 별은 캄캄한 밤에도 여전히 내 하늘에 떠 있다.

그러나 나는 축복하는 자요 '그렇다'고 말하는 자다, 그대가 내 곁에 있기만 하면. 그대 맑은 자여! 밝은 자여! 그대 빛의 심연이여! 그때 나는 모든 심연 속으로도 축복하며 '그렇다'고 말하기를 짊어지고 간다.

나는 축복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다'고 말하는 자가 되었으니, 언젠가 두 손이 풀려나 축복할 수 있게 되려고 그토록 오래 씨름했고 씨름꾼으로 살았다.

그러나 나의 축복은 이렇다. 모든 사물 위에 그 사물 자신의 하늘로서, 그 둥근 지붕으로서, 그 쪽빛 종이요 영원한 든든함으로서 서 있는 것이니, 이렇게 축복하는 자는 복되도다!

만물은 영원의 샘에서 세례를 받았고 선악의 저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과 악 자체는 그 사이에 드리운 그림자요, 눅눅한 시름이요, 떠돌이 구름일 뿐이다.

진실로, 내가 '만물 위에는 우연이라는 하늘, 순진무구라는 하늘, 뜻밖이라는 하늘, 기고만장이라는 하늘이 서 있다'고 가르칠 때, 그것은 축복이지 모독이 아니다.

'뜻밖에(von Ohngefähr)',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귀족의 칭호이니, 나는 그것을 만물에게 돌려주었고 만물을 목적 아래 매인 종살이에서 구원했다.

만물 위에서도, 만물을 꿰뚫어서도 어떤 '영원한 의지'도…… 의욕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을 때, 나는 이 자유와 하늘의 명랑함을 쪽빛 종처럼 만물 위에 씌워 놓았다.

'만사에 한 가지만은 불가능하니, 합리성이 그것이다!' 하고 가르쳤을 때, 나는 이 기고만장과 이 바보스러움을 저 의지의 자리에 앉혔다.

물론 **조금의** 이성은, 별에서 별로 흩뿌려진 지혜의 씨앗 하나는, 이 누룩만은 만물에 섞여 들었으니, 바보스러움을 위하여 지혜가 만물에 섞여 들었다!

지혜가 조금 있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만물에게서 이 복된 든든함을 찾아냈으니, 만물은 차라리 우연의 발로…… **춤추기를** 좋아한다.

오, 내 위의 하늘이여, 그대 맑은 자여! 높은 자여! 이제 내게 그대의 맑음이란 이것이니, 영원한 이성의 거미도, 이성의 거미줄도 없다는 것,

그대가 내게 신성한 우연들이 춤추는 무도장이라는 것, 그대가 내게 신성한 주사위와 주사위 놀이꾼들을 위한 신들의 탁자라는 것!

그런데 그대는 얼굴을 붉히는가? 내가 입에 담지 못할 것을 입에 담았는가? 그대를 축복하려다가 모독했는가?

아니면 둘이 함께 있는 부끄러움이 그대의 얼굴을 붉혔는가? 이제…… **낮이** 오니, 그대는 나더러 가서 입을 다물라 하는가?

세상은 깊다, 낮이 일찍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다. 모든 것이 낮 앞에서 말을 얻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낮이 온다. 그러니 이제 우리 헤어지자!

오, 내 위의 하늘이여, 그대 부끄러워하는 자여! 달아오른 자여! 오, 해 뜨기 전의 나의 행복이여! 낮이 온다. 그러니 이제 우리 헤어지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왜소하게 만드는 덕에 대하여

1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뭍에 올랐을 때 곧장 자신의 산과 동굴로 가지 않고, 숱한 길을 걷고 숱한 물음을 던지며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녔으니, 스스로를 두고 "보라, 굽이굽이 돌아 샘으로 거슬러 흐르는 강을!" 하고 농담할 정도였다. 그사이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간이 더 커졌는지 더 작아졌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한번은 새 집들이 줄지어 선 것을 보고 의아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 집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진실로, 어떤 큰 영혼이 제 비유로 삼으려고 이것들을 세워 놓지는 않았다!"

"어느 멍청한 아이가 제 장난감 상자에서 꺼내 놓았는가? 다른 아이가 와서 도로 제 상자에 담아 가 주었으면!"

"그리고 이 방들과 골방들, **사내들이** 여기를 드나들 수 있는가? 내 보기에 이것들은 비단 인형들을 위해 지은 것 같고, 아니면 군것질을 좋아하는 고양이들, 남이 제 몸을 군것질하게도 곧잘 내버려 두는 고양이들을 위해 지은 것 같다."

차라투스트라는 멈춰 서서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가 서글프게 말했다. "**모든 것이** 작아졌다!"

"어디를 보아도 문이 더 낮아졌다. **나와 같은** 부류의 자도 아직은 그리로 지나갈 수 있으리라. 그러나…… 허리를 굽혀야 한다!"

"오, 나는 언제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나, 더는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는 곳, 더는 작은 자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는 그곳으로!"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는 왜소하게 만드는 덕에 대하여 말했다.

2

나는 이 군중 속을 지나가며 눈을 뜨고 지켜보는데, 내가 그들의 덕을 시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물어뜯으려 드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작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이고, 작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남의 농가에 들어온 수탉과 같아서 암탉들마저 나를 쪼아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암탉들에게 앙심을 품지는 않는다.

나는 온갖 자잘한 성가심에 그러듯 그들에게도 공손하니, 작은 것을 두고 가시를 곤두세우는 것은 내 보기에 고슴도치에게나 어울리는 지혜다.

저녁이면 불가에 둘러앉아 그들은 모두 나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두고 이야기할 뿐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내가 배운 새로운 고요이니, 내 둘레에서 그들이 떠드는 소리가 내 생각들 위에 외투를 덮어 준다.

그들은 저희끼리 떠들어 댄다. "저 음울한 구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저것이 우리에게 역병을 몰고 오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여자가 내게 오려던 제 아이를 와락 끌어당겼다. "아이들을 떼어 놓아라!" 여자가 외쳤다. "저런 눈은 아이들의 영혼을 그을린다."

내가 말하면 그들은 기침을 하는데, 기침으로 거센 바람에 맞서 반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니, 그들은 내 행복이 들끓는 소리를 조금도 알아채지 못한다!

"우리는 아직 차라투스트라에게 내줄 시간이 없다." 그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에게 '내줄 시간이 없는' 시대가 다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이 나를 칭송하기라도 하면, 내가 어찌 **그들의** 칭송을 베고 잠들 수 있겠는가? 그들의 칭찬은 내게 가시 박힌 허리띠여서, 벗어던질 때조차 나를 할퀸다.

그리고 나는 그들 틈에서 이것도 배웠다. 칭찬하는 자는 받은 것을 되갚는 척하지만, 실은 더 많은 선물을 받고 싶어 한다!

그들의 추어올리고 꾀는 가락이 마음에 드는지 내 발에게 물어보라! 진실로, 그런 박자와 똑딱 소리에 맞춰서는 내 발은 춤추고 싶지도, 가만히 서 있고 싶지도 않다.

그들은 나를 꾀고 추어올려 작은 덕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작은 행복의 똑딱 소리에 맞추라고 내 발을 구슬리려 한다.

나는 이 군중 속을 지나가며 눈을 뜨고 지켜보는데, 그들은 **작아졌고** 점점 더 작아지니, 그렇게 만드는 것은 행복과 덕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이다.

그들은 덕에서도 겸손하니, 안락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락과 어울리는 것은 겸손한 덕뿐이다.

물론 그들도 저들 나름대로 걷는 법과 앞으로 걷는 법을 배우지만, 나는 그것을 그들의 **절뚝거림**이라 부른다. 그 때문에 그들은 서두르는 자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뻣뻣하게 굳은 목으로 뒤를 돌아보는데, 그런 자에게 나는 기꺼이 몸으로 들이받는다.

발과 눈은 거짓말을 해서도, 서로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작은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많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의욕하지만, 대다수는 의욕될 뿐이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진짜지만, 대다수는 서툰 배우다.

그들 가운데는 저도 모르게 배우인 자들이 있고, 마지못해 배우인 자들이 있으니, 진짜는 언제나 드물고, 진짜 배우는 더더욱 드물다.

여기에는 사내다움이 드물어서 그들의 여자들이 사내처럼 되어 간다. 넉넉히 사내다운 자만이 여자 안에서 **여자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틈에서 내가 가장 고약하다고 본 위선은, 명령하는 자들마저 섬기는 자들의 덕을 꾸며 댄다는 것이다.

'나는 섬긴다, 그대는 섬긴다, 우리는 섬긴다.' 여기서는 다스리는 자들의 위선마저 이렇게 기도하니, 슬프다, 첫째가는 주인이 첫째가는 종**일 뿐**이라면!

아, 내 눈의 호기심은 그들의 위선 속으로도 곧잘 잘못 날아들었고, 나는 그들의 파리 같은 행복을, 볕 드는 유리창 둘레를 맴도는 그들의 윙윙 소리를 모두 잘 알아맞혔다.

선량함이 그만큼이면 나약함도 그만큼임을 나는 본다. 정의와 동정이 그만큼이면 나약함도 그만큼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둥글고 올곧고 선량하다. 모래알이 모래알에게 둥글고 올곧고 선량하듯이.

작은 행복 하나를 겸손하게 끌어안는 것, 그것을 그들은 '체념'이라 부른다! 그러면서도 벌써 또 하나의 새로운 작은 행복을 겸손하게 곁눈질한다.

그들이 속으로 무엇보다 순진하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아무도 자기들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발 앞서

다가가 잘해 준다.

그러나 이것은 **비겁함**이다. 비록 '덕'이라 불리지만.

그리고 이 작은 사람들이 어쩌다 거칠게 말할 때에도 **나는** 거기서 그들의 쉰 목소리만 듣는데, 바람이 조금만 스쳐도 그들은 목이 쉬기 때문이다.

그들은 슬기로우며, 그들의 덕에는 슬기로운 손가락이 달렸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먹이 없으니, 그들의 손가락은 주먹 뒤로 기어들어 숨을 줄을 모른다.

그들에게 덕이란 겸손하고 온순하게 만드는 것이니, 그것으로 그들은 늑대를 개로 만들었고, 인간 자신마저 인간의 가장 좋은 가축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 의자를 **한가운데** 놓았다." 그들의 히죽거림이 내게 그렇게 말한다. "죽어 가는 검투사들에게서도, 흥겨운 돼지들에게서도 똑같이 멀찍이."

그러나 이것은…… **범용**(凡庸)이다. 비록 중용이라 불리지만.

3

나는 이 군중 속을 지나가며 이런저런 말을 떨어뜨리지만, 그들은 그 말을 주울 줄도 간직할 줄도 모른다.

그들은 내가 정욕과 악덕에 악담을 퍼부으러 오지 않았다고 의아해하는데, 진실로, 나는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러 온 것도 아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슬기를 더 재치 있게 다듬고 더 날카롭게 벼려 줄 생각이 없다고 의아해한다, 목소리가 석필처럼 끽끽 내 귀를 긁어 대는 잔꾀꾼들이 아직도 모자란다는 듯이!

그리고 내가 "그대들 안에 있는 비겁한 악마들을, 낑낑거리고 두 손 모으고 경배하기 좋아하는 그 악마들을 모두 저주하라!" 하고 외치면, 그들은 "차라투스트라는 신 없는 자다!" 하고 외친다.

특히 체념을 가르치는 그들의 교사들이 그렇게 외치지만, 나는 바로 그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소리치기를 좋아한다. 그렇다! 나는 신 없는 자 차라투스트라**다**!

이 체념의 교사들이란! 작고 병들고 부스럼투성이인 곳이라면 어디에나 그들은 머릿니처럼 기어드니, 내가 그들을 손톱으로 눌러 터뜨리지 않는 것은 오직 내 역겨움 때문이다.

좋다! **그들의** 귀에 들려줄 나의 설교는 이것이다. 나는 신 없는 자 차라투스트라다. "나보다 더 신 없는 자가 누구냐?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말하는 자다.

나는 신 없는 자 차라투스트라다. 나와 같은 자를 어디서 찾을까? 스스로에게 제 의지를 주고 모든 체념을 벗어던지는 자들, 그들이 모두 나와 같은 자들이다.

나는 신 없는 자 차라투스트라다. 나는 어떤 우연이든 **내** 솥에 넣고 끓이며, 그것이 거기서 푹 익은 뒤에야 비로소 **나의** 음식이라 여기고 반긴다.

그리고 진실로, 숱한 우연이 주인 행세를 하며 내게 왔지만, 나의 **의지**가 그보다 더 주인답게 그에게 말하자, 그는 어느새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내 곁에 묵을 곳과 마음 붙일 곳을 얻게 해 달라고 애원하며, 알랑거리며 이렇게 달래면서. "보라, 오, 차라투스트라여, 벗만이 벗에게 이렇게 오는 법이다!"

그러나 아무도 **나의** 귀를 지니지 않은 곳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니 사방의 바람에 대고 이렇게 외치련다.

그대들은 점점 더 작아진다, 작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부스러져 떨어져 나간다, 안락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끝내 파멸하고 말리라.

그대들의 숱한 작은 덕 때문에, 그대들의 숱한 작은 태만 때문에, 그대들의 숱한 작은 체념 때문에!

너무 몸을 사리고, 너무 쉽게 물러선다. 그대들의 땅이 그렇다! 그러나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단단한 바위를 휘감아 단단한 뿌리를 내리려 해야 한다!

그대들이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모든 인간 미래의 피륙을 함께 짜니, 그대들의 허무마저 하나의 거미줄이요, 미래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한 마리 거미다.

그리고 작은 덕 있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취할 때 그것은 훔치는 것과 같지만, 악당들 사이에서도 **명예**는 이렇게 말한다. "강탈할 수 없는 곳에서만 훔쳐야 한다."

'절로 주어진다', 이것도 체념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안락한 자들이여. **절로 가져간다**, 그리고 그대들에게서 점점 더 많이 가져가리라!

아, 그대들이 **반쪽짜리** 의욕을 모두 벗어던지고, 행동에 결연하듯 게으름에도 결연해진다면!

아, 그대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대들의 이웃을 얼마든지 그대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크나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크나큰 경멸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신 없는 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나의** 귀를 지니지 않은 곳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여기서 나는 아직 한 시간 이르다.

이 군중 가운데서 나는 나 자신의 선구자요, 어두운 골목을 울리는 나 자신의 닭 울음이다.

그러나 **그들의** 때가 온다! 그리고 나의 때도 온다! 시시각각 그들은 더 작아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메말라 간다. 가엾은 풀이여! 가엾은 땅이여!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은 마른 풀처럼, 황야처럼 내 앞에 서 있으리라. 진실로! 제 자신에게 지쳐, 물보다도 **불**을 더 갈급해하며!

오, 복된 번개의 때여! 오, 정오 전의 비밀이여! 나는 언젠가 그들을 번져 가는 불길로, 불의 혀를 지닌 선포자들로 만들리라.

그들은 언젠가 불의 혀로 선포하리라. 온다, 가깝도다, 위대한 정오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감람산에서

겨울이, 이 고약한 손님이 내 집에 눌러앉아 있는데, 그가 우정 어린 악수를 해 준 탓에 내 두 손이 퍼렇게 얼었다.

나는 이 고약한 손님을 공경하지만, 그를 혼자 앉혀 두기를 좋아한다. 나는 곧잘 그에게서 달아나니, **잘** 달리기만 하면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따뜻한 발과 따뜻한 생각을 안고 나는 바람이 멎어 있는 곳으로, 나의 감람산에 있는 양지바른 구석으로 달려간다.[1]

거기서 나는 내 엄한 손님을 비웃으면서도 그를 좋게 여기니, 그가 집에서 내게 파리들을 잡아 주고 자잘한 소음을 숱하게 잠재워 주기 때문이다.

그는 모기 한 마리가, 하물며 두 마리가 노래하려 드는 것을 도무지 참지 못하고, 골목마저 쓸쓸하게 만들어 놓아 밤이면 그 안에서 달빛이 겁을 먹는다.

그는 모진 손님이지만 나는 그를 공경하며, 유약한 자들처럼 배불뚝이 불의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우상을 경배하느니 차라리 이를 좀 딱딱 부딪치겠다! 내 천성이 그렇게 원한다. 그리고 나는 후끈 달아올라 김을 뿜는 후텁지근한 불의 우상들이 모두 유난히 못마땅하다.

나는 사랑하는 자를 여름보다 겨울에 더 잘 사랑하며, 겨울이 내 집에 들어앉은 뒤로는 내 적들도 더 잘, 더 통쾌하게 비웃는다.

내가 잠자리로 **기어들** 때조차 진실로 통쾌하게 비웃으니, 그때에도 이불 속에 기어든 나의 행복은 웃으며 짓궂게 까불고, 나의 거짓말 꿈도 여전히 웃는다.

내가…… 기는 자라고? 나는 평생 한 번도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긴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면 사랑 때문에 했다. 그래서 나는 겨울 잠자리에서도 즐겁다.

초라한 잠자리가 호사스러운 잠자리보다 나를 더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은 내가 내 가난을 두고 질투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겨울이면 가난은 내게 가장 충실하다.

나는 날마다 심술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니, 찬물로 목욕하며 겨울을 비웃으면 그 때문에 내 엄한 동거인이 툴툴거린다.

또 나는 작은 밀초 하나로 그를 간질이기를 좋아한다. 그가 마침내 잿빛 어스름 속에서 하늘을 풀어 내주도록.

나는 특히 아침에 심술궂으니, 우물가에서 두레박이 쩔그렁거리고 말들이 잿빛 골목을 지나며 따뜻한 입김으로 히힝 우는 이른 시각이 그렇다.

그때 나는 조바심치며 기다린다, 마침내 밝은 하늘이 내게 열리기를. 눈으로 수염을 기른 겨울 하늘이, 저 늙은이, 저 흰머리가,

말수 적은 겨울 하늘이, 제 해마저 곧잘 말없이 감추는 그 겨울 하늘이!

나는 그에게서 이 길고 밝은 침묵을 배웠던가? 아니면 그가 내게서 배웠던가? 아니면 우리가 저마다 스스로 그것을 발명했던가?

모든 좋은 것은 천 갈래 샘에서 솟으니, 좋고 짓궂은 것들은 모두 기쁨에 겨워 존재 속으로 솟구쳐 드는데, 어찌 그 일을 언제나 단…… 한 번만 하겠는가!

기나긴 침묵도 좋고 짓궂은 것이다. 겨울 하늘처럼 밝고 눈 동그란 얼굴로 바라보는 것도,

그 하늘처럼 제 해를, 굽힐 줄 모르는 제 해의 의지를 말없이 감추는 것도 그러하니, 진실로, 이 기술과 이 겨울의 짓궂음을 나는 **잘** 배웠다!

나의 침묵이 침묵으로 제 속을 들키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아끼는 심술이요 기술이다.

말과 주사위를 달그락거리며 나는 저 엄숙한 파수꾼들을 속여 넘기니, 이 엄한 감시꾼들 누구에게서나 나의 의지와 목적은 빠져나가야 한다.

아무도 내 밑바닥과 내 마지막 의지를 내려다보지 못하도록, 그러려고 나는 이 길고 밝은 침묵을 발명했다.

나는 슬기로운 자를 적잖이 보았는데, 그는 아무도 자기를 꿰뚫어 밑바닥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너울로 제 얼굴을 가리고 제 물을 흐려 놓았다.

그러나 바로 그에게 더 슬기로운 의심꾼들과 호두까기들이 찾아왔으니, 사람들은 바로 그에게서 그가 가장 깊숙이 숨겨 둔 물고기를 낚아 올렸다!

오히려 밝은 자들, 올곧은 자들, 투명한 자들이야말로 내게는 가장 슬기로운 침묵자들이니, 그들의 바닥은 너무나 **깊어서** 가장 맑은 물조차 그 바닥을…… 드러내지 못한다.

눈 수염을 기른 말 없는 겨울 하늘이여, 내 위의 눈 동그란 흰머리여! 오, 내 영혼과 그 짓궂음을 비추는 하늘의 비유여!

그리고 누가 내 영혼을 갈라 열지 못하도록, 나는 금을 삼킨 자처럼 몸을 숨겨야 **하지** 않는가?

내 둘레의 이 모든 시샘꾼들과 설움꾼들이 내 긴 다리를 **못 보고 지나치도록**, 나는 죽마를 타야 **하지** 않는가?

연기에 그을리고, 방구석 온기에 절고, 닳아 빠지고, 퍼렇게 곰팡이 슬고, 시름에 찌든 이 영혼들, 그들의 시샘이 어찌 내 행복을 견딜 **수 있으랴**!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봉우리의 얼음과 겨울만 보여 줄 뿐, 내 산이 햇볕의 띠를 모조리 제 몸에 두르고 있다는 것은 보여 주지 **않는다**!

그들은 내 겨울 폭풍이 휘파람 부는 소리만 들을 뿐, 내가 동경에 찬 무겁고 뜨거운 남풍처럼 따뜻한 바다 위로도 달린다는 것은 듣지 **못한다**.

그들은 내 불운과 우연까지 연민하지만, **나의** 말은 이렇다. "우연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우연은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다!"[2]

내가 불운과 겨울의 곤궁과 북극곰 털모자와 눈 내리는 하늘의 덮개로 내 행복을 감싸 두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찌 내 행복을 견딜 **수 있으랴**!

내가 몸소 그들의 **동정**을, 저 시샘꾼들과 설움꾼들의 동정을 연민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몸소 그들 앞에서 한숨짓고 추위에 이를 딱딱 부딪치며 참을성 있게 그들의 동정에 둘둘 말려 **주지** 않는다면!

제 겨울과 제 서리 폭풍을 **감추지 않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의 지혜로운 짓궂음이요 선의이니, 내 영혼은 제 동상마저 감추지 않는다.

어떤 이의 고독은 병자의 도피요, 또 어떤 이의 고독은 병자들**에게서** 달아나는 도피다.

내 둘레의 이 가엾고 눈 흘기는 건달들이 모두, 겨울 추위에 내가 이를 딱딱 부딪치며 한숨짓는 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한숨짓고 딱딱거리며 나는 그들의 덥힌 방에서마저 달아난다.

내 동상을 보고 그들이 나를 동정하고 나와 함께 한숨지어 주게 하라. "저러다 인식의 얼음에 **얼어 죽고** 말겠다!" 그들은 그렇게 탄식한다.

그사이 나는 따뜻한 발로 나의 감람산을 이리저리 누비며 달리고, 나의 감람산의 양지바른 구석에서 노래하며 온갖 동정을 비웃는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노래했다.

---

1.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의 산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잡히던 밤에 올라가 기도한 곳이다(누가복음 22장 39~46절).

2.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한 말을 비틀었다.

그냥 지나쳐 가기에 대하여

이렇게 차라투스트라는 수많은 군중과 온갖 도시를 천천히 지나며, 에움길을 돌아 자신의 산과 동굴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보라, 그러다 그는 뜻하지 않게 **큰 도시**의 성문에도 이르렀는데, 여기서 거품을 문 바보 하나가 두 손을 활짝 벌리고 그에게 달려들어 앞길을 막아섰다. 그자는 군중이 '차라투스트라의 원숭이'라 부르던 바로 그 바보였으니, 차라투스트라에게서 말의 짜임과 가락을 얼마간 흉내 내어 익혔고 그의 지혜의 보물 창고에서도 곧잘 빌려 쓰곤 했다. 그 바보가 차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여기는 큰 도시이니, 여기서 그대가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을 것은 모든 것이다."

"어찌하여 그대는 이 진창을 헤치고 걸어가려 했는가? 제발 그대의 발을 동정하라! 차라리 성문에 침을 뱉고…… 돌아서라!"

"여기는 은자의 생각들에게 지옥이니, 여기서는 큰 생각들이 산 채로 삶아져 작게 졸아든다."

"여기서는 모든 큰 감정이 썩고, 비쩍 말라 달그락거리는 감정 나부랭이들만 달그락거려도 된다!"

"정신의 도살장과 싸구려 밥집에서 풍기는 냄새가 벌써 나지 않는가? 이 도시는 도살된 정신이 내뿜는 김으로 자욱하지 않은가?"

"영혼들이 축 늘어진 더러운 넝마처럼 걸려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그들은 이 넝마로 신문까지 만든다!"

"여기서 정신이 말장난이 되어 버린 것이 들리지 않는가? 정신은 역겨운 말의 개숫물을 게워 낸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의 개숫물로 신문까지 만든다."

"그들은 서로 몰아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서로 달구면서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 그들은 제 양철을 짤랑거리고 제 금을 딸랑거린다."

"그들은 차가워서 불로 빚은 술에서 온기를 찾고, 달아올라서 얼어붙은 정신들에게서 서늘함을 찾으며, 모두 여론에 병들고 여론에 중독되어 있다."

"온갖 정욕과 악덕이 여기서는 제집에 있지만, 여기에는 덕 있는 자들도 있으니, 쓸모 있게 쓰임 받는 덕이 많다."

"글 쓰는 손가락과, 앉아서 기다리느라 딱딱해진 엉덩잇살을 지니고, 가슴에 다는 작은 별 훈장과 속을 채워 부풀린 엉덩이 없는 딸들로 축복받은, 쓸모 있는 덕이 많다."

"여기에는 경건함도 많고, 만군의 신 앞에서 벌이는 믿음 깊은 침 핥기와 아첨 굽기도 많다."

"'위로부터' 별과 은혜로운 침이 방울져 떨어지니, 별 없는 가슴마다 위를 동경한다."

"달에게는 궁정이 있고 궁정에는 달에 홀린 얼간이들이 있는데, 궁정에서 오는 것이라면 무엇에게든 빌어먹는 군중과 빌어먹는 쓸모 있는 온갖 덕이 두 손 모아 빈다."

"'나는 섬긴다, 그대는 섬긴다, 우리는 섬긴다.' 쓸모 있는 온갖 덕이 이렇게 군주를 우러러 빈다, 섬겨서 번 별이 마침내 그 좁은 가슴에 달리기를!"

"그러나 달은 여전히 지상의 모든 것 둘레를 돌고, 그처럼 군주도 여전히 무엇보다 지상적인 것 둘레를 도니, 그것은 장사치들의 금이다."

"만군의 신은 만금의 신이 아니니, 군주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장사치니라!"[1]

"그대 안의 밝고 강하고 좋은 모든 것에 걸고, 오, 차라투스트라여! 이 장사치들의 도시에 침을 뱉고 돌아서라!"

"여기서는 모든 피가 썩은 듯 미지근한 듯 거품을 일으키며 모든 핏줄을 흐르니, 거대한 쓰레기 더미인 이 큰 도시, 온갖 찌끼가 한데 엉겨 거품을 일으키는 이 큰 도시에 침을 뱉어라!"

"찌그러진 영혼과 좁은 가슴의 도시, 뾰족한 눈과 끈적한 손가락의 도시에 침을 뱉어라."

"치근대는 자들과 낯 두꺼운 자들의 도시, 글 떠버리와 입 떠버리의 도시, 너무 달아오른 야심가들의 도시에."

"썩어 가는 것, 구린내 나는 것, 음탕한 것, 음침한 것, 물러 터진 것, 곪은 것, 음모를 꾸미는 것이 모두 한데 곪아 드는 곳에."

"이 큰 도시에 침을 뱉고 돌아서라!"

그러나 여기서 차라투스트라는 거품을 문 바보의 말을 끊고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제 그만하라!" 차라투스트라가 외쳤다. "그대의 말도 그대의 됨됨이도 역겨워진 지 오래다!"

"어찌하여 그대는 그토록 오래 늪가에 살았는가, 그대 자신이 개구리와 두꺼비가 되고 말 만큼?"

"이제 그대 자신의 핏줄에도 썩고 거품 이는 늪의 피가 흐르기에, 그대가 그렇게 개굴거리고 헐뜯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그대는 숲으로 가지 않았는가? 아니면 밭을 갈지 않았는가? 바다에는 푸른 섬들이 가득하지 않은가?"

"나는 그대의 경멸을 경멸하니, 그대가 나에게 경고했다면 어찌하여 그대 자신에게는 경고하지 않았는가?"

"나의 경멸도, 경고하는 나의 새도 오직 사랑에서 날아올라야 한다. 늪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대를 나의 원숭이라 부르지만, 거품 문 바보여, 나는 그대를 나의 꿀꿀이 돼지라 부르니, 그대는 꿀꿀거려서 나의 바보 예찬마저 망쳐 놓는다."

"대체 무엇이 처음에 그대를 꿀꿀거리게 했는가? 아무도 그대에게 넉넉히 **아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는 이 오물 곁에 주저앉았다. 실컷 꿀꿀거릴 거리를 얻으려고,"

"숱한 **복수**를 할 거리를 얻으려고! 허영에 찬 바보여, 그대가 무는 거품은 모두 복수이니, 나는 그대의 속을 훤히 알아맞혔다!"

"그러나 그대의 바보 같은 말은 그대가 옳은 곳에서조차 **내게** 해를 끼친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의 말이 백 번 옳다 **하더라도**, 그대는 내 말을 가지고 언제나……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리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큰 도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보만이 아니라 이 큰 도시도 역겹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나아지게 할 것도 없고 나빠지게 할 것도 없다.

화 있도다, 이 큰 도시여! 이 도시를 불살라 버릴 불기둥을 벌써 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런 불기둥이 위대한 정오보다 앞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에도 제 때가 있고 제 운명이 있다.

그러나 바보여, 헤어지며 그대에게 이 가르침을 주노라. 더는 사랑할 수 없는 곳이라면, 거기서는…… **그냥 지나쳐 가야**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바보와 큰 도시를 그냥 지나쳐 갔다.

1. 잠언 16장 9절에서 나온 독일 속담 '사람은 계획하고 신은 이끈다(Der Mensch denkt, Gott lenkt)'를 비틀어 신의 자리에 장사치를 앉혔다.

배신자들에 대하여

1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풀밭에 푸르고 알록달록하게 서 있던 것이 벌써 모두 시들어 잿빛으로 누워 있는가? 여기서 나는 얼마나 많은 희망의 꿀을 내 벌통으로 날라 갔던가!

이 젊은 마음들은 벌써 모두 늙어 버렸다. 아니, 늙은 것도 아니다! 그저 지치고 천해지고 안일해졌을 뿐인데, 그들은 그것을 두고 "우리는 다시 경건해졌다" 하고 일컫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들이 이른 아침 씩씩한 발로 달려 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그들의 인식의 발은 지쳐 버렸고, 이제 그들은 제 아침의 씩씩함마저 헐뜯는다!

진실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는 한때 춤추는 자처럼 다리를 들어 올렸고, 내 지혜 속의 웃음이 그에게 손짓했다. 그러다 그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방금 나는 그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십자가로 기어가는 것을 보았다.

한때 그들은 날벌레들처럼, 젊은 시인들처럼 빛과 자유의 둘레를 파닥이며 날았다. 조금 더 늙고 조금 더 식자, 벌써 그들은 어둠꾼이요 쑥덕꾼이요 아랫목 붙박이다.

고독이 고래처럼 나를 삼켜 버리자 그들은 마음이 꺾였던가? 그들은 나를, 나의 나팔 소리와 전령의 외침을 그리워하며 오래도록 **헛되이** 귀

기울였던가?

아! 마음에 오래가는 용기와 기고만장함을 품은 자는 언제나 몇 되지 않으니, 그런 자들에게는 정신도 끈기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는 **비겁하다**.

나머지, 그것은 언제나 거의 모든 자요, 일상이요, 남아도는 것이요, 너무 많은 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비겁하다!

나와 같은 부류인 자는 나와 같은 부류의 체험들과도 길에서 마주치게 마련이니, 그의 첫 길동무들은 주검과 어릿광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길동무들, 그들은 스스로를 그의 **신자들**이라 부르리라. 살아서 우글거리는 떼, 많은 사랑, 많은 어리석음, 수염도 나지 않은 많은 숭배.

인간들 가운데 나와 같은 부류인 자는 이 신자들에게 제 마음을 매어서는 안 되며, 덧없고 비겁한 인간의 족속을 아는 자는 이 봄날들과 알록달록한 풀밭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달리 **할 수 있다면** 달리 **원하기도** 하리라. 이도 저도 아닌 반쪽짜리들은 온전한 것을 모조리 망친다. 잎이 시든다고 해서 무엇을 탄식하랴!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들이 떠나고 떨어지게 두라, 탄식하지 마라! 차라리 바스락거리는 바람을 일으켜 그들 사이로 불어 대라,

오, 차라투스트라여, 이 잎들 사이로 불어 대라. **시든** 것은 모두 그대에게서 더 빨리 달아나도록!

2

"우리는 다시 경건해졌다." 이 배신자들은 그렇게 고백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그렇게 고백하기에도 아직 너무 비겁하다.

나는 그런 자들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그런 자들의 얼굴에 대고, 그 붉어진 뺨에 대고 말하노라. 그대들은 다시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치욕이다!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나, 그대와 나에게, 그리고 머릿속에도 양심을 지닌 자에게는 그렇다. **그대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치욕이다!

그대는 잘 알고 있다. 두 손을 모으기 좋아하고 두 손을 놓기 좋아하며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그대 안의 비겁한 악마, 바로 그 비겁한 악마가 "신은 **있다**!" 하고 그대를 부추긴다는 것을.

그러나 **그로써** 그대는 빛을 꺼리는 부류에 들게 되니, 그런 부류를 빛은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 이제 그대는 날마다 머리를 밤과 안개 속으로 더 깊이 처박아야 한다!

진실로, 그대는 때를 잘 골랐다. 바로 지금 밤새들이 다시 날아 나오기 때문이다. 빛을 꺼리는 모든 족속에게 그 시간이 왔다. 저녁 시간이자 일손을 놓고 쉬는 시간, 그런데도 그들이…… '쉬지' 않는 시간이.

나는 듣고, 냄새 맡는다. 그들이 사냥하고 행렬 지어 돌아다닐 시간이 왔으니, 사나운 사냥을 할 시간이 아니라 길들고 절뚝이며 킁킁대는 사냥, 살금살금 걷는 자들과 소곤소곤 비는 자들의 사냥을 할 시간이다.

영혼이 그윽하고 생쥐처럼 몸을 사리는 자들을 잡는 사냥 말이다. 마음의 쥐덫이 이제 다시 모두 놓였다! 그리고 내가 휘장을 들추는 곳마다 작은 나방 한 마리가 튀어나온다.

그 나방은 거기서 다른 작은 나방과 함께 웅크리고 있었던가? 나는 곳곳에서 구석에 기어든 작은 신도 모임들의 냄새를 맡으니, 골방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 안에 새 기도 형제들이 있고 기도 형제들의 퀴퀴한 김이 서려 있다.

그들은 긴 저녁마다 한데 모여 앉아 말한다.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 '사랑하는 신이여' 하고 말하자! 경건한 과자

장수들 탓에 입도 속도 버린 채로.

아니면 그들은 긴 저녁 내내 간교하게 숨어 노리는 십자거미 한 마리를 지켜보는데, 그 거미는 거미들에게 슬기를 설교하며 "십자가 밑이 거미줄 치기에 좋다!" 하고 가르친다.

아니면 그들은 온종일 늪가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앉아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깊은** 줄 안다. 그러나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낚시하는 자를 나는 얕다고조차 부르지 않는다!

아니면 그들은 노래 짓는 자에게서 경건하고 흥겹게 수금 타는 법을 배우는데, 그자는 수금을 뜯으며 젊은 여자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싶어 한다. 늙은 여자들에게도, 그들의 찬양에도 싫증이 났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들은 학식 있는 반미치광이에게서 오싹해지는 법을 배우는데, 그자는 어두운 방에서 귀신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제정신이 아주 달아나 버린다!

아니면 그들은 떠돌다 늙어 버린 가르랑 으르렁 피리쟁이에게 귀를 기울이는데, 그자는 흐린 바람에게서 가락의 시름을 배워 익혔고,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피리를 불며 흐린 가락으로 시름을 설교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몇몇은 심지어 밤지기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뿔나팔을 불 줄 알고, 밤마다 돌아다닐 줄 알고, 오래전에 잠든 옛일들을 깨울 줄 안다.

어젯밤 정원 담장 곁에서 나는 옛일을 두고 하는 다섯 마디 말을 들었다. 그런 늙고 시름겹고 메마른 밤지기들에게서 나온 말이었다.

"아비치고는 제 자식들을 넉넉히 돌보지 않는다. 인간 아비들이 이 일은 더 잘한다!"

"그는 너무 늙었다! 이제는 제 자식들을 아예 돌보지 않는다." 다른 밤지기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에게 자식이 **있기는** 한가? 그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가 한번 제대로 증명해 주기를 바랐다."

"증명이라고? **그자가** 언제 뭐 하나 증명한 적이 있었던가! 증명은 그에게 벅찬 일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 주는 것을 무엇보다 중히 여긴다."

"그렇다! 그렇다!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한다, 그를 믿는 믿음이. 늙은이들이란 원래 그렇다! 우리도 그렇고!"

두 늙은 밤지기, 빛을 쫓아내는 두 허수아비는 서로 이렇게 말하고는 시름겹게 뿔나팔을 뚜우 불었으니, 어젯밤 정원 담장 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내 심장은 웃음으로 뒤틀려 터질 것만 같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횡격막으로 내려앉았다.

진실로, 나귀들이 술에 취한 것을 보거나 밤지기들이 저렇게 신을 의심하는 소리를 들을 때 웃다가 숨이 막히는 것, 그것이 끝내 내 죽음이 되리라.

그런 의심을 품을 때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지 않았는가? 누가 감히 아직도 그런 오래되고 잠들어 버린, 빛을 꺼리는 일들을 깨운단 말인가!

옛 신들은 이미 오래전에 끝장이 났다. 그리고 진실로, 그들은 좋고 즐거운 신들의 최후를 맞았다!

그들은 '신들의 황혼' 속에 가물가물 저물어 죽은 것이 아니다.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오히려 그들은 어느 날 제풀에…… **웃다가** 죽었다!

그 일은 가장 신 없는 말이 다름 아닌 한 신의 입에서 나왔을 때 일어났다. 그 말은 이러했다. "신은 오직 하나다! 그대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그대에게 있게 말지니라!"

노기 띤 수염을 기른 늙은 신, 질투하는 신 하나가 그렇게 분수를 잊고 말았다.

그러자 그때 모든 신들이 웃으며 저마다 보좌 위에서 몸을 들썩이고 외쳤다. "신들은 있으되 신은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신다움이 아닌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차라투스트라는 그가 사랑하는 도시, '얼룩소'라 불리는 도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곳에서 이틀만 더 가면 그는 다시 자기 동굴과 자기 짐승들에게 돌아가게 될 터였으니, 그의 영혼은 귀향이 가까워진 것을 두고 쉬지 않고 기뻐 뛰놀았다.

귀향

오, 고독이여! 나의 **고향**인 고독이여! 눈물 없이는 그대에게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너무 오래 나는 거친 타향에서 거칠게 살았다!

자, 어머니들이 을러대듯 손가락을 들어 나를 을러 보아라. 아니, 어머니들이 웃어 주듯 내게 웃어 보여라. 그리고 이제 말해 보아라. "한때 폭풍처럼 내게서 휘몰아쳐 떠나간 자가 대체 누구였더냐?"

"떠나면서 '나는 너무 오래 고독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침묵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하고 외치던 그자가. **그것을**…… 이제 그대는 배웠겠지?"

"오, 차라투스트라여, 나는 모든 것을 안다. 그대 하나뿐인 자여, 그대가 많은 자들 사이에서 내 곁에 있을 때보다 더 **버림받아** 있었다는 것도!"

"버림받음이 다르고 고독이 다르다. **그것을**…… 이제 그대는 배웠다! 그리고 그대가 인간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거칠고 낯선 자이리라는 것도,"

"그들이 그대를 사랑할 때조차 거칠고 낯선 자이리라는 것도.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누가 자기를 **아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돌아와 제집에 있으니, 여기서는 무엇이든 다 털어놓고 속내를 모조리 쏟아 낼 수 있고, 아무것도 꽁꽁 숨겨 두고 꽉 막힌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모든 사물이 그대의 말에 다가와 어루만지며 그대에게 아양을 떤다. 그대의 등에 올라타고 싶어서다. 여기서 그대는 온갖 비유를 타고 온갖 진리로 달려간다."

"여기서 그대는 모든 사물에게 꼿꼿하고 올곧게 말해도 되니, 진실로, 누군가 모든 사물과…… 곧이곧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의 귀에 찬사처럼 들린다!"

"그러나 버림받아 있음은 또 다른 것이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 기억하는가? 그때 그대의 새가 그대 머리 위에서 날카롭게 울었을 때, 그대가 숲속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길도 알지 못한 채 주검 가까이에 있었을 때,"

"그대가 '나의 짐승들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인간들 사이는 짐승들 사이보다 더 위험하더라' 하고 말했을 때, **그것이** 버림받음이었다!"

"그리고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 기억하는가? 그대가 그대의 섬에 앉아, 빈 두레박들 사이의 포도주 우물이 되어, 주고 또 내주고, 목마른 자들 사이에서 베풀고 또 따라 주던 때를,"

"그러다 마침내 그대가 취한 자들 사이에 홀로 목마른 채 앉아, 밤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훔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지 않은가?' 하고 탄식하던 때를. **그것이** 버림받음이었다!"

"그리고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 기억하는가? 그대의 더없이 고요한 시간이 찾아와 그대를 그대 자신에게서 몰아내던 때를, 그 시간이 사악하게 속삭이며 '말하고 부서져라!' 하고 말하던 때를,"

"그 시간이 그대의 기다림과 침묵을 모조리 넌더리 나게 하고 그대의 겸손한 용기의 기를 꺾어 놓던 때를. **그것이** 버림받음이었다!"

오, 고독이여! 나의 고향인 고독이여! 그대의 목소리는 얼마나 복되고 다정하게 내게 말하는가!

우리는 서로 묻지 않고, 서로 하소연하지 않으며, 활짝 열린 문들을 지나 서로 터놓고 함께 걷는다.

그대 곁은 열려 있고 밝기 때문이다. 시간들도 여기서는 더 가벼운 발로 달린다. 어둠 속에서는 빛 속에서보다 시간을 더 무겁게 짊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모든 존재의 말과 말을 담은 함들이 내게 활짝 열리니, 여기서는 모든 존재가 말이 되려 하고, 모든 생성이 내게서 말하는 법을 배우려 한다.

그러나 저 아래에서는, 저 아래에서는 모든 말이 헛되다! 거기서는 잊는 것과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다. **그것을**…… 이제 나는 배웠다!

인간들에게서 모든 것을 파악하려는 자는 모든 것을 손으로 움켜쥐어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그러기에는 내 손이 너무 깨끗하다.

나는 그들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싫다. 아, 그토록 오래 나는 그들의 소음과 고약한 입김 속에서 살았구나!

오, 내 둘레의 복된 고요여! 오, 내 둘레의 맑은 향기여! 오, 이 고요는 얼마나 깊은 가슴에서 맑은 숨을 길어 올리는가! 오, 이 복된 고요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러나 저 아래에서는, 저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말하고, 모든 것이 귓등으로 흘러간다. 제 지혜를 종을 쳐서 알려 보아도, 시장의 장사치들이 푼돈 짤랑이는 소리로 그 종소리를 덮어 버리리라!

그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말하나, 알아들을 줄 아는 자는 이제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이 물에 떨어져 물거품이 되고, 깊은 우물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도 없다.

그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말하나, 이제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도 끝에 이르지도 않는다. 모두가 꼬꼬댁거리지만, 누가 아직도 둥지에 조용히

앉아 알을 품으려 하겠는가?

그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말하고, 모든 것이 말로 짓이겨진다. 어제만 해도 시간 자신에게도, 시간의 이빨에게도 너무 단단했던 것이, 오늘은 긁히고 갉아먹힌 채 오늘날 것들의 주둥이에 매달려 있다.

그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말하고, 모든 것이 누설된다. 한때 깊은 영혼들의 비밀이요 은밀함이라 불리던 것이, 오늘은 골목의 나팔수들과 그 밖의 나비들 차지다.

오, 인간이라는 것이여, 그대 기이한 것이여! 그대 어두운 골목의 소음이여! 이제 그대는 다시 내 뒤에 있다. 나의 가장 큰 위험이 내 뒤에 있다!

아껴 주고 동정하는 데 언제나 나의 가장 큰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 누가 아껴 주고 참아 주기를 바란다.

진리들은 속에 꾹 눌러 둔 채, 바보의 손과 바보처럼 홀린 마음을 하고, 동정에서 나온 자잘한 거짓말을 잔뜩 품고서, 나는 늘 그렇게 인간들 사이에서 살았다.

나는 변장한 채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그들을** 견디려고 **나를** 잘못 알아볼 채비가 되어 있었으며, 곧잘 나 자신을 이렇게 달랬다. "바보여, 그대는 인간을 모른다!"

인간들 사이에서 살면 인간을 아는 법을 잊어버린다. 모든 인간에게는 겉이 너무 많으니, 멀리 보는 눈, 먼 곳을 그리는 눈이 거기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잘못 알아볼 때면, 바보인 나는 그 때문에 나보다 그들을 더 아껴 주었으니, 나 자신에게는 단단하게 구는 데 익숙했고, 그렇게 아껴 준 대가로 곧잘 나 자신에게 복수까지 했다.

독 파리들에게 온통 쏘이고 돌처럼 수많은 악의의 방울에 속이 패인 채 그들 사이에 앉아서도, 나는 "작은 것은 모두 제 작음에 대해 죄가

없다!" 하고 나 자신을 달랬다.

특히 스스로를 '선한 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이 가장 독한 파리들임을 나는 알게 되었으니, 그들은 아주 순진무구하게 찌르고, 아주 순진무구하게 거짓말한다. 그들이 어찌 나를…… 의롭게 대할 수 **있겠는가**!

선한 자들 사이에서 사는 자에게 동정은 거짓말을 가르친다. 동정은 자유로운 영혼들이 숨 쉴 공기를 모두 탁하게 만든다. 선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나의 풍요를 숨기는 것, **그것을** 나는 저 아래에서 배웠다. 만나는 자마다 아직 정신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내 동정의 거짓은 이것이었다. 누구에게서든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것,

누구를 보아도, 누구의 냄새를 맡아도, 그에게 어느 만큼의 정신이 **넉넉하고** 어느 만큼의 정신이 이미 **지나친지** 알아차렸다는 것!

그들의 뻣뻣한 현자들을 나는 뻣뻣하다 하지 않고 지혜롭다 불렀으니, 그렇게 나는 말을 삼키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무덤 파는 자들을 나는 탐구자요 검증자라 불렀으니, 그렇게 나는 말을 바꿔치는 법을 배웠다.

무덤 파는 자들은 파다가 병을 얻는다. 낡은 잔해 밑에는 고약한 독기가 잠들어 있다. 진창을 휘저어서는 안 된다. 산 위에서 살아야 한다.

복된 콧구멍으로 나는 다시 산의 자유를 들이마신다! 내 코는 마침내 인간이라는 것의 온갖 냄새에서 구원받았다!

거품 이는 포도주가 간질이듯 매서운 바람이 간질이자, 내 영혼은 **재채기를 한다**. 재채기를 하고는 제게 환호한다. 건강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세 가지 악에 대하여

1

꿈에서, 오늘 새벽의 마지막 꿈에서 나는 곶 위에, 세계 저편에 서서, 저울 하나를 들고 세계를 **달았다**.

오, 아침노을이 너무 일찍 내게 찾아오다니! 그 질투하는 노을이 나를 달구어 깨웠다! 노을은 내 새벽 꿈의 불길을 언제나 질투한다.

시간이 있는 자에게는 잴 수 있고, 좋은 저울질꾼에게는 달 수 있고, 힘센 날개에게는 날아 닿을 수 있고, 신 같은 호두 까기꾼에게는 알아맞힐 수 있는 것. 내 꿈은 세계를 그렇게 알아보았다.

대담한 항해자요 반은 배이고 반은 회오리바람이며 나비처럼 말이 없고 송골매처럼 참을성이 없는 내 꿈이, 오늘은 세계를 다는 데 어찌 그리 참을성 있게 느긋했던가!

내 지혜가, 온갖 '무한한 세계들'을 비웃는, 웃으며 깨어 있는 나의 낮의 지혜가 남몰래 꿈을 타일렀던가? 내 지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힘이 있는 곳이면 **수**(數)도 주인이 된다. 수가 더 큰 힘을 지녔으니."

내 꿈은 이 유한한 세계를 얼마나 확신에 차서 바라보았던가. 새것을 탐내지도 옛것을 탐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빌지도 않으며,

마치 속이 꽉 찬 사과 하나가, 서늘하고 보드라운 비로드 껍질을 두른 잘 익은 황금 사과 하나가 내 손에 제 몸을 내밀듯, 세계는 그렇게 내게

제 몸을 내밀었다.

마치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넓게 뻗고 의지가 굳센 나무, 길에 지친 자에게 등받이가 되어 주고 발받침까지 되어 주려고 굽은 나무 한 그루가 내게 손짓하듯, 세계는 그렇게 나의 곶 위에 서 있었다.

마치 고운 손들이 함 하나를, 수줍게 우러르는 눈들이 황홀해하도록 열어 둔 함 하나를 받쳐 들고 내게로 다가오듯, 세계는 오늘 그렇게 내게로 제 몸을 내밀었다.

인간의 사랑을 쫓아 버릴 만큼 수수께끼이지도 않고 인간의 지혜를 잠재울 만큼 풀이이지도 않은 것, 사람들이 그토록 나쁘게 헐뜯는 세계가 오늘 내게는 그런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었다!

오늘 이른 아침 이렇게 세계를 달아 보게 해 준 나의 새벽 꿈에게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 꿈, 이 마음의 위로자는 인간적으로 좋은 것으로서 내게 왔다!

그러니 낮에도 꿈과 똑같이 하고 꿈이 지닌 가장 좋은 것을 본받아 배우려고, 나는 이제 가장 악한 세 가지를 저울에 올려놓고 인간적으로 좋게 달아 보려 한다.

축복하기를 가르친 자는 저주하기도 가르쳤다. 세상에서 가장 심하게 저주받은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나는 저울에 올려놓으려 하노라.

쾌락, 지배욕, 이기심. 이 셋은 지금껏 가장 심하게 저주받았고, 가장 고약한 입소문과 거짓 입소문에 시달렸다. 이 셋을 나는 인간적으로 좋게 달아 보리라.

자, 해 보자! 여기는 나의 곶이고 저기는 바다다. **바다는** 텁수룩하게, 아양을 떨며 내게로 굽이쳐 온다. 내가 사랑하는, 충직하고 늙은, 머리가 백 개 달린 개 괴물이.

자, 해 보자! 여기 굽이치는 바다 위에서 나는 저울을 들려 한다. 그리고 지켜볼 증인도 하나 고른다. 그대, 은자 나무여, 향기 짙고 우듬지를 넓게 둥글린, 내가 사랑하는 그대를!

지금은 어떤 다리를 건너 언젠가로 가는가? 높은 것은 어떤 강제에 몰려 스스로를 낮은 데로 내려가게 하는가? 그리고 가장 높은 것에게마저 아직도…… 위로 자라라고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저울은 수평을 이루고 고요히 멈춰 있으니, 무거운 물음 셋을 나는 한쪽에 던져 넣었고, 다른 쪽 저울판에는 무거운 대답 셋이 얹혀 있다.

2

쾌락. 참회의 털옷을 걸친, 몸을 경멸하는 자들 모두에게는 그들을 쏘는 침이요 찌르는 가시. 배후 세계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는 '세상'이라 하여 저주받는 것. 쾌락은 헛갈리는 선생들과 헛가르치는 선생들을 모조리 비웃고 우롱하기 때문이다.

쾌락. 잡배에게는 그들을 태워 없애는 뭉근한 불. 벌레 먹은 모든 나무와 악취 나는 모든 넝마에게는 언제든 달아오르고 부글거릴 채비가 된 화덕.

쾌락. 자유로운 마음들에게는 순진무구하고 자유로운 것, 대지의 정원에 깃든 행복, 모든 미래가 지금에게 바치는 넘치는 감사.

쾌락. 시든 것에게만 들척지근한 독일 뿐, 사자의 의지를 지닌 자들에게는 크나큰 강심제요, 경외하며 아껴 둔 포도주 중의 포도주.

쾌락. 더 높은 행복과 가장 높은 희망을 비추는 크나큰 비유의 행복. 많은 것에게 혼인이, 아니 혼인보다 더한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보다 서로에게 더 낯선 많은 것에게.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마나 낯선지** 누가 온전히 헤아렸던가!

쾌락. 그러나 나는 내 생각에 울타리를 두르고, 내 말에도 울타리를 두르련다. 돼지들과 들뜬 광신자들이 내 정원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지배욕. 마음이 가장 완악한 자들의 벌겋게 단 채찍. 가장 잔혹한 자 자신을 위해 남겨 둔 끔찍한 고문. 산 사람을 태우는 장작더미의 음울한 불꽃.

지배욕. 가장 허영에 찬 민족들에게 달라붙는 심술궂은 등에. 확신 없는 모든 덕을 비웃는 자. 모든 준마와 모든 긍지 위에 올라타는 자.

지배욕. 썩고 속 빈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려 여는 지진. 회칠한 무덤들을 우르르 구르며 으르렁대며 벌하며 부수는 자. 때 이른 대답들 곁에 번뜩이는 물음표.

지배욕. 그 눈길 앞에서 인간은 기고 움츠리고 종노릇하며 뱀과 돼지보다 더 낮아지니, 마침내 크나큰 경멸이 그의 안에서 비명처럼 터져 나올 때까지,

지배욕. 크나큰 경멸을 가르치는 무서운 교사. 그것은 도시와 나라들의 얼굴에 대고 "그대는 물러가라!" 하고 설교하니, 마침내 그들 자신에게서 "**나야말로** 물러가라!" 하는 외침이 터져 나올 때까지.

지배욕.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자들과 고독한 자들에게로, 스스로 넉넉한 저 높은 곳으로도 유혹하며 올라가니, 지상의 하늘에 자줏빛 지복을 유혹하듯 그려 넣는 사랑처럼 달아오른다.

지배욕. 그러나 높은 것이 아래를 향해 힘을 탐할 때, 누가 그것을 **욕**(慾)이라 부르겠는가! 진실로, 그렇게 탐하고 내려오는 데에는 병든 것도 중독된 것도 하나도 없다!

고독한 높이가 영원히 고독 속에 갇혀 제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산이 골짜기로 내려오고 높은 곳의 바람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도록.

오, 누가 이런 동경에 맞는 세례명을, 덕의 이름을 찾아내랴! '베푸는 덕', 차라투스트라는 한때 이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그때 이런 일도 일어났으니, 진실로 처음 일어난 일이었다. 그의 말이 **이기심**을 복되다 일컬었다. 힘찬 영혼에서 샘솟는 온전하고 건강한 이기심을.

높은 몸이 딸린 힘찬 영혼에서. 그 몸은 아름답고 승리에 차 있으며 생기를 북돋우니, 그 둘레에서는 사물마다 거울이 된다.

유연하고 설득하는 몸, 춤추는 자, 그 몸의 비유이자 정수가 바로 스스로를 기뻐하는 영혼이다. 그런 몸과 영혼의 자기 기쁨은 스스로를 '덕'이라 부른다.

그런 자기 기쁨은 좋음과 나쁨에 대한 제 말들로 거룩한 숲을 둘러치듯 제 몸을 감싸 지키고, 제 행복의 이름들로 모든 경멸스러운 것을 제게서 쫓아낸다.

그것은 모든 비겁한 것을 제게서 쫓아내며 말한다. 나쁜 것, 그것은 곧 비겁한 것! 늘 걱정하고 한숨짓고 푸념하는 자, 가장 하찮은 이득까지 주워 모으는 자가 그것에게는 경멸스러워 보인다.

그것은 고통에 취한 모든 지혜도 경멸하니, 진실로,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밤그늘 풀 같은 지혜도 있어서, 그런 지혜는 늘 한숨지으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다.

그것은 겁 많은 불신을 하찮게 여기고, 눈길과 손 대신 맹세를 원하는 자도, 너무 의심 많은 모든 지혜도 하찮게 여기니, 그런 지혜는 비겁한 영혼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것은 금세 비위를 맞추는 자, 개 같은 자, 대뜸 벌렁 드러눕는 자, 겸손한 자다. 겸손하고 개 같고 경건하고 금세 비위를 맞추는 지혜도 있다.

그것이 몹시 미워하고 역겨워하는 자는 결코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 자, 독 섞인 침과 악의에 찬 눈길을 꿀꺽 삼키는 자, 너무나도 참을성 많은 자, 무엇이든 견디는 자, 두루 만족하는 자다. 그것이야말로 종의 근성이기 때문이다.

신들과 신들의 발길질 앞에서 종노릇하든, 인간들과 어리석은 인간의 의견들 앞에서 종노릇하든, 이 복된 이기심은 **모든** 종의 근성에 침을 뱉는다!

나쁘다! 이 이기심은 꺾이고 쩨쩨하게 굽실대는 모든 것을, 자유롭지 못하게 끔뻑이는 눈과 짓눌린 마음을, 그리고 넓적하고 비겁한 입술로 입 맞추는 저 거짓되게 굽히는 족속을 그렇게 부른다.

그리고 사이비 지혜! 종들과 늙은이들과 지친 자들이 재치랍시고 늘어놓는 모든 것을 그것은 그렇게 부른다. 특히 성직자들의, 재치가 얼빠지고 재치가 넘쳐 난 저 고약한 바보짓 전부를!

그런데 사이비 현자들, 모든 성직자와 세상에 지친 자들과 영혼이 여자의 근성과 종의 근성을 지닌 자들, 오, 그들의 놀음은 예로부터 이기심을 얼마나 고약하게 가지고 놀았던가!

그리고 이기심을 고약하게 가지고 노는 것, **바로 그것이** 덕이어야 했고 덕이라 불려야 했다! 그리고 '자기 없는' 자이기를, 세상에 지친 이 모든 비겁자들과 십자거미들은 마땅한 까닭이 있어 스스로 바랐다!

그러나 이제 그들 모두에게 그날이 온다. 변화가, 심판의 칼이, **위대한 정오**가 온다. 그때 많은 것이 드러나리라!

그리고 자아를 온전하고 거룩하다 하고 이기심을 복되다 하는 자, 진실로, 그는 제가 아는 것을 말하는 자, 곧 예언자다. "보라, 그가 온다, 그가 가까이 왔다, 위대한 정오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력의 영에 대하여

1

내 입은, 군중의 입이다. 비단 토끼들이 듣기에 나는 너무 거칠고 너무 살갑게 말한다. 그리고 먹물 뿜는 오징어들과 펜대 굴리는 여우들에게는 내 말이 더더욱 낯설게 들린다.

내 손은, 바보의 손이다. 슬프다, 모든 탁자와 벽이여, 그리고 바보의 치장, 바보의 칠갑이 들어설 자리가 아직 남은 모든 것이여!

내 발은, 말발굽이다. 그 발로 나는 그루터기고 돌부리고 가리지 않고 들판을 이리저리 가로지르며 발굽 소리 요란하게 달리고 또 달리니, 빨리 달릴 때마다 기쁨에 겨워 악마가 쓴 것만 같다.

내 위장은, 아마 독수리의 위장이 아닐까? 어린 양고기를 무엇보다 좋아하니 말이다. 그러나 새의 위장인 것만은 틀림없다.

순진무구한 것들로, 그것도 적은 것으로 배를 채우고, 날아오를 채비를 갖춘 채 날아가 버리고 싶어 안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나의 천성이니, 어찌 거기에 새의 천성이 얼마간 섞여 있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내가 중력의 영과 원수지간이라는 것, 그것이 새의 천성이니, 진실로 철천지원수요, 숙적이요, 태곳적 원수다! 오, 나의 적의가 이미 날아가 보지 않은 곳이, 날다가 길을 잃어 보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랴!

그 일이라면 나도 노래 한 자락쯤은 너끈히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부르려** 한다, 비록 빈집에 나 홀로 있어 내 귀에 대고 불러야 할지라도.

물론 다른 가수들도 있으니, 그들은 집 안에 사람이 가득 들어차야 비로소 목청이 부드러워지고, 손이 수다스러워지고, 눈빛이 풍부해지고, 마음이 깨어난다. 그런 자들을 나는 닮지 않았다.

2

언젠가 인간들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칠 자는 모든 경계석을 옮겨 놓은 자이니, 그를 위해서라면 경계석이 모두 저절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는 대지에 새로 세례를 베풀어 '가벼운 것'이라 이름 지으리라.

타조라는 새는 가장 빠른 말보다도 빨리 달리지만, 그런 타조도 여전히 무거운 머리를 무거운 대지 속에 처박으니, 아직 날 줄 모르는 인간도 그렇다.

그는 대지와 삶을 무겁다고 부른다. 중력의 영이 그렇게 **원한다**! 그러나 가벼워지고 새가 되려는 자는 제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노라.

물론 앓는 자들과 탐닉하는 자들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자들에게서는 자기 사랑마저 악취를 풍기기 때문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노라, 온전하고 건강한 사랑으로, 그리하여 제 곁에 머무르기를 견디고 이리저리 떠돌지 않도록.

그렇게 이리저리 떠도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웃 사랑'이라는 세례명을 붙이니, 지금껏 사람들은 이 말로 가장 그럴싸하게 거짓말하고 위선을 떨어 왔고, 온 세상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자들이 특히 그랬다.

그리고 진실로, 제 자신을 사랑하기를 **배우라**는 것은 오늘 내일 지키고 말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기예 가운데 가장 섬세하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마지막이며, 가장 끈기를 요하는 기예다.

제 것은 모두 그 임자에게 잘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보물 구덩이 가운데 제 보물 구덩이가 가장 늦게 파헤쳐지니, 중력의 영이 그렇게 만든다.

거의 요람에서부터 사람들은 벌써 우리에게 무거운 말과 가치를 딸려 준다. '선'과 '악', 이 지참금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다. 그 지참금을 봐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을 용서해 준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는, 그들이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일찌감치 금하려 드니, 중력의 영이 그렇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딸려 받은 것을 단단한 어깨에 메고 험한 산을 넘어 충직하게 끌고 간다! 그러다 우리가 땀을 흘리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래, 삶이란 짊어지기 무거운 것이지!"

그러나 인간에게 짊어지기 무거운 것은 오직 인간 자신뿐이다! 그것은 인간이 제 어깨에 낯선 것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끌고 다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이 넉넉히 실리게 둔다.

경외가 깃들어 있는 강하고 잘 견디는 인간은 더욱 그러하니, 그는 **낯선** 무거운 말과 가치를 너무 많이 제 몸에 싣고, 그러고 나면 그에게는 삶이 사막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진실로! **제** 것 가운데도 짊어지기 무거운 것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인간의 속에 든 많은 것은 굴과 같아서, 역겹고 미끌미끌하고 좀처럼 붙잡히지 않으니,

고귀한 장식을 두른 고귀한 껍데기가 그것을 위해 대신 빌어 주어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 기예도 배워야 한다. 껍데기를 **갖추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겉모습과 슬기로운 눈멂을!

그런가 하면 어떤 껍데기는 보잘것없고 서글프고 지나치게 껍데기일 뿐이어서, 인간에게 있는 많은 것을 두고 사람을 속인다. 숨은 선함과 힘 가운데 많은 것이 끝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가장 맛깔스러운 진미가 맛볼 줄 아는 자를 찾지 못한다!

여자들은 그것을 안다, 가장 맛깔스러운 여자들은. 살이 조금 더 붙었느냐, 조금 더 빠졌느냐…… 오, 그토록 작은 것에 얼마나 많은 운명이 걸려 있는가!

인간은 찾아내기 어렵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찾아내기 어렵다. 정신은 곧잘 영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중력의 영이 그렇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선이요 악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찾아낸 자이니,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모두에게 선이요, 모두에게 악이다"라고 말하는 저 두더지이자 난쟁이인 자의 입을 막아 버렸다.

진실로, 나는 모든 것을 좋다 하고 이 세상을 아예 최선의 세상이라 부르는 자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을 나는 두루 만족하는 자들이라 부른다.

무엇이든 맛있게 먹을 줄 아는 두루 만족함, 그것은 최선의 입맛이 아니다! 나는 '나'라고, '그렇다'라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고분고분하지 않고 까다로운 혀와 위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무엇이든 씹어 삭이는 것, 그것은 영락없는 돼지의 천성이다! 늘 이-아(I-A) 하고 말하는 것, 그것은 오직 나귀만이, 그리고 나귀와 같은 정신을 지닌 자만이 배웠다![1]

짙은 노랑과 뜨거운 빨강, **나의** 입맛은 그것을 원한다. 내 입맛은 모든 빛깔에 피를 섞는다. 그러나 제 집을 하얗게 회칠하는 자는 회칠한 영혼을 내게 드러내 보인다.

어떤 자들은 미라에 반하고 또 어떤 자들은 유령에게 반하는데, 둘 다 똑같이 모든 살과 피를 적대하니, 오, 둘 다 얼마나 내 입맛에 거슬리는가! 나는 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나 침을 뱉고 게워 내는 곳에서 나는 살지도 머물지도 않으련다, 그것이 이제 **나의** 입맛이니, 차라리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 틈에서 살겠다. 입에 금을 물고 다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게 그보다 더 역한 것은 침이나 핥는 온갖 아첨꾼들이다. 그리고 내가 찾아낸 인간이라는 짐승 가운데 가장 역한 짐승, 그것에 나는 기생충이라는 세례명을 붙였으니, 그것은 사랑하려 하지는 않으면서 사랑을 먹고 살려 했다.

악한 짐승이 되거나 악한 짐승 조련사가 되거나, 오직 한 가지 선택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나는 복 없는 자라 부르노니, 그런 자들 곁에는 초막을 짓지 않으리라.

늘 **기다려야** 하는 자들도 나는 복 없는 자라 부르노니, 모든 세리와 장사치와 왕들과 그 밖의 나라지기와 가게지기들, 그들은 내 입맛에 거슬린다.

진실로, 나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것도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그러나 오직 **나 자신을** 기다리는 법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서고 걷고 달리고 뛰어오르고 기어오르고 춤추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나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언젠가 날기를 배우려는 자는 먼저 서고 걷고 달리고 기어오르고 춤추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날기는 날아서 얻어지지 않는다!

나는 줄사다리를 타고 여러 창문으로 기어오르는 법을 배웠고 날랜 다리로 높은 돛대에 기어올랐으니, 인식의 높은 돛대 위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내게는 적지 않은 지복으로 여겨졌다.

높은 돛대 위에서 작은 불꽃처럼 가물거리는 것! 작은 빛이기는 하나, 표류하는 뱃사람과 난파한 자들에게는 그래도 큰 위안이다!

나는 이 길 저 길로, 이렇게 저렇게 하여 나의 진리에 이르렀으니, 내 눈이 나의 먼 곳을 떠도는 이 높은 곳에 나는 단 하나의 사다리만 타고 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마지못해서만 길을 물었다. 그것은 늘 내 입맛에 거슬렸다! 차라리 나는 길 자체에게 묻고 길 자체를 시험해 보았다.

시험하고 묻는 것, 그것이 나의 걸음 전부였다. 그리고 진실로, 그런 물음에는 대답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입맛이다.

좋은 입맛도 나쁜 입맛도 아닌, 그러나 **나의** 입맛, 이제 나는 그것을 더는 부끄러워하지도 감추지도 않는다.

"이것이…… 이제 **나의** 길이다, 그대들의 길은 어디 있는가?" 내게 '길'을 묻던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길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나귀 울음소리를 적은 I-A(이-아)는 독일어의 긍정 대답 Ja('그렇다')와 소리가 닮았다. 무엇에나 '그렇다'고만 하는 태도를 비꼰 말놀이로, 제4부에서 다시 이어진다.

낡은 서판과 새로운 서판에 대하여

1

여기 나는 앉아서 기다린다. 내 둘레에는 깨어진 낡은 서판들과 반쯤 쓰인 새로운 서판들이 놓여 있다. 나의 때는 언제 오는가?

내가 내려가는 때, 내가 몰락하는 때 말이다. 나는 한 번 더 인간들에게 가려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때를 기다린다. 이것이 **나의** 때라는 징조, 곧 비둘기 떼를 거느린 웃는 사자가 먼저 내게 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사이 나는 시간이 넉넉한 자로서 나 자신에게 말한다. 아무도 내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 나는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이야기한다.

2

내가 인간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오래된 자만 위에 앉아 있었으니, 모두가 무엇이 인간에게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미 오래전부터 안다고 자만하고 있었다.

덕에 대해 떠드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낡고 맥 빠진 일로 여겨졌고, 잠을 잘 자고 싶은 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선'과 '악'에 대해 한마디씩 늘어놓았다.

나는 이렇게 가르쳐서 이 잠꾸러기 짓을 흔들어 깨웠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런데 창조하는 자란 인간의 목표를 창조하고 대지에 그 뜻과 그 미래를 주는 자이니, 이런 자가 비로소 무언가가 선하고 악하다는 **것 자체**를 **창조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낡은 강좌의 의자들을, 저 오래된 자만이 앉아 있던 곳이라면 어디서든 둘러엎으라고 일렀고, 그들의 위대한 덕의 스승들과 성자들과 시인들과 세상의 구원자들을 비웃으라고 일렀다.

그들의 음울한 현자들을 비웃으라고, 검은 허수아비가 되어 생명나무 위에 앉아 경고를 늘어놓던 자라면 누구든 비웃으라고 나는 일렀다.

나는 그들의 커다란 무덤 길가에, 썩은 고기와 대머리수리들 곁에까지 가서 앉아, 그들의 모든 지난날과 푸석푸석 삭아 무너져 가는 그 영광을 비웃었다.

진실로, 나는 회개를 외치는 설교자들처럼, 바보들처럼 그들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두고 노여움을 터뜨리며 아우성쳤다.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이 어쩌면 그리도 작으냐! 그들의 가장 악한 것이 어쩌면 그리도 작으냐! 그렇게 나는 웃었다.

산에서 태어난 나의 지혜로운 동경이 그렇게 내 안에서 외치고 웃었으니, 진실로 거친 지혜였다! 날갯짓 소리 요란한 나의 크나큰 동경이었다.

그리고 그 동경은 자주 웃음 한가운데에서 나를 낚아채어 앞으로, 위로, 멀리 데려갔으니, 그러면 나는 몸서리치며 한 대의 화살이 되어 햇빛에 취한 황홀경을 꿰뚫고 날아갔다.

어떤 꿈도 아직 보지 못한 먼 미래들로, 조각가들이 일찍이 꿈꾼 어느 남쪽보다도 더 뜨거운 남쪽으로, 신들이 춤추며 온갖 옷을 부끄러워하는

그곳으로.

이렇게 나는 비유로 말하고, 시인들처럼 절뚝거리며 더듬거린다. 진실로, 나는 아직도 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곳에서는 모든 생성이 내게 신들의 춤이요 신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여겨졌고, 세계는 풀려나 고삐 없이 날뛰며 제 자신에게로 달아나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많은 신들이 영원히 서로에게서 달아나고 다시 서로를 찾는 것으로, 많은 신들이 복되게 서로 맞서 말하고 다시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다시 서로에게 속하는 것으로.

그곳에서는 모든 시간이 내게 순간들을 비웃는 복된 조롱으로 여겨졌고, 그곳에서는 필연이 곧 자유 그 자체여서 자유의 가시를 가지고 복되게 놀았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오랜 악마이자 숙적인 중력의 영과 그가 창조한 모든 것, 곧 강제와 율례, 곤궁과 귀결과 목적과 의지와 선과 악을 다시 만났다.

춤추며 그 **위를** 넘어가고 춤추며 저 너머로 지나쳐 갈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가벼운 자들, 가장 가벼운 자들을 위해서는…… 두더지와 무거운 난쟁이들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3

'위버멘쉬'라는 말을 내가 길에서 주운 것도 그곳에서였고,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라는 말을 주운 것도 그곳에서였다.

인간은 다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말, 새로운 아침노을로 가는 길이기에 제 정오와 저녁을 두고 스스로 복되다 일컫는 다리라는 말도 거기서 주웠다.

위대한 정오에 대한 차라투스트라의 말도, 그 밖에 내가 자줏빛 두 번째 저녁노을처럼 인간 위에 내건 것들도 모두 거기서 주웠다.

진실로, 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밤들과 함께 새로운 별들도 보여 주었고, 구름과 낮과 밤 위로 알록달록한 천막을 치듯 웃음을 펼쳤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모든 시 짓기와 궁리를 가르쳤으니, 인간에게 있는 조각이며 수수께끼며 끔찍한 우연을 하나로 지어 내고 한데 그러모으는 일이었다.

시인으로서, 수수께끼를 푸는 자로서, 우연의 구원자로서 나는 그들에게 미래를 창조하라고, 그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창조하며 구원하라고 가르쳤다.

인간에게서 지나간 것을 구원하고 모든 '그랬었다'를 다시 창조하여, 마침내 의지가 이렇게 말하게 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원했다!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원하리라……"

이것을 나는 그들에게 구원이라 일렀고, 오직 이것만을 구원이라 부르라고 가르쳤다.

이제 나는 **나의** 구원을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게 될 그때를.

나는 한 번 더 인간들에게 가려 하니, 그들 **가운데서** 몰락하고, 죽어 가며 그들에게 나의 가장 풍요로운 선물을 주려 한다!

이것을 나는 넘치도록 풍요로운 해가 저물 때 해에게서 배웠으니, 그때 해는 다함 없는 풍요에서 황금을 바다에 쏟아붓는다.

그리하여 가장 가난한 어부조차 **황금** 노를 젓는다! 언젠가 나는 이 광경을 보았고, 바라보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물리지 않았다.

해처럼 차라투스트라도 몰락하려 하니, 이제 그는 깨어진 낡은 서판들과 새로운 서판들을 둘레에 두고 여기 앉아 기다린다. 반쯤 쓰인 서판들을.

4

보라, 여기 새로운 서판이 있다. 그러나 이 서판을 나와 함께 골짜기로, 살로 된 마음속으로 날라 갈 내 형제들은 어디 있는가?

가장 먼 자들을 향한 나의 크나큰 사랑이 이렇게 요구한다. 그대의 이웃을 아끼지 마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극복에는 여러 가지 길과 방도가 있으니, 그것은 **그대**가 알아서 살필 일이다! 그러나 어릿광대만이 '인간은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대의 이웃 안에서까지 그대 자신을 극복하고, 그대 스스로 빼앗아 가질 수 있는 권리라면 남이 건네주게 두지 마라!

그대가 하는 일은 누구도 그대에게 되갚아 줄 수 없다. 보라, 되갚음이란 없다.

스스로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자는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명령할 **수는** 있는 자도 많지만, 그가 스스로에게 복종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5

고귀한 영혼들의 본성은 이렇게 원하니, 그들은 무엇이든 **거저** 가지려 하지 않으며, 삶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천민에 속하는 자는 거저 살려 하나, 삶이 제 자신을 내어 준 우리 다른 자들은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내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 늘 궁리한다!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기품 있는 말이다. "삶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삶에게 지켜 주리라!"

누릴 거리를 내주지 않는 곳에서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리기를 **원해서도** 안 된다!

누림과 죄 없음이야말로 가장 부끄럼을 타는 것들이어서, 둘 다 누가 찾아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죄와 고통을 **찾아** 나서야 한다!

6

오, 내 형제들이여, 처음 난 자는 언제나 제물로 바쳐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 난 자들이다.

우리는 모두 은밀한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는 모두 낡은 우상들을 기리느라 불에 타고 구워진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어려서 늙은 입맛을 돋운다. 우리의 살은 연하고 우리의 가죽은 어린양의 가죽일 뿐이니, 우리가 어찌 늙은 우상 사제들의 입맛을 돋우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 안에 그가 아직 산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구워 제 잔칫상에 올리는 저 늙은 우상 사제가. 아, 내 형제들이여, 처음 난 자들이 어찌 제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원한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노라, 제 몸을 아끼려 하지 않는 자들을. 몰락하는 자들을 나는 온 사랑을 다해 사랑하노라. 그들은 건너가기 때문이다.

7

참되다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적다! 할 수 있는 자도 아직은 그러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선한

자들이다.

오, 이 선한 자들이란! 선한 인간들은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 그렇게 선하다는 것은 정신에게는 병이다.

그들은 물러서고, 이 선한 자들은 굴복하며, 그들의 마음은 남의 말을 따라 하고, 그들의 밑바탕은 남의 말을 들으나, 남의 말을 듣는 자는 제 말을 듣지 못한다!

선한 자들이 악하다 부르는 모든 것이 한데 모여야 진리 하나가 태어나는 법이니, 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도 **이** 진리를 낳을 만큼 악한가?

대담한 모험, 오랜 불신, 잔인한 '아니다', 싫증, 생살을 도려내는 칼질. **이것들이** 한데 모이는 일은 얼마나 드문가! 그러나 이런 씨앗에서 진리가 잉태된다!

지금까지 모든 **앎**(Wissen)은 떳떳하지 못한 양심(Gewissen) **곁에서** 자라났다! 깨뜨려라, 인식하는 자들이여, 낡은 서판을 깨뜨려 버려라!

8

물 위에 통나무가 걸쳐 있고 널다리와 난간이 강을 훌쩍 건너 걸려 있으면, 진실로, "만물은 흐른다"고 말하는 자는 아무에게도 믿음을 얻지 못한다.

오히려 얼간이들까지 그에게 반박한다. 얼간이들은 말한다. "뭐라고? 만물이 흐른다고? 통나무와 난간은 흐르는 물 **위에** 있지 않은가!"

"흐르는 물 **위에서는** 모든 것이 단단하다. 사물들의 온갖 가치도, 다리도, 개념도, 온갖 '선'과 '악'도, 이 모두가 단단하다!"

그러다 강이라는 짐승을 길들이는 혹독한 겨울이라도 닥치면 가장 영리한 자들도 의심을 배우니, 진실로, 그때는 얼간이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오히려……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닐까?"

"밑바닥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 서 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겨울의 가르침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시절에 딱 맞는 물건이요, 겨울잠 자는 자들과 난롯가에 죽치고 앉은 자들에게 좋은 위안이다.

"밑바닥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 서 있다." 그러나 해빙의 바람은 이에 **맞서** 설교한다!

해빙의 바람은 황소다. 쟁기를 끄는 황소가 아니라 사납게 날뛰는 황소요, 성난 뿔로 얼음을 깨뜨려 부수는 자다! 그런데 얼음은…… **널다리를 부순다**!

오, 내 형제들이여, **지금은** 만물이 **흐르고** 있지 않은가? 모든 난간과 널다리가 물에 빠지지 않았는가? 누가 아직도 '선'과 '악'을 **붙들고** 있겠는가?

"슬프다, 우리는! 복되다, 우리는! 해빙의 바람이 분다!" 오, 내 형제들이여, 골목마다 다니며 이렇게 설교하라!

9

선과 악이라 불리는 오래된 망상이 있다. 지금까지 이 망상의 바퀴는 예언자들과 점성가들을 축으로 돌았다.

한때 사람들은 예언자들과 점성가들을 믿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운명이다. 그대는 해야 한다, 해야만 하니까!' 하고 믿었다.

그러다 다시 사람들은 모든 예언자와 점성가를 불신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자유다. 그대는 할 수 있다, 하고자 하니까!' 하고 믿었다.

오, 내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별과 미래에 대해서는 망상만 했을 뿐 알지는 못했으니, **그러므로** 지금까지 선과 악에 대해서도 망상만 했을 뿐 알지는 못했다!

10

"빼앗지 말지니라! 쳐 죽이지 말지니라!" 한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거룩하다 일컬었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신을 벗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묻는다. 이런 거룩한 말보다 더 솜씨 좋게 빼앗고 쳐 죽인 자가 세상 어디에 있었던가?

모든 삶 자체 안에…… 빼앗음과 쳐 죽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말이 거룩하다 불리면서 **진리** 자체가……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모든 삶을 거스르고 삶을 만류하는 것을 거룩하다 부른 것, 그것은 죽음의 설교가 아니었던가? 오, 내 형제들이여, 깨뜨려라, 낡은 서판을 깨뜨려 버려라!

11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한 나의 동정은 이것이니, 나는 그것이 내맡겨져 있음을 본다.

오는 세대마다 그 세대의 은총과 정신과 광기에 내맡겨져 있음을. 오는 세대는 있었던 모든 것을 제 다리로 고쳐 풀이한다!

위대한 폭군이, 약아빠진 괴물이 올 수도 있는데, 그는 제 은총과 진노로 지나간 모든 것을 억누르고 옥죄어, 마침내 그것이 그에게 다리가 되고 전조가 되고 전령이 되고 새벽닭 울음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위험이자 나의 또 다른 동정이니, 천민에 속하는 자의 기억은 할아버지까지만 거슬러 올라가고,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은 끝나 버린다.

그렇게 지나간 모든 것은 내맡겨져 있으니, 언젠가 천민이 주인이 되어 얕은 물에 모든 시간을 빠뜨려 죽이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 내 형제들이여, 모든 천민과 모든 폭군 기질에 맞서는 대적이 되어 새로운 서판에 '고귀하다'라는 말을 새로 써넣을 **새로운 귀족**이 있어야 한다.

귀족이 있으려면 고귀한 자가 많아야 하고, 여러 갈래의 고귀한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언젠가 비유로 말했듯이, "신들은 있으나 신은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신성이다!"

12

오, 내 형제들이여, 나 그대들을 새로운 귀족으로 봉하고 그 길로 이끄노라. 그대들은 미래를 낳는 자, 미래를 기르는 자, 미래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실로, 장사치들처럼 장사치의 황금으로 살 수 있는 귀족으로 봉하려는 것이 아니니, 값이 매겨진 것은 무엇이든 가치가 적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그대들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그대들의 명예가 되게 하라! 그대들 자신을 넘어서 가려는 그대들의 의지와 그대들의 발, 그것이 그대들의 새로운 명예가 되게 하라!

진실로, 그대들이 군주를 섬겼다는 것은 명예가 아니다. 군주가 이제 와서 무슨 대수냐! 서 있는 것이 더 굳게 서도록 그것의 보루가 되었다는 것도 명예가 아니다!

그대들의 가문이 궁정에 드나들며 궁정 물이 들었다는 것도, 그대들이 홍학처럼 알록달록하게 차려입고 얕은 연못에 몇 시간이고 서 있는 법을 배웠다는 것도 명예가 아니다.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궁정 신하들 사이에서는 공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정 신하들은 모두 죽은 뒤의 복락에는…… 앉아도 **된다**는 것이 들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거룩하다 일컫는 영이 그대들의 조상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다는 것도 명예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기리지만 **나는** 기리지 않으니,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고약한 나무인 십자가가 자라난 곳, 그런 땅에는 기릴 것이 하나도 없다!

진실로, 이 '성령'이 제 기사들을 어디로 이끌었든, 그런 원정에서는 언제나…… 염소와 거위와 갈팡질팡하는 십자가 괴짜들이 **앞장서** 달렸다![1]

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귀족은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바깥을** 내다보아야 한다! 그대들은 모든 아버지의 나라와 조상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은 그대들 아이들의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이 그대들의 새로운 귀족이 되게 하라. 가장 먼 바다에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나라를! 나 그대들의 돛에게 그 나라를 찾고 또 찾으라 명하노라!

그대들이 아버지들의 자식이라는 것을 그대들은 아이들에게서 **벌충해야** 하니, 지나간 모든 것을 **그렇게** 구원해야 한다! 이 새로운 서판을 나 그대들 위에 거노라!

13

"무엇 때문에 사는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산다는 것, 그것은 짚을 타작하는 일이다. 산다는 것, 그것은 제 몸을 불사르고도 따뜻해지지 못하는 일이다."

이런 고리타분한 수다가 아직도 '지혜'로 통하는데, 그것이 낡았고 퀴퀴한 냄새를 풍기기에 **바로 그 때문에** 더 존경을 받는다. 곰팡이마저 귀족으로 만들어 주는 법이다.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말해도 되었으니, 아이들은 불에 데었기에 불을 **두려워한다**! 지혜의 옛 책들에는 유치한 소리가 많다.

그리고 늘 '짚을 타작하는' 자가 어찌 타작을 헐뜯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바보에게는 입에 망을 씌워야 하리라!

이런 자들은 식탁에 앉으면서 아무것도, 좋은 허기조차 가져오지 않고는, 이제 와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헐뜯는다.

그러나 오, 내 형제들이여,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은 진실로 헛된 재주가 아니다! 깨뜨려라,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의 서판을 깨뜨려 버려라!

14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군중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돼지에게는 모든 것이 돼지가 된다!

그래서 광신자들과 고개를 떨군 자들, 마음까지 축 처진 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세상 자체가 오물투성이 괴물이다."

이들은 모두 정신이 불결하기 때문인데, 특히 세상을 **뒤에서** 보지 않고는 쉬지도 머물지도 못하는 자들, 곧 배후 세계를 믿는 자들이 그렇다!

그런 자들에게 나는 듣기에 곱지는 않겠지만 대놓고 말한다. 세상은 엉덩이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닮았으니, **그만큼은** 참이다!

세상에는 오물이 많다. **그만큼은** 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 자체가 오물투성이 괴물은 아니다!

세상의 많은 것이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는 데에는 지혜가 있으니, 역겨움 자체가 날개를 만들고 샘을 미리 알아채는 힘을 만든다!

가장 좋은 것에도 아직 역겨운 데가 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자도 아직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오, 내 형제들이여, 세상에 오물이 많다는 데에는 많은 지혜가 있다!

15

이런 격언들을 나는 배후 세계를 믿는 경건한 자들이 제 양심에 대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진실로, 세상에 그보다 더 간사하고 더 악한 것은 없는데도 악의도 간사함도 없이 하는 말이었다.

"세상은 세상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것에 맞서 손가락 하나 들지 마라!"

"누가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찌르고 베고 살갗을 벗기려 하거든 그러라고 두어라. 그것에 맞서 손가락 하나 들지 마라! 그러면 그들은 그 일로 세상을 등지는 법까지 배우게 되리라."

"그리고 그대 자신의 이성, 그것은 그대가 손수 목을 조르고 숨통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이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대 자신도 그 일로 세상을 등지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깨뜨려라, 오, 내 형제들이여, 경건한 자들의 이 낡은 서판을 깨뜨려 버려라! 세상을 비방하는 자들의 격언을 말로 부숴 버려라!

16

"많이 배우는 자는 격렬한 욕망을 모두 잊어버린다." 오늘날 어두운 골목마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속삭인다.

"지혜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보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탐내지 말지니라!" 이 새로운 서판이 탁 트인 시장에까지 걸려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깨뜨려라, 오, 내 형제들이여, 이 **새로운** 서판도 깨뜨려 버려라! 그것을 거기 걸어 둔 자들은 세상에 지친 자들과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 그리고 매를 든 옥졸들이니, 보라, 그것은 종살이를 권하는 설교이기도 하다!

그들은 잘못 배웠고 가장 좋은 것은 배우지 못했으며 모든 것을 너무 이르게, 모든 것을 너무 급하게 배웠으니, 그들이 잘못 **먹었다**는 것, 거기서 저 탈 난 위장이 그들에게 생겨났다.

그들의 정신이란 탈 난 위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죽음을 권한다! 진실로, 내 형제들이여, 정신은 위장**이다**!

삶은 기쁨의 샘이다. 그러나 탈 난 위장이, 저 시름의 아버지가 그 입을 빌려 말하는 자에게는 모든 샘이 독에 물들어 있다.

인식한다는 것, 그것은 사자의 의지를 지닌 자에게 **기쁨**이다! 그러나 지친 자는 그 자신이 그저 '의욕될' 뿐이니, 모든 물결이 그를 가지고 논다.

약한 인간들은 언제나 이러하니, 그들은 제 길 위에서 자신을 잃는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의 피로가 이렇게 묻기까지 한다. "무엇 하러 우리는 길을 걸었던가! 모든 것은 매한가지다!"

그런 자들의 귀에는 "보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들은 의욕하지 말지니라!" 하는 설교가 달콤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종살이를 권하는 설교다.

오, 내 형제들이여, 길에 지친 모든 자에게 차라투스트라는 싱그럽게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오니, 그 바람은 아직도 많은 코에 재채기를 시키리라!

내 자유로운 숨결은 담벼락도 뚫고 불어, 감옥 속으로, 갇힌 정신들 속으로 들어간다!

의욕은 해방한다. 의욕은 곧 창조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노라. 그리고 그대들은 **오직** 창조하기 위해서만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배우는 일마저 그대들은 먼저 내게서 **배워야** 한다,
잘 배우는 법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7

저기 쪽배가 있다. 저 건너로 가면 아마도 크나큰 허무에 이르리라. 그러나 누가 이 '아마도'에 올라타려 하겠는가?

그대들 가운데 누구도 죽음의 쪽배에 오르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그대들은 **세상에 지친 자**이고자 하는가!

세상에 지쳤다니! 그대들은 아직 대지에서 들려 올라간 자조차 되지 못했다! 내가 보니 그대들은 여전히 대지를 탐하고 있었고, 대지에 지친 제 피로에마저 반해 있었다!

그대들의 입술이 축 처진 데는 까닭이 있다. 거기에 대지를 바라는 작은 소원 하나가 아직 앉아 있다! 그리고 눈 속에는…… 잊지 못한 대지의 기쁨이 작은 구름처럼 떠다니지 않는가?

대지에는 좋은 발명품이 많아서 어떤 것은 쓸모 있고 어떤 것은 즐거우니, 그것들 때문에라도 대지는 사랑할 만하다.

또 여인의 젖가슴처럼 쓸모 있으면서 동시에 즐겁기도 한, 참으로 잘 발명된 것도 여럿 있다.

그러나 그대들, 세상에 지친 자들이여! 그대들, 대지 위의 게으름뱅이들이여! 그대들은 매를 맞아야 한다! 매질로 그대들의 다리를

다시 날래게 만들어야 한다.

그대들이 대지가 지겨워하는 병자들이나 삶에 닳아 버린 가련한 것들이 아니라면, 그대들은 교활한 나무늘보이거나 구석에 숨어 군것질이나 하며 기쁨을 밝히는 고양이들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다시 기쁘게 **달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사라져야 한다!

고칠 수 없는 자들에게 의사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 차라투스트라는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니 그대들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끝을 맺는 데는 새 시구 하나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의사와 시인이 그것을 안다.

18

오, 내 형제들이여, 피로가 만든 서판이 있고 게으름이, 썩어 빠진 게으름이 만든 서판이 있으니, 둘은 똑같이 말하더라도 다르게 들어 주기를 바란다.

여기 목말라 쓰러진 이 자를 보라! 그는 제 목표에서 겨우 한 뼘 떨어져 있을 뿐인데도 피로에 겨워 고집스럽게 여기 먼지 속에 드러누웠다. 이 용감한 자가!

피로에 겨워 그는 길과 대지와 목표와 제 자신에게 대고 하품을 해 대며, 한 걸음도 더 내딛지 않으려 한다. 이 용감한 자가!

이제 해는 그의 위로 이글거리고 개들은 그의 땀을 핥으려 드는데, 그는 고집을 부리며 그대로 누워 차라리 목말라 죽으려 한다.

제 목표에서 한 뼘 떨어진 곳에서 목말라 죽으려 한다! 진실로, 그대들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그를 그의 하늘로 끌어 올려야 하리라. 이 영웅을!

아니, 차라리 그가 누운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게 두어라. 위로하는 자인 잠이 쏴아 하고 쏟아지는 서늘한 빗줄기를 몰고 그를 찾아오도록.

그가 저절로 깨어날 때까지, 모든 피로를, 그리고 피로가 그의 입을 빌려 가르친 것을 그가 스스로 거두어들일 때까지 누워 있게 두어라!

다만, 내 형제들이여, 그에게서 개들을 쫓아 주어라. 게으르게 살금살금 기어드는 놈들과 떼 지어 윙윙대는 온갖 벌레들을.

모든 영웅의 땀으로…… 배를 불리는, 떼 지어 윙윙대는 '교양인'이라는 온갖 벌레들을!

19

나는 내 둘레에 원을 긋고 거룩한 경계를 두르니, 나와 함께 점점 더 높은 산에 오르는 자는 점점 줄어들고, 나는 점점 더 거룩한 산들로 산맥을 쌓는다.

그러나 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함께 어디로 오르든, **기생충** 하나가 그대들을 따라 함께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생충, 그것은 기어 다니며 몸을 비비 꼬아 달라붙는 버러지로, 그대들의 병들고 상처 난 구석에 붙어 살찌려 한다.

그리고 오르는 영혼들이 어디서 지치는지 알아맞히는 것, **그것이** 그의 재주이니, 그대들의 슬픔과 언짢음 속에, 그대들의 여린 부끄러움 속에 그는 제 역겨운 둥지를 튼다.

강한 자가 약해지고 고귀한 자가 지나치게 너그러워지는 곳, 바로 그 안에 그는 제 역겨운 둥지를 트니, 기생충은 위대한 자에게 작은 상처 난 구석이 있는 곳에 산다.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은 종류는 무엇이며 가장 낮은 종류는 무엇인가? 기생충이 가장 낮은 종류이나, 가장 높은 종류에

속하는 자가 가장 많은 기생충을 먹여 살린다.

가장 긴 사다리를 지니고 가장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영혼, 그런 영혼에게 어찌 가장 많은 기생충이 달라붙지 않겠는가?

제 안에서 가장 멀리 달리고 헤매고 떠돌 수 있는 가장 품 넓은 영혼, 기쁨에 겨워 우연 속으로 뛰어드는 가장 필연적인 영혼.

생성 속으로 잠기는 존재하는 영혼, 의욕과 갈망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유하는 영혼.

제 자신에게서 달아나다가 가장 넓은 원을 그리며 제 자신을 따라잡는 영혼, 어리석음이 가장 달콤하게 말을 걸어오는 가장 지혜로운 영혼.

모든 사물이 제 안에서 흐르고 되흐르며 썰물과 밀물을 이루는, 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영혼이니, 오, 어찌 **가장 높은 영혼**에게 가장 고약한 기생충들이 없겠는가?

20

오, 내 형제들이여, 내가 잔인하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넘어지는 것은 떠밀기까지 해야 한다!

오늘의 이 모든 것, 그것은 넘어지고 무너져 내리니, 누가 그것을 붙들려 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는 그것을 떠밀기까지 **하려 한다**!

돌을 가파른 깊은 곳으로 굴려 떨어뜨리는 쾌락을 그대들은 아는가? 오늘의 이 인간들, 저들이 나의 깊은 곳으로 굴러떨어지는 꼴을 보라!

나는 더 나은 연주자들을 위한 전주곡이다, 오, 내 형제들이여! 하나의 본보기다! 내 본보기를 따라 **행하라**!

그리고 날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자에게는…… 더 빨리 떨어지는 법을 가르쳐라!

21

나는 용감한 자들을 사랑하노라. 그러나 칼잡이인 것만으로는 모자라니, 벨 때에도 살펴야 한다, **누구를** 베는지!

그리고 흔히는 제 성미를 누르고 그냥 지나쳐 가는 데 더 큰 용기가 있다. 더 걸맞은 적을 위해 자신을 아껴 두기 **위해서**!

그대들에게는 미워할 만한 적만 있어야 하고 경멸할 만한 적은 없어야 하며, 그대들은 그대들의 적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나는 이미 한 번 가르쳤다.

오, 벗들이여, 그대들은 더 걸맞은 적을 위해 자신을 아껴 두어야 하니, 그러려면 많은 것을 그냥 지나쳐 가야 한다.

특히 민족이니 민족들이니 하며 그대들의 귀에 대고 떠들어 대는 숱한 잡배들을.

그들의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것으로 그대들의 눈을 더럽히지 마라! 거기에는 옳은 것도 많고 그른 것도 많아서, 지켜보는 자는 노하게 된다.

들여다보는 것과 들이치는 것, 거기서는 그 둘이 하나다. 그러니 숲으로 떠나가 그대들의 칼을 잠재워라!

그대들의 길을 가라! 그리고 민족과 민족들은 저희 길을 가게 두어라! 진실로 어두운 길이다, 희망 하나조차 더는 마른번개로 번득이지 않는 길이다!

아직 번쩍이는 것이라곤 모두…… 장사치의 황금뿐인 곳이라면, 거기서는 장사치가 다스리게 두어라! 이제 왕들의 시대는 지났으니, 오늘날 민족이라 자처하는 것은 왕을 둘 자격이 없다.

보라, 이 민족들이 이제 스스로 장사치처럼 굴며 온갖 쓰레기 더미에서까지 아주 작은 이득을 골라 줍는 꼴을!

그들은 서로 숨어서 노리고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엿보아 가로채면서, 그것을 '좋은 이웃'이라 부른다. 오, 한 민족이 제 마음에 대고 "나는 여러 민족 위에…… **주인**이 되리라!" 하고 말하던 복된 먼 옛날이여!

내 형제들이여, 가장 좋은 것이 다스려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은 또 다스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르침이 이와 다르게 들리는 곳에는…… 가장 좋은 것이 **없다**.

22

저들이…… 빵을 거저 얻게 된다면, 슬프다! **저들이** 무엇을 달라고 외쳐대겠는가! 저들의 밥벌이, 그것이 저들의 제대로 된 놀이다. 그러니 저들은 고생을 해야 한다!

저들은 맹수이니, 저들의 '일'에도 여전히 약탈이 있고 저들의 '돈벌이'에도 여전히 속임수가 있다! 그러니 저들은 고생을 해야 한다!

그러니 저들은 더 나은 맹수가, 더 섬세하고 더 슬기롭고 **인간을 더 닮은** 맹수가 되어야 한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맹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미 모든 짐승에게서 그들의 덕을 약탈했으니, 모든 짐승 가운데 인간이 가장 힘겹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새들만이 인간 위에 있다. 그런데 인간이 날기까지 배운다면, 슬프다! 인간의 약탈욕은…… **얼마나 높이** 날아오르겠는가!

23

나는 남자와 여자가 이러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는 싸움에 능하고 다른 하나는 아이 낳기에 능하되, 둘 다 머리와 다리로 춤추기에 능하기를.

한 번도 춤추지 않은 날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날로 치자! 웃음 한 번 터지지 않은 진리는 모두 거짓이라 부르자!

24

그대들의 혼인 맺기, 그것이 잘못된 **맺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대들은 너무 서둘러 맺었으니,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결론은…… 혼인 깨뜨리기다!

그리고 혼인을 구부리고 혼인을 속이느니 차라리 혼인을 깨뜨리는 편이 낫다! 어떤 여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혼인을 깨뜨린 것은 맞다. 그러나 먼저 혼인이…… 나를 깨뜨렸다!"

짝을 잘못 지은 자들이 내가 보기에 언제나 가장 지독하게 복수심에 불타는 자들이었으니, 그들은 이제 더는 홀로 다니지 못하게 된 앙갚음을 온 세상에 한다.

그래서 나는 정직한 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 가도록 **살피자**! 아니면 우리의 언약이 실언이어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말미를, 작은 혼인을 달라. 우리가 큰 혼인에 알맞은지 살펴보게! 언제나 둘이서 지낸다는 것은 큰일이다!"

나는 모든 정직한 자에게 이렇게 권하니, 내가 달리 권하고 달리 말한다면 위버멘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앞으로 올 모든 것을 향한 나의 사랑이 대체 무엇이겠는가!

그저 대를 이어 앞으로 퍼져 나갈 뿐 아니라 **위로** 자라 오르도록, 오, 내 형제들이여, 혼인의 뜰이 그대들을 돕기를!

25

옛 근원에 대해 지혜로워진 자는, 보라, 마침내 미래의 샘을, 새로운 근원을 찾아 나서리라.

오, 내 형제들이여, 머지않아 **새로운 민족들**이 솟아나고, 새로운 샘들이 새로운 깊은 곳으로 콸콸 흘러내리리라.

지진은 많은 우물을 메워 버리고 많은 자를 목말라 죽게 하지만, 안에 숨은 힘과 비밀을 빛 가운데로 들어 올리기도 한다.

지진은 새로운 샘들을 드러낸다. 낡은 민족들이 지진을 겪을 때 새로운 샘들이 터져 나온다.

그리고 "보라, 여기 목마른 많은 이를 위한 우물 하나가, 동경하는 많은 이를 위한 마음 하나가, 많은 도구를 위한 의지 하나가 있다" 하고 외치는 자, 그의 둘레에 **민족**이 모이니, 민족이란 곧 실험하는 많은 자들이다.

누가 명령할 수 있고 누가 복종해야 하는가, 그것이 거기서 실험된다! 아, 얼마나 오래 찾고, 짐작하고, 헛짚고, 배우고, 새로 실험하면서!

인간 사회, 그것은 하나의 실험이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노라. 그것은 오랜 찾음이며, 그것이 찾는 것은 명령하는 자다!

하나의 실험이다, 오, 내 형제들이여! '계약'이 **아니다**! 깨뜨려라, 마음 여린 자들과 어중간한 자들의 그런 말을 깨뜨려 버려라!

26

오, 내 형제들이여! 인간의 모든 미래에 가장 큰 위험은 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선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있지 않은가?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지 우리는 이미 안다. 우리는 그것을 손에 쥐고도 있다. 슬프다, 여기서 아직도 찾는 자들이여!" 하고 말하며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느끼는 자들에게 있지 않은가?

악한 자들이 어떤 해를 끼치든, 선한 자들이 끼치는 해야말로 가장 해로운 해다!

세상을 비방하는 자들이 어떤 해를 끼치든, 선한 자들이 끼치는 해야말로 가장 해로운 해다.

오, 내 형제들이여, 언젠가 선하고 의로운 자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자가 있었으니, 그는 "그들은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듣지 못했다.

선하고 의로운 자들 자신은 그를 알아들어서는 안 되었으니, 그들의 정신은 저희의 떳떳한 양심 속에 갇혀 있다. 선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헤아릴 길 없이 슬기롭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이니, 선한 자들은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달리 고를 길이 없다!

선한 자들은 자기만의 덕을 스스로 지어내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나 그들의 땅을, 선하고 의로운 자들의 땅과 마음과 흙을 발견한 두 번째 자는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고 물은 자였다.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자는 **창조하는 자**다. 서판과 낡은 가치를 깨뜨리는 자, 그 파괴자를 그들은 파계자라 부른다.

선한 자들은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니, 그들은 언제나 끝의 시작이다.

그들은 새로운 서판에 새로운 가치를 써넣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네를 위해** 미래를 제물로 바치니, 인간의 모든 미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선한 자들, 그들은 언제나 끝의 시작이었다.

27

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도 알아들었는가? 그리고 내가 언젠가 '마지막 인간'에 대해 한 말도?

인간의 모든 미래에 가장 큰 위험은 누구에게 있는가? 선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있지 않은가?

깨뜨려라,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깨뜨려 버려라! 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도 알아들었는가?

28

그대들은 내게서 달아나는가? 겁에 질렸는가? 이 말 앞에서 떨고 있는가?

오, 내 형제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선한 자들과 선한 자들의 서판을 깨뜨리라고 일렀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인간을 배에 태워 그의 먼바다로 띄워 보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에게 크나큰 두려움이, 크나큰 두리번거림이, 크나큰 병이, 크나큰 역겨움이, 크나큰 뱃멀미가 찾아온다.

선한 자들은 그대들에게 거짓 해안과 거짓 안전을 가르쳤으니, 그대들은 선한 자들의 거짓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 안겨 있었다. 선한 자들 때문에 모든 것이 밑바닥까지 거짓되고 뒤틀렸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땅을 발견한 자는 '인간의 미래'라는 땅도 발견했다. 이제 그대들은 뱃사람이 되어야 한다, 씩씩하고 참을성 있는 뱃사람이!

오, 내 형제들이여, 늦기 전에 똑바로 서서 걸어라, 똑바로 서서 걷는 법을 배워라! 바다에 폭풍이 이니, 많은 자가 그대들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 한다.

바다에 폭풍이 인다. 모든 것이 바닷속에 있다. 좋다! 자, 일어나라! 그대들 늙은 뱃사람의 심장들이여!

아버지의 나라가 다 무엇이냐! 우리의 키는 **저기로**, 우리 **아이들의 나라**가 있는 곳으로 가려 한다! 저 바깥으로, 바다보다 더 사납게, 우리의 크나큰 동경이 폭풍처럼 몰아친다!

29

언젠가 부엌 숯이 다이아몬드에게 말했다. "왜 그리 단단하냐! 우리는 가까운 친척이 아니냐?"

왜 그리 무르냐? 오, 내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대들은…… 내 형제들이 아니냐?

왜 그리 무르고, 그리 물러서고 굽히느냐? 어째서 그대들의 마음에는 부정과 부인이 그리 많으냐? 그대들의 눈빛에는 어째서 운명이 그리 적으냐?

그리고 그대들이 운명이 되고 가차 없는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와 함께……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대들의 단단함이 번쩍이고 가르고 베어 내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 언젠가 나와 함께…… 창조할 수 있겠는가?

창조하는 자들은 단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들의 손을 밀랍에 찍듯 수천 년 위에 눌러 찍는 것을 그대들은 지복으로 여겨야 한다.

수천 년의 의지 위에 청동에 새기듯 글을 새기는 것을 지복으로 여겨야 한다. 청동보다 더 단단하고 청동보다 더 고귀한 그 의지 위에. 오직 가장 고귀한 것만이 온전히 단단하다.

오, 내 형제들이여, 이 새로운 서판을 나 그대들 위에 거노라. 단단해져라!

30

오, 나의 의지여! 그대 모든 곤궁의 전환이여, 그대 **나의** 필연(Notwendigkeit)이여! 모든 작은 승리에서 나를 지켜 다오!

내가 운명이라 부르는, 내 영혼에 내려진 섭리여! 내 안의 그대여! 내 위의 그대여! 나를 지키고 아껴 두어라, 단 하나의 위대한 운명을 위해!

그리고 나의 의지여, 그대의 마지막 위대함은 그대의 마지막을 위해 아껴 두어, 그대가 그대의 승리 **안에서** 가차 없게 하라! 아, 제 승리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누구였던가!

아, 이 취한 어스름 속에서 눈이 흐려지지 않은 자가 누구였던가! 아, 승리 속에서 발이 비틀거리지 않고…… 서 있는 법을 잊지 않은 자가 누구였던가!

언젠가 위대한 정오에 내가 준비되고 무르익어 있도록, 달아오른 청동처럼, 번개를 밴 구름처럼, 젖이 불어 오른 젖통처럼 준비되고 무르익어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 가장 깊이 숨은 나의 의지를 위해 준비되어 있도록, 제 화살을 애타게 그리는 활이 되어, 제 별을 애타게 그리는 화살이 되어.

제 정오에 준비되고 무르익은 별이 되어, 달아오르고 꿰뚫린 채, 허무는 햇살의 화살 앞에서 복에 겨운 별이 되어.

스스로 하나의 태양이 되고 가차 없는 태양의 의지가 되어, 승리하는 가운데 허물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도록!

오, 나의 의지여, 모든 곤궁의 전환이여, 그대 **나의** 필연이여! 단 하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나를 아껴 두어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제1차 십자군(1096) 때 성령이 깃들었다는 거위와 염소를 앞세우고 행진한 무리가 있었다고 연대기는 전한다.

건강을 되찾는 자

1

동굴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차라투스트라는 미친 사람처럼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몸짓을 해 댔으니, 마치 그 잠자리에 누가 또 하나 누워 있어 도무지 일어나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차라투스트라의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 울렸던지 그의 짐승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차라투스트라의 동굴에 이웃한 모든 동굴과 은신처에서는 온갖 짐승이 저마다 타고난 발과 날개에 따라 날고, 퍼덕이고, 기고, 뛰며 황급히 달아났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가 한 말은 이러했다.

올라오라, 심연 같은 생각이여, 나의 깊은 곳에서! 나는 그대의 수탉이요 오싹한 새벽이다, 잠에 취한 벌레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목소리가 홰를 치며 울어 기어이 그대를 깨우리라!

그대 귀를 묶은 족쇄를 풀어라. 귀 기울여라! 나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에는 무덤들마저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만큼 우레가 넉넉하다!

그리고 그대 눈에서 잠을, 흐리고 눈먼 모든 것을 닦아 내라! 그대의 눈으로도 내 말을 들어라. 내 목소리는 날 때부터 눈먼 자에게도 약이 된다.

그리고 일단 깨어났으면 그대는 영원히 깨어 있어야 한다. 증조할머니들을 잠에서 깨워 놓고는…… 계속 자라고 이르는 것은 **나의** 버릇이 아니다!

꿈틀거리는가, 기지개를 켜는가, 그르렁거리는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르렁거리지 말고…… 내게 말을 해야 한다! 신 없는 자 차라투스트라가 그대를 부른다!

나, 차라투스트라, 삶의 대언자, 괴로움의 대언자, 원의 대언자가…… 그대를 부르노라, 나의 가장 심연 같은 생각을!

복되다, 나는! 그대가 온다…… 그대 소리가 들린다! 나의 심연이 **말한다**, 나의 마지막 깊은 곳을 나는 뒤집어 빛 속에 꺼내 놓았다!

복되다, 나는! 이리 오라! 손을 다오…… 하! 놓아라! 하하!…… 역겹다, 역겹다, 역겹다…… 슬프다, 나는!

2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이 말을 하자마자 죽은 자처럼 쓰러졌고, 오랫동안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창백한 얼굴로 떨면서 그대로 누워 있었고, 오랫동안 먹으려고도 마시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레 동안 그런 상태로 지냈는데, 그동안 그의 짐승들은 밤이나 낮이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독수리가 먹이를 구하러 날아갈 때만은 예외였다. 독수리는 물어 오고 빼앗아 모은 것을 차라투스트라의 잠자리에 내려놓았으므로, 마침내 차라투스트라는 노랗고 붉은 산열매와 포도와 장미사과와 향긋한 풀과 잣송이 사이에 파묻혀 누워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는 독수리가 목자들에게서 애써 빼앗아 온 어린 양 두 마리가 뉘어 있었다.

마침내 이레가 지나자 차라투스트라는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장미사과 하나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아 보았는데, 그 향기가 사랑스러웠다. 그러자 그의 짐승들은 이제 그와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여겼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짐승들이 말했다. "그대는 벌써 이레째 그렇게 무거운 눈으로 누워 있다. 이제 그만 다시 두 발로 일어서지 않겠는가?"

"그대의 동굴에서 걸어 나오라. 세상이 정원처럼 그대를 기다린다. 바람은 그대에게 가고 싶어 하는 짙은 향기들과 장난치고, 시냇물은 모두 그대 뒤를 따라 달려가고 싶어 한다."

"그대가 이레 동안 홀로 있었으니 만물이 그대를 동경한다. 그대의 동굴에서 걸어 나오라! 만물이 그대의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새로운 인식이 그대를 찾아왔는가, 시큼하고 무거운 인식이? 그대는 누룩 넣은 반죽처럼 누워 있었고, 그대의 영혼은 부풀어 올라 가장자리마다 넘쳐 나왔다."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오, 나의 짐승들이여, 그렇다면 계속 재잘거려 다오, 내가 귀 기울일 수 있게! 그대들의 재잘거림이 나를 이토록 소생시키니, 재잘거림이 있는 곳이면 세상은 벌써 정원처럼 내 앞에 놓여 있다.

말과 소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말과 소리는 영원히 갈라져 있는 것들 사이에 걸린 무지개요 허상의 다리가 아니겠는가?

영혼마다 저마다 다른 세계가 딸려 있다. 어느 영혼에게나 다른 모든 영혼은 배후 세계다.

바로 가장 닮은 것들 사이에서 허상은 가장 아름답게 거짓말을 하니, 가장 작은 틈이야말로 다리를 놓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내게는…… 어떻게 '나 바깥'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바깥이란 없다! 그러나 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잊는다. 우리가 잊는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인간이 사물로 말미암아 소생하라고 사물에 이름과 소리가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말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바보짓이니, 말하면서 인간은 만물 위에서 춤춘다.

모든 말과, 소리가 하는 모든 거짓말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소리에 실려 우리의 사랑은 알록달록한 무지개 위에서 춤춘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러자 짐승들이 말했다. "우리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만물이 저절로 춤춘다. 다가와 서로 손을 내밀고, 웃고, 달아났다가…… 되돌아온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바퀴는 영원히 구른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피어난다. 존재의 한 해는 영원히 흘러간다."

"모든 것은 부서지고, 모든 것은 새로 이어 맞춰진다. 존재의 똑같은 집은 영원히 제 자신을 짓는다. 모든 것은 헤어지고, 모든 것은 다시 인사를 나눈다. 존재의 반지는 영원히 제 자신에게 신의를 지킨다."

"찰나마다 존재가 시작된다. 모든 '여기'를 둘러싸고 '저기'라는 공이 굴러간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영원의 오솔길은 굽어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 그대 익살맞은 바보들이여, 손풍금들이여! 이레 동안 무엇이 이루어져야 했는지 그대들은 참 잘도 아는구나.

그리고 저 괴물이 어떻게 내 목구멍으로 기어들어 내 목을 졸랐는지도! 그러나 나는 그 대가리를 물어 끊어 멀리 뱉어 버렸다.

그런데 그대들은, 그대들은 벌써 그것으로 손풍금 타령을 지어냈는가?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 누워 있다, 그렇게 물어 끊고 뱉어 버리느라 아직도 지친 채, 나 자신의 구원 때문에 아직도 병든 채.

그런데 그대들은 그 모든 것을 구경만 했는가? 오, 나의 짐승들이여, 그대들도 잔인한가? 인간들이 하듯 그대들도 나의 크나큰 아픔을 구경하고 싶었는가? 인간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짐승이기 때문이다.

비극과 투우와 십자가형을 볼 때 인간은 지금껏 대지 위에서 가장 흐뭇했으니, 그가 지옥을 발명해 냈을 때, 보라, 그것이 그에게는 대지 위의 천국이었다.

위대한 인간이 비명을 지르면 작은 인간이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음탕함에 겨워 혀를 길게 빼문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신의 '동정'이라 부른다.

작은 인간은, 특히 시인은, 얼마나 열심히 말로써 삶을 고발하는가! 귀 기울여 들어 보라, 그러나 모든 고발 속에 든 기쁨을 흘려듣지 마라!

그런 삶의 고발자들, 그들을 삶은 눈 한 번 끔뻑여 이겨 낸다.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 발칙한 여인은 말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은 그대에게 내줄 시간이 없다."

인간은 제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짐승이니, 스스로를 '죄인'이니 '십자가를 지는 자'니 '참회자'니 부르는 모든 자에게서, 이 한탄과 고발 속에 든 쾌락을 흘려듣지 마라!

그러면 나 자신은, 이런 말로 인간을 고발하는 자가 되려는가? 아, 나의 짐승들이여, 내가 지금껏 배운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인간에게는 그의 최선을 위해 그의 최악이 필요하다는 것,

모든 최악은 그의 최선의 **힘**이요 가장 높이 창조하는 자에게는 가장 단단한 돌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더 선해지고 **또한** 더 악해져야 한다는 것.

나는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안다는, **그런** 형틀에 못 박혀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누구도 질러 본 적 없는 외침을 질렀다.

"아, 그의 최악이 이토록 작다니! 아, 그의 최선이 이토록 작다니!"

인간에 대한 크나큰 싫증, **그것이** 내 목을 조르고 내 목구멍으로 기어들어 와 있었고, 예언자가 예언한 것도 그러했다. "모든 것은 매한가지다, 아무것도 보람이 없다, 앎은 목을 조른다."

긴 어스름 하나가 내 앞에서 절룩거리며 걸어갔으니, 하품하는 입으로 말하는, 죽도록 지치고 죽음에 취한 슬픔이었다.

"그는 영원히 되돌아온다, 그대가 지쳐 버린 그 인간은, 작은 인간은." 나의 슬픔은 이렇게 하품하며 발을 질질 끌었고, 잠들지도 못했다.

인간의 대지는 내게 동굴로 바뀌었고 그 가슴은 움푹 꺼져 들어갔으며, 살아 있는 모든 것이 내게는 썩어 문드러진 인간이요 뼈다귀요 삭아 버린 과거가 되었다.

나의 한숨은 모든 인간의 무덤 위에 주저앉아 더는 일어서지 못했고, 나의 한숨과 물음은 밤낮으로 불길하게 울어 대고, 목이 막혀 캑캑거리고, 갉아 대고, 탄식했다.

"아, 인간은 영원히 되돌아온다! 작은 인간은 영원히 되돌아온다!"

나는 일찍이 가장 위대한 인간과 가장 작은 인간, 그 둘을 모두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았다. 서로 너무나 닮았고, 가장 위대한 자조차……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가장 위대한 자마저 너무나 작다니! 그것이 인간에 대한 나의 싫증이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의 영원회귀마저! 그것이 모든 존재에 대한 나의 싫증이었다!

아, 역겹다! 역겹다! 역겹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한숨을 쉬며 몸서리쳤으니, 자신의 병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짐승들은 그가 더 말하도록 두지 않았다.

"더 말하지 마라, 그대 건강을 되찾는 자여!" 그의 짐승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보다는 밖으로 나가라, 세상이 정원처럼 그대를 기다리는 곳으로."

"장미와 꿀벌과 비둘기 떼에게로 나가라! 그러나 무엇보다 노래하는 새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서 **노래하기**를 배워라!"

"노래란 건강을 되찾는 자를 위한 것이니, 건강한 자는 말을 하면 된다. 그리고 건강한 자가 노래를 원한다 해도, 그가 원하는 노래는 건강을 되찾는 자의 노래와 다르다."

"오, 그대 익살맞은 바보들이여, 손풍금들이여, 이제 그만 입을 다물어라!" 차라투스트라는 짐승들을 보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레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위안을 지어냈는지 그대들은 참 잘도 아는구나!"

"내가 다시 노래해야 한다는 것, **그** 위안을, 그리고 **이** 건강을 되찾음을 나는 스스로 지어냈다. 그대들은 그것마저 당장 또 손풍금 타령으로 만들려는가?"

"더 말하지 마라." 그의 짐승들이 다시 그에게 대답했다. "그대 건강을 되찾는 자여, 그보다 먼저 수금을 하나 장만하라, 새 수금을!"

"보라,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의 새 노래에는 새 수금이 있어야 한다."

"노래하라, 그리고 끓어 넘쳐라, 오, 차라투스트라여, 새 노래로 그대의 영혼을 낫게 하여, 아직 어떤 인간의 운명도 되어 본 적 없는 그대의 위대한 운명을 짊어지도록!"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의 짐승들은 그대가 누구이며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 보라, 그대는 영원회귀의 스승이요, 그것이 이제 **그대의** 운명이다!"

"그대가 맨 처음으로 이 가르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 위대한 운명이 어찌 그대의 가장 큰 위험이자 병이 되지 않겠는가!"

"보라, 우리는 그대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안다, 만물이 영원히 되돌아오고 우리 자신도 함께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영원토록 거듭 여기 있었고 만물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대는 가르친다, 생성의 거대한 한 해가, 괴물처럼 거대한 한 해가 있다고, 그리고 그 한 해는 모래시계처럼 거듭거듭 새로 뒤집혀야 한다고, 새로 흘러내리고 다 흘러 나가도록."

"그리하여 이 모든 한 해 한 해가 저마다 제 자신과 똑같다, 가장 큰 것에서도 가장 작은 것에서도, 그리하여 우리 자신도 거대한 한 해마다 우리 자신과 똑같다, 가장 큰 것에서도 가장 작은 것에서도."

"그리고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가 지금 죽으려 한다면, 보라, 그때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무어라 말할지도 우리는 알지만, 그대의 짐승들은 그대가 아직은 죽지 않기를 빈다!"

"그대는 떨지도 않고, 오히려 지복에 겨워 한숨 돌리며 말하리라, 크나큰 무게와 무더위가 그대에게서 걷혔을 테니까, 그대 가장 참을성 많은 자여!"

"'이제 나는 죽어 사라진다.' 그대는 이렇게 말하리라. '그리고 찰나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영혼도 몸과 마찬가지로 죽는다.'"

"'그러나 내가 얽혀 든 원인들의 매듭은 되돌아오니, 그 매듭이 나를 다시 창조하리라! 나 자신도 영원회귀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다.'"

"'나는 되돌아온다, 이 태양과 함께, 이 대지와 함께, 이 독수리와 함께, 이 뱀과 함께, 그러나 새로운 삶이나 더 나은 삶이나 비슷한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영원히 되돌아온다, 똑같은 바로 이 삶으로, 가장 큰 것에서도 가장 작은 것에서도, 다시 만물의 영원회귀를 가르치려고,'"

"'다시 대지와 인간의 위대한 정오에 대한 말을 하려고, 다시 인간들에게 위버멘쉬를 예고하려고.'"

"'나는 내 말을 했고, 내 말에 부딪혀 부서진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 그렇게 원한다. 예고자로서 나는 파멸한다!'"

'"이제 몰락하는 자가 스스로를 축복할 때가 왔다. 이렇게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이 **끝난다**."'

짐승들은 이 말을 마치자 입을 다물고 차라투스트라가 자기들에게 무슨 말을 해 주기를 기다렸으나, 차라투스트라는 그들이 입을 다문 것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잠든 사람처럼, 비록 잠들지는 않았으나 가만히 누워 있었으니, 바로 그때 제 영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뱀과 독수리는 그가 그렇게 말이 없는 것을 보자, 그를 둘러싼 크나큰 고요를 존중하여 조심스레 그 곁을 떠났다.

크나큰 동경에 대하여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그대에게 '언젠가'와 '예전'을 말하듯 '오늘'을 말하는 법을 가르쳤고, 모든 여기와 거기와 저기를 넘어 그대의 윤무를 추는 법을 가르쳤다.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그대를 온갖 구석에서 구해 냈고, 그대에게서 먼지와 거미와 어스름을 쓸어 냈다.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그대에게서 작은 부끄러움과 구석의 덕을 씻어 냈고, 해의 눈앞에 벌거벗고 서도록 그대를 설득했다.

'정신'이라 불리는 폭풍을 몰고 나는 그대의 출렁이는 바다 위로 불어 갔고, 구름이란 구름은 모두 불어 날려 보냈으며, '죄'라 불리는 목 조르는 자마저 목 졸라 죽였다.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그대에게 폭풍처럼 '아니다'라고 말할 권리를, 열린 하늘이 '그렇다'고 말하듯 '그렇다'고 말할 권리를 주었으니, 이제 그대는 빛처럼 고요히 서 있고, 부정하는 폭풍들을 뚫고 걸어간다.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창조된 것과 창조되지 않은 것을 다스리는 자유를 그대에게 돌려주었으니, 다가올 것의 쾌락을 그대만큼 아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그대에게 벌레가 파먹듯 스며드는 경멸이 아니라 크나큰 경멸, 사랑하는 경멸을 가르쳤으니, 그 경멸은 가장 경멸하는 곳에서 가장 사랑한다.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그대에게 설득하는 법을 가르쳤으니, 이제 그대는 밑바탕마저 설득하여 그대에게로 끌어온다, 바다마저 설득하여 제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해처럼.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그대에게서 모든 복종과 무릎 꿇기와 '주여' 하고 부르는 일을 거두어 갔고, 나 몸소 그대에게 '곤궁의 전환'이라는 이름과 '운명'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그대에게 새로운 이름들과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을 주었으니, 그대를 '운명'이라, '품 중의 품'이라, '시간의 탯줄'이라, '쪽빛 종'이라 불렀다.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그대의 흙이 모든 지혜를 마시게 했으니, 모든 새 포도주와, 아득한 옛적부터 묵어 온 지혜의 독한 포도주까지 모두 마시게 했다.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모든 해와 모든 밤과 모든 침묵과 모든 동경을 그대 위에 쏟아부었더니, 그대는 내 앞에서 포도나무처럼 자라 올랐다.

오, 나의 영혼이여, 이제 그대는 넘치도록 풍요롭고 묵직하게 서 있다, 불어 오른 젖통들과 빽빽이 들어찬 갈색 금빛 포도송이들을 단 포도나무로,

그대의 행복에 떠밀리고 짓눌린 채, 넘치는 풍요에 겨워 기다리며, 그 기다림마저 아직 부끄러워하면서.

오, 나의 영혼이여, 이제 그대보다 더 사랑하고 더 품어 안고 품이 더 넓은 영혼은 어디에도 없다! 미래와 지나간 것이 그대 곁에서보다 더 가까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그대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내 손이란 손은 모두 그대에게 주느라 비어 버렸다. 그런데 이제! 이제 그대는 미소

지으며 우울에 가득 차서 내게 말한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고마워해야 하는가?"

"주는 자야말로 받는 자가 받아 준 것을 고마워해야 하지 않는가? 베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가 아닌가? 받는 것은…… 연민이 아닌가?"

오, 나의 영혼이여, 나는 그대 우울의 미소를 알아듣는다. 그대의 넘치는 풍요 자체가 이제 동경하는 손을 내뻗는다!

그대의 충만은 포효하는 바다 너머를 바라보며 찾고 기다린다. 넘치는 충만의 동경이 미소 짓는 그대 눈의 하늘에서 내다본다!

그리고 진실로, 오, 나의 영혼이여! 그대의 미소를 보고 눈물로 녹아내리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천사들마저 그대 미소의 넘치는 자애 앞에서 눈물로 녹아내린다.

호소하고 울려 하지 않는 것은 그대의 자애, 그대의 넘치는 자애이건만, 오, 나의 영혼이여, 그대의 미소는 눈물을 동경하고 그대의 떨리는 입은 흐느낌을 동경한다.

"울음이란 모두 호소가 아닌가? 그리고 호소란 모두 고소가 아닌가?"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오, 나의 영혼이여, 그대는 그대의 괴로움을 쏟아 놓기보다 차라리 미소 짓기를 원한다.

그대의 충만을 두고, 포도원지기와 포도 따는 칼을 애타게 기다리는 포도나무의 그 모든 조바심을 두고 겪는 그대의 모든 괴로움을 쏟아지는 눈물로 쏟아 놓기보다는!

그러나 그대가 울려 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자줏빛 우울을 울음으로 다 풀어 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노래해야** 하리라, 오, 나의 영혼이여! 보라, 그대에게 이런 일을 미리 일러 주는 나 자신도 미소 짓는다.

노래해야 하리라, 포효하는 노래로, 모든 바다가 잠잠해져 그대의 동경에 귀 기울일 때까지,

잠잠하고 동경에 찬 바다 위로 쪽배가, 그 황금의 기적이 떠다닐 때까지. 그 황금 둘레에서는 좋은 것, 고약한 것, 기이한 것 할 것 없이 온갖 것이 깡충깡충 뛰논다.

크고 작은 숱한 짐승들도, 제비꽃빛 오솔길 위를 달릴 수 있도록 가볍고 기이한 발을 지닌 모든 것도,

저 황금의 기적을 향해, 스스로 떠오는 쪽배와 그 주인을 향해 뛰어간다. 그 주인은 다이아몬드로 된 포도 따는 칼을 들고 기다리는 포도원지기이니,

그대를 풀어 줄 위대한 자, 오, 나의 영혼이여, 이름 없는 자, 앞으로 올 노래들이 비로소 그 이름을 찾아 줄 자다! 그리고 진실로, 벌써 그대의 숨결에서 앞으로 올 노래들의 향기가 난다,

벌써 그대는 달아올라 꿈꾸고, 벌써 그대는 깊이 울리는 모든 위안의 샘에서 목마르게 들이켜며, 벌써 그대의 우울은 앞으로 올 노래들의 지복 속에서 쉬고 있다!

오, 나의 영혼이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모든 것을, 나의 마지막 것까지 주었고, 내 손이란 손은 모두 그대에게 주느라 비어 버렸다. **내가 그대에게 노래하라고 일렀다는 것**, 보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것이었다!

내가 그대에게 노래하라고 일렀으니, 자, 말하라, 말하라. 이제 우리 가운데 **누가**…… 고마워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내게 노래하라, 노래하라, 오, 나의 영혼이여! 그리고 고마워하는 것은 내게 맡겨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또 다른 춤의 노래

1

"요전에 나는 그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오, 삶이여! 그대의 밤의 눈 속에서 황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고, 이 쾌락 앞에서 내 심장은 멎어 버렸다."

"거센 물 위에서 반짝이는 황금 조각배를 보았다, 가라앉으며 들이켜며 다시 손짓하는 황금 흔들배를!"

"춤에 미쳐 날뛰는 내 발에 그대는 눈길을 던졌다, 웃는 듯 묻는 듯 녹아드는 흔들 눈길을."

"그대가 작은 손으로 딱따기를 딱 두 번 울렸을 뿐인데, 벌써 내 발은 춤에 미쳐 흔들거렸다."

"내 발꿈치는 곧추섰고, 내 발가락들은 그대를 알아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춤추는 자는 제 귀를…… 발가락에 달고 다니지 않는가!"

"그대에게로 나는 뛰어들었다. 그러자 그대는 내 도약 앞에서 뒤로 달아났고, 달아나며 나부끼는 그대 머리카락의 혀가 나를 향해 날름거렸다!"

"그대에게서, 그대의 뱀들에게서 나는 뛰어 물러났다. 그러자 그대는 벌써 몸을 반쯤 돌린 채 서 있었다, 눈에 갈망을 가득 담고."

"비뚤어진 눈길로…… 그대는 내게 비뚤어진 길을 가르친다. 비뚤어진 길에서 내 발은 익힌다…… 잔꾀를!"

"가까이 있는 그대가 나는 두렵고, 멀리 있는 그대를 나는 사랑한다. 그대가 달아나면 나는 이끌리고, 그대가 찾으면 나는 멈칫한다. 나는 괴롭다, 그러나 그대 때문이라면 무엇인들 기꺼이 괴로워하지 않았던가!"

"차가움으로 불을 지르고, 미움으로 유혹하고, 달아나며 붙들어 매고, 조롱하며…… 마음을 흔드는 그대,"

"누가 그대를 미워하지 않으랴, 그대 옭아매는 위대한 여인이여, 휘감는 여인, 유혹하는 여인, 찾는 여인, 찾아내는 여인이여! 누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으랴, 순진무구하고 참을성 없고, 바람처럼 날래고 아이 눈을 한 그대 죄 많은 여인이여!"

"이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대 으뜸가는 말썽꾼이요 고삐 풀린 망아지여? 그러고는 이제 다시 내게서 달아나는구나, 그대 달콤한 말괄량이요 은혜도 모르는 것이여!"

"나는 그대를 따라 춤춘다, 희미한 발자국만 있어도 그대를 따라간다. 어디 있느냐? 손을 다오! 아니면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여기는 동굴과 덤불투성이다. 우리는 길을 잃고 말리라! 멈춰라! 가만히 서라! 올빼미와 박쥐가 푸드덕거리며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 올빼미 같으니! 이 박쥐 같으니! 나를 놀려 먹으려느냐?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울부짖고 캥캥 짖어 대는 것은 개들에게서 배웠구나."

"그대는 조그맣고 하얀 이를 사랑스럽게 드러내며 내게 으르렁대고, 그대의 심술궂은 두 눈은 곱슬곱슬한 작은 갈기 사이에서 나를 향해 튀어나온다!"

"이것은 그루터기와 돌부리를 넘나드는 춤이다. 나는 사냥꾼이다. 그대는 나의 개가 되겠느냐, 나의 산양이 되겠느냐?"

"이제 내 곁으로! 어서, 그대 심술궂게 뛰노는 여인이여! 이제 위로! 그리고 건너편으로! 슬프다! 뛰다가 내가 도리어 넘어지고 말았다!"

"오, 보라, 쓰러져 누운 채 자비를 비는 나를, 그대 기고만장이여! 그대와 함께 기꺼이 걷고 싶구나…… 더 사랑스러운 오솔길을!"

"고요하고 알록달록한 덤불 사이로 난 사랑의 오솔길을! 아니면 저기 호숫가를 따라서. 거기서는 금붕어들이 헤엄치며 춤춘다!"

"이제 지쳤느냐? 저 건너에 양 떼와 저녁노을이 있다. 양치기들이 피리를 불 때 잠드는 것은 아름답지 않으냐?"

"그렇게나 몹시 지쳤느냐? 내가 그대를 안아서 데려가마, 두 팔을 늘어뜨리기만 하라! 그리고 목이 마르다면…… 내게 무언가 있기는 하다만, 그대의 입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않는구나!"

"오, 이 저주받을, 날래고 나긋나긋한 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마녀 같으니! 어디로 가 버렸느냐? 그런데 내 얼굴에서 그대 손이 남긴 두 점, 빨간 얼룩이 화끈거린다!"

"진실로 나는 언제까지나 그대의 양 같은 양치기 노릇을 하는 데 지쳤다! 이 마녀 같으니, 지금까지는 내가 그대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으니, 이제는 **그대가** 내게…… 비명을 질러야 한다!"

"내 채찍 장단에 맞추어 그대는 춤추며 비명을 질러야 한다! 설마 내가 채찍을 잊었겠느냐? 천만에!"

2

그러자 삶은 고운 두 귀를 막으며 내게 이렇게 대답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채찍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철썩대지 좀 마라! 그대도 알지 않느냐, 소음은 생각을 죽인다. 그런데 마침 내게 그토록 다정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참이다."

"우리는 둘 다 착한 짓도 못 하고 나쁜 짓도 못 하는, 제대로 된 건달 한 쌍이다. 선악의 저편에서 우리는 우리의 섬과 우리의 푸른 풀밭을 찾아냈다, 우리 둘이서만! 그러니 우리는 서로 좋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서로를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서로를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서로 원망해야 한단 말이냐?"

"그리고 내가 그대를 좋아하고, 자주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것, 그것은 그대도 안다. 그 밑바닥을 캐 보면, 내가 그대의 지혜를 시샘하기 때문이다. 아, 지혜라는 저 정신 나간 늙은 바보 여자!"

"그대의 지혜가 언젠가 그대에게서 달아나 버린다면, 아! 그때는 내 사랑도 금세 그대에게서 달아나 버리리라."

그러자 삶은 생각에 잠겨 뒤를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내게 충실함이 모자라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가 입으로 말하는 것에 한참 못 미치니, 나는 안다, 그대가 머지않아 나를 떠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래되고 무겁고 무거운 종, 웅웅 우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은 밤이면 그대의 동굴까지 웅웅 울려 올라간다."

"한밤중에 그 종이 시각을 치는 소리를 들으면, 그대는 하나와 열둘 사이에 그 생각을 한다."

"그대는 그 생각을 한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나는 안다, 그대가 머지않아 나를 떠나려 한다는 것을!"

"그렇다."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대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삶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헝클어지고 누렇고 어리석은 그 머리 타래 한가운데로.

그대가 그것을 **안다고**,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는 서로 바라보았고, 마침 서늘한 저녁이 달려 지나가던 푸른 풀밭을 바라보았으며, 함께 울었다. 그러나 그때 내게는 삶이, 나의 모든 지혜가 일찍이 그랬던 것보다 더 사랑스러웠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

하나!
오, 인간이여! 귀 기울여라!
둘!
깊은 한밤은 무어라 말하는가?
셋!
"나는 잠들었다, 나는 잠들었다,"
넷!
"깊은 꿈에서 나는 깨어났다."
다섯!
"세상은 깊다,"
여섯!
"낮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다."
일곱!
"세상의 고통은 깊다,"
여덟!
"기쁨은 마음의 괴로움보다도 더 깊다."
아홉!
"고통은 말한다, 사라져라!"
열!
"그러나 모든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
열하나!
"깊고 깊은 영원을 원한다!"
열둘!

일곱 개의 봉인 (또는 '그렇다와 아멘'의 노래)

1

내가 예언자이고, 두 바다 사이 높은 산마루를 거니는 저 예언하는 정신으로 가득하다면,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 사이를 무거운 구름이 되어 거닐고, 무더운 저지대에 맞서고 지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모든 것에 맞서는 그 정신으로 가득하다면,

어두운 가슴속에서 번개를 칠 채비가, 구원하는 빛살을 쏠 채비가, 예언하는 번갯불을 내리꽂을 채비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웃는 번개들을 배고 있다면,

그러나 이렇게 잉태한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진실로, 언젠가 미래의 빛에 불을 붙여야 할 자는 오랫동안 무거운 뇌우가 되어 산에 걸려 있어야 한다!

오, 내 어찌 영원을, 반지 중의 반지인 혼인의 반지를, 회귀의 반지를 열망하지 않으랴!

나는 이제껏 내 아이를 낳아 주었으면 싶은 여인을 찾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말고는.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2

나의 분노가 일찍이 무덤을 부수고 경계석을 옮기고 낡은 서판을 깨뜨려 가파른 깊은 곳으로 굴려 떨어뜨렸다면,

나의 조롱이 일찍이 썩어 문드러진 말들을 불어 흩어 버렸고, 내가 십자거미들에게는 빗자루로, 퀴퀴하게 곰팡내 나는 낡은 무덤 방들에는 쓸어 내는 바람으로 찾아갔다면,

내가 일찍이 옛 신들이 묻혀 누운 곳에서 환호하며, 세상을 비방하던 옛사람들의 기념비 곁에서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앉아 있었다면,

하늘이 비로소 맑은 눈으로 그 무너진 지붕 사이로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나는 교회들과 신의 무덤들마저 사랑하기 때문이니, 풀처럼, 붉은 양귀비처럼 나는 무너진 교회들 위에 즐겨 앉는다.

오, 내 어찌 영원을, 반지 중의 반지인 혼인의 반지를, 회귀의 반지를 열망하지 않으랴!

나는 이제껏 내 아이를 낳아 주었으면 싶은 여인을 찾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말고는.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3

창조하는 숨결에서, 그리고 우연들마저 억지로 별들의 윤무를 추게 하는 저 천상의 필연에서 일찍이 한 줄기 숨결이 내게 불어왔다면,

행위의 긴 천둥이 으르렁거리면서도 고분고분 뒤따르는 창조하는 번개, 내가 일찍이 그 번개의 웃음으로 웃었다면,

내가 일찍이 대지라는 신들의 탁자에서 신들과 주사위 놀이를 하여, 대지가 떨고 갈라지며 불의 강들을 뿜어 올렸다면,

대지는 신들의 탁자요, 창조하는 새로운 말들과 신들이 던지는 주사위로 떨고 있기 때문이다.

오, 내 어찌 영원을, 반지 중의 반지인 혼인의 반지를, 회귀의 반지를 열망하지 않으랴!

나는 이제껏 내 아이를 낳아 주었으면 싶은 여인을 찾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말고는.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4

모든 것이 잘 섞여 있는 저 거품 이는 항아리, 양념을 치고 뒤섞는 그 항아리에서 내가 일찍이 한껏 들이켰다면,

내 손이 일찍이 가장 먼 것을 가장 가까운 것에, 불을 정신에, 기쁨을 괴로움에, 가장 고약한 것을 가장 자애로운 것에 부었다면,

뒤섞는 항아리 속에서 모든 것이 잘 섞이게 하는 저 구원하는 소금, 나 자신이 그 소금의 한 알갱이라면,

선한 것을 악한 것과 묶어 주는 소금이 있기 때문이니, 가장 악한 것조차 양념이 될 자격이, 마지막에 넘쳐흐르는 거품이 될 자격이 있다.

오, 내 어찌 영원을, 반지 중의 반지인 혼인의 반지를, 회귀의 반지를 열망하지 않으랴!

나는 이제껏 내 아이를 낳아 주었으면 싶은 여인을 찾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말고는.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5

내가 바다를, 바다의 성품을 지닌 모든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성나서 내게 맞설 때 가장 좋아한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향해 돛을 모는 저 찾아 나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뱃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 속에 있다면,

나의 환호가 일찍이 이렇게 외쳤다면, "해안이 사라졌다. 이제 마지막 사슬이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끝없는 것이 내 둘레에서 포효하고, 저 멀리 공간과 시간이 내게 반짝인다. 좋다! 자, 일어나라! 늙은 심장이여!"

오, 내 어찌 영원을, 반지 중의 반지인 혼인의 반지를, 회귀의 반지를 열망하지 않으랴!

나는 이제껏 내 아이를 낳아 주었으면 싶은 여인을 찾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말고는.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6

나의 덕이 춤추는 자의 덕이고, 내가 자주 두 발로 황금빛 에메랄드빛 황홀 속으로 뛰어들었다면,

나의 악의가 웃는 악의여서, 장미가 흐드러진 비탈과 백합 울타리 아래를 제집으로 삼는다면,

웃음 속에는 모든 악이 한데 모여 있으나, 제 지복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선언되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거운 것은 모두 가벼워지고, 몸은 모두 춤추는 자가 되고, 정신은 모두 새가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알파요 오메가라면, 진실로, 이것이 나의 알파요 오메가다!

오, 내 어찌 영원을, 반지 중의 반지인 혼인의 반지를, 회귀의 반지를 열망하지 않으랴!

나는 이제껏 내 아이를 낳아 주었으면 싶은 여인을 찾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말고는.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7

내가 일찍이 고요한 하늘들을 내 위에 펼쳐 놓고 내 날개로 내 하늘들 속으로 날아들었다면,

내가 놀이하듯 깊고 아득한 빛 속을 헤엄쳤고, 내 자유에 새의 지혜가 찾아왔다면,

그런데 새의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 "보라,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몸을 던져라, 이리저리, 밖으로, 뒤로, 그대 가벼운 자여! 노래하라! 더는 말하지 마라!"

"모든 말은 무거운 자들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닌가? 가벼운 자에게는 모든 말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노래하라! 더는 말하지 마라!"

오, 내 어찌 영원을, 반지 중의 반지인 혼인의 반지를, 회귀의 반지를 열망하지 않으랴!

나는 이제껏 내 아이를 낳아 주었으면 싶은 여인을 찾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말고는.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 영원이여!

제4부, 마지막 부

아, 세상 어디에서 동정하는 자들에게서보다 더 큰 어리석은 짓들이 벌어졌던가?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이 동정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짓보다 더 많은 괴로움을 빚어냈던가? 슬프다, 제 동정 위에 또 하나의 높은 곳을 두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여! 악마는 언젠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신에게도 그의 지옥이 있다.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것이다." 그리고 요전에 나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신은 죽었다. 인간을 향한 동정 때문에 신은 죽었다."

차라투스트라, '동정하는 자들에 대하여'에서

꿀 봉헌

그리고 다시 여러 달이, 여러 해가 차라투스트라의 영혼 위를 흘러갔으나 그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다만 그의 머리카락만은 하얗게 세었다. 어느 날 그는 동굴 앞 바위에 앉아 말없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바다가 내다보이고 구불구불 휘감긴 심연들 너머까지 멀리 바라보인다. 그때 그의 짐승들이 생각에 잠겨 그의 둘레를 맴돌다가 마침내 그의 앞으로 와서 섰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짐승들이 말했다. "그대는 그대의 행복이 오는지 내다보고 있는가?" "행복이 다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나는 행복을 구하지 않은 지 오래다. 나는 나의 일을 구한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짐승들이 다시 말했다. "그것은 좋은 것을 넘치도록 가진 자나 할 말이다. 그대는 하늘빛 행복의 호수에 누워 있지 않은가?" "이 익살맞은 바보들이여." 차라투스트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비유 한번 잘도 골랐구나! 그러나 그대들도 알다시피 내 행복은 무거워서 흘러가는 물결과는 다르니, 그것은 나를 짓누르고 내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으며 녹은 역청처럼 끈적하게 들러붙는다."

그러자 짐승들은 다시 생각에 잠겨 그의 둘레를 맴돌다가 또 한 번 그의 앞으로 와서 섰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짐승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대는, 머리카락은 희고 아마빛을 띠려 하는데도 점점 더 누렇고 거무스름해지는가? 보라, 그대는 그대의 역청 수렁에 빠져 앉아 있지 않은가!" "나의 짐승들이여, 그게 무슨 소리냐."

차라투스트라가 웃으며 말했다. "진실로, 역청 이야기를 한 것은 내 망발이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무르익는 모든 열매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다. 내 피를 더 진하게 하고 내 영혼도 더 고요하게 하는 것은 내 핏줄 속의 **꿀**이다." "그럴 테지, 오, 차라투스트라여." 짐승들이 그에게 바싹 몸을 붙이며 대답했다. "그런데 오늘은 높은 산에 오르지 않겠는가? 공기가 맑아서 오늘은 여느 때보다 세상이 더 많이 보인다." "그래, 나의 짐승들이여."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의 권유는 훌륭하고 내 마음에도 꼭 맞는다. 오늘 나는 높은 산에 오르리라! 그러나 그곳에 꿀이 내 손 닿는 데 있도록 마련해 두어라. 노랗고 하얗고 좋은, 얼음처럼 싱싱한 황금빛 벌집 꿀을. 알아 두어라, 나는 저 위에서 꿀 봉헌을 드리려 한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이르자 차라투스트라는 그곳까지 따라와 준 짐승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제 자신이 홀로 남았음을 알자 온 마음으로 웃었다. 그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봉헌을, 그것도 꿀 봉헌을 입에 올린 것은 말재간으로 부린 꾀였을 뿐이고, 진실로, 쓸모 있는 어리석음이었다! 여기 위에서라면 은자의 동굴 앞이나 은자의 집짐승들 앞에서보다 더 거리낌 없이 말해도 된다.

봉헌은 무슨 봉헌! 나는 내게 선사된 것을 탕진한다, 천 개의 손을 가진 탕진하는 자인 나는. 그런 내가 어찌 그것을 아직도…… 봉헌이라 부를 수 있으랴!

꿀을 청할 때에도 나는 그저 미끼를, 달콤한 진액과 점액을 청했을 뿐이다. 투덜이 곰들도, 괴팍하고 뚱하고 심술궂은 새들도 혀를 날름거리며 핥는 그것을.

그렇다, 사냥꾼과 어부에게 꼭 있어야 하는 가장 좋은 미끼를 청했다. 세상이 짐승 우글거리는 어두운 숲과 같고 모든 거친 사냥꾼의 놀이터라

해도, 내게는 세상이 그보다 더, 그리고 더 기꺼이, 바닥 모를 풍요로운 바다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알록달록한 물고기와 게로 가득한 바다, 신들마저 그 곁에서 어부가 되고 그물 던지는 자가 되고 싶어 할 만한 바다이니, 세상은 그토록 크고 작은 기이한 것들로 풍요롭다!

무엇보다 인간의 세상, 인간의 바다가 그렇다. 이제 나는 바로 **그** 바다에 나의 황금 낚싯대를 드리우며 말한다. 열려라, 그대 인간의 심연이여!

열려라, 그리고 그대의 물고기들과 반짝이는 게들을 내게 던져 다오! 나는 오늘 나의 가장 좋은 미끼로 가장 기이한 인간 물고기들을 꾀어 올리리라!

나는 나의 행복 그 자체를 모든 너른 곳과 먼 곳으로, 해 돋는 곳과 한낮의 자리와 해 지는 곳 사이로 멀리 던진다, 혹시 많은 인간 물고기들이 내 행복에 걸려 버둥거리고 파닥거리는 법을 배우지 않을까 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더없이 알록달록한 심연 밑바닥의 모래무지들이, 내가 숨겨 둔 날카로운 바늘을 물고서, 인간을 낚는 모든 어부 가운데 가장 짓궂은 어부에게로, **나의** 높은 곳으로 끌려 올라올 수밖에 없을 때까지.

나는 근본부터, 그리고 태초부터 바로 **그런** 자, 곧 당기고, 끌어당기고, 끌어올리고, 길러 올리는 자, 끄는 자요 기르는 자요 길들이는 자이며, 일찍이 제게 "그대 자신이 되어라!" 하고 타이른 것이 괜한 일이 아니었던 자다.

그러니 이제는 인간들이 내게로 **올라**오기를! 나는 내가 저물 때가 되었다는 징조를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 나 자신은 마땅히 그래야 하건만 아직 인간들 사이로 내려가 몰락하지 않는다.

그때를 나는 여기 높은 산 위에서 꾀바르게, 비웃으며 기다린다. 참을성 없는 자로서도 아니고 참을성 있는 자로서도 아니며, 오히려 참을성마저 잊어버린 자로서 기다리니, 그는 더는 '참고 견디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운명이 내게 시간을 넉넉히 주기 때문이다. 운명이 나를 잊었는가? 아니면 큰 바위 뒤 그늘에 앉아 파리나 잡고 있는가?

진실로, 그래서 나는 나의 영원한 운명이 좋다. 운명은 나를 몰아대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익살과 짓궂은 장난을 부릴 시간까지 남겨 주니, 그 덕분에 나는 오늘 고기를 낚으러 이 높은 산에 올랐다.

높은 산 위에서 물고기를 낚은 인간이 일찍이 있었던가? 내가 여기 위에서 바라고 벌이는 일이 어리석은 짓이라 해도, 저 아래에서 기다리다 못해 엄숙해지고 얼굴이 퍼렇게 누렇게 질리느니 차라리 이편이 낫다.

기다리다 못해 거드름을 피우며 씩씩대는 분노꾼이, 산에서 불어내리는 거룩한 울부짖음의 폭풍이, 골짜기 아래로 "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신의 채찍으로 그대들을 후려치리라!" 하고 외쳐 대는 조급한 자가 되느니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성난 자들을 못마땅해한다는 말은 아니다. 웃음거리로 삼기에는 그들도 넉넉히 쓸 만하다! 오늘이 아니면 영영 말할 기회가 없는 저 요란한 큰북들이야 조급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나와 나의 운명, 우리는 오늘에 대고 말하지 않으며 영영 오지 않을 날에 대고 말하지도 않으니, 말하는 데라면 우리에게는 참을성도, 시간도, 남아도는 시간도 있다. 언젠가 반드시 와야 할 자가 있고, 그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반드시 와야 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위대한 하자르[1], 곧 우리의 크고 먼 인간 왕국, 천 년에 걸친

차라투스트라 왕국……

그런 '먼 곳'은 얼마나 멀까? 그것이 내 알 바인가! 그렇다고 그것이 내게 덜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아니니, 나는 두 발로 이 바탕 위에 굳건히 서 있다.

영원한 바탕 위에, 단단한 태곳적 바위 위에, 가장 높고 가장 단단한 이 태곳적 산 위에 서 있다. 모든 바람이 날씨가 갈리는 분수령으로 모여들듯 이 산으로 찾아와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 하고 묻는다.

여기서 웃어라, 웃어라, 환하고 흠 없는 나의 짓궂음이여! 높은 산에서 그대의 반짝이는 조롱의 웃음을 던져 내려라! 그대의 반짝임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 물고기들을 꾀어 다오!

그리고 모든 바다에서 **나에게** 속한 것, 모든 사물 속에서 오직 나에게 있고 나를 위해 있는 것(An-und-für-mich), **그것을** 내게 낚아 올려라, **그것을** 내게로 끌어 올려라. 모든 어부 가운데 가장 짓궂은 어부인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나가라, 나가라, 나의 낚싯바늘이여! 들어가라, 내려가라, 내 행복의 미끼여! 그대의 가장 달콤한 이슬을 방울방울 떨구어라, 내 마음의 꿀이여! 물어라, 나의 낚싯바늘이여, 모든 검은 시름의 배를!

나가라, 나가라, 나의 눈이여! 오, 내 둘레에 이 얼마나 많은 바다인가, 이 얼마나 많은 인간의 미래가 동터 오는가! 그리고 내 위에는, 이 무슨 장밋빛 고요인가! 이 무슨 구름 걷힌 침묵인가!

---

1. 하자르(Hazar)는 페르시아어로 '천(千)'이라는 뜻이다. 니체는 한 메모에서, 페르시아인들은 예언자마다 저마다의 '하자르', 곧 천 년의 치세가 있다고 보았다고 적었다.

절박한 외침

이튿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동굴 앞 바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짐승들은 새 먹이를, 그리고 새 꿀도 집으로 가져오려고 바깥 세상을 떠돌고 있었으니, 차라투스트라가 묵은 꿀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써 버리고 탕진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손에 막대기를 쥐고 앉아서 땅바닥에 드리운 제 모습의 그림자를 따라 그리며, 진실로 자기 자신이나 제 그림자와는 상관없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 움찔했다. 제 그림자 곁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며 일어서자, 보라, 곁에 예언자가 서 있었다. 일찍이 그가 제 식탁에서 먹이고 마시게 해 준 바로 그 자, 크나큰 피로를 선포하던 자, "모든 것은 매한가지다, 아무것도 보람이 없다, 세상은 뜻이 없다, 앎은 목을 조른다" 하고 가르치던 자였다. 그러나 그사이 그의 얼굴은 변해 있었고, 차라투스트라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또다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으니, 그토록 많은 불길한 선포와 잿빛 번개가 그 얼굴 위를 스쳐 가고 있었다.

예언자는 차라투스트라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고, 제 얼굴을 닦아 없애려는 듯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고, 차라투스트라도 똑같이 했다. 이렇게 둘은 말없이 마음을 가다듬고 기운을 추스른 다음, 서로를 다시 알아보겠다는 표시로 손을 맞잡았다.

"잘 왔다."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크나큰 피로의 예언자여, 그대가 한때 나와 한 식탁에 앉던 벗이요 손님이었던 것이 헛일이 되지는

않으리라. 오늘도 내 곁에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흉겨운 늙은이 하나가 그대와 한 식탁에 앉는 것을 용서하라!" "흉겨운 늙은이라고?" 예언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가 누구이든, 또 누구이고자 하든, 그대가 여기 높은 곳에 머문 것도 이제 끝이 다 되었으니, 머지않아 그대의 조각배는 더는 마른 땅에 얹혀 있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지금 마른 땅에 얹혀 있다는 말인가?" 차라투스트라가 웃으며 물었다. 예언자가 대답했다. "그대의 산을 둘러싼 물결이, 크나큰 곤경과 시름의 물결이 차오르고 또 차올라서, 머지않아 그대의 조각배도 들어 올려 그대를 싣고 가 버리리라." 차라투스트라는 이 말에 입을 다물고 의아해했다. "아직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가?" 예언자가 말을 이었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솨솨 우르릉 치밀어 오르지 않는가?"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길고 긴 외침 하나가 들려왔는데, 심연들은 그 외침을 서로 던지고 떠넘길 뿐 어느 심연도 그것을 간직하려 하지 않았으니, 그만큼 불길한 소리였다.

"이 불길한 선포자여." 마침내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저것은 절박한 외침이요, 한 인간의 외침이다. 아마 어느 검은 바다에서 오는 것이리라. 그러나 인간의 곤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게 아껴 남겨 둔 나의 마지막 죄, 그대는 그것이 무엇이라 불리는지 아는가?"

"동정이다!" 예언자는 넘쳐흐르는 마음으로 대답하며 두 손을 높이 쳐들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나는 그대를 그대의 마지막 죄로 꾀어 들이려고 왔다!"

이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그 외침이 다시 울려 퍼졌는데, 이번에는 앞서보다 더 길고 더 겁에 질린 소리였고, 게다가 벌써 훨씬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들리는가? 들리는가, 오, 차라투스트라여?" 예언자가 외쳤다.

"저 외침은 그대에게 하는 것이다, 저 외침이 그대를 부른다. 오라, 오라, 오라, 때가 되었다, 때가 다 찼다!"

차라투스트라는 이 말에 어리둥절하고 뒤흔들린 채 입을 다물었다. 마침내 그는 제 안에서 머뭇거리는 자처럼 물었다. "저기서 나를 부르는 자는 누구인가?"

"그대도 알지 않는가." 예언자가 격하게 대답했다. "무엇을 숨기는가? 그대를 부르며 외치는 자는 **더 높은 인간**이다!"

"더 높은 인간이라고?" 차라투스트라는 소름이 끼쳐 소리쳤다. "**그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더 높은 인간이! 그자가 여기서 무엇을 원한단 말인가?" 그의 살갗이 땀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예언자는 차라투스트라의 두려움에는 대꾸하지 않고 깊은 곳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였다. 하지만 그곳이 오래도록 잠잠하자 그는 눈길을 되돌렸고, 차라투스트라가 선 채로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가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대는 행복에 겨워 빙빙 도는 자처럼 서 있지 않구나. 내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대는 춤이라도 추어야 하리라!"

"그러나 그대가 내 앞에서 춤을 추고 온갖 옆걸음 재주를 다 부린다 해도, 누구도 내게 '보라, 여기 마지막 즐거운 인간이 춤춘다!' 하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그런 자를 찾아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온다면 헛걸음이리니, 동굴과 동굴 뒤의 배후 동굴, 숨은 자들이 숨는 곳이야 찾겠지만 행복의 갱도와 보물 창고와 새로운 행복의 금맥은 찾지 못하리라."

"행복이라니, 이렇게 파묻혀 사는 자들과 은자들 곁에서 어찌 행복을 찾겠는가! 마지막 행복을 찾아 나는 아직도 행복한 섬들로, 잊힌 바다들 사이 먼 곳까지 가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모든 것은 매한가지다, 아무것도 보람이 없다, 찾아보아도 소용없다, 행복한 섬들도 이제는 없다!"

예언자는 이렇게 한숨지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한숨에 차라투스트라는 깊은 구렁에서 빛 속으로 나온 자처럼 다시 밝아지고 굳건해졌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그는 힘찬 목소리로 외치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것이라면** 내가 더 잘 안다! 행복한 섬들은 아직 있다! **그 얘기는** 그만하라, 한숨만 쉬어 대는 청승 자루여!"

"**그 얘기로** 찰방거리는 짓은 그만두어라, 오전의 비구름이여! 나는 벌써 그대의 시름에 흠뻑 젖어 물벼락 맞은 개 꼴로 서 있지 않은가?"

"이제 나는 몸을 털고 그대에게서 달아나 다시 몸을 말리련다. 그렇다고 놀랄 것은 없다! 내가 궁정 예법도 모르는 자로 보이는가? 그러나 여기는 **나의** 궁정이다."

"그런데 그대가 말하는 더 높은 인간 말인데, 좋다! 내 당장 저 숲에서 그를 찾아보겠다. 그의 외침은 **그쪽에서** 들려왔다. 어쩌면 몹쓸 짐승이 그를 몰아붙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나의** 영역 안에 있다. 그 안에서 그가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실로, 내 곁에는 몹쓸 짐승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차라투스트라는 떠나려고 몸을 돌렸다. 그러자 예언자가 말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능구렁이다!"

"다 안다. 그대는 나를 떼어 버리고 싶은 게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숲으로 달려가 몹쓸 짐승들이나 쫓겠다는 게지!"

"그러나 그래 보았자 무슨 소용인가? 저녁이 되면 그대는 결국 나를 다시 만나게 되리니, 나는 그대 자신의 동굴에 통나무처럼 참을성 있고 묵직하게 눌러앉아서…… 그대를 기다리리라!"

"그렇게 하라!" 차라투스트라는 떠나가며 뒤돌아 외쳤다. "내 동굴에 있는 내 것은 모두 그대 것이기도 하다, 나의 손님이자 벗이여!"

"그 안에서 혹시 꿀이라도 찾아내거든, 좋다! 몽땅 핥아 먹고 그대의 영혼을 달게 하라, 이 투덜이 곰이여! 저녁에는 우리 둘 다 즐겁게 지내야 하니까,"

"즐겁게, 그리고 이 하루가 끝난 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대는 내 노래에 맞추어 나의 춤추는 곰이 되어 춤을 추어야 한다."

"믿지 못하겠는가? 고개를 젓는가? 좋다! 자, 일어나라! 늙은 곰이여! 그러나 나도…… 예언자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왕들과의 대화

1

차라투스트라가 제 산과 숲을 걸은 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문득 기이한 행렬 하나를 보았다. 그가 내려가려던 바로 그 길로 두 왕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왕관을 쓰고 자줏빛 띠를 둘러 홍학처럼 알록달록하게 치장한 그들은 짐을 실은 나귀 한 마리를 앞세워 몰고 있었다. "이 왕들이 내 나라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차라투스트라는 놀라서 제 마음에 대고 말하고는 재빨리 덤불 뒤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왕들이 그에게까지 다가오자 그는 혼잣말하는 자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기이하다! 기이하다! 이게 어떻게 짝이 맞는가? 왕은 둘이 보이는데…… 나귀는 하나뿐이라니!"

그러자 두 왕은 걸음을 멈추고 빙그레 웃으며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더니, 이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쯤은 하는 법이다." 오른쪽 왕이 말했다. "다만 입 밖에 내지 않을 뿐."

그러나 왼쪽 왕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염소치기겠지. 아니면 바위와 나무 틈에서 너무 오래 산 은자이거나. 어울리는 이가 아예 없어도 선한 행실은 더럽혀지는 법이니까."

"선한 행실이라고?" 다른 왕이 못마땅한 듯 씁쓸하게 맞받았다. "우리가 대체 누구를 피해 달아나는 길인가? 바로 그 '선한 행실'이 아닌가? 우리의 '훌륭한 사교계'가 아닌가?"

"진실로, 차라리 은자와 염소치기 틈에서 살지언정 금칠하고 거짓되고 분칠을 덕지덕지 한 우리 천민과는 살지 않겠다, 그것이 스스로를 '훌륭한 사교계'라 부른다 해도,"

"스스로를 '귀족'이라 부른다 해도 말이다. 그러나 거기서는 모든 것이 거짓되고 썩었으니, 무엇보다 피가 그렇다. 오래된 몹쓸 병들과 그보다 더 몹쓸 의술가들 덕분이로다."

"오늘날 내게 가장 낫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는 아직도 건강한 농부, 거칠고 꾀바르고 고집 세고 끈질긴 농부이니,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고귀한 족속이다."

"오늘날 가장 나은 자는 농부다. 그러니 농부의 족속이 주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은 천민의 나라다. 나는 이제 어떤 눈속임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천민이란 곧 뒤범벅이다."

"천민의 뒤범벅, 거기서는 모든 것이 모든 것과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 성자와 사기꾼, 영주와 유대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온갖 짐승이 다 그 안에 있다."

"선한 행실이라니! 우리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거짓되고 썩었다. 이제는 아무도 공경할 줄 모른다. 우리가 피해 달아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달콤한 척 들러붙는 개들이요, 종려나무 잎에 금칠을 한다."

"이 역겨움이 내 목을 조른다. 우리 왕들마저 거짓이 되었다는 것, 할아버지 적부터 내려온 누렇게 바랜 낡은 허식을 뒤집어쓰고 그것으로 변장한 채, 가장 어리석은 자들과 가장 약삭빠른 자들과 오늘날 권력을 두고 흥정질하는 온갖 자들에게 구경거리 메달 노릇을 한다는 것이!"

"우리는 첫째가 **아니다**. 그런데도 첫째 **노릇은** 해야 한다. 이 사기극에 우리는 마침내 물리고 역겨워졌다."

"우리는 잡배들을, 목청만 큰 떠버리들과 글 쓰는 쉬파리들을, 장사치의 악취와 공명심의 버둥거림과 고약한 입김을 피해 떠나왔으니, 퉤, 잡배들 틈에서 살다니,"

"퉤, 잡배들 틈에서 첫째 노릇을 하다니! 아, 역겹다! 역겹다! 역겹다! 우리 왕들이 이제 와서 다 무엇이냐!"

"그대의 오랜 병이 또 도지는구나." 이때 왼쪽 왕이 말했다. "역겨움이 또 도지는구나, 가엾은 내 형제여. 그러나 그대도 알다시피 누군가 우리 말을 듣고 있다."

그러자 이 말들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있던 차라투스트라가 곧장 숨어 있던 곳에서 몸을 일으켜 왕들에게 다가가서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대들의 말을 듣고 있는 자, 그대들의 말을 기꺼이 듣고 있는 자, 왕들이여, 그의 이름은 차라투스트라다."

"나는 일찍이 '왕들이 이제 와서 다 무엇이냐!' 하고 말한 차라투스트라다. 용서하라, 그대들이 서로 '우리 왕들이 다 무엇이냐!' 하고 말할 때 나는 기뻤다."

"그런데 여기는 **나의** 나라요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그대들은 내 나라에서 무엇을 찾으려는가? 하지만 어쩌면 그대들은 오는 길에 **내가** 찾는 것을 **찾아냈는지도** 모르겠다. 곧 더 높은 인간을."

이 말을 듣자 왕들은 가슴을 치며 한 입으로 말했다. "우리 속을 꿰뚫어 보았구나!"

"그대는 이 말의 칼로 우리 마음의 가장 짙은 어둠을 베어 가르는구나. 그대는 우리의 곤경을 알아냈다. 보라! 우리는 더 높은 인간을 찾으려고 길을 나선 참이니,"

"우리보다 더 높은 인간을 찾으려고. 비록 우리가 왕이기는 하나. 우리는 이 나귀를 그에게 끌고 가는 길이다. 가장 높은 인간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높은 주인이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지상의 권력자들이 동시에 첫째가는 인간들이 아닐 때보다 더 가혹한 불행은 인간의 운명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거짓되고 비뚤어지고 괴물처럼 흉측해진다."

"하물며 그들이 꼴찌이고 인간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깝기라도 하면, 천민의 값이 오르고 또 오르다가 마침내는 천민의 덕마저 '보라, 나만이 덕이다!' 하고 말하기에 이른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가?"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왕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다니! 나는 황홀하다. 진실로, 벌써 여기에 운을 달아 시 한 수를 지어 보고 싶어 몸이 근질거린다."

"아무 귀에나 맞는 운은 못 되겠지만 말이다. 기다란 귀들을 헤아려 주는 버릇은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좋다! 자, 해 보자!"

(그런데 이때 나귀도 한마디 끼어들었으니, 나귀는 또렷하게, 그것도 악의를 품고 이-아(I-A) 하고 말했다.)

옛날, 그러니까 아마 구원의 해 원년이었지,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무녀 시빌라가 말했지.
"슬프다, 이제 다 비뚤어지는구나!
말세로다! 말세로다! 세상이 이토록 깊이 떨어진 적은 없었구나!
로마는 떨어져 음녀가 되고 음녀의 집이 되었다,
로마의 카이사르는 떨어져 짐승이 되고, 신마저…… 유대인이
되었다!"

2

왕들은 차라투스트라가 읊은 시구를 실컷 즐겼다. 그러고는 오른쪽 왕이 말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를 보러 길을 나선 것은 참 잘한

일이었구나!"

"그대의 적들이 저희 거울에 비친 그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는데, 거기서 그대는 악마의 찡그린 낯짝을 하고 비웃고 있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대가 두려웠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 그대는 그대의 잠언들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자꾸만 찔러 댔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말했다. 그의 생김새가 다 무엇이냐!"

"우리는 그의 말을, '그대들은 새로운 전쟁의 수단으로서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긴 평화보다 짧은 평화를 더 사랑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일찍이 그 누구도 이토록 호전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 '무엇이 좋은가? 용감한 것이 좋다. 모든 대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좋은 전쟁이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몸속에서 조상들의 피가 꿈틀거렸으니, 그것은 봄이 묵은 포도주 통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과 같았다."

"칼들이 붉은 얼룩 뱀들처럼 서로 뒤엉켜 내달릴 때면 우리 조상들은 삶에 정이 들었으니, 평화의 햇볕이란 어느 것이나 그들에게 밍밍하고 미지근해 보였고 긴 평화는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

"벽에 걸린 칼들이 번쩍번쩍 빛나되 바싹 말라 있는 것을 볼 때면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한숨을 쉬었던가! 그들도 그 칼들처럼 전쟁에 목말라했다. 칼이란 피를 마시려 하고 욕망으로 번득이는 법이니까."

왕들이 이렇게 제 조상들의 행복을 두고 열을 올려 이야기하고 떠들어대자, 차라투스트라는 그 열심을 비웃어 주고 싶은 마음이 적잖이 일었으니, 눈앞에 선 이들은 누가 보아도 평화를 몹시 좋아하는 왕들, 늙고 섬세한 얼굴을 한 왕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억눌렀다. "좋다!" 그가 말했다. "저쪽으로 길이 나 있고, 그 끝에 차라투스트라의 동굴이 있다. 오늘은 저녁이 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절박한 외침 하나가 나를 급히 그대들에게서 불러낸다."

"왕들이 내 동굴에 앉아 기다려 준다면 내 동굴로서는 영광이다. 그러나 물론, 그대들은 오래 기다려야 하리라!"

"그런들 어떠냐! 무슨 상관이냐! 기다림을 배우기에 오늘날 궁정보다 나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왕들에게 남은 덕이라고는 통틀어 하나뿐인데, 오늘날 그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아니던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머리

차라투스트라는 생각에 잠긴 채 숲을 지나고 늪지대를 끼고 더 멀리, 더 깊이 걸어갔는데, 무거운 일을 골똘히 생각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러다가 그만 한 인간을 밟고 말았다. 그러자 보라, 대번에 비명 한 마디와 저주 두 마디와 몹쓸 욕설 스무 마디가 그의 얼굴로 튀어 올랐고, 그는 놀란 김에 지팡이를 쳐들어 밟힌 자를 한 대 더 후려치고 말았다. 그러나 곧 정신이 돌아왔고, 그의 마음은 방금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두고 웃었다.

"용서하라." 그는 성이 나서 몸을 일으켜 앉은 밟힌 자에게 말했다. "용서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비유 하나를 들어 보라."

"먼 것들을 꿈꾸는 방랑자가 외딴길에서 뜻하지 않게 잠든 개를, 햇볕 아래 누워 있는 개를 발로 건드리면,"

"둘은 벌떡 일어나 죽일 듯한 원수처럼 서로에게 벌컥 대들지 않는가, 죽도록 놀란 이 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랬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개와 이 고독한 자가 서로 쓰다듬어 줄 뻔하지 않았던가! 둘 다…… 고독한 자들이 아닌가!"

"그대가 누구든," 밟힌 자가 여전히 성난 채로 말했다. "그대는 발로만이 아니라 그 비유로도 나를 짓밟는구나!"

"보라, 내가 개란 말이냐?" 그렇게 말하며 앉아 있던 자는 일어서서 늪에서 맨팔을 끌어냈다. 처음에 그는 늪의 사냥감을 노리고 숨어

기다리는 자들처럼, 몸을 숨기고 알아볼 수 없게 땅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차라투스트라가 놀라서 외쳤다. 맨팔 위로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당했는가? 가엾은 자여, 몹쓸 짐승에게 물렸는가?"

피 흘리는 자는 여전히 성이 난 채로 웃었다. "그대가 알 바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제 갈 길을 가려 했다.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영역이다. 묻고 싶은 자는 물어도 좋다. 그러나 얼간이에게는 좀처럼 대답해 주지 않을 테다."

"그대는 잘못 알고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동정하며 그를 붙들고 말했다. "그대는 잘못 알고 있다. 여기는 그대의 집이 아니라 나의 나라다. 내 나라에서는 누구도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대가 나를 무어라 부르든 상관없다. 나는 나여야만 하는 바로 그 자다. 나는 나 자신을 차라투스트라라 부른다."

"좋다! 저 위로 차라투스트라의 동굴에 이르는 길이 나 있다. 멀지 않으니, 내 곁에서 상처를 돌보지 않겠는가?"

"가엾은 자여, 그대는 이 삶에서 험한 일을 당했구나. 먼저 짐승이 그대를 물더니, 다음에는…… 인간이 그대를 밟았구나!"

그러나 밟힌 자는 차라투스트라의 이름을 듣자 딴사람이 되었다. "이게 웬일인가!" 그가 외쳤다. "이 한 인간, 곧 차라투스트라와, 피를 먹고 사는 저 한 짐승, 곧 거머리(Blutegel) 말고 이 삶에서 내가 아직 마음을 쓰는 자가 대체 **누가** 있단 말인가?"

"거머리 때문에 나는 낚시꾼처럼 이 늪가에 누워 있었고, 드리운 내 팔은 벌써 열 번이나 물렸는데, 이제 한결 멋진 고슴도치(Igel) 하나가 내 피를 물어 대는구나, 차라투스트라 자신이!"

"오, 행복이여! 오, 기적이여! 나를 이 늪으로 꾀어낸 오늘 이날은 찬양받을지어다! 오늘날 살아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팔팔한 부항은 찬양받을지어다, 양심의 큰 거머리 차라투스트라는 찬양받을지어다!"

밟힌 자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투스트라는 그의 말이 기뻤고, 섬세하고 경외에 찬 그 말투도 기뻤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가 손을 내밀며 물었다. "우리 사이에는 밝혀야 할 것도, 개어야 할 것도 많다. 그러나 벌써 맑게 갠 환한 낮이 밝아 오는 듯하다."

물음을 받은 자가 대답했다. "나는 **정신의 양심가**이고, 정신에 관한 일이라면 나보다 더 엄하게, 더 깐깐하게, 더 가혹하게 다루는 자는 좀처럼 없으니, 내가 그것을 배운 이, 곧 차라투스트라 자신을 빼고는 말이다."

"많은 것을 어설프게 아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겠다! 남의 생각대로 현자가 되느니 차라리 제 뜻대로 바보가 되겠다! 나는…… 바닥까지 파고든다."

"그 바닥이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냐? 늪이라 불리든 하늘이라 불리든? 한 뼘 바닥이면 내게는 넉넉하다. 그것이 정말로 딛고 설 수 있는 바닥이기만 하다면!"

"한 뼘 바닥, 그 위에는 설 수 있다. 올바른 양심의 학문(Wissen-Gewissenschaft)에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그렇다면 그대는 혹시 거머리를 인식하는 자인가?" 차라투스트라가 물었다. "그래서 거머리를 그 마지막 바닥까지 뒤쫓는가, 그대 양심가여?"

"오, 차라투스트라여." 밟힌 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엄청난 일일 텐데, 내 어찌 감히 그런 일에 손을 대겠는가!"

"내가 대가로서 속속들이 아는 것은 거머리의 **뇌**다. 그것이 **나의** 세계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세계다! 여기서 내 긍지가 입을 여는 것을 용서하라. 이 분야에서는 나와 견줄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는 내 집이다' 하고 말했다."

"이 한 가지, 거머리의 뇌를 뒤쫓은 지 벌써 얼마나 되었던가. 미끌미끌한 진리가 여기서만은 더는 내게서 미끄러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기가 **나의** 나라다!"

"그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내던졌고 그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내게는 매한가지가 되었으니, 내 앎 바로 곁에는 나의 새카만 무지가 자리를 깔고 누워 있다."

"나의 정신의 양심은 내가 하나를 알고 나머지는 모두 모르기를 요구하니, 정신이 어설픈 자들, 흐리멍덩한 자들, 허공에 뜬 자들, 헛꿈에 들뜬 자들은 모두 역겹다."

"나의 정직이 끝나는 곳에서 나는 눈이 멀고, 또 눈이 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알고자 하는 곳에서는 정직하고자 한다. 곧 가혹하고, 엄격하고, 깐깐하고, 잔인하고, 가차 없고자 한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일찍이 **그대가** '정신이란 스스로 삶에 칼을 대는 삶이다' 하고 말한 것, 그 말이 나를 그대의 가르침으로 이끌었고, 이끌다 못해 홀려 들였다. 그리고 진실로, 나는 내 피로 내 앎을 늘렸다!"

"눈앞의 증거가 가르쳐 주는 대로다." 차라투스트라가 끼어들었다. 양심가의 맨팔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니, 거머리 열 마리가 그 팔을 물고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 그대 기이한 친구여, 여기 이 눈앞의 증거가, 곧 그대 자신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대의 엄격한 귀에 부어 넣어서는 아마 안 되리라!"

"좋다!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그러나 그대를 꼭 다시 만나고 싶다. 저 위로 내 동굴에 이르는 길이 나 있다. 오늘 밤 그대는 거기서 나의

반가운 손님이 되어라!"

"차라투스트라가 그대를 발로 짓밟은 일도 그대의 몸에 기꺼이 보상해 주고 싶으니,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 그러나 지금은 절박한 외침 하나가 나를 급히 그대에게서 불러낸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마술사

1

그런데 차라투스트라가 바위 하나를 돌아 나가자, 멀지 않은 아래쪽, 그가 가던 바로 그 길 위에서 한 인간이 미쳐 날뛰는 자처럼 팔다리를 마구 내두르다가 마침내 땅바닥에 엎어지며 고꾸라지는 것이 보였다. "가만!" 그때 차라투스트라가 제 마음에 대고 말했다. "저기 저자가 틀림없이 더 높은 인간이리라, 그 끔찍하게 절박한 외침도 그에게서 나왔으니, 도울 길이 있는지 가 보아야겠다." 그러나 그 인간이 쓰러져 있는 자리로 달려가 보니 눈이 멍하게 굳은 채 떨고 있는 늙은이 하나가 있었고, 차라투스트라가 그를 일으켜 다시 제 발로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게다가 이 불행한 자는 누가 곁에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고, 오히려 애처로운 몸짓으로 연신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으니, 그 모습이 꼭 온 세상에게 버림받아 외톨이가 된 자 같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참을 떨고 경련하고 몸을 옹송그려 비틀던 끝에, 그는 이렇게 탄식하기 시작했다.

누가 나를 덥혀 주는가, 누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가?
뜨거운 손을 다오!
가슴의 화로를 다오!
사지를 뻗고 쓰러져, 몸서리치며,
남이 발을 덥혀 주는 반송장처럼,
아! 알 수 없는 열병에 흔들리며,
뾰족하고 얼음 같은 서릿발 화살 앞에 떨며,
그대에게 쫓기며, 생각이여!
이름 부를 수 없는 자여! 너울에 가린 자여! 소름 끼치는 자여!
구름 뒤의 사냥꾼이여!
그대의 번개에 맞아 쓰러져,
어둠 속에서 나를 쏘아보는 그대 비웃는 눈이여,
이렇게 나는 누워,
몸을 구부리고, 몸을 비틀며, 시달린다,
영원한 온갖 고문에,
꿰뚫린 채,
그대에게, 가장 잔인한 사냥꾼이여,
그대 알 수 없는…… 신이여!

더 깊이 쏘아라,
한 번 더 쏘아 맞혀라!
이 가슴을 찔러라, 부숴라!
이 고문은 무엇 하자는 것이냐,
이 빠져 무뎌진 화살로?
어찌하여 또 바라보느냐,
인간의 고역에 지치지도 않고,
고소해하는 신들의 번개 눈으로?
그대는 죽이려 하지 않고,
고문만, 고문만 하려느냐?
무엇 하러…… **나를** 고문하느냐,
고소해하는 알 수 없는 신이여?

하하! 그대가 살금살금 다가오느냐?
이런 한밤중에
무엇을 원하느냐? 말하라!
그대는 나를 떠밀고, 짓누른다……
하! 벌써 너무 가깝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대는 내 숨소리를 듣고,
내 가슴을 엿듣는다,
그대 질투하는 자여……
대체 무엇을 질투하느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다리는 왜 놓느냐?
그대가 안으로 들어오려느냐,
가슴속으로,
넘어 들어오려느냐, 나의 가장 은밀한
생각 속으로 넘어 들어오려느냐?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여! 알 수 없는…… 도둑이여!
무엇을 훔쳐 얻으려느냐,
무엇을 엿들어 얻으려느냐,
무엇을 고문해 얻으려느냐,
그대 고문관이여!
그대…… 망나니 신이여!
아니면 내가 개처럼
그대 앞에 뒹굴어야 하느냐?
몸을 내맡기고, 넋을 잃고 들떠서,
그대에게…… 사랑의 꼬리를 흔들어야 하느냐?

소용없다!
계속 찔러라,
가장 잔인한 가시여! 아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그대의 사냥감일 뿐이다,
가장 잔인한 사냥꾼이여!
그대의 가장 긍지 높은 포로다,
구름 뒤의 강도여……
이제는 말하라,
노상강도여,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번개의 너울에 가린 자여! 알 수 없는 자여! 말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알 수 없는 신이여?

무어라?
몸값?
몸값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많이 요구하라, 내 긍지가 그렇게 권한다!
그리고 짧게 말하라, 내 또 다른 긍지가 그렇게 권한다!

하하!
나를…… 원하느냐? 나를?
나를…… 통째로?

하하!
그러고도 나를 고문하느냐, 그대 바보여,
내 긍지를 짓이겨 고문하느냐?
내게 **사랑**을 다오, 누가 아직 나를 덥혀 주는가?
누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가? 뜨거운 손을 다오,
가슴의 화로를 다오,
가장 고독한 나에게 다오,
얼음이, 아! 일곱 겹 얼음이
원수마저,
원수마저 애타게 그리도록 가르치는 이 나에게,
다오, 그래, 송두리째 내어 다오,
가장 잔인한 원수여,
나에게…… **그대를**!……

가 버렸다!
그마저 달아났다,
나의 마지막 하나뿐인 동무,
나의 크나큰 원수,
나의 알 수 없는 자,
나의 망나니 신이!……

아니다!
돌아오라,
그대의 온갖 고문을 가지고!
모든 고독한 자 가운데 마지막 자에게로
오, 돌아오라!
내 눈물의 시냇물은 모두
그대에게로 흘러간다!

그리고 내 가슴의 마지막 불꽃은
그대를 향해 타오른다!
오, 돌아오라,
나의 알 수 없는 신이여! 나의 아픔이여!
나의 마지막 행복이여!

2

그러나 여기서 차라투스트라는 더는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집어 들더니, 탄식하는 자를 온 힘을 다해 후려치기 시작했다. "그만두어라!" 그는 노기 서린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소리쳤다. "그만두어라, 이 배우여! 이 위폐범이여! 뼛속까지 거짓말쟁이여! 내 그대를 똑똑히 알아보겠다!"

"이 고약한 마술사여, 그대의 다리를 내가 뜨끈하게 덥혀 주마. 그대 같은 자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주는 일이라면 내가 잘 안다!"

"그만하라." 늙은이가 땅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더는 때리지 마라, 오, 차라투스트라여! 나는 그저 장난으로 그래 보았을 뿐이다!"

"이런 것도 내 재주에 속하니, 그대에게 시범을 보이면서 나는 그대 자신을 시험해 보려 했다! 그리고 진실로, 그대는 나를 제대로 꿰뚫어 보았다!"

"그러나 그대도…… 그대 자신을 두고 작지 않은 시범을 내게 보여 주었다. 그대는 **단단하다**, 지혜로운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그대의 '진리들'로 단단히 후려치고, 그대의 몽둥이는 내게서…… **이** 진리를 억지로 받아 낸다!"

"아첨하지 마라." 차라투스트라가 여전히 흥분한 채 험악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뼛속까지 배우인 자여! 그대는 가짜다. 그런 그대가 입에

올리는 것이…… 진리라니!"

"공작 중의 공작이여, 허영의 바다여, 그대는 내 앞에서 **무엇을** 연기했느냐, 이 고약한 마술사여? 그대가 그런 모습으로 탄식할 때 나는 **누구를** 믿어야 했느냐?"

"정신의 참회자." 늙은이가 말했다. "**그자를** 나는 연기했다. 그대 자신이 언젠가 이 말을 지어냈지……"

"……시인이자 마술사, 곧 마침내 제 정신을 제 자신에게로 돌려 겨누는 자, 제 못된 앎과 떳떳하지 못한 양심 때문에 얼어 죽어 가는 변신한 자 말이다."

"그러니 순순히 털어놓아라.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가 내 재주와 거짓을 알아채기까지는 오래 걸렸다! 그대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받쳐 들었을 때, **그대는 믿었다**, 내 곤경을……"

"……나는 그대가 '사람들이 그를 너무 적게 사랑했다, 너무 적게 사랑했다!' 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대를 그만큼 속여 넘겼다는 것에 내 악의는 속으로 환호했다."

"그대는 나보다 더 섬세한 자들도 속였으리라." 차라투스트라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속이는 자들을 경계하지 않는다. 나는 조심성이 없어야만 **한다**. 내 운명이 그렇게 원한다."

"그러나 그대는…… 속여야만 **한다**. 그만큼은 나도 그대를 안다! 그대는 언제나 두 뜻, 세 뜻, 네 뜻, 다섯 뜻을 품어야 한다! 그대가 방금 털어놓은 것도 내게는 참되기에도 한참 모자라고 거짓되기에도 한참 모자랐다!"

"이 고약한 위폐범이여, 그대가 어찌 달리 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의사에게 알몸을 내보일 때조차 제 병에 분칠을 하리라."

"방금 그대가 '나는 **그저** 장난으로 그래 보았을 뿐이다!' 하고 말했을 때도, 그대는 그렇게 내 앞에서 제 거짓에 분칠을 했다. 거기에는 **진심**도

들어 있었으니, 그대에게는 정신의 참회자다운 구석이 **있다**!"

"그대가 어떤 자인지 나는 넉넉히 짐작한다. 그대는 모든 사람에게 마법을 거는 자가 되었으나, 그대 자신에게 쓸 거짓과 꾀는 더는 남아 있지 않으니, 그대 자신에게는 그대의 마법이 풀려 버렸다!"

"그대는 역겨움을 그대의 단 하나뿐인 진리로 거두어들였다. 그대에게서 진짜인 말은 이제 한마디도 없으나, 그대의 입만은 진짜다. 곧 그대의 입가에 들러붙은 역겨움 말이다."

"대체 그대가 누구냐!" 이때 늙은 마술사가 오기 서린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날 살아 있는 가장 위대한 자인 **나에게** 감히 누가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고는 그의 눈에서 초록빛 번개가 차라투스트라를 향해 번쩍 쏘아졌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딴사람이 되어 서글프게 말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나는 이제 지쳤다. 내 재주들이 역겹다. 나는 **위대하지** 않다. 무엇 하러 꾸며 대겠는가! 그러나 그대도 잘 알다시피…… 나는 위대함을 찾았다!"

"나는 위대한 인간을 연기하려 했고 많은 자를 구슬려 믿게 했다. 그러나 이 거짓은 내 힘에 부쳤다. 이 거짓에 나는 부서진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내게 있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나 내가 부서진다는 것, 나의 이 부서짐만은 **진짜**다!"

"그것은 그대의 영예다." 차라투스트라가 어두운 얼굴로 옆쪽 아래로 눈길을 떨군 채 말했다. "그대가 위대함을 찾았다는 것은 그대의 영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대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대는 위대하지 않다."

"이 고약한 늙은 마술사여,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지쳤고 그것을 '나는 위대하지 않다.' 하고 입 밖에 냈다는 것,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서 기리는 그대의 가장 좋고 가장 정직한 점이다."

"**그 점에서** 나는 그대를 정신의 참회자로 기린다. 비록 훅 불고 휙 지나갈 만큼 잠깐이었을지라도, 이 한순간만은 그대가…… 진짜였다."

"그런데 말해 보라, 그대는 여기 **나의** 숲과 바위 틈에서 무엇을 찾는가? 그리고 **내** 길에 드러누웠을 때, 그대는 내게서 무엇을 시험해 보려 했는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했느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고, 그의 두 눈은 번득였다. 늙은 마술사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시험했다고(versuchte)? 나는…… 찾을(suche) 뿐이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나는 진짜인 자, 올바른 자, 단순한 자, 뜻이 하나뿐인 자를, 온통 정직하기만 한 인간을, 지혜의 그릇을, 인식의 성자를, 위대한 인간을 찾는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정녕 모르는가? 나는 차라투스트라를 찾는다."

그러자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고, 차라투스트라는 제 안으로 깊이 가라앉아 마침내 두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이야기 상대에게로 돌아와 마술사의 손을 붙잡더니, 깍듯한 예의와 꾀바른 속셈을 가득 담아 말했다.

"좋다! 저 위로 길이 나 있고, 그 끝에 차라투스트라의 동굴이 있다. 그 안에서라면 그대가 찾고 싶은 자를 찾아도 좋다."

"그리고 나의 짐승들,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에게 조언을 구하라. 그들이 그대가 찾는 일을 도와주리라. 내 동굴은 크니까."

"물론 나 자신은…… 위대한 인간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무엇이 위대한지 알아보기에는 오늘날 가장 섬세한 자들의 눈마저 거칠다. 지금은 천민의 나라다."

"몸을 한껏 늘이고 부풀리는 자를 나는 이미 여럿 보았는데, 그럴 때면 군중은 '보라, 위대한 인간이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풀무가 다 무슨 소용이냐! 결국에는 바람이 빠져나간다."

"너무 오래 몸을 부풀린 개구리는 결국 터지고, 그러면 바람이 빠져나간다. 부어오른 자의 배를 찔러 주는 것, 나는 그것을 제법 쓸 만한 소일거리라 부른다. 소년들이여, 이 말을 들어라!"

"이 오늘은 천민의 것이다. 거기서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를 누가 아직 **알겠는가**! 거기서 누가 운 좋게 위대함을 찾아내겠는가! 오직 바보뿐이다. 바보들에게는 운이 따른다."

"그대가 위대한 인간들을 찾는다고, 이 기이한 바보여? 누가 그것을 그대에게 **가르쳤느냐**? 오늘이 그럴 때냐? 오, 이 고약한 찾는 자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위로받은 마음으로 웃으며 제 길을 계속 갔다.

퇴직

그러나 차라투스트라가 마술사에게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가던 길가에 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으니, 검은 옷차림에 여위고 창백한 얼굴을 한 키 큰 사내였다. **이자가** 그의 비위를 몹시 거슬렀다. "슬프다." 그는 제 마음에 대고 말했다. "저기 두건을 뒤집어쓴 비탄이 앉아 있구나, 내 보기에 성직자 부류다. **그런 자들이** 내 나라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저 마술사에게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또 다른 흑마술사와 길에서 마주쳐야 한단 말인가……"

"……손을 얹어 병을 고친다는 어느 요술사, 신의 은총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음침한 자, 악마나 물어 갔으면 싶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세상의 비방자 말이다!"

"그러나 악마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법이 없으니, 이 빌어먹을 난쟁이 절름발이는 언제나 너무 늦게 온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조바심치며 속으로 저주를 퍼붓고는 눈길을 돌린 채 검은 사내 곁을 슬그머니 빠져나갈 궁리를 했으나, 보라, 일은 딴판으로 흘러갔다. 바로 그 순간 앉아 있던 자가 벌써 그를 알아보았고, 뜻밖의 행운을 만난 자처럼 벌떡 일어나 차라투스트라에게로 곧장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대가 누구이든, 나그네여." 그가 말했다. "길 잃은 자를, 찾아 헤매는 자를, 여기서 자칫 해를 입기 쉬운 늙은이를 도와 다오!"

"이곳 세상은 내게 낯설고 멀며 사나운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는데, 나를 지켜 줄 수 있었을 자, 그 자신이 이제는 없다."

"나는 제 숲에 홀로 있느라 오늘날 온 세상이 아는 일을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한 성자이자 은자, 곧 마지막 경건한 인간을 찾고 있었다."

"오늘날 온 세상이 **무엇을** 안다는 말인가?" 차라투스트라가 물었다. "혹시 온 세상이 한때 믿었던 옛 신이 이제 더는 살아 있지 않다는 것 말인가?"

"그대가 말하였도다." 노인이 침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이 옛 신을 그의 마지막 시간까지 섬겼다."

"그러나 이제 나는 퇴직한 몸이니, 섬길 주인은 없는데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고, 추억에 잠길 때가 아니면 한시도 즐겁지 않다."

"그래서 나는 늙은 교황이자 교부에게 걸맞은 축제를 마침내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베풀어 보려고 이 산에 올라왔으니, 알아 두라, 나는 마지막 교황이다! 경건한 추억과 예배로 드리는 축제 말이다."

"그런데 이제 가장 경건한 인간, 노래하고 웅얼거리며 제 신을 쉼 없이 찬양하던 숲속의 그 성자마저 죽고 없다."

"그의 오두막을 찾아냈을 때 그는 이미 없었고, 대신 늑대 두 마리가 그 안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고 있었으니, 모든 짐승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도망쳐 나왔다."

"그렇다면 나는 헛되이 이 숲과 산에 왔단 말인가? 그때 내 마음은 다른 한 사람을, 신을 믿지 않는 모든 자 가운데 가장 경건한 자를 찾기로, 차라투스트라를 찾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제 앞에 선 자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차라투스트라는 늙은 교황의 손을 붙잡더니 감탄하며 오랫동안 그 손을 들여다보았다.

"이것 보라, 그대 존귀한 자여." 그가 이윽고 말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긴 손인가! 언제나 축복을 나누어 주던 자의 손이로구나. 그런데 이제 이 손이 그대가 찾는 자를, 곧 나 차라투스트라를 붙들고 있다."

"내가 바로 그 신 없는 차라투스트라다. '누가 나보다 더 신이 없는가? 그런 자가 있다면 나는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뻐하리라.' 하고 말하는 자 말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늙은 교황의 생각과 그 생각 뒤에 숨은 생각까지 눈빛으로 꿰뚫었다. 마침내 교황이 입을 열었다.

"그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온전히 소유했던 자가, 이제는 그를 가장 크게 잃기도 했다……"

"……보라, 우리 둘 가운데 이제는 아마 나 자신이 더 신 없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누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마지막까지 그를 섬겼으니," 깊은 침묵 끝에 차라투스트라가 생각에 잠겨 물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않는가? 사람들 말처럼, 동정이 그의 목을 졸랐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가 **인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인간을 향한 사랑이 그의 지옥이 되고 마침내 그의 죽음이 된 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나 늙은 교황은 대답하지 않고, 아프고 어두운 얼굴로 겁먹은 듯 옆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를 떠나보내라." 한참 생각에 잠겼던 차라투스트라가 여전히 노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를 떠나보내라, 그는 가 버렸다. 그대가 이 죽은 자를 두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그대에게 영예가 되기는 하나, 그대도 나 못지않게 그가 **누구**였는지 알고, 그가 기이한 길을 걸었다는 것도 안다."

"우리 세 눈끼리만 하는 말인데." 늙은 교황이 흥이 나서 말했다(그는 한쪽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차라투스트라 자신보다 더 깨어 있고, 또 그래도 된다."

"나의 사랑은 오랜 세월 그를 섬겼고, 나의 의지는 그의 모든 의지를 좇아갔다. 그런데 좋은 종은 모든 것을 알며, 제 주인이 스스로에게조차 숨기는 것도 여러 가지 안다."

"그는 스스로 숨는 신, 은밀함으로 가득한 신이었다. 진실로, 그는 아들 하나를 얻는 데조차 샛길로 몰래 숨어드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신앙의 문간에는 간음이 서 있다."

"그를 사랑의 신이라 찬양하는 자는 사랑 그 자체를 넉넉히 높이 여기지 않는다. 이 신은 심판자도 되려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보상과 보응의 저편에서 사랑한다."

"동방에서 온 이 신은 젊었을 때 모질고 복수심에 불탔으며, 제가 총애하는 자들을 즐겁게 하려고 지옥을 지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늙고 물러지고 푸석푸석해지고 동정심이 많아져서,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를 더 닮았고, 무엇보다도 비틀거리는 늙은 할머니를 가장 많이 닮았다."

"그렇게 그는 시든 채 난롯가 구석에 앉아 약한 다리를 한탄하며 세상에 지치고 의지에 지쳐 지내다가, 어느 날 너무나 큰 제 동정에 숨이 막혀 죽었다."

"그대 늙은 교황이여." 이때 차라투스트라가 끼어들었다. "그대는 **그것을** 제 눈으로 보았는가? 일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그리고** 달리도. 신들이 죽을 때는 언제나 여러 가지 죽음을 죽는다."

"그러나 좋다! 이렇든 저렇든,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든, 그는 가버렸다! 그는 내 귀와 내 눈의 취향에 거슬렸다. 그보다 더 나쁜 말은 그를 두고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랑하노라, 밝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말하는 모든 것을. 그러나 그는…… 그대도 알다시피, 그대 늙은 성직자여, 그에게는 그대 같은 부류의 무언가가, 성직자 부류의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는 뜻이 여러 갈래였다."

"그는 뜻이 흐릿하기도 했다. 우리가 자기를 잘못 알아들었다고, 이 씩씩대는 분노꾼은 우리에게 얼마나 노여워했던가! 그런데 그는 왜 좀 더 깔끔하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탓이 우리 귀에 있었다면, 왜 그는 자기 말을 잘못 알아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우리 귀에 진흙이 들어 있었다면, 좋다! 누가 그것을 넣었는가?"

"이 토기장이는 배움을 다 마치지 못해서 너무 많은 것을 망쳤다! 그런데 자기가 빚은 그릇과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 제 손에서 잘못 빚어져 나왔다고 해서 그것들에게 복수했다는 것, 그것은 **좋은 취향**을 거스르는 죄였다."

"경건에도 좋은 취향이 있으니, 그 취향이 마침내 말했다. '**그런** 신은 치워 버려라! 차라리 신이 없는 편이 낫다, 차라리 제 손으로 운명을 짓는 편이, 차라리 바보가 되는 편이, 차라리 스스로 신이 되는 편이 낫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때 늙은 교황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말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런 불신앙을 품고 있다니, 그대는 그대가 믿는 것보다 더 경건하구나! 그대 안의 어떤 신이 그대를 그대의 신 없음으로 개종시켰다."

"그대가 더는 어떤 신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대의 경건함 그 자체가 아닌가? 그리고 그대의 지나치게 큰 정직은 그대를 선과 악의 저편으로까지 데려가 버리리라!"

"그런데 보라, 그대 몫으로 무엇이 아껴 남겨져 있었는가? 그대에게는 영원 전부터 축복하도록 예정된 눈과 손과 입이 있다. 사람은 손만으로 축복하지 않는다."

"그대가 가장 신 없는 자가 되려 한다 해도, 그대 곁에서 나는 오랜 축복에서 풍겨 나는 은밀한 분향 내음과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니, 그 냄새에 내 마음은 좋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단 하룻밤만 그대의 손님이 되게 해 다오! 이제 이 땅 어디에서도 그대 곁보다 더 편안한 곳은 없다!"

"아멘! 그리될지어다!" 차라투스트라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저 위로 길이 나 있고, 그 끝에 차라투스트라의 동굴이 있다."

"진실로, 그대 존귀한 자여, 나는 경건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니 내가 직접 그대를 그리로 기꺼이 데려다주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절박한 외침 하나가 나를 급히 그대에게서 불러낸다."

"내 영역 안에서는 누구도 해를 입어서는 안 되니, 내 동굴은 좋은 항구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슬퍼하는 자를 누구든 다시 든든한 땅 위에, 든든한 두 다리로 세워 주고 싶다."

"그러나 **그대의** 우울을 누가 그대의 어깨에서 내려 줄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 약하다. 진실로, 누군가 그대의 신을 다시 깨워 일으켜 줄 때까지 우리는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리라."

"이 옛 신은 더는 살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속속들이 죽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추한 인간

그리고 다시 차라투스트라의 두 발은 산과 숲을 누비며 달렸고 그의 두 눈은 찾고 또 찾았으나, 그 눈이 보고자 하던 자, 크나큰 곤경에 빠져 절박하게 외치던 그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는 길 내내 그는 마음속으로 환호했고 감사했다. "고약하게 시작한 보상으로 이 하루는 내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선사했는가!" 그가 말했다. "얼마나 기이한 이야기 상대들을 만났는가!"

"이제 나는 그들의 말을 좋은 낟알처럼 오래도록 씹으련다. 내 이가 그것을 잘게 갈고 가루 내리라, 그것이 젖처럼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 때까지!"

그러나 길이 다시 바위 하나를 돌아 굽어지자 풍경이 단번에 바뀌었고, 차라투스트라는 죽음의 나라로 들어섰다. 이곳에는 검고 붉은 벼랑들이 뻣뻣하게 치솟아 있을 뿐, 풀도 나무도 새소리도 없었다. 이곳은 모든 짐승이, 심지어 맹수들마저 피해 다니는 골짜기였으니, 다만 흉하고 굵은 초록빛 뱀의 한 종류만이 늙으면 죽으려고 이리로 찾아오곤 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골짜기를 '뱀의 죽음'이라 불렀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검은 기억 속으로 가라앉았으니, 언젠가 이 골짜기에 서 본 적이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무거운 것들이 잔뜩 그의 마음 위에 내려앉아서, 그는 천천히, 점점 더 천천히 걷다가 마침내 멈춰 섰다. 그런데 눈을 떠 보니 길가에 무언가가 앉아 있었으니, 인간처럼 생겼으나 인간이라 하기도 어려운,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러자 그런 것을 제 눈으로 쳐다보았다는 크나큰 부끄러움이 단번에 차라투스트라를 덮쳤고, 그는 하얀 머리털 뿌리까지 얼굴이 붉어진 채 눈길을 돌리고는 이 몹쓸 자리를 떠나려고 발을 들었다. 그러나 그때 죽은 황야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 땅바닥에서 무언가가 꾸르륵거리고 그르렁거리며 솟아올랐는데, 밤에 막힌 수도관을 지나는 물이 꾸르륵거리고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인간의 목소리가 되고 인간의 말이 되었는데, 그 말은 이러했다.

"차라투스트라여! 차라투스트라여! 내 수수께끼를 풀어 보라! 말하라, 말하라! **증인에게 하는 복수**란 무엇이냐?"

"나는 그대를 도로 꾀어 들인다. 여기는 미끄러운 얼음판이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대의 긍지가 여기서 다리를 부러뜨리지나 않는지!"

"그대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구나, 긍지 높은 차라투스트라여! 그렇다면 어디 수수께끼를 풀어 보라, 이 단단한 호두까기여, 바로 나라는 수수께끼를! 어디 말해 보라, **나는** 누구냐!"

그러나 차라투스트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대들은 그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리라 생각하는가? 동정이 그를 덮쳤다. 그러자 그는 숱한 나무꾼에게 오래도록 버텨 온 떡갈나무처럼, 그를 베어 넘기려던 자들마저 소스라치게 할 만큼 무겁고 느닷없이, 단번에 쓰러졌다. 그러나 그는 벌써 다시 땅에서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단단해졌다.

"나는 그대를 똑똑히 알아보겠다." 그가 청동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신을 죽인 자다! 나를 가게 해 다오."

"그대는 **그대를** 본 자를, 언제나 그대를 속속들이 꿰뚫어 본 자를 **견디지** 못했다, 가장 추한 인간이여! 그대는 이 증인에게 복수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으나, 형언할 수 없는 자가 그의 옷자락 한끝을 붙잡더니 다시 그르렁거리며 말을 찾기

시작했다. "머물러라!" 마침내 그가 말했다……

"……머물러라! 그냥 지나쳐 가지 마라! 어떤 도끼가 그대를 땅바닥에 쓰러뜨렸는지 나는 알아맞혔다. 복되도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가 다시 일어섰으니!"

"나는 잘 안다, 그대는 그를 죽인 자, 곧 신을 죽인 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알아맞혔다. 머물러라! 여기 내 곁에 앉아라, 헛일이 되지는 않으리라."

"그대가 아니라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려 했겠는가? 머물러라, 앉아라! 그러나 나를 쳐다보지는 마라! 그렇게…… 나의 추함을 존중해 다오!"

"그들이 나를 쫓는다. 이제 **그대가** 나의 마지막 피난처다. 그들이 미움으로 쫓는 것이 **아니다**, 몰이꾼을 풀어 쫓는 것도 **아니다**. 오, 그런 쫓김이라면 나는 비웃어 주고 긍지에 차서 기뻐하리라!"

"지금까지 모든 성공은 잘 쫓긴 자들의 몫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잘 쫓는 자는 **쫓는** 법도 쉽게 배우니, 어차피 그는 이미…… 뒤에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들의 **동정**, 그것이……"

"……그들의 동정, 그것을 피해 나는 달아나고 그대에게로 피신한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나를 지켜 다오, 나의 마지막 피난처여, 나를 알아맞힌 단 한 사람이여……"

"……그대는 **그를** 죽인 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알아맞혔다. 머물러라! 그래도 가려거든, 이 참을성 없는 자여, 내가 온 길로는 가지 마라. **그** 길은 나쁘다."

"내가 벌써 너무 오래 지껄이고 지절대고 말을 짓찧어서 화가 나는가? 벌써 그대에게 훈수를 두어서? 그러나 알아 두라, 나는 가장 추한 인간이니……"

"……발도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자다. **내가** 걸어간 곳은 길이 나빠진다. 나는 모든 길을 밟아 죽이고, 밟아 망쳐 놓는다."

"그러나 그대가 말없이 나를 그냥 지나쳐 간 것, 그대가 얼굴을 붉힌 것, 나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것을 보고 그대가 차라투스트라임을 알아보았다."

"다른 누구였더라도 제 적선을, 제 동정을 눈길과 말에 담아 내게 던져 주었으리라. 그러나 그것을 받기에는…… 나는 넉넉히 거지답지 못하다. 그대는 그것을 알아맞혔다……"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 **부유하다**. 크나큰 것으로, 무서운 것으로, 가장 추한 것으로, 가장 형언할 수 없는 것으로 부유하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의 부끄러움이 나를 **존중해** 주었다!"

"나는 동정하는 자들의 북새통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으니, 오늘날 '동정은 주제넘게 파고든다'고 가르치는 단 한 사람,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를 찾아내려고!"

"……신의 동정이든 인간들의 동정이든, 동정은 부끄러움을 거스른다. 그리고 도우려 하지 않음이 냉큼 달려드는 저 덕보다 더 고귀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작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동정이 덕 그 자체로 통하니, 그들은 크나큰 불행 앞에서도, 크나큰 추함 앞에서도, 크나큰 실패작 앞에서도 경외할 줄 모른다."

"나는 이 모든 자들 너머를 내다본다, 개가 우글거리는 양 떼의 등 너머를 내다보듯이. 그들은 작고, 털이 복슬복슬하고, 양순한 잿빛 자들이다."

"왜가리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얕은 못 너머를 경멸하며 내다보듯이, 나도 그렇게 잿빛의 작은 물결과 의지와 영혼들이 우글거리는 그 너머를 내다본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 작은 자들의 말이 옳다고 해 주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에게 권력까지 쥐여 주었다. 이제 그들은

가르친다. '작은 자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이 좋다.'"

"그리고 오늘날 '진리'란 그들 가운데서 나온 설교자, 제 자신을 위하여 '내가…… 곧 진리다.' 하고 증거한 저 기이한 성자이자 작은 자들의 대언자가 한 말을 가리킨다."

"이 겸손할 줄 모르는 자는 벌써 오래전부터 작은 자들의 볏을 한껏 부풀려 세워 놓았으니, '내가…… 곧 진리다.' 하고 가르쳤을 때 결코 작지 않은 오류를 가르친 자가 바로 그다."

"겸손할 줄 모르는 자가 일찍이 이보다 더 정중한 대답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그대는,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를 그냥 지나쳐 가며 말했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그대는 그의 오류를 경고했고 동정을 경고한 첫 사람이었으니, 그것은 모두에게 한 경고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경고도 아닌, 그대 자신과 그대 같은 부류에게 한 경고였다."

"그대는 크게 고통받는 자의 부끄러움을 보고 부끄러워하니, 진실로, 그대가 '동정 쪽에서 크나큰 먹구름이 몰려온다, 인간들이여, 조심하라!' 하고 말할 때……"

"……그대가 '창조하는 자들은 모두 단단하다, 모든 크나큰 사랑은 제 동정보다도 더 높이 있다.' 하고 가르칠 때, 오, 차라투스트라여, 내 보기에 그대는 날씨의 징조를 참으로 잘도 익혔구나!"

"그러나 그대 자신도…… **그대의** 동정을 경계하라! 많은 자가 그대에게로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물에 빠져 가는 자들, 얼어 가는 자들이……"

"나는 나 자신도 경계하라고 그대에게 이른다. 그대는 나의 가장 좋고도 가장 고약한 수수께끼를, 나 자신과 내가 한 짓을 알아맞혔다. 나는 그대를 베어 넘기는 도끼를 안다."

"그러나 그는…… 죽어야만 **했으니**, 그는 **모든 것을** 보는 눈으로 보았고, 인간의 깊은 곳과 밑바닥을, 인간이 숨겨 온 모든 치욕과 추함을 보았다."

"그의 동정은 부끄러움을 몰라서, 나의 가장 더러운 구석구석까지 기어들어 왔다. 이 더없이 호기심 많은 자, 지나치게 파고드는 자, 지나치게 동정하는 자는 죽어야만 했다."

"그는 언제나 **나를** 보았으니, 그런 증인에게 나는 복수하려 했고, 그러지 못할 바에야 나 자신이 살지 않으려 했다."

"모든 것을, **인간까지도** 본 신, 이 신은 죽어야만 했다! 인간은 그런 증인이 살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가장 추한 인간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몸을 일으켜 떠날 채비를 했으니, 오장육부까지 오싹 한기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대 형언할 수 없는 자여." 그가 말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조심하라고 내게 일러 주었다. 그 답례로 나는 그대에게 나의 길을 권하마. 보라, 저 위에 차라투스트라의 동굴이 있다."

"내 동굴은 크고 깊으며 구석이 많아서, 가장 깊이 숨는 자도 거기서 제 숨을 곳을 찾는다. 그리고 동굴 바로 곁에는 기어 다니고, 날개를 퍼덕이고,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위한 틈새와 샛길이 백 개나 있다."

"스스로 제 몸을 내쫓은, 쫓겨난 자여, 그대는 인간들 틈에서, 인간의 동정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가? 좋다, 그렇다면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그대도 내게서 배우리라. 오직 행하는 자만이 배운다."

"그리고 맨 먼저, 그리고 맨 가까이에서 나의 짐승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라! 가장 긍지 높은 짐승과 가장 슬기로운 짐승, 그들이야말로 우리 둘에게 알맞은 조언자가 되어 주리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전보다 더 생각에 잠겨 더 느린 걸음으로 제 갈 길을 갔으니,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많은데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얼마나 가련한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그르렁거리고, 얼마나 숨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가!"

"사람들은 내게 인간이 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아, 이 자기 사랑은 얼마나 커야 하는가! 이 사랑이 맞서야 할 경멸은 얼마나 많은가!"

"저자도 제 자신을 경멸한 만큼 제 자신을 사랑했으니, 내게 그는 크게 사랑하는 자요 크게 경멸하는 자다."

"자기 자신을 이보다 더 깊이 경멸한 자를 나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그것**도 높이다. 슬프다, 혹시 **저자가** 내가 들은 그 외침의 주인, 더 높은 인간이었던가?"

"나는 사랑하노라, 크게 경멸하는 자들을. 그러나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스스로 거지가 된 자

차라투스트라는 가장 추한 인간과 헤어지고 나자 한기가 들고 외로웠으니, 차갑고 외로운 것들이 잔뜩 그의 마음속을 스쳐 갔고 그 탓에 팔다리마저 더 차가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오르락내리락 자꾸만 걸음을 옮겨, 푸른 초장 곁을 지나기도 하고 예전에 성미 급한 시냇물이 잠자리를 폈음 직한 거친 돌밭을 넘기도 하는 사이, 문득 마음이 다시 따뜻하고 훈훈해졌다.

"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따뜻하고 살아 있는 무언가가 나를 소생시킨다. 그것이 내 가까이에 있음이 틀림없다."

"벌써 나는 아주 혼자는 아니다. 저도 모르게 길동무요 형제가 된 것들이 내 주위를 서성이고, 그들의 따뜻한 숨결이 내 영혼에 와 닿는다."

그러나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제 고독을 위로해 줄 이들을 찾아보니, 보라, 그것은 언덕 위에 옹기종기 모여 선 암소들이었고, 그의 마음을 데워 준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이 암소들과 그 냄새였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말하는 누군가에게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듯했고, 다가오는 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차라투스트라가 바로 곁까지 다가가자 암소들 한가운데서 인간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이 똑똑히 들렸고, 보아하니 암소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이에게로 머리를 돌리고 있었다.

그러자 차라투스트라는 부리나케 뛰어 올라가 짐승들을 헤치고 들어갔으니, 여기서 누군가 변을 당했는데 암소들의 동정으로는 그를 도무지 구해 줄 수 없으리라 싶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다. 보라, 거기에는 한 인간이 땅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짐승들에게 자기를 겁내지 말라고 타이르는 듯했고, 화평케 하는 자요 산상 설교자인 그의 눈에서는 자애 그 자체가 설교하고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찾는가?" 차라투스트라가 의아해하며 외쳤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찾느냐고?" 그가 대답했다. "그대가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훼방꾼이여! 곧 이 땅 위의 행복이다."

"그러려고 나는 이 암소들에게서 배우고 싶다. 그대도 알겠지만, 나는 벌써 반나절이나 이들을 타일러 왔고, 이들은 막 내게 대답을 들려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들을 방해하는가?"

"우리가 돌이켜 암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1]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워 익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곧 되새김질이다."

"진실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한 가지, 곧 되새김질을 배우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제 시름을 떨쳐 내지 못하리라……"

"……제 크나큰 시름을. 그런데 그 시름은 오늘날 **역겨움**이라 불린다. 오늘날 역겨움으로 마음과 입과 눈이 가득 차 있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대도 그렇다! 그대도! 그러나 이 암소들을 좀 보라!"

산상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때까지 사랑에 겨워 암소들에게만 매달려 있던 제 눈길을 비로소 차라투스트라에게 돌렸는데, 그러자 그의 모습이 확 달라졌다. "내가 지금 말을 건네는 이가 누구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외치며 땅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는 역겨움 없는 인간이요, 이는 크나큰 역겨움을 극복한 자 차라투스트라 그 자신이요, 이는 차라투스트라 그 자신의 눈이요, 이는

입이요, 이는 마음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이 넘쳐흐르는 눈으로 자기가 말을 건네던 이의 두 손에 입을 맞추었는데, 하는 짓이 영락없이 값진 선물과 보배가 뜻밖에 하늘에서 제게로 떨어진 사람 같았다. 암소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의아해했다.

"내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대 별난 자여! 사랑스러운 자여!" 차라투스트라가 그의 다정한 몸짓을 막으며 말했다. "먼저 그대 이야기부터 들려 다오! 그대는 한때 막대한 부를 내던져 버린 스스로 거지가 된 자가 아닌가……"

"……제 부를 부끄러워하고 부자들을 부끄러워한 나머지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로 달아나, 그들에게 제 풍요와 제 마음을 선사하려 했던 자가 아닌가? 그러나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스스로 거지가 된 자가 말했다. "그대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마침내 짐승들에게로, 이 암소들에게로 갔다."

"그때 그대는 배웠구나." 차라투스트라가 그의 말허리를 끊었다. "제대로 주는 것이 제대로 받는 것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지, 그리고 잘 베푸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요, 자애가 부리는 마지막 기술, 가장 교활한 명인의 기술이라는 것을."

"요즘은 더더욱 그렇다." 스스로 거지가 된 자가 대답했다. "오늘날에는 비천한 것이 모두 들고일어났으니, 겁은 많으면서도 제 나름으로 교만해졌다. 곧 천민답게 교만해졌다."

"그대도 알다시피, 크고 고약하고 길고 느린 천민과 노예의 반란이 일어날 때가 이르렀으니, 그 반란은 자라고 또 자란다!"

"이제 비천한 자들은 온갖 선행과 자잘한 베풂에 분개하니, 넘치게 부유한 자들은 조심하는 게 좋으리라!"

"오늘날 배불뚝이 병처럼 너무 좁은 목으로 찔끔찔끔 흘려 내는 자가 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병의 목을 즐겨 부러뜨린다."

"음탕한 탐욕, 쓸개즙 같은 시기, 비탄에 찌든 복수심, 천민의 긍지, 이 모든 것이 내 얼굴로 달려들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이제 참이 아니다. 천국은 도리어 암소들 곁에 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찌하여 부자들 곁에는 없느냐?" 차라투스트라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살갑게 콧김을 불어 대는 암소들을 밀어내면서 시험하듯 물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대 자신이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느냐. 오, 차라투스트라여, 무엇이 나를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로 몰아갔겠느냐? 우리네 가장 부유한 자들에게 느낀 역겨움이 아니었더냐?"

"……차가운 눈과 음란한 생각을 품고 온갖 쓰레기 더미에서 제 잇속을 주워 챙기는 부의 죄수들에게 느낀 역겨움, 하늘에까지 악취를 풍기는 이 잡배에게 느낀 역겨움……"

"……아비들이 소매치기나 송장 뜯는 새나 넝마주이였고, 고분고분하고 음탕하고 잘 잊어버리는 여자들을 거느린, 금칠을 한 이 가짜 천민에게 느낀 역겨움이었다. 하긴 그 여자들이란 하나같이 창녀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위에도 천민, 아래에도 천민! 오늘날 '가난하다'느니 '부유하다'느니 하는 것이 다 무엇이냐! 나는 이 둘을 가르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달아났다, 멀리, 더욱더 멀리, 마침내 이 암소들에게 이를 때까지."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 자신도 콧김을 씩씩 내뿜고 땀을 흘렸으니, 그 바람에 암소들이 새삼 의아해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그가 그토록 모질게 말하는 내내 미소를 띤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러면서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모진 말을 쓰다니, 그대 산상 설교자여, 그대는 스스로 무리를 하고 있구나. 그대의 입도, 그대의 눈도 그렇게 모질라고 자라난 것이 아니다."

"내 보기에는 그대의 위장마저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다. **그 위장에는** 그런 온갖 성냄과 미워함과 끓어 넘침이 받지 않는다. 그대의 위장은 더 부드러운 것을 원한다. 그대는 푸주한이 아니다."

"내 보기에 그대는 오히려 풀을 먹고 사는 자, 뿌리를 먹고 사는 자다. 아마 그대는 낟알을 갈아 먹겠지. 그러나 분명 그대는 육체의 기쁨을 멀리하고 꿀을 사랑하리라."

"그대가 나를 잘 알아맞혔다." 스스로 거지가 된 자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대답했다. "나는 꿀을 사랑하고 낟알도 갈아 먹는다. 입에 달고 숨결을 맑게 해 주는 것을 나는 찾아다녔으니……"

"……오래 걸리는 것, 순한 게으름뱅이와 하루를 훔치는 자들에게 알맞은 일, 하루 품이 들고 입 품이 드는 일도 찾아다녔다."

"물론 가장 멀리 나아간 것은 이 암소들이다. 이들은 되새김질과 볕쬐며 드러눕기를 스스로 발명해 냈다. 또한 이들은 마음을 더부룩하게 하는 무거운 생각이라면 무엇이든 삼간다."

"좋다!"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그대는 **나의** 짐승들도 보아야 한다.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을. 오늘날 이 땅 위에는 그들 같은 것이 없다."

"보라, 저쪽으로 내 동굴에 이르는 길이 나 있다. 오늘 밤은 그들의 손님이 되어라. 그리고 나의 짐승들과 짐승들의 행복을 이야기하라……"

"……내가 몸소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지금은 절박한 외침 하나가 나를 급히 그대에게서 불러낸다. 내 집에 가면 새 꿀도, 얼음처럼 싱싱한 황금빛 벌집 꿀도 있으리라. 그것을 먹어라!"

"그러나 이제 그대의 암소들과 어서 작별하라, 그대 별난 자여! 사랑스러운 자여! 그대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그들은 그대의 가장 따뜻한 벗이요 스승이니!"

"……내가 그들보다 더 아끼는 하나만 빼고." 스스로 거지가 된 자가 대답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 자신이야말로 선하다, 암소보다도 더 선하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 고약한 아첨꾼이여!" 차라투스트라가 심술궂게 소리쳤다. "어찌하여 그런 칭찬과 아첨의 꿀로 나를 버려 놓으려 하느냐?"

"물러가라, 내게서 썩 물러가라!" 그는 다시 한번 소리치며 다정한 거지에게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러자 거지는 잽싸게 달아났다.

---

1.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개역한글)를 비튼 말이다.

그림자

그러나 스스로 거지가 된 자가 달아나 버리고 차라투스트라가 다시 홀로 남자마자 그의 등 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그 목소리는 이렇게 외쳤다. "멈춰라! 차라투스트라여! 좀 기다려 다오! 나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나, 그대의 그림자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기다리지 않았으니, 제 산속에 이토록 많은 자들이 몰려들어 북적대는 통에 갑자기 짜증이 치밀었기 때문이다. "내 고독은 어디로 갔는가?" 그가 말했다.

"진실로, 이건 내게 너무 벅차다. 이 산들이 우글거리니, 내 나라는 더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게는 새로운 산들이 필요하다."

"내 그림자가 나를 부른다고? 내 그림자가 다 무엇이냐! 뒤쫓아 오려면 오라지! 나는…… 그에게서 달아나련다."

차라투스트라는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하고 달아났다. 그러나 그의 뒤에 있던 자가 그를 뒤따랐으니, 이윽고 달리는 자 셋이 줄줄이 늘어서게 되었는데, 맨 앞에는 스스로 거지가 된 자가, 그다음에는 차라투스트라가, 그리고 셋째로 맨 끝에는 그의 그림자가 달렸다. 그렇게 얼마 달리지도 않아 차라투스트라는 제 어리석음을 퍼뜩 깨닫고는 몸을 한 번 홱 떨어 모든 짜증과 싫증을 털어 버렸다.

"아니!" 그가 말했다. "예로부터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들은 우리 늙은 은자와 성자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았던가?"

"진실로, 내 어리석음은 산속에서 높이도 자랐구나! 이제 늙은 바보 다리 여섯 개가 줄지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가 그림자 따위를 두려워해도 되겠는가? 게다가 따지고 보니 그자가 나보다 다리가 더 긴 것 같다."

차라투스트라는 눈으로도 오장육부로도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멈춰 서서 홱 돌아섰는데, 보라, 그 바람에 그는 제 뒤를 따르던 자이자 그림자를 하마터면 땅바닥에 넘어뜨릴 뻔했으니, 그림자는 벌써 그만큼 바싹 그의 발꿈치에 붙어 따라왔고 또 그만큼 허약했다. 차라투스트라는 눈으로 그를 찬찬히 뜯어보다가 난데없이 유령과 맞닥뜨린 듯 소스라치게 놀랐으니, 이 뒤따르는 자는 그토록 여위고 거무스름하고 속이 텅 비었으며, 제 명을 넘겨 살아 온 몰골이었다.

"그대는 누구냐?" 차라투스트라가 사납게 물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그대는 스스로를 나의 그림자라 부르느냐? 그대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용서해 다오." 그림자가 대답했다. "내가 그대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좋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 점에서 나는 그대를, 그대의 좋은 취향을 칭찬한다."

"나는 방랑자, 벌써 오래도록 그대의 발꿈치를 따라다닌 방랑자이니, 늘 길 위에 있으나 목표도 없고 집도 없어서 진실로 영원히 떠도는 유대인이 되기에 내게 모자란 것은 거의 없다. 내가 영원하지도 않고 유대인도 아니라는 점만 빼면."

"어찌 된 일인가? 나는 언제까지나 길 위에 있어야 하는가? 온갖 바람에 휘말려 맴돌며, 정처 없이, 떠밀려 가면서? 오, 대지여, 그대는 내게 너무 둥글어졌구나!"

"나는 이미 온갖 표면 위에 앉아 보았고 지친 먼지처럼 거울과 유리창 위에서 잠들었으니, 모든 것이 내게서 가져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나는 여위어 간다. 이제는…… 거의 그림자를 닮았다."

"그러나 오, 차라투스트라여, 누구보다 오래 나는 그대의 뒤를 날고 떠돌며 따라다녔고, 그대에게서 몸을 숨기기는 했어도 나는 그대의 가장 좋은 그림자였으니, 그대가 앉았던 곳이면 어디든 나도 앉았다."

"그대와 함께 나는 가장 멀고 가장 차가운 세계들을 떠돌았다. 스스로 원해서 겨울 지붕과 눈 위를 달리는 유령처럼."

"그대와 함께 나는 온갖 금지된 것, 가장 고약한 것, 가장 먼 것 속으로 파고들었으니, 내게 덕이라 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금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대와 함께 나는 내 마음이 일찍이 우러러 받든 것을 깨뜨렸고, 모든 경계석과 형상을 쓰러뜨렸으며, 가장 위험한 소원들을 뒤쫓았으니, 진실로, 나는 한때 온갖 범죄를 거침없이 뛰어넘었다."

"그대와 함께 나는 말과 가치와 위대한 이름들을 믿는 법을 잊어버렸다. 악마가 허물을 벗을 때 그의 이름도 함께 벗겨져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름도 허물이기 때문이다. 악마 자신도 어쩌면…… 허물이다."

"'참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가장 차가운 물속으로 나는 머리째, 마음째 뛰어들었다. 아, 그 때문에 얼마나 자주 나는 벌거벗은 채 새빨간 가재 꼴로 서 있었던가!"

"아, 모든 선한 것과 모든 부끄러움과 선한 자들에 대한 모든 믿음은 내게서 어디로 가 버렸는가! 아, 내가 한때 지녔던 그 거짓된 순진무구함, 선한 자들과 그들의 고귀한 거짓말이 지닌 그 순진무구함은 어디로 갔는가!"

"진실로, 나는 너무 자주 진리의 발꿈치에 바싹 붙어 따라갔다. 그러자 진리가 내 머리를 걷어찼다.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고 여겼는데, 보라!

그때 비로소 내가 맞힌 것은…… 진리였다."

"너무 많은 것이 내게 환히 밝혀졌다. 이제는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살아 있지 않으니, 어찌 내가 아직 나 자신을 사랑하겠는가?"

"'기쁨을 따라 살거나, 아예 살지 않거나.' 나는 그러기를 원하고, 가장 거룩한 자도 그러기를 원한다. 그러나 슬프다! **내게** 아직…… 기쁨이 있기나 한가?"

"**내게**…… 아직 목표가 있는가? **내** 돛이 달려갈 항구가 있는가?"

"좋은 바람이 있는가? 아,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만이 어떤 바람이 좋은 바람이요 제 순풍인지도 안다."

"내게 아직 무엇이 남았는가? 지치고 뻔뻔한 마음, 정처 없는 의지, 파닥이는 날개, 부러진 등뼈."

"**내** 집을 찾아 헤매는 이 일,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는가, 이 찾아 헤맴이야말로 **나를** 찾아온 재앙(Heimsuchung)이었으니,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다."

"'**내** 집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나는 묻고, 찾고, 찾아 헤맸으나, 그것을 찾지 못했다. 오, 영원한 어디에나여, 오, 영원한 어디에도 없음이여, 오, 영원한…… 헛됨이여!"

그림자는 이렇게 말했고, 그 말을 듣는 동안 차라투스트라의 얼굴은 점점 길어졌다. "그대가 나의 그림자로구나!" 마침내 그가 슬픔에 잠겨 말했다.

"그대가 처한 위험은 작지 않다, 그대 자유로운 정신이자 방랑자여! 그대는 고약한 하루를 보냈다. 이제 더 고약한 저녁이 그대에게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대처럼 정처 없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감옥마저 복된 곳으로 보인다. 붙잡힌 범죄자들이 어떻게 잠드는지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편안히 잠들고, 새로 얻은 안전을 누린다."

"마지막에 가서 좁은 믿음이, 단단하고 엄격한 망상이 그대를 붙잡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제는 좁고 굳건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를 꾀고 시험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목표를 잃었다. 슬프다, 이 잃음을 그대는 어떻게 웃어넘기고 어떻게 삭여 넘기려는가? 목표와 함께…… 그대는 길도 잃었다!"

"그대 가엾은 떠돌이여, 나풀대는 자여, 그대 지친 나비여! 오늘 저녁 쉴 곳과 머물 집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 동굴로 올라가라!"

"저쪽으로 내 동굴에 이르는 길이 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서둘러 그대에게서 달아나련다. 벌써 무언가가 그림자처럼 내 위에 드리워 있다."

"내 주위가 다시 밝아지도록 나는 홀로 달리련다. 그러려면 아직 한참 동안 즐겁게 두 다리로 뛰어다녀야 한다. 그러나 저녁이면 내 곁에서는…… 춤판이 벌어지리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오에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달리고 또 달렸는데, 더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홀로였고, 거듭거듭 자기 자신을 만났고, 제 고독을 누리며 홀짝홀짝 맛보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했다, 몇 시간이고. 그러나 정오의 시간 무렵, 해가 차라투스트라의 머리 바로 위에 떠 있을 때, 그는 늙고 굽고 옹이투성이인 나무 한 그루 곁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나무는 포도나무 한 그루의 넉넉한 사랑에 빙 둘러 안긴 채 제 자신에게조차 모습이 가려져 있었고, 거기서 노란 포도송이들이 방랑하는 자 앞으로 주렁주렁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자 그는 작은 목마름을 달래려고 포도 한 송이를 따고 싶어졌으나, 그러려고 벌써 팔을 뻗었을 때 그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으니, 곧 완전한 정오의 시간에 나무 곁에 드러누워 잠드는 일이었다.

차라투스트라는 그렇게 했고, 알록달록한 풀밭의 고요하고 은밀한 품속에서 땅바닥에 몸을 누이자마자 그는 벌써 작은 목마름을 잊고 잠이 들었다. 차라투스트라의 속담이 이르듯,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두 눈만은 뜬 채였으니, 나무를, 그리고 포도나무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리는 데 그 눈이 도무지 물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에 빠져들면서 차라투스트라는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고요히! 고요히! 세상이 방금 완전해지지 않았는가?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녀린 바람 한 줄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마루를 깐 듯 매끈한 바다 위에서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춤추듯이, 그렇게…… 잠이 내 위에서 춤춘다.

잠은 내 눈을 하나도 감기지 않고, 내 영혼을 깨어 있게 둔다. 잠은 가볍다, 진실로! 깃털처럼 가볍다.

잠은 나를 구슬린다. 어떻게? 나는 모르겠다. 잠은 어르는 손길로 내 속을 토닥이고, 나를 굴복시킨다. 그렇다, 잠은 나를 굴복시켜 내 영혼이 길게 몸을 뻗게 한다……

내 영혼은 얼마나 길게 늘어지고 지쳐 가는가, 나의 기이한 영혼은! 어느 일곱째 날의 저녁이 하필 정오에 찾아왔는가? 좋고 무르익은 것들 사이를 이미 너무 오래 복되게 거닐었는가?

내 영혼은 길게 몸을 뻗는다, 길게, 더 길게! 고요히 누워 있다, 나의 기이한 영혼은. 좋은 것을 벌써 너무 많이 맛보았으니, 이 금빛 슬픔이 영혼을 짓누르고, 영혼은 입을 비죽인다.

마치 가장 고요한 제 포구에 들어선 배와 같으니, 이제 그 배는 긴 항해에도, 알 수 없는 바다에도 지쳐 대지에 몸을 기댄다. 대지가 더 충실하지 않은가?

그런 배가 뭍에 닿아 뭍에 살며시 안기면, 거미 한 마리가 뭍에서 배까지 제 실을 자아 이어 주기만 해도 넉넉하다. 그때는 더 튼튼한 밧줄이 필요 없다.

가장 고요한 포구에 든 그런 지친 배처럼, 나도 이제 대지 가까이에서 쉰다, 충실하게, 믿고 맡기며, 기다리며, 가장 여린 실로 대지에 매인 채.

오, 행복이여! 오, 행복이여! 그대는 노래라도 하려는가, 오, 나의 영혼이여? 그대는 풀밭에 누워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목자도 피리를 불지 않는 은밀하고 엄숙한 시간이다.

삼가라! 뜨거운 정오가 들판 위에서 잠들어 있다. 노래하지 마라! 고요히! 세상은 완전하다.

노래하지 마라, 그대 풀밭의 날짐승이여, 오, 나의 영혼이여! 속삭이지도 마라! 보라, 고요히! 늙은 정오가 잠들어 있다, 그가 입을 달싹인다. 그는 지금 막 행복 한 방울을 마시고 있지 않은가……

금빛 행복의, 금빛 포도주의 오래 묵은 갈색 방울 하나를? 무언가 그의 위로 휙 스쳐 간다, 그의 행복이 웃는다. 그렇게…… 어떤 신이 웃는다. 고요히!

"다행히도, 행복에는 얼마나 적은 것으로도 넉넉한가!" 나는 일찍이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모독이었으니, 이제야 나는 **그것을** 배웠다. 슬기로운 바보들이 말은 더 잘한다.

바로 가장 적은 것, 가장 조용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도마뱀 한 마리의 바스락거림, 한 줄기 숨결, 한 번의 스침, 눈 한 번 깜짝할 사이, 이 **적은** 것이 **가장 좋은** 행복을 이룬다. 고요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들어라! 시간이 날아가 버렸는가? 나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떨어지지 않았는가, 들어라! 영원의 우물 속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고요히! 무언가 나를 찌른다, 슬프다, 마음을? 마음을! 오, 부서져라, 부서져라, 마음이여, 이런 행복 뒤에, 이런 찔림 뒤에!

뭐라고? 세상이 방금 완전해지지 않았는가? 둥글고 무르익어서(reif)? 오, 그 금빛 둥근 고리(Reif)여, 그것은 어디로 날아가는가? 그 뒤를 쫓아 달려가자! 휙!

고요히…… (그리고 여기서 차라투스트라는 기지개를 켜며 자신이 잠들어 있음을 느꼈다.)

그는 제 자신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그대 잠꾸러기여! 그대 정오의 잠꾸러기여! 좋다! 자, 일어나라, 그대들 늙은 다리여! 때가 되었다, 아니 때가 지났다. 그대들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아 있다……

이제 그대들은 실컷 잤다. 대체 얼마나 오래? 영원의 절반이나! 좋다! 자, 이제 일어나라, 나의 늙은 마음이여! 이런 잠을 자고 났으니 그대는 얼마나 오래…… 실컷 깨어 있어도 되겠는가?

(그러나 그때 그는 벌써 다시 잠이 들었고, 그의 영혼은 그에게 맞서 말하며 버티다가 다시 드러누웠다) "나를 좀 내버려 두라! 고요히! 세상이 방금 완전해지지 않았는가? 오, 그 금빛 둥근 공이여!"

"일어나라."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그대 조그만 도둑이여, 한낮을 훔치는 날건달이여! 뭐라고? 아직도 기지개를 켜고, 하품하고, 한숨 쉬고,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지려는가?"

"그대는 대체 누구냐! 오, 나의 영혼이여!" (그리고 여기서 그는 깜짝 놀랐으니, 햇살 한 줄기가 하늘에서 그의 얼굴로 떨어져 내렸기 때문이다)

"오, 내 위의 하늘이여." 그는 한숨지으며 말하고는 몸을 곧추세워 앉았다. "그대가 나를 지켜보는가? 그대가 나의 기이한 영혼에 귀 기울이는가?"

"그대는 언제 이 이슬방울을 마시려는가, 대지의 모든 것 위로 떨어진 이 이슬방울을. 언제 그대는 이 기이한 영혼을 마시려는가……"

"언제, 영원의 우물이여! 그대 명랑하고도 소름 끼치는 정오의 심연이여! 언제 그대는 내 영혼을 그대 안으로 도로 마셔 들이려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낯선 취기에서 깨어나듯 나무 곁의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보라, 해는 여전히 그의 머리 바로 위에 떠 있었다. 그러니 누군가 이를 보고 차라투스트라가 그때 오래 자지 않았다고 헤아린다 해도 옳으리라.

환영 인사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차라투스트라는 오랫동안 헛되이 찾아 헤매고 떠돈 끝에 다시 제 동굴로 돌아왔다. 그런데 동굴을 마주하고 섰을 때, 거기서 채 스무 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가 이제 가장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으니, 그 커다란 **절박한 외침**이 다시 들려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 외침이 바로 그 자신의 동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여러 겹으로 얽힌 기묘한 외침이었는데, 멀리서 들으면 단 하나의 입에서 나오는 외침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차라투스트라는 그것이 수많은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음을 똑똑히 가려들었다.

그러자 차라투스트라는 제 동굴을 향해 뛰어갔다. 그런데 보라! 이들을 거리 다음에는 또 어떤 볼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낮 동안 그가 지나쳐 온 자들이 모두 거기 한데 모여 앉아 있었으니, 곧 오른쪽 왕과 왼쪽 왕, 늙은 마술사, 교황, 스스로 거지가 된 자, 그림자, 정신의 양심가, 슬픈 예언자, 그리고 나귀였다. 그런데 가장 추한 인간은 왕관을 쓰고 자줏빛 띠를 두 개나 두르고 있었으니, 모든 추한 자들이 그렇듯 그도 변장하고 아름다운 척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시름에 잠긴 이 무리 한가운데에는 차라투스트라의 독수리가 깃털을 곤두세운 채 안절부절못하고 서 있었으니, 제 긍지로는 대답할 말이 없는 너무 많은 물음에 대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슬기로운 뱀은 독수리의 목에 감겨 매달려 있었다.

차라투스트라는 크게 놀라며 이 모든 것을 바라본 다음, 너그러운 호기심으로 손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 그들의 영혼을 읽어 내고는 또다시 놀랐다. 그사이 모인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라투스트라가 입을 열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

"절망하는 자들이여! 기이한 자들이여!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이 **그대들의** 절박한 외침이었는가? 이제야 나는 내가 오늘 헛되이 찾아다닌 자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알겠다. 바로 더 높은 인간을……"

"다름 아닌 내 동굴 안에 그가 앉아 있구나, 더 높은 인간이! 그러나 내가 무엇을 놀라랴! 꿀 봉헌으로, 내 행복의 꾀바른 꾐 소리로 그를 내게로 꾀어 들인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던가?"

"그런데 절박하게 외치는 자들이여, 내 보기에 그대들은 서로 어울리는 데 영 서툴러서, 여기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서로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것 같지 않은가? 먼저 누군가 와야 한다,"

"그대들을 다시 웃게 할 누군가가. 선량하고 유쾌한 익살꾼 하나, 춤추는 자요 바람이요 개구쟁이인 자, 누구든 늙은 바보 하나가. 그대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절망하는 자들이여, 내가 그대들 앞에서 이런 하찮은 말을 늘어놓는 것을 용서하라. 진실로, 이런 손님들에게는 걸맞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무엇이** 내 마음을 짓궂게 만드는지 그대들은 알아맞히지 못하리라……"

"바로 그대들 자신이, 그대들의 모습이 그렇게 만든다, 용서하라! 절망하는 자를 지켜보는 자는 누구나 용기가 나기 때문이다. 절망하는 자에게 힘내라고 말을 건네는 일쯤이야, 누구나 제가 그만큼은 강하다고 여긴다."

"그대들은 바로 내게 이 힘을 주었다. 좋은 선물이다, 나의 높은 손님들이여! 번듯한 손님의 선물이다! 좋다! 그러니 이제 나도

그대들에게 내 것을 내놓는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라."

"여기는 나의 나라요 내가 다스리는 땅이지만, 내 것은 오늘 저녁과 오늘 밤 동안 그대들의 것이 되리라. 나의 짐승들이 그대들을 시중들 것이니, 내 동굴을 그대들의 안식처로 삼으라!"

"내 집 내 뜰에서는 아무도 절망해서는 안 되니, 내 영역 안에서는 누구든 제 들짐승들로부터 내가 지켜 준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내놓는 첫째 것이니, 바로 안전이다!"

"그리고 둘째 것은 나의 새끼손가락이다. **그것을** 일단 잡았거든 아예 손 전체를 가져가라, 좋다! 마음까지 얹어서! 잘 왔다, 여기 잘들 왔다, 나의 손님이자 벗들이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사랑과 심술에 겨워 웃었다. 이 환영 인사가 끝나자 손님들은 다시 한번 허리 굽혀 절하고 경외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오른쪽 왕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에게 대답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인사를 건네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대가 차라투스트라임을 알아본다. 그대는 우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하마터면 우리의 경외심을 아프게 할 뻔했다……"

"그러나 그대처럼 그토록 긍지 높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그것은 우리의 눈과 마음에 생기를 준다."

"오직 이것 하나를 보려고 우리는 이 산보다 더 높은 산에라도 기꺼이 올랐으리라. 우리는 구경을 하러 왔으니, 흐린 눈을 밝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었다."

"그런데 보라, 우리의 절박한 외침은 벌써 모두 끝났다. 벌써 우리의 감각과 마음은 활짝 열려 황홀해한다.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의 용기가 짓궂어질 판이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높고 강한 의지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것은 대지 위에서 자라지 않으니, 그것이야말로 대지가 길러 낸 가장 아름다운 초목이다. 그런 나무 단 한 그루로 온 고장이 소생한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처럼 자라나는 자를 나는 소나무에 견주니, 그 소나무는 훤칠하고, 말없고, 단단하고, 홀로 서 있고, 가장 좋고 가장 잘 휘는 목재로 되어 장려하며,"

"그러면서도 마침내는 억센 초록 가지들을 뻗어 **제** 다스릴 땅을 움켜쥐고, 바람과 비바람과 그 밖에 높은 곳에 깃들어 사는 온갖 것 앞에서 억센 물음을 묻고,"

"그보다 더 억세게 대답하니, 명령하는 자요 승리하는 자다. 오, 이런 초목을 보려고 높은 산에 오르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오, 차라투스트라여, 여기 선 그대의 나무 곁에서는 음울한 자도, 잘못 빚어진 자도 생기를 얻고, 그대의 모습을 보면 정처 없는 자도 든든해져 제 마음을 낫게 한다."

"그리고 진실로, 오늘 많은 눈이 그대의 산과 나무를 향하고 있으니, 크나큰 동경이 일어나 길을 나섰고, '차라투스트라는 누구인가?' 하고 묻기를 배운 자들도 적지 않다."

"그대가 언젠가 그대의 노래와 그대의 꿀을 귓속에 방울방울 떨구어 준 자들, 숨어 사는 모든 자들, 은자들, 둘이서 은거하는 자들이 한꺼번에 제 마음에 대고 말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아직 살아 있는가? 이제 더는 살 보람이 없다, 모든 것은 매한가지다, 모든 것은 헛되다. 아니면…… 우리가 차라투스트라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토록 오래전부터 오리라 알려 온 그가 어찌하여 오지 않는가?' 많은 이들이 그렇게 묻는다. '고독이 그를 삼켜 버렸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에게로 가야 하는가?'"

"이제는 고독 그 자체가 삭아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니, 부서져서 더는 제 죽은 자들을 붙들어 두지 못하는 무덤과도 같다. 어디서나 부활한 자들이 보인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이제 그대의 산을 둘러싼 물결이 차오르고 또 차오른다. 그대의 높이가 아무리 높다 해도 많은 이들이 그대에게로 올라가야 하니, 그대의 조각배가 마른 땅에 얹혀 있을 날도 이제 오래지 않으리라."

"그리고 절망하던 우리가 이제 그대의 동굴에 와서 벌써 더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더 나은 자들이 그대에게로 오는 길에 있다는 표적이요 전조일 뿐이다,"

"그 자신이, 인간들 가운데 남은 신의 마지막 잔재가 그대에게로 오는 길에 있기 때문이니, 곧 크나큰 동경의 인간들, 크나큰 역겨움의 인간들, 크나큰 싫증의 인간들이 모두,"

"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모두. 그들이 다시 **희망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말이다. 아니,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에게서 **크나큰** 희망을 배우지 않는다면!"

오른쪽 왕은 이렇게 말하고 차라투스트라의 손에 입 맞추려고 그 손을 붙잡았으나, 차라투스트라는 그의 공경을 물리치고 놀라서 뒤로 물러섰는데, 말없이, 느닷없이, 마치 아득히 먼 곳으로 달아나 버리는 듯했다. 그러나 잠시 뒤 그는 벌써 다시 손님들 곁에 있었고, 맑고 살피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의 손님들이여, 더 높은 인간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독일말로 똑똑히 말하겠다.[1] 내가 여기 이 산속에서 기다린 것은 **그대들이** 아니었다.

("독일말로 똑똑히라고? 맙소사!" 이때 왼쪽 왕이 방백으로 말했다. "보아하니 그는 그 사랑스러운 독일 사람들을 모르는구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는!"

"하기야 그가 말하려는 것은 '독일말로 뚝뚝하게'겠지. 좋다! 요즘 세상에 그것이 아직 가장 고약한 취향은 아니니까!")

"진실로 그대들은 모두 더 높은 인간들일지도 모른다." 차라투스트라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대들이 충분히 높지도 강하지도 않다."

"내게는, 곧 내 안에서 침묵하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침묵하지는 않을 저 가차 없는 것에게는. 그리고 그대들이 내게 속한다 해도, 나의 오른팔로서는 아니다."

"그대들처럼 스스로 병들고 여린 다리로 서 있는 자는, 그것을 알든 스스로에게 숨기든, 무엇보다도 남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팔과 내 다리를 봐주지 않으며, 내 전사들을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들이 어찌 **나의** 전쟁에 쓸모가 있겠는가?"

"그대들과 함께라면 나는 이긴 싸움마저 모조리 망쳐 버리리라. 그대들 가운데 몇몇은 내 북이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쓰러질 것이다."

"게다가 그대들은 내 눈에 넉넉히 아름답지도, 좋은 태생도 아니다. 내 가르침을 비출 깨끗하고 매끈한 거울이 내게는 필요한데, 그대들의 겉면에서는 나 자신의 모습마저 일그러진다."

"그대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도 많고 기억도 많으며, 그대들의 구석구석에는 고약한 난쟁이도 여럿 웅크리고 있다. 그대들 안에도 숨은 천민이 있다."

"그대들이 높고 더 높은 족속이라 해도, 그대들에게는 굽고 흉하게 생긴 데가 많다. 그대들을 두들겨 내게 맞게 곧게 펴 줄 대장장이는 이 세상에 없다."

"그대들은 다리일 뿐이니, 더 높은 자들이 그대들을 밟고 건너가기를! 그대들은 계단을 뜻하니, 그대들을 넘어 **제** 높이로 오르는 자에게 노여워하지 마라!"

"그대들의 씨에서 언젠가 내게도 참된 아들이자 완전한 상속자가 자라날지 모르나, 그것은 먼 일이다. 그대들 자신은 나의 유산과 이름을 물려받을 자들이 아니다."

"내가 여기 이 산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그대들이 아니며, 그대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산을 내려가서도 안 되니, 그대들은 더 높은 자들이 벌써 내게로 오는 길에 있다는 전조로서 왔을 뿐이다,"

"크나큰 동경의 인간들, 크나큰 역겨움의 인간들, 크나큰 싫증의 인간들이 **아니고**, 그대들이 신의 잔재라 부른 것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내가 여기 이 산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다른** 자들이며, 그들 없이는 이곳에서 발을 떼지 않으련다,"

"더 높은 자들, 더 강한 자들, 더 승리에 찬 자들, 더 쾌활한 자들, 몸과 영혼이 네모반듯하게 지어진 자들을 나는 기다리니, **웃는 사자들이** 와야 한다!"

"오, 나의 손님이자 벗들이여, 기이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내 아이들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가? 그들이 내게로 오는 길에 있다는 것도?"

"내 정원들 이야기를, 나의 행복한 섬들 이야기를, 나의 새롭고 아름다운 족속 이야기를 내게 해 다오, 어찌하여 그대들은 내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내 아이들 이야기를 내게 해 달라고, 이 손님의 선물을 그대들의 사랑에 청하노라. 이를 위해 나는 부유하고 이를 위해 나는 가난해졌으니, 내가 무엇인들 내놓지 않았던가,"

"단 하나를 얻으려고 내가 무엇인들 내놓지 않겠는가. **이** 아이들을, **이** 살아 있는 밭을, 나의 의지와 나의 가장 높은 희망의 **이** 생명나무들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문득 말을 멈추었으니, 그의 동경이 그를 덮쳐 와 그는 북받치는 마음에 눈을 감고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님들도 모두 말없이,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다만 늙은 예언자만은 손짓 몸짓으로 무언가 신호를 보냈다.

---

1. 독일어 관용구 deutsch und deutlich reden(독일말로 똑똑히 말하다)은 '에두르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다'라는 뜻이다. 왼쪽 왕은 이를 deutsch und derb(독일말로 뚝뚝하게)로 비튼다.

만찬

바로 이 대목에서 예언자가 차라투스트라와 손님들의 환영 인사를 가로막았으니, 그는 한시도 지체할 틈이 없는 자처럼 앞으로 비집고 나와 차라투스트라의 손을 덥석 붙잡고 외쳤다. "아니, 차라투스트라여!"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그대 스스로 말하지 않는가? 좋다, 지금 **내게는** 다른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 하자. 그대는 나를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여기에는 먼 길을 걸어온 자가 많다. 설마 우리를 말로 때우려는 것은 아니겠지?"

"또 내 보기에 그대들은 모두 얼어 죽는 일, 물에 빠져 죽는 일, 숨 막혀 죽는 일, 그 밖에 몸이 겪는 온갖 곤경을 벌써 넘치도록 떠올렸으나, **나의** 곤경은 아무도 떠올리지 않았으니, 바로 굶어 죽는 일 말이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차라투스트라의 짐승들은 이 말을 듣자 겁에 질려 달아나 버렸다. 낮 동안 물어 온 것을 모두 합쳐도 이 예언자 하나의 배를 채우기에 모자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목말라 죽는 일도 셈에 넣어야 한다." 예언자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물이 지혜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넉넉하게, 지칠 줄도 모르고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나는…… **포도주**를 원한다!"

"모두가 차라투스트라처럼 날 때부터 맹물만 마시는 자는 아니다. 물은 지친 자와 시든 자에게도 맞지 않다.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마땅하다. **포도주라야** 비로소 느닷없는 쾌유와 즉석에서 얻는 건강을 준다!"

예언자가 포도주를 찾은 이 기회에, 말수 적은 왼쪽 왕도 한번 입을 열게 되었다. "포도주라면 **우리가** 챙겨 왔다." 그가 말했다. "나와 내 형제인 오른쪽 왕이 함께 말이다. 포도주는 넉넉하다. 나귀 한 마리에 가득 실을 만큼. 그러니 모자란 것은 빵뿐이다."

"빵이라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대꾸하며 웃었다. "하필 빵만은 은자에게 없다. 그러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좋은 어린양의 고기로도 살 것이니, 내게 그런 어린양이 두 마리 있다."

"그 양들을 서둘러 잡아 세이지를 넣고 향긋하게 요리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먹기를 좋아한다. 뿌리와 열매도 모자라지 않아서 군것질쟁이와 입맛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넉넉히 훌륭하고, 까먹을 호두며 그 밖에 깨뜨려 볼 수수께끼도 모자라지 않다."

"그러니 곧 훌륭한 식사를 차리자. 그러나 함께 먹으려는 자는 함께 일손도 거들어야 한다. 왕들도 마찬가지다. 차라투스트라의 집에서는 왕도 요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안은 모두의 마음에 꼭 들었으나, 스스로 거지가 된 자만은 고기와 포도주와 양념을 한사코 마다했다.

"이 먹보 차라투스트라가 하는 말 좀 들어 보라!" 그가 농담조로 말했다. "이런 식사를 차리자고 동굴과 높은 산으로 들어간단 말인가?"

"이제야 알겠다, 그가 언젠가 우리에게 가르친 말이 무슨 뜻인지. '작은 가난은 찬양받을지어다!' 그리고 그가 왜 거지들을 없애려 하는지도."

"나처럼 기분 좋게 지내라." 차라투스트라가 그에게 대답했다. "훌륭한 자여, 그대의 습관을 지켜라. 그대의 낟알을 씹고, 그대의 물을 마시고, 그대의 음식을 찬양하라. 그것이 그대를 즐겁게만 해 준다면!"

"나는 오직 내 사람들에게만 법이지, 모두를 위한 법이 아니다. 그러나 내게 속한 자라면 뼈가 튼튼해야 하고, 발도 가벼워야 하며……"

"……전쟁에도 잔치에도 흥겨워야 하고, 침울쟁이도 꿈쟁이도 아니어야 하며, 가장 무거운 일에도 제 잔치에 나서듯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강하고 온전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사람들과 나의 몫이니, 누가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빼앗는다, 가장 좋은 음식을, 가장 맑은 하늘을, 가장 강한 생각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오른쪽 왕이 대꾸했다. "기이하구나!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이토록 슬기로운 말이 나오는 것을 들은 적이 일찍이 있었던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가 그 모든 것에 더해 슬기롭기까지 하고 나귀도 아니라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에게서 가장 기이한 점이다."

오른쪽 왕은 이렇게 말하며 의아해했다. 그러나 나귀는 그 말에 심술궂게 이-아 하고 대꾸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책들에서 '만찬'[1]이라 불리는 저 기나긴 식사의 시작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오직 **더 높은 인간** 이야기만 오갔다.

---

1. 원어 Abendmahl은 '저녁 식사'라는 뜻과 함께,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과 이를 기념하는 성찬(聖餐)을 가리킨다.

더 높은 인간에 대하여

1

내가 처음 인간들에게 왔을 때, 나는 은자다운 어리석음을, 그 큰 어리석음을 저질렀으니, 시장 한복판에 나가 섰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했을 때,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줄타기 광대들이 나의 길동무였고, 주검들이 그러했으며, 나 자신도 거의 주검이었다.

그러나 새 아침과 함께 내게 새로운 진리가 찾아왔으니,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시장이며 천민이며 천민의 소란이며 천민의 기다란 귀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더 높은 인간들이여, 내게서 이것을 배워라. 시장에서는 아무도 더 높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그대들이 거기서 말하려 한다면, 좋다! 그러나 천민은 눈을 끔뻑인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천민은 그렇게 말하며 눈을 끔뻑인다. "더 높은 인간 따위는 없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인간은 인간이다. 신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신 앞에서라니! 그러나 이제 그 신은 죽었다. 그리고 천민 앞에서라면 우리는 평등하고 싶지 않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시장을 떠나라!

2

신 앞에서라니! 그러나 이제 그 신은 죽었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이 신이 그대들의 가장 큰 위험이었다.

그가 무덤에 누운 뒤에야 그대들은 비로소 다시 부활했다. 이제야 비로소 위대한 정오가 오고, 이제야 비로소 더 높은 인간이…… 주인이 된다!

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는가? 그대들은 놀랐구나. 그대들의 가슴이 아찔해지는가? 여기서 그대들 앞에 심연이 쩍 입을 벌리는가? 여기서 그대들에게 지옥의 개가 컹컹 짖어 대는가?

좋다! 자, 일어나라! 더 높은 인간들이여! 이제야 비로소 인간의 미래라는 산이 산통을 겪는다.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원하노라, 위버멘쉬가 살기를.

3

오늘날 가장 근심 많은 자들은 묻는다. "인간은 어떻게 보존되는가?"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유일한 자로서, 첫 번째 자로서 이렇게 묻는다. "인간은 어떻게 **극복되는가**?"

내 마음에 걸린 것은 위버멘쉬요, **그가** 나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것이며, 인간은 **아니니**, 이웃도 아니고, 가장 가난한 자도 아니고, 가장 괴로워하는 자도 아니고, 가장 훌륭한 자도 아니다……

오, 내 형제들이여, 인간에게서 사랑할 만한 것은 그가 건너가는 것이며 몰락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그대들에게도 나를 사랑하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많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이 경멸했다는 것, 그것이 내게 희망을 준다. 크게 경멸하는 자들이야말로 크게 우러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절망했다는 것, 거기에는 기릴 것이 많다. 그대들은 체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자잘한 슬기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작은 자들이 주인이 되었으니, 그들은 모두 체념과 분수 지키기와 슬기와 근면과 배려와, 작은 덕들의 기나긴 '기타 등등'을 설교한다.

여자의 부류에 속한 것, 종의 핏줄에서 나온 것, 그리고 무엇보다 천민의 뒤범벅, **그것이** 이제 인간의 운명 전체를 쥐는 주인이 되려 한다. 오, 역겹다! 역겹다! 역겹다!

그것은 묻고 또 묻고, 지칠 줄을 모른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가장 오래, 가장 편안하게 보존되는가?" 그 덕에…… 그들은 오늘의 주인이다.

오, 내 형제들이여, 이 오늘의 주인들을 극복하라. 이 작은 자들을! **그들이야말로** 위버멘쉬의 가장 큰 위험이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극복하라, 작은 덕들을, 자잘한 슬기들을, 모래알만 한 배려들을, 개미 떼처럼 꼬물거리는 잡동사니를, 비루한 안락을, '대다수의 행복'을!

체념하느니 차라리 절망하라. 진실로,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이 이 오늘을 살아갈 줄 모르기에 나는 그대들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해서 **그대들은**…… 가장 잘 살기 때문이다!

4

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용기가 있는가? 그대들은 담대한가? 보는 이들 앞에서 부리는 용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신도 지켜보지 않는 은자의 용기, 독수리의 용기가 있는가?

차가운 영혼, 노새, 눈먼 자, 술 취한 자를 나는 담대하다 부르지 않는다. 두려움을 알되 두려움을 **억누르는** 자, 심연을 보되 **긍지**를 품고 보는 자에게 담력이 있다.

심연을 보되 독수리의 눈으로 보는 자, 독수리의 발톱으로 심연을 **움켜쥐는** 자, 그런 자에게 용기가 있다.

5

"인간은 악하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나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했다. 아, 그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이기만 하다면! 악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좋은 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더 나아지고 더 악해져야 한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노라. 위버멘쉬의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는 가장 악한 것이 필요하다.

저 작은 자들의 설교자에게는 인간의 죄로 괴로워하며 그 죄를 지고 간 것이 좋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큰 죄를 나의 큰 **위안**으로 삼아 기뻐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기다란 귀들을 위해 한 말이 아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 주둥이에 어울리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섬세하고 아득한 것들이니, 양의 발굽이 그것을 움켜쥐려 해서는 안 된다!

6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이 망쳐 놓은 것을 바로잡으려고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는 괴로워하는 그대들에게 더 편한 잠자리를 깔아 주려 한다고? 아니면 정처 없이 떠도는 자, 길 잃은 자, 잘못 기어오른 자인 그대들에게 새롭고 더 수월한 오솔길을 보여 주려 한다고?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그대들 같은 부류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자가, 갈수록 더 나은 자가 파멸해야 하리니, 그대들은 갈수록 더 나쁘고 더 혹독한 처지에 놓여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오직 그렇게 해야만 인간은 번개가 내리쳐 그를 부숴 버리는 **그** 높이까지 자란다. 번개에 닿을 만큼 높이!

내 뜻과 내 동경은 적은 것, 오래가는 것, 먼 것으로 향한다. 그대들의 작고, 잦고, 짧은 비참이 나와 무슨 상관이겠는가!

내가 보기에 그대들은 아직 충분히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을 앓을 뿐, 아직 **인간을** 앓아 보지 못했다. 달리 말한다면 그대들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리라! 내가 앓았던 것을 그대들은 아무도 앓지 않는다.

7

번개가 더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는 내게 충분하지 않다. 나는 번개를 딴 데로 흘려보내려는 것이 아니다. 번개는 **나를 위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지혜는 벌써 오래전부터 구름처럼 모여들어, 점점 더 고요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진다. **언젠가** 번개를 낳아야 할 지혜는 모두 그렇게 한다.

이 오늘의 인간들에게 나는 **빛**이 되고 싶지 않고, 빛이라 불리고 싶지도 않다. **저들을**…… 나는 눈멀게 하련다. 내 지혜의 번개여! 저들의 눈을 찔러 버려라!

8

그대들의 힘에 넘치는 것을 원하지 마라. 제 힘에 넘치는 것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고약한 거짓이 깃든다.

그들이 큰일을 원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 교묘한 위폐범들과 배우들은 큰일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제 자신 앞에서도 거짓이 되고 마니, 눈은 사팔눈이 되고 속은 회칠한 좀먹은 자리가 되어, 센 말과 간판처럼 내건 덕과 번쩍이는 거짓 업적으로 겉을 덮어 가린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여기서 잘 조심하라! 오늘날 내게는 정직보다 더 값지고 드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오늘은 천민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천민은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무엇이 곧고 정직한지 모른다. 천민은 천진하게 비뚤어져 있고,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

9

더 높은 인간들이여, 담대한 자들이여, 오늘은 좋은 불신을 품어라! 흉금을 터놓는 자들이여! 그리고 그대들의 근거는 숨겨 두라! 이 오늘은 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민이 한때 근거 없이 믿게 된 것을, 누가 근거를 들어 그것을…… 뒤엎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장에서는 몸짓으로 설득한다. 근거는 오히려 천민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거기서 어쩌다 진리가 승리했거든, 좋은 불신을 품고 스스로 물어라. "어떤 강력한 오류가 진리를 위해 싸웠는가?"

학자들도 삼가라! 그들은 그대들을 미워한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은 차갑고 메말라서, 그들 앞에서는 어떤 새든 깃털이 뽑힌 채 누워 있다.

그런 자들은 자기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뽐낸다. 그러나 거짓말할 힘이 없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직 한참 거리가 멀다. 그들을 삼가라!

열이 없다는 것은 인식과 아직 한참 거리가 멀다! 나는 차갑게 식어 버린 정신들을 믿지 않는다. 거짓말할 줄 모르는 자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10

높이 오르려거든 제 다리를 써라! 남에게 **업혀** 올라가지 말고, 남의 등이나 머리 위에 올라앉지 마라!

그런데 그대는 말에 올라탔는가? 이제 그대의 목표를 향해 날쌔게 말을 달려 올라가는가? 좋다, 벗이여! 그러나 그대의 절뚝이는 발도 함께 말에 올라타 있다!

그대가 목표에 이르러 말에서 뛰어내릴 때, 바로 그대의 **높은 곳**에서, 그대 더 높은 인간이여…… 그대는 비틀거리리라!

11

창조하는 자들이여, 더 높은 인간들이여! 누구든 오직 제 아이만을 밴다.

누가 앞에서 떠들어 대든, 귀에 불어넣든 넘어가지 마라! 대체 **그대들의** 이웃이 누구란 말인가? 그대들이 '이웃을 위하여' 행동한다 해도, 그대들은 이웃을 위해 창조하지는 않는다!

창조하는 자들이여, 이 '위하여'를 버려라. 바로 그대들의 덕이 원하는 것은 그대들이 무슨 일이든 '위하여'나 '하려고'나 '때문에'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거짓되고 작은 낱말들 앞에서는 귀를 틀어막아라.

'이웃을 위하여'는 작은 자들의 덕일 뿐이니, 그들 사이에서는 '끼리끼리'니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니 하는 말이 통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대들의** 자기 이익을 누릴 권리도 힘도 없다!

창조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자기 이익 속에는 아이 밴 여인의 조심과 섭리가 있다! 아직 아무도 제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곧 열매를 그대들의 온 사랑이 감싸고 아끼고 기른다.

그대들의 온 사랑이 있는 곳, 그대들의 아이 곁에 그대들의 온 덕도 있느니라! 그대들의 일, 그대들의 의지가 **그대들의** '이웃'이다. 거짓된 가치들이 귀에 스며들게 두지 마라!

12

창조하는 자들이여, 더 높은 인간들이여! 낳아야 하는 자는 병들어 있고, 낳은 자는 부정하다.

여자들에게 물어보라. 즐거워서 낳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 암탉과 시인을 꼬꼬댁거리게 한다.

창조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에게는 부정한 것이 많다. 그대들이 어머니가 되어야 했던 탓이다.

새 아이 하나. 오, 얼마나 많은 새 더러움도 함께 세상에 나왔는가! 비켜서라! 그리고 낳은 자는 제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13

그대들 힘에 부치도록 덕스러우려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럴 법하지 않은 것을 그대들 자신에게 바라지 마라!

그대들 아버지들의 덕이 이미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 걸어라! 그대들 아버지들의 의지가 그대들과 함께 오르지 않는데, 그대들이 어찌 높이 오르려 하는가?

맏물이 되려는 자는 끝물까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대들 아버지들의 악덕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들은 성자 노릇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들이 여자와 독한 포도주와 멧돼지를 즐기던 자가 제게 순결을 바란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보짓이리라! 진실로, 그런 자라면 한 여자, 혹은 두 여자, 혹은 세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자가 수도원을 세우고 그 문 위에 '성자에 이르는 길'이라고 써 붙인다 해도, 나는 그래도 말하리라. 무엇 하러! 그것은 새로운 바보짓이다!

그는 제 손으로 징계의 집이자 도피의 집을 세운 셈이다. 부디 약이 되기를!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고독 속에서는 누구든 그 안에 들고 들어간 것이 자라나니, 속에 든 짐승도 자란다. 그러니 많은 이들에게 고독은 권할 것이 못 된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사막의 성자들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었던가? **그들** 주위에는 악마만 풀려나 날뛴 것이 아니라…… 돼지도 날뛰었다.

14

겁먹고, 부끄러워하고, 서툴게, 도약을 그르친 호랑이처럼, 더 높은 인간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그렇게 슬그머니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대들은 한 번의 **던지기**를 그르쳤다.

그러나 주사위 노름꾼들이여, 그게 무슨 대수냐! 그대들은 마땅히 놀고 놀려야 하는 대로 놀고 놀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언제나 커다란 놀림판이자 놀음판에 앉아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대들이 큰일을 그르쳤다고 해서 그대들 자신이…… 실패작이란 말인가? 그대들 자신이 실패작이라고 해서 인간이…… 실패작이란 말인가? 인간이 실패작이라 한들, 좋다! 자, 일어나라!

15

종류가 높을수록 무엇이든 제대로 빚어지는 일은 드물다. 여기 있는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실패작이 아닌가?

기운을 내라, 그게 무슨 대수냐!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한가! 마땅히 웃어야 하는 대로 그대들 자신을 두고 웃는 법을 배워라!

그대들이 실패작이 되고 반쯤만 제대로 빚어졌다 한들 무엇이 놀라우랴, 반쯤 부서진 자들이여! 그대들 안에서는…… 인간의 **미래**가 서로 밀치고 부딪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가장 먼 것, 가장 깊은 것, 별처럼 가장 높은 것, 그의 엄청난 힘, 그 모든 것이 그대들의 솥 안에서 서로 맞부딪치며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는가?

솥이 더러 깨진다 한들 무엇이 놀라우랴! 마땅히 웃어야 하는 대로 그대들 자신을 두고 웃는 법을 배워라! 더 높은 인간들이여, 오,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진실로, 이미 제대로 빚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대지는 작고 좋고 완전한 것들로, 잘 빚어진 것들로 얼마나 풍요로운가!

더 높은 인간들이여, 작고 좋고 완전한 것들을 그대들 주위에 두어라! 그것들의 황금빛 무르익음이 마음을 낫게 한다. 완전한 것은 희망하는 법을 가르친다.

16

지금까지 여기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는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웃는 자들이여!" 하고 말한 자의 그 말이 아니었던가?[1]

그는 이 땅에서 웃을 까닭을 하나도 찾지 못했던가? 그렇다면 그는 잘못 찾았을 뿐이다. 아이도 여기서는 웃을 까닭을 찾아낸다.

그는……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웃는 자들인 우리도 사랑했으리라! 그러나 그는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했으며, 우리에게 '울며 이를 갊'을 약속했다.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는 곧바로 저주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내가 보기에 고약한 취미다. 그러나 이 무조건적인 자는 그렇게 했다. 그는 천민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그 자신이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랬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노하지는 않았으리라. 모든 큰 사랑은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큰 사랑은 그보다 더한 것을 원한다.

그런 무조건적인 자들은 모두 비켜 가라! 그것은 가련하고 병든 족속, 천민의 족속이다. 그들은 이 삶을 고약한 눈으로 지켜보고, 이 대지에 악한 눈길을 던진다.

그런 무조건적인 자들은 모두 비켜 가라! 그들의 발은 무겁고 마음은 무덥다. 그들은 춤출 줄 모른다. 그런 자들에게 어찌 대지가 가벼울 수 있으랴!

17

모든 좋은 것은 몸을 굽히고서 제 목표에 다가간다. 좋은 것들은 고양이처럼 등을 둥글게 구부리고, 가까이 다가온 행복 앞에서 속으로 가르랑거린다. 모든 좋은 것은 웃는다.

걸음걸이를 보면 누가 이미 **제** 길을 걷고 있는지 드러난다. 그러니 내가 걷는 모습을 보라! 제 목표에 가까이 다가간 자는 춤을 춘다.

진실로, 나는 조각상이 되지 않았고, 뻣뻣하고 뭉툭하고 돌처럼 굳은 기둥이 되어 거기 서 있지도 않다. 나는 날쌔게 달리기를 좋아한다.

이 땅에 늪과 짙은 시름이 있다 해도, 발이 가벼운 자는 진창 위도 달려 넘어가고, 깨끗이 쓸어 낸 얼음판 위에서처럼 춤춘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마음을 드높이 들어라, 높이! 더 높이! 그리고 다리도 잊지 마라! 훌륭한 춤꾼들이여, 그대들의 다리도 들어라. 더 좋기로는, 물구나무도 서라!

18

웃는 자의 이 왕관, 이 장미 화관을, 나는 내 손으로 머리에 썼고, 내 웃음을 내 입으로 거룩하다 선포했다. 오늘날 그럴 만큼 강한 자를 나는

달리 찾지 못했다.

춤추는 자 차라투스트라, 가벼운 자 차라투스트라, 날개로 손짓하는 자, 날아오를 채비를 갖춘 자, 모든 새에게 손짓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자, 복에 겨워 경솔한 자……

예언자 차라투스트라, 웃음의 예언자 차라투스트라, 조급한 자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자도 아니며, 도약과 외도를 사랑하는 자, 그런 내가 이 왕관을 내 손으로 머리에 썼다!

19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마음을 드높이 들어라, 높이! 더 높이! 그리고 다리도 잊지 마라! 훌륭한 춤꾼들이여, 그대들의 다리도 들어라. 더 좋기로는, 물구나무도 서라!

행복 속에도 무거운 짐승들이 있고, 태초부터 발이 굼뜬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물구나무를 서려고 애쓰는 코끼리처럼 기묘하게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불행에 짓눌려 바보가 되느니 차라리 행복에 겨워 바보가 되는 편이 낫고, 절뚝이며 걷느니 굼뜨게라도 춤추는 편이 낫다. 그러니 내 지혜를 배워 가라. 가장 나쁜 것에도 좋은 뒷면이 두 개나 있다……

……가장 나쁜 것에도 춤추기 좋은 다리가 있다. 그러니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 자신을 그대들의 바른 다리로 세우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 시름에 겨운 한숨과 천민의 온갖 슬픔을 버려라! 오, 오늘날 천민의 익살꾼들조차 내게는 얼마나 슬퍼 보이는가! 그러나 이 오늘은 천민의 것이다.

20

바람처럼 하라, 산속 동굴에서 뛰쳐나올 때의 바람처럼! 바람은 제 피리 가락에 맞춰 춤추려 하고, 바다들은 그 발자국 아래서 떨며 뛰논다.

나귀에게 날개를 달아 주고 암사자의 젖을 짜는 그 정신, 모든 오늘과 모든 천민에게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이 선하고 길들지 않는 정신은 찬양받을지어다……

……가시 돋친 머리와 까탈스러운 머리를, 모든 시든 잎과 잡초를 적으로 삼는 그 정신, 늪과 시름 위에서도 풀밭에서처럼 춤추는 이 사납고 선하고 자유로운 폭풍의 정신은 찬양받을지어다!

골골대는 천민의 개들과 잘못 빚어진 음울한 온갖 종자를 미워하는 그 정신, 모든 비관하는 자와 비탄하는 자의 눈에 먼지를 불어 넣는 웃는 폭풍, 모든 자유로운 정신들의 정신인 이 정신은 찬양받을지어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의 가장 나쁜 점은, 그대들 모두가 마땅히 춤추어야 하는 대로 춤추는 법을, 그대들 자신을 넘어 춤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대들이 실패작이 되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 그대들 자신을 넘어 웃는 법을 **배워라**! 훌륭한 춤꾼들이여, 마음을 드높이 들어라, 높이! 더 높이! 그리고 좋은 웃음도 잊지 마라!

웃는 자의 이 왕관, 이 장미 화관을, 내 형제들인 그대들에게 나는 던져 주노라! 나는 웃음을 거룩하다 선포했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배워라**…… 웃는 법을!

---

1.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개역한글)를 가리킨다. 이 절의 '울며 이를 갊'도 마태복음 8장 12절 등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다.

우울의 노래

1

차라투스트라는 이 말들을 하는 동안 동굴 입구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마지막 말을 마치자 손님들 틈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잠시 탁 트인 바깥으로 달아났다.

"오, 내 주위의 맑은 냄새여!" 그가 외쳤다. "오, 내 주위의 복된 고요여! 그런데 나의 짐승들은 어디 있는가?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이여!"

"나의 짐승들이여, 말해 보라. 이 더 높은 인간들은 다들…… 혹시 좋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오, 내 주위의 맑은 냄새여! 나의 짐승들이여, 내가 그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고 느끼겠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한번 말했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한다, 나의 짐승들이여!" 그가 이 말을 하자 독수리와 뱀은 그에게 바싹 다가붙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렇게 셋은 조용히 한데 모여, 좋은 공기를 함께 킁킁 맡으며 홀짝홀짝 들이켰다. 이 바깥의 공기가 더 높은 인간들 곁의 공기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차라투스트라가 동굴을 나서기가 무섭게 늙은 마술사가 일어나 교활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다. "그가 나갔다!"

"그리고 벌써,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를 흉내 내어 나도 이렇게 칭찬과 아첨이 담긴 이름으로 그대들을 간질여 보거니와, 벌써 나의 고약한 속임수와 마법의 영이, 나의 우울한 악마가 나를 덮쳐 온다……"

"……그놈은 이 차라투스트라의 뿌리 깊은 대적이니, 용서해 다오! 이제 그놈이 그대들 앞에서 마법을 부리려 한다. 마침 **제** 때가 이르렀다. 이 악령과 씨름해 보아도 나는 헛수고다."

"그대들이 말로 스스로에게 어떤 영예를 붙이든, 스스로를 '자유로운 정신들'이라 부르든, '진실한 자들'이나 '정신의 참회자들'이나 '사슬에서 풀려난 자들'이나 '크게 동경하는 자들'이라 부르든, 그대들 모두에게……"

"……나처럼 **크나큰 역겨움**을 앓는 그대들 모두에게, 옛 신은 죽었으나 새 신은 아직 요람에도 강보에도 누워 있지 않은 그대들 모두에게, 나의 악령, 나의 마법 악마는 호의를 품고 있다."

"나는 그대들을 안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나는 그놈을 안다. 내가 마지못해 사랑하는 이 괴물, 이 차라투스트라도 안다. 그 자신이 내게는 자주 성자의 아름다운 탈처럼 보이니……"

"……나의 악령, 그 우울한 악마가 즐겨 노니는 새롭고 기묘한 탈놀이처럼 보인다. 나는 나의 악령 때문에 차라투스트라를 사랑하는 것만 같다. 자주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벌써 **그놈이** 나를 덮쳐 억누른다, 이 우울의 영, 이 저녁 어스름의 악마가. 진실로,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놈은 안달이 나 있다……"

"……눈을 크게 떠라! 그놈은 **벌거벗은 채** 오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사내의 모습일지 여인의 모습일지는 나도 아직 모른다. 그러나 그놈이 온다, 나를 억누른다, 슬프다! 그대들의 감각을 활짝 열어라!"

"낮이 잦아든다. 이제 모든 것에게 저녁이 온다, 가장 좋은 것들에게도. 더 높은 인간들이여, 이제 듣고 보라, 이 저녁 우울의 영이 사내인지 여인인지, 어떤 악마인지를!"

늙은 마술사는 이렇게 말하고, 교활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하프를 집어 들었다.

3

맑게 가라앉은 대기 속에,
이슬의 위안이 벌써
대지 위로 방울져 내릴 때,
보이지도 않게, 들리지도 않게.
위로하는 이슬은 부드러운 신을 신었으니,
너그러이 위로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
그때 그대는 기억하는가, 기억하는가, 뜨거운 가슴이여,
그대가 한때 얼마나 목말라했는지,
하늘의 눈물과 방울지는 이슬을 그리며
그을리고 지친 채 목말라했는지,
그러는 동안 누런 풀밭 길 위로는
심술궂은 저녁 햇살의 눈길들이
검은 나무들 사이로 그대 주위를 내달렸지,
눈부시게 이글거리는 태양의 눈길들이, 고소해하며.

"진리의 구혼자라고? 그대가?" 햇살들은 그렇게 비웃었다.
"아니다! 한낱 시인일 뿐!
짐승이다, 교활하고, 약탈하고, 살금살금 기어드는 짐승,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알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짐승,
먹잇감에 군침을 흘리며,
알록달록 탈을 쓰고,
제 자신이 탈이 되고,
제 자신에게 먹잇감이 되는 짐승,
그것이 진리의 구혼자라고? 아니다!
한낱 바보! 한낱 시인!
알록달록한 것만 떠벌리고,
바보의 탈 속에서 알록달록 소리쳐 대며,
거짓된 말의 다리 위를 이리저리 오르내리고,
알록달록한 무지개 위를,
거짓 하늘들과
거짓 대지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한낱 바보! 한낱 시인!……"

"**그것이** 진리의 구혼자라고?
고요하고, 뻣뻣하고, 매끄럽고, 차갑게
조각상이 된 것도 아니고,
신의 기둥이 된 것도 아니고,
신전 앞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어느 신의 문지기도 아니다.
아니다! 그런 진리의 조각상들에게는 적의를 품고,
신전 앞보다 어느 황야에서나 더 편안하며,
고양이의 짓궂음으로 가득 차,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뛰어넘어
휙! 온갖 우연 속으로 뛰어들고,
원시림마다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몸이 달아 애타게 킁킁거리며,
원시림 속에서 그대가
얼룩덜룩한 맹수들 틈에 섞여
죄스럽도록 건강하게, 알록달록하게, 아름답게 달리기를,
군침 도는 주둥이로,
복에 겨워 조롱하며, 복에 겨워 지옥처럼, 복에 겨워 피에 주려,
약탈하며, 살금살금, 거짓말하며 달리기를……"

"아니면, 오래,
오래도록 꼼짝 않고 심연을,
제 심연을 내려다보는 독수리처럼……
오, 저 심연들이 여기서 얼마나 아래로,
밑으로, 안으로,
더욱더 깊은 깊이로 똬리 틀며 감겨 드는지!
그러다가,
느닷없이,
곧장 일직선으로,
뽑아 든 칼처럼 날아,
어린양들을 덮치기를,
쏜살같이 아래로, 허기에 불타,
어린양들에 군침을 흘리며,
어린양 같은 모든 영혼을 미워하며,
사납도록 미워하며, 모든 것을,
양처럼, 어린양의 눈을 하고, 곱슬곱슬한 털에,
잿빛으로, 양 같고 어린양 같은 호의를 품고 바라보는 모든 것을!"

"그렇게
독수리 같고, 표범 같은 것이
시인의 동경이다,
천 개의 탈 아래 숨은 **그대의** 동경이다,
그대 바보여! 그대 시인이여!"

"인간을
신으로도 양으로도 보았던 그대여,
인간 속의 신을 **찢어발기기**,
인간 속의 양을 찢어발기듯,
그리고 찢어발기며 **웃기**……"

"**그것이**, **그것이** 그대의 지복이다! 표범과 독수리의 지복! 시인과 바보의 지복!"

맑게 가라앉은 대기 속에,
달의 낫이 벌써
자줏빛 노을 사이로 푸르스름하게,
시샘하듯 살금살금 기어갈 때,
낮을 적으로 여기며,
걸음마다 몰래
장밋빛 해먹들을
낫질해 대어, 마침내 해먹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밤 쪽으로 창백하게 가라앉아 내릴 때까지.

그렇게 나 자신도 한때 가라앉았다,
진리에 미친 나의 광기에서,
낮을 향한 나의 동경에서,
낮에 지치고, 빛에 병들어,
아래로, 저녁으로, 그림자로 가라앉았다.
단 하나의 진리에
불타고 목말라서.
그대는 아직 기억하는가, 기억하는가, 뜨거운 가슴이여,
그때 그대가 얼마나 목말라했는지?
내가 쫓겨나다니,
모든 진리에서,
한낱 바보! 한낱 시인!

학문에 대하여

마술사는 이렇게 노래했다. 그러자 한자리에 모여 있던 자들은 모두 새들처럼 저도 모르게 그의 교활하고 우울한 쾌락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오직 정신의 양심가만이 걸려들지 않았으니, 그는 재빨리 마술사에게서 하프를 빼앗고 외쳤다. "공기를! 좋은 공기를 들여라! 차라투스트라를 들여라! 그대는 이 동굴을 후텁지근하고 독기 서리게 만드는구나, 그대 고약한 늙은 마술사여!"

"그대 거짓된 자여, 교묘한 자여, 그대는 알지 못하던 욕망과 황야로 꾀어 들인다. 그리고 슬프다, 그대 같은 자들이 **진리**를 두고 요란하게 떠들어 댈 때면!"

"슬프다, **이런** 마술사들을 경계하지 않는 모든 자유로운 정신들이여! 그들의 자유는 이제 끝장이다. 그대는 가르치고 꾀어서 그들을 도로 감옥으로 끌고 가니……"

"……그대 늙고 우울한 악마여, 그대의 탄식에서는 꾀어내는 피리 소리가 울린다. 그대는 순결을 찬양하면서 남몰래 쾌락으로 불러들이는 자들과 같다!"

양심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늙은 마술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제 승리를 누렸고, 그 흐뭇함에 양심가가 안긴 언짢음쯤은 꿀꺽 삼켜 버렸다. "조용히 하라!" 그가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노래는 좋은 메아리를 원한다. 좋은 노래를 듣고 나면 오래 침묵해야 하는 법이다."

"여기 있는 이들, 더 높은 인간들은 모두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대는 내 노래를 별로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지? 그대 안에는 마법의 영이 별로 없구나."

"그대는 나를 그대에게서 떼어 놓음으로써 나를 칭찬하는구나." 양심가가 맞받았다. "좋다! 그런데 그대들 나머지는, 이게 무슨 꼴인가? 그대들은 모두 아직도 군침 흘리는 눈을 하고 앉아 있구나."

"자유로운 영혼들이여, 그대들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내 보기에 그대들은 고약한 춤을 추는 벌거벗은 아가씨들을 오래도록 구경한 자들과 거의 닮았다. 그대들의 영혼이 저 스스로 춤추고 있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 안에는 마술사가 제 사악한 마법과 속임수의 영이라 부르는 것이 나보다 더 많이 들어 있음이 틀림없다. 우리는 아무래도 서로 다른 모양이다."

"그리고 진실로, 차라투스트라가 제 동굴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넉넉히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했으니, 모를 수가 없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여기 위에서도 그대들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찾는다**. 나로 말하자면 **더 큰 안전**을 찾아서 차라투스트라에게 왔다. 그는 아직도 가장 굳건한 탑이요 의지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온 대지가 떨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러나 그대들이 짓는 눈빛을 보노라면, 내게는 그대들이 거의 더 큰 **불안**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더 많은 전율을, 더 많은 위험을, 더 많은 지진을. 그대들은 탐낸다, 내 짐작에는 그렇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주제넘은 나의 짐작을 용서하라……"

"……그대들은 가장 고약하고 가장 위험한 삶을 탐낸다. **내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기는 삶을, 사나운 짐승들의 삶을, 숲과 동굴과 가파른 산과

길 잃게 하는 협곡을."

"그리고 그대들 마음에 가장 드는 것은 위험 **밖으로** 이끌어 내는 길잡이들이 아니라, 그대들을 모든 길에서 끌어내는 자들, 곧 꾀어내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런 탐욕이 그대들에게 **정말로** 있다 해도, 내게는 그것이 여전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이 대물림해 온 근본 감정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설명되니, 대물림된 죄도 대물림된 덕도 그렇다. **나의** 덕 또한 두려움에서 자라났으니, 그 이름은 학문이다."

"사나운 짐승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인간에게 길러져 몸에 밴 것이니, 인간이 제 안에 품고 두려워하는 짐승에 대한 두려움도 거기 든다. 차라투스트라는 그것을 '속에 든 짐승'이라 부른다."

"이렇게 길고 오래된 두려움이 마침내 섬세해지고, 영적이 되고, 정신적이 되었으니, 내 생각에 오늘날 그 이름은 학문이다."

양심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마침 동굴로 돌아와 마지막 말을 듣고 그 뜻을 알아챈 차라투스트라가 양심가에게 장미 한 줌을 던져 주고는 그의 '진리들'을 두고 웃었다. "뭐라고!" 그가 외쳤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가? 진실로, 내 보기에 그대가 바보이거나 나 자신이 바보다. 그대의 '진리'를 나는 당장 휙 뒤집어 물구나무 세우리라."

"**두려움**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예외다. 그러나 용기와 모험, 그리고 불확실한 것과 아무도 감행하지 않은 것을 즐기는 기쁨, 곧 **용기**야말로 내가 보기에 인간의 선사 시대 전체다."

"가장 사납고 가장 용감한 짐승들을 시샘하여 인간은 그들의 덕을 모조리 앗아 오고 빼앗았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되었다."

"**이** 용기가 마침내 섬세해지고, 영적이 되고, 정신적이 되었으니, 독수리의 날개와 뱀의 슬기를 갖춘 이 인간의 용기, **그것의** 오늘날

이름은, 내 생각에……"

"차라투스트라!" 함께 앉아 있던 자들이 모두 한 입으로 외치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무거운 구름 같은 것이 걷혀 올라갔다. 마술사도 웃으며 슬기롭게 말했다. "좋다! 그놈이 떠났다, 나의 악령이!"

"그놈은 사기꾼이요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그놈을 조심하라고 내가 몸소 그대들에게 일러 주지 않았던가?"

"특히 그놈이 벌거벗은 채 나타날 때는 말이다. 그러나 그놈의 간계를 **낸들** 어쩌겠는가! 그놈과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단 말인가?"

"좋다! 다시 사이좋게, 기분 좋게 지내자! 벌써 차라투스트라가 성난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저것 좀 보라! 그는 나를 못마땅해한다……"

"……밤이 오기 전에 그는 다시 나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법을 배우리라. 그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는 오래 살지 못한다."

"**저자는**…… 제 원수를 사랑한다. 내가 본 모든 자 가운데 이 기술에는 그가 가장 능하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복수를 한다…… 제 벗들에게!"

늙은 마술사는 이렇게 말했고, 더 높은 인간들은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한 바퀴 돌며 짓궂은 마음과 사랑을 담아 벗들과 악수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은 모두에게 무언가 바로잡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있는 자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돌다가 동굴 문 앞에 이르자, 보라, 그는 벌써 다시 바깥의 좋은 공기와 그의 짐승들이 그리워져서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사막의 딸들 틈에서

1

"떠나지 마라!" 그때 스스로를 차라투스트라의 그림자라 부르던 방랑자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라. 그러지 않으면 저 묵은 답답한 시름이 다시 우리를 덮칠지도 모른다."

"저 늙은 마술사는 벌써 제게 있는 가장 고약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이랍시고 우리에게 대접했고, 보라, 저기 선량하고 경건한 교황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다시 우울의 바다로 아예 배를 띄워 나가 버렸다."

"이 왕들은 우리 앞에서 아직은 좋은 낯을 꾸밀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그것을 가장 잘 익힌 자가 바로 **저들**이니까! 그러나 지켜보는 자가 없다면, 장담하건대, 저들에게서도 그 궂은 놀음이 다시 시작되리라……"

"……흘러가는 구름과 축축한 우울과 휘장 드리운 하늘과 도둑맞은 해와 울부짖는 가을바람이 벌이는 궂은 놀음이,"

"……우리가 울부짖고 절박하게 외쳐 대는 궂은 놀음이. 오, 차라투스트라여, 우리와 함께 머물라! 여기에는 말하고 싶어 하는 숨은 비참이 많고, 저녁이 많고, 구름이 많고, 답답한 공기가 많다!"

"그대는 든든한 사내의 음식과 힘찬 잠언으로 우리를 먹였다. 후식 삼아 무르고 여자 같은 영들이 다시 우리를 덮치게 두지 마라!"

"그대만이 그대 주위의 공기를 힘차고 맑게 만든다! 그대 곁, 그대의 동굴에서만큼 좋은 공기를 내가 이 땅에서 일찍이 만나 본 적이 있던가?"

"나는 참으로 많은 나라를 보았고, 내 코는 온갖 공기를 가려 맡고 값을 매기는 법을 익혔다. 그러나 그대 곁에서 내 콧구멍은 가장 큰 기쁨을 맛본다!"

"다만, 다만 한 곳을 빼고는…… 오, 오래된 추억 하나를 용서하라! 내가 언젠가 사막의 딸들 틈에서 지은 오래된 후식 노래 하나를 용서해다오……"

"……그 아가씨들 곁에도 그만큼 좋고 환한 동방의 공기가 있었으니, 그곳에서 나는 구름 끼고 축축하고 우울한 늙은 유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시절 나는 그런 동방의 아가씨들을 사랑했고, 구름도 생각도 걸려 있지 않은 또 다른 파란 천국을 사랑했다."

"그대들은 믿지 못하리라, 그 아가씨들이 춤추지 않을 때면 얼마나 얌전히 앉아 있었는지를. 깊되 생각은 없이, 작은 비밀들처럼, 리본을 두른 수수께끼들처럼, 후식에 나오는 호두들처럼……"

"참으로 알록달록하고 낯설었지! 그러나 구름은 없었다. 풀 수 있는 수수께끼들이었다. 그런 아가씨들을 위해 나는 그때 후식 시편 한 편을 지었다."

방랑자이자 그림자인 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누가 대꾸하기도 전에 그는 벌써 늙은 마술사의 하프를 움켜쥐고 다리를 꼬고 앉아, 태연하고 지혜로운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고 낯선 공기를 맛보는 자처럼 콧구멍으로 천천히, 무언가를 캐묻듯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포효하듯 목청을 돋우어 노래를 시작했다.

2

사막은 자란다. 슬프다, 사막을 품은 자여!

하! 장엄하구나!
참으로 장엄하구나!
위엄 있는 시작이로다!
아프리카답게 장엄하구나!
사자에게나 걸맞은,
아니면 도덕적인 고함원숭이에게나 걸맞을……
……그러나 그대들에게는 당치도 않다,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벗님들이여,
그대들의 발치에
난생처음으로,
유럽인인 내가, 야자나무 아래
앉도록 허락받았으니. 셀라.[1]

참으로 놀랍도다!
이제 나는 여기 앉아 있다,
사막 가까이, 그러면서도 벌써
다시 사막에서 이토록 멀리,
그러고도 아직 어디 하나 사막처럼 황폐해지지 않은 채.
말하자면 꿀꺽 삼켜졌다,
이 더없이 작은 오아시스에게.
……오아시스는 마침 하품을 하며
제 사랑스러운 아가리를 쩍 벌렸던 참이다,
세상 모든 작은 입 가운데 가장 향긋한 입을.
그 안으로 나는 떨어졌다,
아래로, 그 속을 지나, 그대들 틈으로,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벗님들이여! 셀라.

복되도다, 복되도다, 저 고래여,
제 손님을 그처럼
편히 지내게 해 주었다면! 그대들은 알아듣는가,
나의 이 유식한 빗댐을?[2]
복되도다, 그 고래의 배여,
그 배가 그처럼
이리도 사랑스러운 오아시스의 배였다면,
바로 이 배처럼.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의심한다,
……어쨌거나 나는 유럽에서 왔으니까,
늙수그레한 그 어떤 마누라보다도
의심병이 깊은 유럽에서.
부디 신이 이를 고쳐 주기를!
아멘!

이제 나는 여기 앉아 있다,
이 더없이 작은 오아시스에,
대추야자 한 알처럼,
갈색으로, 속속들이 달고, 금빛 진물이 맺히고, 군침을 흘리며
아가씨의 동그란 입을 탐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아가씨다운
얼음처럼 싸늘하고 눈처럼 새하얗고 서슬 퍼런
깨무는 이빨을 탐한다. 바로 그 이빨을
뜨거운 대추야자들의 마음은 모두 애타게 그리니까. 셀라.

앞서 말한 남국의 과일들을
닮아, 너무나 닮아
나는 여기 누워 있다, 작은
날개 달린 딱정벌레들이
내 둘레를 춤추듯 맴돌며 노니는 가운데,
그보다 더 작고
더 어리석고 더 짓궂은
소망과 착상들도 그러는 가운데,
그대들에게 에워싸인 채,
그대 말 없는, 그대 무언가를 예감하는
아가씨 고양이들이여,
두두와 줄라이카여,
……**스핑크스싸여**(umsphinxt), 한 낱말에
여러 느낌을 욱여넣자면 그렇다.
(신이 나의 이 언어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여기 앉아 가장 좋은 공기를 킁킁 맡는다,
참으로 낙원의 공기를,
밝고 가벼운 공기, 금빛 줄무늬 진 공기를,
일찍이 달에서나 떨어져 내렸을
그만큼 좋은 공기를.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흥에 겨워 벌어진 일이었을까?
옛 시인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나 의심 많은 나는 그것을
의심한다, 어쨌거나 나는
유럽에서 왔으니까,
늙수그레한 그 어떤 마누라보다도

의심병이 깊은 유럽에서.
부디 신이 이를 고쳐 주기를!
아멘!

이 더없이 아름다운 공기를 들이켜며,
콧구멍을 술잔처럼 부풀리고, 미래도 없이, 추억도 없이,
이렇게 나는 여기 앉아 있다,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벗님들이여,
그리고 야자나무를 바라본다,
야자나무가 춤추는 여인처럼
몸을 휘고 꼬고 엉덩이를 살랑 흔드는 모습을.
……오래 보고 있으면 절로 따라 하게 된다!
춤추는 여인처럼, 내 보기에는,
벌써 너무 오래, 위태로울 만큼 오래
언제나, 언제나 한 다리로만 서 있었던가?
……그러다 그만, 내 보기에는,
다른 쪽 작은 다리를 잊어버렸던가?
적어도 나는 헛되이
잃어버린 쌍둥이 보물을 찾았다,
……다시 말해 다른 쪽 다리를……
그 거룩한 언저리에서,
사랑스럽기 그지없고 앙증맞기 그지없는
부채 같고 팔랑이고 반짝이 달린 짧은 치마 언저리에서.
그렇다, 아리따운 벗님들이여, 그대들이
내 말을 온전히 믿어 준다면,
잃어버렸다, 그 다리를!
사라졌다!
영영 사라졌다!
다른 쪽 다리가!
오, 아깝구나, 그 사랑스러운 다른 쪽 다리가!
어디에…… 그 다리는 머물며 버림받은 채 슬퍼하고 있을까?
그 외로운 다리는?

어쩌면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사납고 누렇고 금빛 곱슬 갈기를 한
사자 괴물이 무서워서? 아니면 벌써
갉아 먹히고, 오독오독 뜯어 먹혔을까……
가엾게도, 슬프다! 슬프다! 뜯어 먹혔을까! 셀라.

오, 울지 마라,
여린 마음들이여!
울지 마라, 그대
대추야자 마음들이여! 젖빛 가슴들이여!
그대 감초처럼 달큼한
작은 심장 주머니들이여!
더는 울지 마라,
창백한 두두여!
사내가 되어라, 줄라이카여! 용기를! 용기를!
……아니면 혹시
무언가 기운을 돋우는 것, 심장을 돋우는 것이
여기에 제격이려나?
기름 부음 받은 잠언 한마디?
엄숙한 격려 한마디?

하! 일어나라, 위엄이여!
덕의 위엄이여! 유럽인의 위엄이여!
불어라, 다시 불어라,
덕의 풀무여!
하!
한 번 더 포효하자,
도덕적으로 포효하자!
도덕적인 사자가 되어
사막의 딸들 앞에서 포효하자!
……덕의 울부짖음이야말로,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아가씨들이여,
그 무엇보다도
유럽인의 열정이요, 유럽인의 걸신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벌써 여기 서 있다,
유럽인으로서.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다, 신이 나를 돕기를![3]
아멘!

사막은 자란다. 슬프다, 사막을 품은 자여!

---

1. 셀라(Sela)는 구약 시편에 자주 나오는 히브리어 낱말로, 노래의 쉼이나 곡조를 지시하는 말로 여겨진다. 개역한글 성경도 '셀라'라고 적는다.

2.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그 배 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낸 이야기(요나서 1~2장)를 빗댄 것이다. 루터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 물고기를 '고래'라고 옮겼다.

3. 1521년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마르틴 루터가 자기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물리치며 했다고 전하는 말 '나는 여기 서 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다. 신이 나를 돕기를. 아멘.'을 비튼 것이다.

깨어남

1

방랑자이자 그림자인 자의 노래가 끝나자 동굴은 단번에 소란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모여 있던 손님들이 저마다 한꺼번에 떠들어 대고 이런 부추김에 나귀마저 더는 잠자코 있지 않자, 차라투스트라에게는 손님들을 향한 가벼운 싫증과 비웃음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도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반가웠으니, 그것이 건강을 되찾는 징조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슬그머니 탁 트인 바깥으로 빠져나가 그의 짐승들에게 말했다.

"저들의 곤경은 이제 어디로 갔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벌써 그 자신도 작은 싫증을 털어 내고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저들은 내 곁에서 절박한 외침을 잊어버렸다!"

"……안타깝게도 외침까지 잊지는 못했지만." 그러고는 차라투스트라는 두 귀를 틀어막았으니, 마침 나귀의 이-아 소리가 이 더 높은 인간들의 떠들썩한 환호성에 기묘하게 뒤섞여 들려왔기 때문이다.

"저들은 즐겁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저들을 맞아들인 주인을 웃음거리 삼아 즐거운지도 모르고, 저들이 내게서 웃는 법을 배웠다 해도 저들이 배운 것이 **나의** 웃음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엇이냐! 저들은 늙은이들이라 저들 나름대로 건강을 되찾고 저들 나름대로 웃는다. 내 귀는 이보다 더 고약한 것도 견뎌 왔고, 그래도 언짢아지지 않았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니, 벌써 물러간다, 달아난다, **중력의 영**이, 나의 오랜 숙적이! 그토록 고약하고 무겁게 시작된 이날이 얼마나 좋게 끝나려 하는가!"

"그리고 이날은 끝나기를 **원한다**. 벌써 저녁이 오니, 바다 저편에서 말을 달려온다, 저 훌륭한 기수가! 복된 자, 집으로 돌아오는 자가 자줏빛 안장 위에서 얼마나 흔들흔들 몸을 맡기고 있는가!"

"하늘은 맑은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세상은 깊이 누워 있으니, 오, 내게 찾아온 그대들 기이한 자들이여, 내 곁에서 살아 볼 보람이 벌써 있지 않은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또다시 더 높은 인간들의 고함과 웃음소리가 동굴에서 흘러나왔고, 그래서 그는 새로 말을 꺼냈다.

"저들이 덥석 문다, 내 미끼가 먹혀들어서 저들에게서도 저들의 적인 중력의 영이 물러간다. 벌써 저들은 자기 자신을 두고 웃는 법을 배운다.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나의 사내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나의 잠언이 효험을 낸다. 그리고 진실로, 나는 저들에게 헛배나 부르게 하는 푸성귀를 먹이지 않았다! 나는 전사의 음식, 정복자의 음식을 먹여 새로운 욕망들을 깨웠다."

"저들의 팔다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깃들고 저들의 가슴은 활짝 기지개를 켠다. 저들은 새로운 말들을 찾아내니, 머지않아 저들의 정신은 짓궂은 흥으로 숨 쉬리라."

"물론 이런 음식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경에 젖은 늙고 젊은 아낙들을 위한 것도 아니리라. 그런 자들의 창자는 달리 구슬려야 하는 법이니, 나는 그들의 의사도 스승도 아니다."

"이 더 높은 인간들에게서 **역겨움**이 물러간다. 좋다! 그것이 나의 승리다. 내 나라에서 저들은 마음을 놓게 되고, 어리석은 부끄러움은 모두 달아나며, 저들은 속엣것을 쏟아 낸다."

"저들은 마음을 쏟아 놓고, 좋은 시간이 저들에게 되돌아오며, 저들은 잔치를 벌이고 되새김질하니, 저들은 **고마워할 줄** 알게 된다."

"**그것을** 나는 가장 좋은 징조로 여긴다. 저들이 고마워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을. 머지않아 저들은 축제를 생각해 내고, 저들의 옛 기쁨들을 기려 기념비를 세우리라."

"저들은 **건강을 되찾는 자들**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즐겁게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하고는 바깥을 내다보았고, 그의 짐승들은 그에게 바싹 다가붙어 그의 행복과 그의 침묵을 존중해 주었다.

2

그런데 갑자기 차라투스트라의 귀가 깜짝 놀랐으니, 이제껏 소란과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동굴이 한순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코에는 솔방울이 타는 듯한 향긋한 연기와 향내가 풍겨 왔다.

"무슨 일인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그는 속으로 묻고,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지켜볼 수 있도록 입구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런데 이게 웬 기적 중의 기적인가! 그가 거기서 제 눈으로 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저들이 모두 다시 **경건**해졌구나, **기도**를 하는구나, 미쳤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랐다. 그리고 참으로! 이 더 높은 인간들 모두가, 곧 두 왕, 퇴직한 교황, 고약한 마술사, 스스로 거지가 된 자, 방랑자이자 그림자인 자, 늙은 예언자, 정신의 양심가, 그리고 가장 추한 인간이 모두 아이들처럼, 믿음 깊은 늙은 아낙들처럼 무릎을 꿇고 나귀를 경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 가장 추한 인간이 무언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서 빠져나오려는 듯 그르렁거리고 씩씩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정말로 그것을 말로 뱉어 내기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것은 경배받고 분향받는 나귀를 찬양하는 경건하고 기이한 연도(連禱)였다. 그 연도는 이러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우리 신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1]

그러자 나귀가 이-아 하고 울었다.

그는 우리의 짐을 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으며, 마음으로 오래 참고,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 신을 사랑하는 자는 제 신을 징계하느니라.

그러자 나귀가 이-아 하고 울었다.

그는 말하지 않으니, 다만 자기가 지은 세상에 언제나 '그렇다'고 말할 뿐이요, 그렇게 그는 자기 세상을 찬양한다. 말하지 않는 것은 그의 약삭빠름이니, 그러므로 그가 틀렸다는 소리를 듣는 일은 드물도다.

그러자 나귀가 이-아 하고 울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세상을 지나간다. 잿빛은 그가 즐겨 입는 몸빛이니, 그는 그 빛깔로 제 덕을 감싼다. 그에게 정신이 있다 해도 그는 그것을 감추나니, 누구나 그의 기다란 귀만은 믿는도다.

그러자 나귀가 이-아 하고 울었다.

기다란 귀를 달고서 오직 '그렇다'라고만 할 뿐 '아니다'라고는 결코 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추어진 지혜인가! 그는 세상을 자기 형상대로, 곧 될 수 있는 한 어리석게 지어내지 않았던가?

그러자 나귀가 이-아 하고 울었다.

그대는 곧은 길도 가고 굽은 길도 가나니,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곧아 보이고 무엇이 굽어 보이든 그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대의 나라는 선과 악의 저편에 있도다. 순진무구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것이 그대의 순진무구함이로다.

그러자 나귀가 이-아 하고 울었다.

보라, 그대는 아무도 내쫓지 않는다, 거지들도 왕들도. 어린아이들이 그대에게 오는 것을 그대는 용납하고, 악한 자들이 그대를 꾀면 그대는 순박하게 이-아 하고 말하도다.

그러자 나귀가 이-아 하고 울었다.

그대는 암나귀와 싱싱한 무화과를 사랑하니, 그대는 맛난 것을 마다하는 자가 아니다. 마침 배가 고플 때면 엉겅퀴 하나가 그대의 가슴을 간질인다. 바로 거기에 한 신의 지혜가 있도다.

그러자 나귀가 이-아 하고 울었다.

---

1. 요한계시록 7장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개역한글)을 비튼 것이다. 이어지는 연도에도 성경 구절을 비튼 대목이 섞여 있다(빌립보서 2장 7절 '종의 형체', 히브리서 12장 6절 '징계', 창세기 1장 27절 '자기 형상대로', 마가복음 10장 14절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잠언 1장 10절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나귀 축제

1

그러나 연도가 이 대목에 이르자 차라투스트라는 더는 자신을 억누를 수 없어서, 나귀보다도 더 큰 소리로 몸소 이-아 하고 외치고는 미쳐 버린 손님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아니, 거기서 무슨 짓들을 하는가, 그대 인간의 자식들이여?" 그는 기도하는 자들을 바닥에서 잡아 일으키며 외쳤다. "슬프다, 차라투스트라 말고 다른 누가 그대들을 지켜보았더라면!"

"누구든 그대들을 보면, 새 믿음을 품은 그대들이야말로 가장 지독하게 신을 모독하는 자들이거나 모든 늙은 아낙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아낙들이라고 판정하리라!"

"그리고 그대, 그대 늙은 교황이여, 그대가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나귀를 신으로 경배하다니, 그것이 그대 자신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오, 차라투스트라여." 교황이 대답했다. "용서하라. 그러나 신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그대보다도 더 계몽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 아무 모습도 없는 신을 경배하느니 차라리 이런 모습으로라도 신을 경배하는 편이 낫다! 나의 높은 벗이여, 이 잠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이런 잠언에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대는 금세 알아채리라."

"'신은 영이다'라고 말한 자,[1] 그자야말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불신앙을 향해 가장 큰 걸음을 내딛고 가장 크게 뛰어오른 자이니, 그런 말은 이 땅에서 쉽사리 다시 바로잡을 수가 없다!"

"이 땅에 아직도 경배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 내 늙은 가슴은 뛰고 또 뛰논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늙고 경건한 교황의 마음이 그러는 것이니 용서하라!"

"그리고 그대." 차라투스트라가 방랑자이자 그림자인 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자유로운 정신을 자처하고 또 그렇다고 믿는가? 그런데 여기서 이런 우상 숭배와 사제 놀음을 벌이는가?"

"진실로, 그대는 그대의 고약한 갈색 아가씨들 곁에서보다 여기서 더 고약하게 구는구나, 그대 고약한 새 신자여!"

"고약하고말고." 방랑자이자 그림자인 자가 대답했다. "그대 말이 옳다. 그러나 낸들 어쩌겠는가! 옛 신이 다시 살아났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가 무슨 말을 하든."

"모든 것은 가장 추한 인간 탓이니, 그자가 그를 다시 깨워 일으켰다. 그리고 그자가 언젠가 그를 죽였다고 말한다 해도, 신들에게 **죽음**이란 언제나 한낱 편견일 뿐이다."

"그리고 그대."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그대 고약한 늙은 마술사여, 무슨 짓을 했는가! **그대가** 신들을 두고 벌이는 이따위 나귀 짓거리를 믿는다면, 이 자유로운 시대에 앞으로 누가 그대를 믿겠는가?"

"그대가 한 짓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대 슬기로운 자여, 어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오, 차라투스트라여." 슬기로운 마술사가 대답했다. "그대 말이 옳다. 어리석은 짓이었다. 나로서도 그 짓을 하기가 여간 괴롭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마저!" 차라투스트라가 정신의 양심가에게 말했다. "잘 따져 보라, 손가락을 코에 대고서! 여기에 그대의 양심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대의 정신은 이런 기도와 이 기도쟁이들이 피워 올리는 자욱한 연기를 견디기에는 너무 결벽하지 않은가?"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다." 양심가가 손가락을 코에 대며 대답했다. "이 구경거리에는 내 양심에 오히려 이로운 무언가가 있다."

"어쩌면 나는 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지도 모르나, 확실한 것은 신이 이런 모습일 때 내게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해 보인다는 점이다."

"가장 경건한 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은 영원하다고 하니, 그토록 시간이 많은 자는 느긋하게 시간을 들이는 법이다. 될 수 있는 한 느리게, 될 수 있는 한 어리석게. **그렇게 해서** 그런 자는 참으로 멀리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이 너무 많은 자라면 어리석음과 바보스러움 그 자체에 바보처럼 반해 버리고 싶어질 법도 하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대 자신도, 진실로! 그대도 넘치는 풍요와 지혜 탓에 나귀가 될 수 있으리라."

"완전한 현자는 가장 굽은 길을 즐겨 걷지 않는가? 오, 차라투스트라여, 눈앞의 증거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 **그대가** 보여 주는 눈앞의 증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대." 차라투스트라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나귀를 향해 팔을 쳐들고 있는 가장 추한 인간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그는 나귀에게 포도주를 먹이던 참이었다). "말하라, 그대 말로 할 수 없는 자여,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가!"

"그대는 변한 것 같구나, 그대의 눈은 이글거리고 숭고한 자의 외투가 그대의 추함을 감싸고 있으니,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저들 말대로 그대가 그를 다시 깨워 일으켰다는 것이 정말인가? 무엇 하러? 그는 까닭이 있어서 죽임을 당하고 끝장나지 않았던가?"

"그대 자신이 깨어난 것 같다.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그대가** 무엇을 뒤집었는가? **그대가** 어쩌자고 돌이켰는가? 말해 보겠는가, 그대 말로 할 수 없는 자여?"

"오, 차라투스트라여." 가장 추한 인간이 대답했다. "그대는 능청꾼이로구나!"

"**그가** 아직 살아 있는지, 다시 살아났는지, 아니면 철저히 죽었는지, 우리 둘 가운데 누가 그것을 가장 잘 아는가? 나는 그대에게 묻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언젠가 그대 자신에게서 배운 것이니, 가장 철저하게 죽이려는 자는 **웃는다**."

"'사람은 분노가 아니라 웃음으로 죽인다.' 그대는 언젠가 그렇게 말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 숨은 자여, 분노 없이 허무는 자여, 그대 위험한 성자여, 그대는 능청꾼이로구나!"

2

그러자 이런 능청스러운 대답들만 줄줄이 듣고 놀라워하던 차라투스트라는 동굴 문 쪽으로 뛰어 물러나, 손님들 모두에게로 몸을 돌리고는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오, 그대들 모두 능청맞은 바보들이여, 그대 어릿광대들이여! 어찌하여 내 앞에서 시치미를 떼고 숨는가!"

"그대들이 마침내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처럼, 곧 경건해졌다는 것에 그대들 하나하나의 가슴이 기쁨과 짓궂은 마음으로 얼마나 팔딱거렸던가……"

"……그대들이 마침내 다시 아이들이 하는 대로, 곧 기도하고 두 손을 모으고 '사랑하는 신이여' 하고 말했다는 것에!"

"그러나 이제 **이** 아이 방에서는 나가 다오, 오늘 온갖 아이 짓이 제집처럼 들어앉은 나의 동굴에서는. 여기 바깥에서 그대들의 뜨거운 아이다운 들뜸과 가슴속 소란을 식혀라!"

"물론 그대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차라투스트라는 두 손으로 위쪽을 가리켰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장성한 사내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대지의 나라를 원한다."

3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오, 나의 새로운 벗들이여." 그가 말했다. "그대 기이한 자들이여, 그대 더 높은 인간들이여, 이제 그대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지……"

"……그대들이 다시 즐거워진 뒤로! 진실로 그대들은 모두 활짝 피어났다. 내 생각에 그대들 같은 꽃들에게는 **새로운 축제**가 필요하다,"

"……작고 대담한 헛짓 하나, 무슨 예배이자 나귀 축제 하나, 늙고 쾌활한 차라투스트라 바보 하나, 그대들의 영혼을 불어서 환히 밝혀 줄 세찬 바람 하나가."

"더 높은 인간들이여, 이 밤과 이 나귀 축제를 잊지 마라! **그것을** 그대들은 내 곁에서 생각해 냈으니, 나는 그것을 좋은 징표로 여긴다. 그런 것은 건강을 되찾는 자들만이 생각해 낸다!"

"그리고 이 나귀 축제를 다시 벌이거든,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여 이것을 행하고, 나를 사랑하여서도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1.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가 한 말 '하나님은 영이시니'(개역한글)를 가리킨다.

밤을 헤매는 자의 노래

1

그사이 손님들은 하나씩 차례로 바깥으로, 서늘하고 생각에 잠긴 밤 속으로 걸어 나와 있었고, 차라투스트라 자신은 가장 추한 인간에게 자신의 밤 세상과 크고 둥근 달과 동굴 곁의 은빛 폭포들을 보여 주려고 그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마침내 그들은 한데 모여 말없이 서 있었으니, 모두 늙은이들이었으나 위로받은 용감한 마음을 품고서, 이 땅에서 이토록 흐뭇하다는 것을 속으로 놀라워했다. 그리고 밤의 은밀함이 그들의 가슴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금 속으로 생각했다. "오, 이 더 높은 인간들이 이제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가!"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니,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침묵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그 놀랍고도 긴 하루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가장 추한 인간이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르렁거리고 씩씩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마침내 그것을 말로 뱉어 내기에 이르렀을 때, 보라, 물음 하나가 둥글고 말끔하게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으니, 귀 기울이던 모든 이의 가슴속까지 뒤흔든 좋고 깊고 맑은 물음이었다.

"벗들이여, 그대들 모두여." 가장 추한 인간이 말했다. "그대들 생각에는 어떠한가? 이 하루를 위해서라면…… **나는** 처음으로, 한평생을 다 살아온 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증거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 대지에서 사는 것은 보람이 있다. 차라투스트라와 함께한 단 하루, 단 한 번의 축제가 내게 대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삶이었던가?' 나는 죽음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좋다! 다시 한번!'"

"벗들이여, 그대들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대들도 나처럼 죽음에게 이렇게 말하려 하지 않는가? '그것이 삶이었던가? 차라투스트라를 위해서라면, 좋다! 다시 한번!'"

가장 추한 인간은 이렇게 말했다. 한밤이 멀지 않은 무렵이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그대들은 생각하는가? 더 높은 인간들은 그의 물음을 듣자마자 단번에 자신들이 변했고 건강을 되찾았음을, 그리고 누가 그것을 자신들에게 주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러자 그들은 차라투스트라에게 달려들어 저마다 제 성품대로 고마워하고, 공경하고, 어루만지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으니, 어떤 이들은 웃고 어떤 이들은 울었다. 늙은 예언자는 흥에 겨워 춤을 추었는데, 어떤 이야기꾼들의 말처럼 그때 그가 달콤한 포도주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해도, 그는 틀림없이 달콤한 삶에 더욱 흠뻑 젖어 있었고 온갖 피로를 떨쳐 버린 뒤였다. 심지어 그때 나귀도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들 말로는 가장 추한 인간이 앞서 나귀에게 포도주를 먹인 데는 다 까닭이 있었다고 한다. 이 일은 그러했을 수도 있고 달랐을 수도 있겠으나, 그날 저녁 나귀가 정말로 춤을 추지 않았다 해도 그때는 나귀가 춤추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기이한 기적들이 일어났다. 요컨대 차라투스트라의 격언이 이르듯이, "그것이 다 무엇이냐!"

2

그러나 가장 추한 인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차라투스트라는 취한 자처럼 서 있었다. 눈빛은 꺼지고, 혀는 꼬부라지고, 발은 비틀거렸다. 그때 차라투스트라의 영혼 위로 어떤 생각들이 스쳐 갔는지 누가 알아맞힐 수 있으랴? 그러나 보아하니 그의 정신은 뒤로 물러났다가 앞질러 달아나 아득히 먼 곳에 가 있었으니, 말하자면 기록된 바와 같이[1] '두 바다 사이 높은 산마루를,'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 사이를 무거운 구름이 되어 거닐고' 있었다. 그러나 더 높은 인간들이 그를 팔에 안고 있는 사이 그는 차츰 조금씩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공경하며 걱정하며 몰려드는 자들을 두 손으로 물리쳤으나 입은 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들은 듯 재빨리 고개를 돌리더니 손가락을 입에 대고 말했다. "오라!"

그러자 곧 사방이 고요하고 은밀해졌고, 깊은 곳에서 종소리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다. 차라투스트라는 더 높은 인간들과 함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두 번째로 손가락을 입에 대고 다시 말했다. "오라! 오라! 한밤이 다가온다!" 그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자 더욱 고요하고 은밀해졌고, 모든 것이, 나귀도, 차라투스트라의 영예로운 짐승들인 독수리와 뱀도, 차라투스트라의 동굴도, 크고 서늘한 달도, 밤 그 자체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세 번째로 손을 입에 대고 말했다.

오라! 오라! 오라! 이제 거닐자! 시간이 되었다. 밤 속으로 거닐어 가자!

3

더 높은 인간들이여, 한밤이 다가온다. 이제 나는 그대들의 귀에 무언가를 말해 주려 한다, 저 늙은 종이 내 귀에 말해 주듯이.

그토록 은밀하게, 그토록 무섭게, 그토록 다정하게, 어느 한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겪은 저 한밤의 종이 내게 말하듯이.

그 종은 이미 그대들 아버지들의 가슴 아픈 고동을 하나하나 세었다. 아! 아! 한숨짓는구나! 꿈결에 웃는구나, 저 늙고 깊고 깊은 한밤이!

쉿! 쉿! 낮에는 소리 내어서는 안 되는 많은 것이 이런 때면 들려온다. 이제 서늘한 공기 속에서 그대들 가슴의 온갖 소란마저 잠잠해졌다.

이제 그것이 말하고, 이제 그것이 들려오고, 이제 그것이 밤중에 너무 깨어 있는 영혼들 속으로 살그머니 스며든다. 아! 아! 한숨짓는구나! 꿈결에 웃는구나!

그대는 듣지 못하는가, 저 늙고 깊고 깊은 한밤이 은밀하게, 무섭게, 다정하게 **그대에게** 말하는 것을? 오, 인간이여, 귀 기울여라!

4

슬프다!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깊은 우물 속으로 가라앉지 않았던가? 세상이 잠들어 있다……

아! 아! 개가 울부짖고, 달이 비친다. 내 한밤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대들에게 말하느니 차라리 죽으련다, 죽으련다.

이제 나는 벌써 죽었다. 다 지나가 버렸다. 거미여, 그대는 내 둘레에 무엇을 잣는가? 피를 원하는가? 아! 아! 이슬이 내린다, 그 시간이 온다……

……내가 으슬으슬 떨며 얼어붙는 시간, 묻고 묻고 또 묻는 시간이. "누가 그럴 만큼 담대한가?"

"누가 대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크고 작은 강물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흘러야 한다고 누가 말하려 하는가!"

그 시간이 다가온다. 오, 인간이여, 그대 더 높은 인간이여, 귀 기울여라! 이 말은 섬세한 귀를 위한 것, 그대의 귀를 위한 것이다. 깊은 한밤은 무어라 말하는가?

5

무언가가 나를 멀리 실어 간다, 내 영혼이 춤춘다. 낮의 일이여! 낮의 일이여! 누가 대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달은 서늘하고 바람은 말이 없다. 아! 아! 그대들은 벌써 충분히 높이 날았는가? 그대들은 춤추었다. 그러나 다리는 날개가 아니다.

그대 훌륭한 춤꾼들이여, 이제 모든 기쁨은 지나갔다. 포도주는 찌끼가 되었고, 잔마다 푸석하게 삭았으며, 무덤들이 더듬거린다.

그대들은 충분히 높이 날지 못했다. 이제 무덤들이 더듬거린다. "제발 죽은 자들을 구원하라! 어찌하여 밤이 이리도 긴가? 달이 우리를 취하게 하지 않는가?"

더 높은 인간들이여, 제발 무덤들을 구원하라, 주검들을 깨워 일으켜라! 아, 벌레는 아직도 무엇을 파고 있는가? 다가온다, 다가온다, 그 시간이.

종이 웅웅 울리고, 심장은 아직도 드르륵거리고, 나무를 파먹는 벌레가, 심장을 파먹는 벌레가 아직도 파고 있다. 아! 아! 세상은 깊다!

6

달콤한 수금이여! 달콤한 수금이여! 나는 그대의 소리를, 취한 무당개구리 울음 같은 그대의 소리를 사랑한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먼 데서 그대의 소리가 내게 오는가, 저 멀리, 사랑의 연못들에서!

그대 늙은 종이여, 그대 달콤한 수금이여! 온갖 아픔이 그대의 가슴을 찢었다, 아버지의 아픔이, 아버지들의 아픔이, 먼 조상들의 아픔이. 그대의 말은 무르익었다.

황금빛 가을과 오후처럼, 내 은자의 마음처럼 무르익었다. 이제 그대는 말한다. 세상 그 자체가 무르익었다, 포도송이가 갈빛으로 물든다.

이제 세상은 죽으려 한다, 행복에 겨워 죽으려 한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냄새를 맡지 못하는가? 은밀하게 냄새 하나가 솟아오른다.

영원의 향기와 냄새가, 장미처럼 복된 갈색 금빛 포도주의 냄새가, 오래된 행복의 냄새가,

한밤에 취해 죽어 가는 행복의 냄새가. 그 행복이 노래한다. 세상은 깊다, 낮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다!

7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나는 그대에게는 너무 순결하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세상이 방금 완전해지지 않았는가?

내 살갗은 그대의 손이 닿기에는 너무 순결하다. 나를 내버려 두어라, 그대 어리석고 어설프고 어둑한 낮이여! 한밤이 더 밝지 않은가?

가장 순결한 자들이 대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가장 알려지지 않은 자들, 가장 강한 자들, 어느 낮보다도 더 밝고 더 깊은 한밤의 영혼들이.

오, 낮이여, 그대는 나를 더듬어 찾는가? 내 행복을 더듬는가? 그대에게는 내가 부유하고 고독한 자로, 보물 구덩이로, 황금 곳간으로 보이는가?

오, 세상이여, 그대는 **나를** 원하는가? 그대에게 나는 세상의 것인가? 영의 것인가? 신의 것인가? 그러나 낮과 세상이여, 그대들은 너무 투박하다.

더 슬기로운 손을 가져라, 더 깊은 행복을, 더 깊은 불행을 붙잡아라, 아무 신이든 붙잡아라, 나를 붙잡지 마라.

내 불행은, 내 행복은 깊다, 그대 기이한 낮이여. 그러나 나는 신이 아니며 신의 지옥도 아니다. 세상의 고통은 깊다.

8

신의 고통은 더 깊다, 그대 기이한 세상이여! 나를 붙잡지 말고 신의 고통을 붙잡아라! 내가 무엇이란 말인가! 취한 달콤한 수금 하나,

한밤의 수금 하나,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귀먹은 자들 앞에서도 말해야만 **하는**, 종소리로 우는 무당개구리 하나일 뿐이다,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가 버렸다! 가 버렸다! 오, 젊음이여! 오, 정오여! 오, 오후여! 이제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한밤이 왔다. 개가 울부짖는다, 바람이……

……바람은 개가 아닌가? 바람은 낑낑대고, 컹컹 짖고, 울부짖는다. 아! 아! 한숨짓는구나! 웃는구나, 그르렁거리며 헐떡이는구나, 저 한밤이!

이 취한 시인이 방금 얼마나 맨정신으로 말하는가! 제 취기를 넘어서 버렸는가? 너무 깨어 버렸는가? 되새김질하는가?

저 늙고 깊은 한밤은 꿈결에 제 고통을 되새김질하고, 그보다 더 제 기쁨을 되새김질한다. 기쁨으로 말하자면, 고통이 이미 깊다 해도, 기쁨은 마음의 괴로움보다도 더 깊다.

9

그대 포도나무여! 어찌하여 나를 찬양하는가? 나는 그대를 잘라 내지 않았던가! 나는 잔인하고 그대는 피를 흘리는데, 내 취한 잔인함을 기리는 그대의 찬양은 무엇을 바라는가?

"완전해진 것은, 무르익은 모든 것은…… 죽으려 한다!" 그대는 그렇게 말한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포도 따는 칼이여! 그러나 무르익지 않은 모든 것은 살려고 한다. 슬프다!

고통은 말한다, "사라져라! 물러가라, 고통이여!" 그러나 괴로워하는 모든 것은 살려고 한다, 무르익고, 기쁨에 차고, 동경에 차도록.

더 먼 것, 더 높은 것, 더 밝은 것을 향한 동경에 차도록. "나는 상속자를 원한다." 괴로워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말한다. "나는 자식을 원한다, 나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쁨은 상속자를 원하지 않고 자식을 원하지 않으니, 기쁨은 자기 자신을 원하고, 영원을 원하고, 회귀를 원하고, 모든 것이 영원히 저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

고통은 말한다, "찢어져라, 피 흘려라, 가슴이여! 걸어라, 다리여! 날개여, 날아라! 올라라! 더 위로! 아픔이여!" 좋다! 자, 일어나라! 오, 나의 늙은 가슴이여, 고통은 말한다, "사라져라!"

10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 생각에는 어떠한가? 내가 예언자인가? 꿈꾸는 자인가? 취한 자인가? 해몽가인가? 한밤의 종인가?

이슬 한 방울인가? 영원의 안개요 향기인가? 그대들은 듣지 못하는가? 냄새 맡지 못하는가? 방금 나의 세상은 완전해졌다. 한밤은 또한 정오다.

아픔은 또한 기쁨이고, 저주는 또한 축복이며, 밤은 또한 하나의 해다. 떠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그대들은 배우게 되리라, 현자는 또한 바보라는 것을.

그대들은 언젠가 단 하나의 기쁨에 '그렇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오, 벗들이여,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든** 고통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모든 사물은 사슬로 엮이고, 실로 꿰이고, 사랑에 빠져 있다.

그대들이 언젠가 한 번을 두 번 원한 적이 있다면, 언젠가 "행복이여, 그대가 마음에 든다! 휙! 순간이여!" 하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대들은 **모든 것이** 돌아오기를 원했다!

모든 것이 새로이, 모든 것이 영원히, 모든 것이 사슬로 엮이고 실로 꿰이고 사랑에 빠진 채로 돌아오기를. 오, 그렇게 그대들은 세상을 **사랑했다**.

그대 영원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세상을 영원히, 언제까지나 사랑하며, 고통에게도 말한다. 사라져라, 그러나 돌아오라! 모든 기쁨은…… 영원을 원하기 때문이다!

11

모든 기쁨은 모든 사물의 영원을 원하고, 꿀을 원하고, 찌끼를 원하고, 취한 한밤을 원하고, 무덤을 원하고, 무덤가 눈물의 위안을 원하고, 금빛

입힌 저녁노을을 원한다.

기쁨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으랴! 기쁨은 모든 고통보다 더 목마르고, 더 다정하고, 더 굶주리고, 더 무섭고, 더 은밀하며, **자신을** 원하고 **자신을** 깨무니, 반지의 의지가 기쁨 속에서 씨름한다.

기쁨은 사랑을 원하고 미움을 원하며, 넘치도록 풍요로워서 베풀고, 내던지고, 누군가 자기를 가져가 달라고 구걸하고, 가져가는 자에게 고마워하며, 차라리 미움받기를 바란다.

기쁨은 너무도 풍요로워서 고통을 목말라하고, 지옥을, 미움을, 치욕을, 불구자를, **세상을** 목말라하니, 이 세상을, 오, 그대들은 잘 알지 않는가!

더 높은 인간들이여, 길들지 않은 복된 기쁨은 그대들을 동경하고, 그대들의 고통을 동경한다, 그대 실패작들이여! 모든 영원한 기쁨은 실패한 것을 동경한다.

모든 기쁨은 자기 자신을 원하고, 그러므로 마음의 괴로움도 원하기 때문이다! 오, 행복이여, 오, 아픔이여! 오, 찢어져라, 가슴이여! 더 높은 인간들이여, 부디 배워라.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

기쁨은 **모든** 사물의 영원을 원한다, 깊고 깊은 영원을 원한다!

12

이제 그대들은 내 노래를 배웠는가? 그 노래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맞혔는가? 좋다! 자, 일어나라! 더 높은 인간들이여, 그러면 이제 내게 나의 돌림노래를 불러 다오!

이제 그대들 스스로 내게 그 노래를 불러 다오. 이름은 '다시 한번'이요, 뜻은 '영원토록!'인 그 노래를. 불러라, 더 높은 인간들이여, 차라투스트라의 돌림노래를!

오, 인간이여! 귀 기울여라!
깊은 한밤은 무어라 말하는가?
"나는 잠들었다, 나는 잠들었다,
깊은 꿈에서 나는 깨어났다.
세상은 깊다,
낮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다.
세상의 고통은 깊다,
기쁨은 마음의 괴로움보다도 더 깊다.
고통은 말한다, 사라져라!
그러나 모든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
깊고 깊은 영원을 원한다!"

---

1. 제3부 '일곱 개의 봉인' 1절의 구절을 가져왔다. '기록된 바'는 신약 성경이 구약을 끌어올 때 쓰는 말투다(개역한글).

징조

그러나 이 밤이 지난 아침, 차라투스트라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동굴 밖으로 나왔다. 이글거리며 힘차게, 어두운 산들에서 솟아오르는 아침 해처럼.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는 일찍이 말했던 그대로 말했다. "그대 깊은 행복의 눈이여, 그대가 비추어 줄 **자들**이 없다면 그대의 그 모든 행복이 다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대는 벌써 깨어나 다가와서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그들이 제 방에 머물러 있다면, 그대의 긍지 높은 부끄러움이 그 일로 얼마나 노하겠는가!"

"좋다! **나는** 깨어 있는데 이 더 높은 인간들은 아직 자고 있다. **저들은** 나의 참된 길동무가 아니다! 내가 여기 내 산에서 기다리는 것은 저들이 아니다."

"나는 나의 일로, 나의 낮으로 가려 한다. 그러나 저들은 무엇이 내 아침의 징조인지 알아듣지 못하니, 나의 발걸음은…… 저들에게 잠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다."

"저들은 아직 내 동굴에서 자고 있고, 저들의 꿈은 아직도 나의 한밤들을 되새김질한다. **나에게** 귀 기울이는 귀,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귀가 저들의 몸 어디에도 없다."

차라투스트라가 제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한 것은 해가 떠오를 때였는데, 그때 머리 위에서 그의 독수리가 날카롭게 우는 소리가

들려와 그는 의아한 눈으로 높은 곳을 올려다보았다. "좋다!" 그가 위로 외쳤다. "이래야 내 마음에 들고 이래야 내게 마땅하다. 나의 짐승들이 깨어 있다, 내가 깨어 있으니까."

"나의 독수리는 깨어 있고, 나처럼 해를 공경한다. 독수리의 발톱으로 새 빛을 움켜쥔다. 그대들이야말로 나의 참된 짐승들이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내게는 아직 나의 참된 인간들이 없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때, 셀 수 없이 많은 새가 갑자기 그를 에워싸고 떼 지어 퍼덕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토록 많은 날개가 윙윙대는 소리와 그의 머리 둘레로 밀려드는 북새통이 어찌나 컸던지 그는 눈을 감았다. 진실로, 그것은 구름처럼 그를 덮쳐 왔으니, 새로운 적 위로 쏟아지는 화살의 구름 같았다. 그러나 보라, 이번에는 그것이 사랑의 구름이었고, 새로운 벗 위로 쏟아졌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차라투스트라는 놀란 마음으로 생각하며, 동굴 어귀 곁에 놓인 커다란 바위 위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가 두 손으로 제 둘레와 위아래를 휘저으며 다정한 새들을 막아 내던 그때, 보라, 더욱 기이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으니, 그러는 사이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이 빽빽하고 따뜻한 털 뭉치 속을 움켜쥐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앞에서 포효 소리가, 부드럽고 긴 사자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징조가 온다." 차라투스트라가 말했고, 그의 마음이 변했다. 그리고 참으로, 그의 앞이 환해지자 누렇고 힘센 짐승 한 마리가 그의 발치에 엎드려 그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고 있었는데, 사랑에 겨워 그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고 옛 주인을 다시 찾은 개처럼 굴었다. 비둘기들도 사랑을 쏟는 데 사자 못지않게 열심이어서, 비둘기 한 마리가 사자의 코

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사자는 고개를 흔들며 의아해했고, 그러면서 웃었다.

이 모든 일에 차라투스트라는 단 한마디만 했다. "내 아이들이 가까이 왔다, 내 아이들이……" 그러고는 아주 말이 없어졌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풀려 있었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려 그의 손 위로 떨어졌으며, 그는 더는 아무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은 채 이제는 짐승들을 막으려 하지도 않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자 비둘기들은 날아왔다 날아가며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그의 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다정하게 굴고 환호하느라 지칠 줄을 몰랐다. 힘센 사자는 차라투스트라의 손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연신 핥으며 수줍게 포효하고 웅얼거렸다. 이 짐승들은 그렇게 굴었다.

이 모든 일은 오랫동안, 혹은 잠깐 동안 이어졌다. 제대로 말하자면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을 위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사이 차라투스트라의 동굴에서는 더 높은 인간들이 잠에서 깨어나, 차라투스트라를 맞으러 나가 아침 인사를 올리려고 서로 줄을 지어 늘어섰으니, 깨어나 보니 그가 벌써 자기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동굴 문에 이르러 그들의 발소리가 그들보다 앞서 달려 나가자, 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단번에 차라투스트라에게서 몸을 돌려 사납게 포효하며 동굴 쪽으로 달려들었다. 더 높은 인간들은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자 모두 한 입으로 외치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달아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 자신은 얼떨떨하고 낯선 기분으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놀라서 멍하니 서 있다가, 제 마음에 물어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홀로였다. "내가 대체 무엇을 들었는가?" 마침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방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자 곧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한눈에 깨달았다. "그래, 여기 그 바위가 있구나." 그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제 아침 나는 **이**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자가 내게 다가왔고, 방금 들은 그 외침을, 그 커다란 절박한 외침을 나는 여기서 처음 들었다."

"오, 그대 더 높은 인간들이여, 어제 아침 저 늙은 예언자가 내게 예언한 것은 바로 **그대들의** 곤경이었다."

"그대들의 곤경으로 그는 나를 꾀어 들이고 시험하려 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가 내게 말했다. '나는 그대를 그대의 마지막 죄로 꾀어 들이려고 왔다.'"

"나의 마지막 죄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외치고, 제 말에 성이 나서 웃었다. "대체 **무엇이** 나의 마지막 죄로 내게 아껴 남겨져 있었던가?"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한번 제 안으로 깊이 가라앉아, 다시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났다.

"동정! 더 높은 인간에 대한 동정!" 그가 부르짖었고, 그의 얼굴은 청동으로 변했다. "좋다! **그것도**…… 한때였다!"

"나의 괴로움과 나의 동정, 그것이 다 무엇이냐! 내가 **행복**을 구하는가? 나는 나의 **일**을 구한다!"

"좋다! 사자가 왔고, 내 아이들이 가까이 왔고, 차라투스트라는 무르익었고, 나의 때가 이르렀다."

"이것은 **나의** 아침이다, **나의** 낮이 시작된다. 이제 솟아오르라, 솟아오르라, 그대 위대한 정오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제 동굴을 떠났다. 이글거리며 힘차게, 어두운 산들에서 솟아오르는 아침 해처럼.

판권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를 위한,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

원제 · Also sprach Zarathustra. Ein Buch für Alle und Keinen

지은이 ·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Nietzsche, 1844~1900)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저본 · 19세기 원래 철자를 그대로 둔 퍼블릭도메인 독일어 전자 텍스트. 독일어 원전에서 옮겼으며, 영어 번역(토머스 커먼, 1909)은 대조에만 썼다.

분량 · 원문 약 82,600단어 · 서설과 4부 80편 · 원문 3,471문단, 번역 3,471문단 · 옮긴이 주 34개

바로잡은 곳 · 저본 전자 텍스트의 오자. 「일러두기」에 밝혔다.

저작권 · 저자가 1900년에 사망해 대한민국·미국·유럽연합 모두에서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끝났다.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09